



사실 묵묵히 현실을 견뎌나가는 당신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당신의 처진 눈매도, 하품을 할 때 아래위로 길게
늘어뜨리는 입모양도, 언제나 입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어 웃는 느낌이 드는 당신의 얼굴도,
그 모든 게 나에게겐 고통이었어.



2011

03

제 14 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검은 문

제14회 공무원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초판인쇄 | 2011년 8월

초판발행 | 2011년 8월

발행 | 행정안전부

발행처 |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Tel. 2100-4329 / Fax. 2100-4369

펴낸곳 | 에스제이 070-7011-7364

*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11

03

제14회 공무원문예대전수상작품집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예술적 재능을 사회와 함께 나누고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공무원문예대전이 올해로 열 네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공직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문학적 소질을 계발하여 금년도 문예대전에서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땀과 노고의 결실을 엮어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98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공무원 문예대전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글 쓰는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공무원의 삶을 풍요롭게 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희곡 등 7개 분야에 걸쳐 모두 2,326편이 출품되어 문예창작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입상한 작품은 문학적 열정과 재능을 발휘하여 빛어낸 결실로서, 그 하나 하나에 삶의 정취와 진솔함이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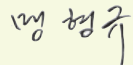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 공직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이러한 공무원의 예술적
재능을 사회와 함께 나누고 있으며, 병영·교도소 등 여러 지역·계층에서 수상
작품을 폭 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학 활동을 통해 다듬어진 풍부한 감성과 창조성이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며, 문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8월

행정안전부장관 



문학에서 행복과 위안 찾기



“...그래서 이 궁핍한 시대에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and what is the use of poets in a poverty-stricken age?)”라고 휠덜린은 시 〈빵과 포도주〉에서 묻는다. 대체 궁핍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생존하는 동안 자신의 소망을 아무리 완벽하게 성취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원한 영혼의 갈증이다. 인간에게 만족과 성취욕이란 꽃처럼 피었다 지고 마는 덧없는 순간뿐이고 그 찰나가 지나면 새로운 욕망의 시지포스의 바위를 산꼭대기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불만으로 만들어진 구성체다. 인간이란 지구 위에서 영원히 궁핍을 느끼는 유일한 존재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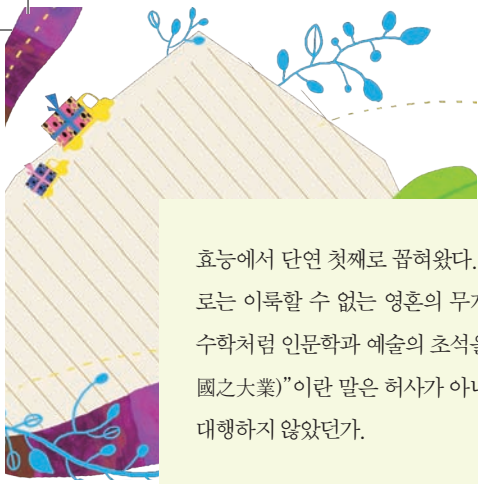
이 초라한 인간, 한 성인의 육신이랬자 그 지방으로는 비누 6장, 철분으로는 7.6cm의 못 1개, 탄소로는 연필 900자루, 인으로는 2000개비의 성냥, 석회로는 닭장을 회칠할만한 존재인 인간. 그런 육체를 보존하고자 70년 생애를 기준하면 대략 50톤의 음식과 49,200리터의 물을 마셔서 27억 번의 심장 박동과 333,000,000회의 눈 깜빡임, 127,500번의 꿈, 3000번의 울음과 540,000번의 웃음, 563km의 머리카락, 손가락 하나마다 3.7m의 손톱이 자라며, 여자는 400개의 난자, 남자는 4천억의 정자를 생산한다는 인간기계.

잠자기 24년, 일 13년, 텔레비전 보기 10년, 사회활동 4년, 음식 먹기 4년, 목욕 1년, 전화 10개월, 화장실 9개월, 섹스 5개월, 기타 여러 일로 일생을 보낸다는 인간의 회로애락.

그래서 파스칼은 영혼을 잃은 인간의 비참함을 이렇게 갈파했다. “아,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공허하며, 더러움에 가득 차 있는 것일까?” “인간이란 도대체 괴물 같은 것이 아닌가? 진기하기 이를 데 없고, 무슨 괴물, 무슨 혼돈, 무슨 모순에 가득 찬 것 등이 무슨 놀라운 일들인가? 모든 것의 심판자이면서도, 어리석은 흙 속의 지렁이에 불과한 것, 진리를 맡은 자이면서도 불확실한 오류의 시궁창, 우주의 영광이면서, 우주의 쓰레기이다.”(《팡세》).

바로 궁핍한 시대의 궁핍한 인간 존재에 대한 해명이 문학이다.

이런 궁핍한 존재를 풍요로운 영혼의 각성자로 탈바꿈해주는 여러 방법 중 문학예술은 그



효능에서 단연 첫째로 꼽혀왔다. 경제적인 풍요나 학식과 지식의 충만, 권력이나 신분의 높낮이로는 이룩할 수 없는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는 바로메타가 문학예술이다. 마치 자연과학에서의 수학처럼 인문학과 예술의 초석을 이루는 게 문학이다. “문학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文章經國之大業)”이란 말은 허사가 아니라서 옛 시절에는 한 편의 시를 짓는 일로 오늘의 각종 고시로 대항하지 않았던가.

글을 쓰는 데는 어떤 조건이나 유불리(有不利)도 없다. 서열의식이 비교적 강한 공직사회에서조차도 문학창작에서만은 평등하여 어떤 전제조건이나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잘 그려주고 있는지가 그 평가의 관건이 될 뿐이다.

문학예술의 가치는 그 첫째가 글을 읽는 상대에게 흥미와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기교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찰과 깊이 파고드는 분석력과 냉철한 비판력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두 번째는 서사구조(敍事構造) 즉 이야기 줄거리를 갖추는 기교를 익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갖출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비결은 단일주제와 단일소재로 잡아서 깊숙이 파고드는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다. 대중대중은 문학에서 절대 금지다.

세 번째로 명심할 사항은 절대로 설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설교는 성직자나 교사들에게 맡기고 문학인은 그저 웃기고 울려서 감동을 주면서 저절로 깨닫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장 자신 있는 주제와 소재, 가장 쓰기 쉬운 글감부터 쓰자. 글을 쓰기 위해 먼 이방지대를 방랑할 필요는 없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처지, 그게 가장 좋은 글감이다. 일기처럼, 편지처럼, 대화처럼, 호소처럼 써나가는 진솔한 글이 가장 감동적이다.

여기 실린 작품들은 2011년도의 공무원문예대전 입선작품들로 우리 시대의 삶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제약 상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다 실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 입상작과 낙선작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 이 기록들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바람직한 국가관과 민족의식의 정립,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세 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는 글쓰기 소재가 가장 넘쳐나는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쓸 것이 많은 데도 글 한편 안 쓴다는 건 자신의 존재를 궁핍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내년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한 편 씩 써내는 풍요를 기대한다.

2011년 8월

심사위원장 임 현 영



- 8 발간사 행정안전부장관
10 축사 심사위원장
491 심사평

시부문

금상

- 19 구제역 풍경집중 _ 김현근 | 남해군청

은상

- 21 귀가 _ 구민숙 | 장항 중앙초등학교
23 이발 _ 김동선 | 경기 안성시청
25 지문 _ 김준호 | 서울지방보훈청
27 못 빼기 _ 이성배 | 부산 금정구 장전1동대

동상

- 29 검은 비닐을 위한 기도 _ 강기석 | 경북 다부초등학교
31 우산이 있는 풍경 _ 김용아 | 인천 인동초등학교
33 선운사에서, 동백 _ 이동암 | 충북 청원 옥산면사무소
35 그녀들의 점심식사 _ 이정숙 | 경남 합천도서관
37 손을 번역하다 _ 전갑성 | 수원 남부경찰서
39 진흙과자 _ 조재형 | 경주 신라중학교
41 다랑이 논 _ 진서윤 | 진주세관



시조부문

금상

45 매물일지 _ 이창규 | 충북도청

은상

47 한 점 水墨畫 같은 _ 이우식 | 전. 강원 평창군청

동상

49 개화 _ 김영두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51 발품 _ 안주봉 | 경북 청도군청

53 천 개의 강 _ 이상윤 | 전. 대구 선원초등학교

55 연애편지 _ 정은숙 | 경남 창원 해운중학교



수필부문

금상

59 생채기 _ 최원훈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은상

65 흔적 _ 임경희 |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

71 새로운 길, 당신과 나의 의자 _ 최경호 | 육군 제37보병사단

동상

- 81 교사라서 행복하다 _ 박금용 | 부산국제고등학교
89 라일락 _ 손달호 | 경주 안강중학교
93 장자의 나비 _ 손병순 | 부산 서구청
97 운조루의 덕목 _ 이은재 | 대전지방법원
105 새끼발가락 _ 정서현 | 경기 평택시청
111 오래된 것의 소중함 _ 홍성호 | 법원도서관



단편소설부문

대상

- 119 검은 문 _ 이재곤 | 영천중앙초등학교

은상

- 143 노랑진 _ 김성민 | 경남 함안군청
171 수몰된 고향 이야기 _ 이상영 | 전. 전북 고창군 성내면사무소

동상

- 195 해뜨는 집 _ 김금남 | 서울가정법원
215 끈 _ 노학진 | 서울구치소
237 연희야, 다시 봄이다 _ 윤정아 | 대전 용산고등학교
263 예감 _ 홍성호 | 법원도서관



동시부문

금상

301 짝꿍냄새 _ 최만호 | 청주교도소

은상

303 얼마나 아팠을까 _ 이정연 | 대구 도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05 손짓 _ 하상만 | 수원 청명고등학교

동상

307 어린이 도서관 _ 오윤정 | 대전 동구 자양동주민센터

309 우리 누나 _ 오정숙 | 전남 화순군보건소

311 마지막 수화 _ 이우식 | 전. 강원 평창군청

313 두 나라를 사랑하는 엄마들 _ 하송 | 전북 완주 용봉초등학교



동화부문

금상

317 부리리의 여행 _ 김연화 | 광주 문산초등학교

은상

335 백제의 미소 _ 오병훈 | 충남 서산시청

동상

345 똑똑한 뽀뽀이의 반성 _ 강경련 | 부산소방본부 동래소방서

355 백조가 사는 낚시터 _ 심진규 | 충북 음성 맹동초등학교

363 은하철도 999 _ 이수남 | 대구 봉덕초등학교

377 할머니의 비밀 _ 최만호 | 청주교도소



희곡부문

금상

389 올챙이 _ 우혜선 | 부산 부전초등학교

은상

421 마법의 시계 _ 정수현 | 울산소방본부

동상

453 레일 위에서 _ 이종수 | 서울소년원

시 부 문



금상

구제역 풍경접중 _ 김현근

은상

귀가 _ 구민숙

이발 _ 김동선

지문 _ 김준호

못 빼기 _ 이성배

동상

검은 비닐을 위한 기도 _ 강기석

우산이 있는 풍경 _ 김용아

선운사에서, 동백 _ 이동암

그녀들의 점심식사 _ 이정숙

손을 번역하다 _ 전갑성

진흙과자 _ 조재형

다람이 논 _ 진서윤



구제역 풍경접종



남해군청
김 현 군

마구간 밖에서는
뉴스가 소들을 기웃거린다
구제역이 송아지처럼 천방지축 뛰고 있다는
소식을 싸들고 예방접종을 나가는 마음이 축축하다
앰프도 속울음을 삭이느라 목이 매는지 짹짹거린다
“에~에 축산농가 여러분! 오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한 축주도 빠짐없이…….”
엄마소 오빠소는 눈만 멀뚱거리고
송아지는 주사기를 피해 천정에 발길질을 하면서 뛰어다닌다
사탕을 물릴까 요구르트를 먹일까
피붙이를 바라보는 엄마소의 눈망울이 그렇그렁 젖고 있다
축사 옆 동백꽃도 붉은 울음 한 팔소매 가득 흠치고 있다.





먼저 부족한 시를 뒤흔치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상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한편으로 기쁨이 한편으로 아픔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작년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으로 물질적·정신적 아픔을 겪은 전국의 축산농가에게 이 시를 바치고 싶습니다. 수상의 영광은 24시간 구제역 방역활동에 종사하면서 발 빠른 예방접종으로 청정 남해를 지켜낸 500여 동료공무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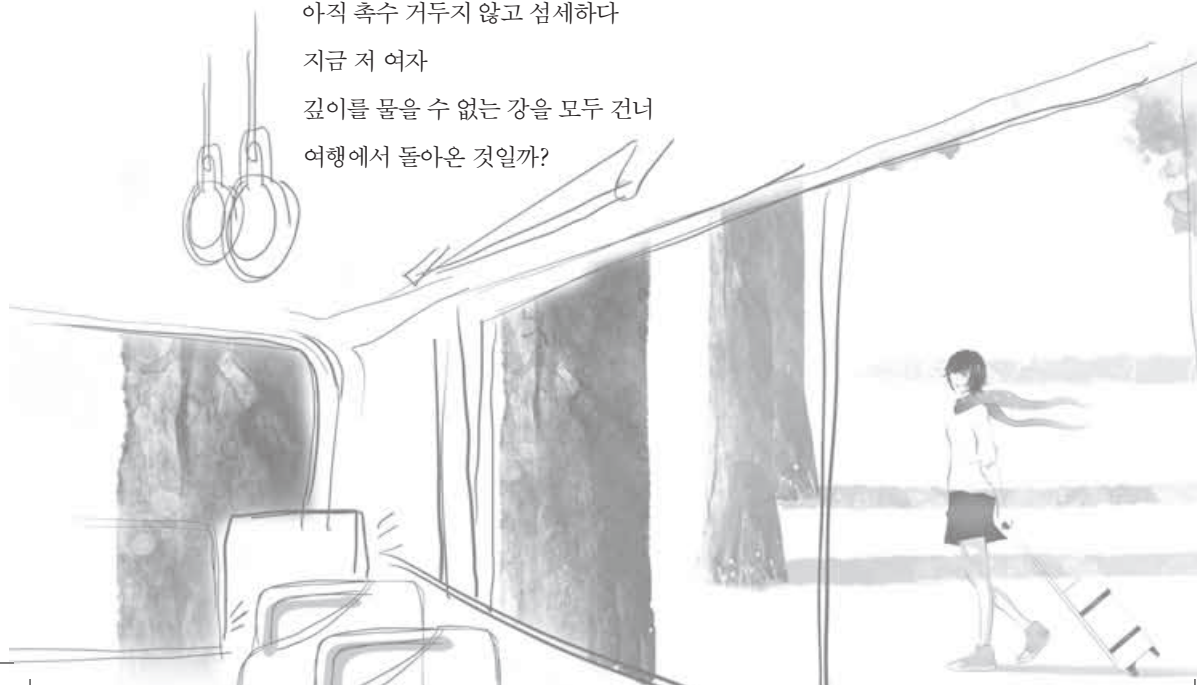
끝으로 자칫 법규에 매여 기계적이 되어가는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의 굳은살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본 공무원문예대전이 일조하고 있다고 자명하면서, 본상 수상을 계기로 제 고유의 업무와 문학과의 융합을 통한 양질의 대민 봉사서비스 생산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수상소감을 여기 내려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귀가

여행에서 돌아 와 낡은 목각의자에 앉는다
온 몸에서 파릇대던 낯선 길 위에서의 섬모들
아직 축수 거두지 않고 섬세하다
어둑한 거실이 전세버스로 달리고
벽에 붙은 대형거울로
지나 온 풍경들이 선명히 스치는데
차창 밖엔 없던 여자 하나
웃지 않는 얼굴로 나를 주목하고 있다
풍경과 함께 흐르지 못하고 웅이처럼 박혀있는 저 여자
갈라지고 굵어진 선들을
둥글게 둥글게 끌어 모아
웅이꽃으로나마 생을 피우려나 보다
웅이의 어둔 꽃잎과 꽃잎사이로
지난 날 여자가 건너 온 강물이 수 만개의 얼굴빛으로 흐르고
강 앞에서, 혹은 강을 건너며
온 몸에 퍼졌을 차갑고 푸른 소름들
아직 축수 거두지 않고 섬세하다
지금 저 여자
깊이를 물을 수 없는 강을 모두 건너
여행에서 돌아온 것일까?



장항 중앙초등학교
구 민 숙





1학년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백사장에 다녀왔다. 백사장을 따라 펼쳐진 6월의 松林 싱그러웠고 모래사장은 부드럽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동그란 햇살을 받으며 모래성을 쌓고 청설모를 쫓는 아이들은 동화처럼 아름답고 수평선은 아득하니 가까웠다.

하늘을 보지 않아도 절로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다. 그들 돛자리를 펴고 솔방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까무룩하니 시절도 넘나들고 싶었다.

참새처럼 짹짹이는 이 아이들이 서로를 향한 부름이, 웃음이 초여름이 또 저녁 설거지와 같은 모든 각각의 일들이 나는 詩라고 믿는다.



안성시청

김 동 선

이발

그 많던 엑기스는 어디로 흘렀을까.

형광 빛에 반사된 이발사의 손가락은 창백하다.

푸석한 머리털의 사내들은, 스포츠신문 한구석을 들춰 음경 확대 광고문을 찬찬히 훑어가며 차례를 기다린다.

사각사각 푸르스름한 권태의 꼬트머리가 잘려, 수북이 쌓인다.

피곤한 사내가 슬그머니 잠속으로 도망칠 때마다 이발사는, 손가락을 동그랗게 말아 올려 터럭 속에 숨어 있는 새치를 골라냈다.

욕구불만으로 비대해진 목덜미에 장미꽃 문양의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발사는 의자를 뒤로 젖혀 발기부전으로 움츠러든 사내의 일상을 내려놓고 하얀 거품을 풀어 따끈한 물수건으로 사나운 꿈자리를 데웠다.

날카로운 면도날의 기울기를 조절할 때마다 이발사의 입 꼬리가 올라갔다.

문득 최면에 걸린 사내가 섬뜩한 전율에 목을 내어 놓은 채 잠속으로 빠져든다.

전생의 궤적을 따라 푹푹한 청춘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한번 꽃히면 그 자리에, 한순간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무와 풀들의 식물성이 좋다. 초록의 고요가 좋다. 크게 울지 않는 의연함과, 속에서 삭는 슬픈 감촉이 좋다. 아프다고 외치지 않는다. 혼자서 조용히 시들시들 말라가는, 미지근한 온기가 좋다. 비틀거릴지언정 후려치지 않음으로써, 높은 음역의 소리를 잃었다 해도, 천천히 맛닥트리는 임종의 순간이 견딜만하게 아름답다. 깃발을 내걸고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쳐 싸우지 않는다. 패배의 순간에도 천천히 초록을 풀어, 꼼꼼하게 가슴에 새기는 식물의 방식으로 축하받고 싶다. 다만 축하의 말을 전해줄 사람들이 마땅치 않다. 풀처럼, 나무처럼 완고하게, 시간의 강을 건널 뿐…….

지문



서울지방보훈청

김 준 호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을게다
날 선 바늘 하나
손가락 끝에서 밀어 넣어
내 몸 안에 유영하듯
깊숙이 박혀 있는
이미 오래전 생채기는 아물었지만
끝끝내 없애지 못한 지나온 것들이 있을게다

다운타운 네온사인이 하늘 하늘거리며
이 지루한 혹성을 온통 보라색 하늘로 만들 때 쯤
갑자기
화석처럼 희미해진 바늘 출구를 찾고 싶다
그리고
내 덜컹거리는 손가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난 이제야 알아챈다

고생대의 삼엽충
백악기의 암모나이트

여전히 내 열 손가락 끝에서 화석처럼 돌고 있는
지난 추억들은
멸종을 거부하며 흔적으로 나에게 재생을 부탁한다

이 지루하고 지루하고 지루한 혹성에서
같이 로켓을 쏘아 올리자며
달콤한 막대사탕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다





시골 집 앞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다. 늦가을 무렵이면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낙엽들을 갈퀴로 모으곤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살아가면서 어른이 될 무렵, 어른스럽지 못한 생각들을 후두두 낙엽처럼 떨어뜨리고 '다시는 글을 쓰지 않을 거야'라는 아귀를 기념하기 위해 갈퀴처럼 메모지 안에 굵어모았던 습작들이 입상 소식을 전해주었다. 바쁜 현실에 쫓겨 꿈꾸듯 헤엄치는 마음의 위락을 포기하려 했을 때 그래도 꿈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게 더 좋은 것임을 일깨워 준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해준 내가 사랑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털어낸 축하의 인사를 정성스레 굵어모아 모닥불을 피워 놓고 축배를 들고 싶은 날이다.



부산금정구 장전1동대

이 성 배

못빼기

벽에 박힌 못을 빼는 것이 쉬운 일 아니다
가슴 깊이 박힌 아픔이었을 텐데
벽은 단단히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
‘꿈’ 하고 몇 번 힘을 주고서야
간신히 빠지는 못
붉은 피 철철 흐르는 온몸에 피어있는
하얀 시멘트 꽃송이
벽은 아픔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젖을 물리고 있었나보다
그 젖 먹어 살 오르고 피 돌아
꽃 핀 못 들고서야
상처가 무엇인지 알겠다
벽에 옷 걸듯 사람도 마음에 거는 것인데
그 사람 빠져나가고 남은 못
후벼 팔수록 아픔의 수렁 커지고
빼낼수록 허무의 구멍 깊어지는데
포근하게 안아주지도
따뜻한 젖 한 번 물리지 못하고
살이 되지 못한 상처만 안고 살았다





삶은 자국이다.

걸어온 발자국과 상처의 자국이 모여 인생이 만들어진다. 평생 공무원으로 산 발자국과 그 발자국 마디마디에 생긴 상처 자국이 이제는 뺄 수도 파낼 수도 없는 깊고 깊은 흉터가 되었다.

만족과 보람보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더 많지만 이제 그 자국 자국마다 다시, 시(詩)의 자국을 남긴다. 삶의 자국들이 시(詩)의 이름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길 소망하며.

검은 비닐을 위한 기도



경북 다부초등학교

강 기 석

시뻘건 유조선이 아라비아의 전설에 잠 못 드는 밤
너의 거대한 침묵은 바다를 건넜지
낮선 정유공장의 어지러운 미로를 헤맬 때에는
초승달의 향기로운 웃음에 홀려
바람에서 태어난 검은 존재를 알지 못했지

비가 멈춘 오후
농부의 파란 트럭에 실려, 너의 운명이
차가운 발이랑을 감싸고 번개에 몸을 떠는 사이
나는 보았지, 소란스럽게 쫓은 피고 붉은 열매 하늘을 난무했다
이제 바람은 거칠어지고 팽팽하던 피부에서 비린내 돌아
거만했던 번들거림마저 철새의 날개 짓에 찢어져 흐트러지고
넙마는 떠나야하는 줄 알면서 하얀 눈을 붙잡고
비정한 세월을 버텼건만
봄은 유효기간이 지난 이방인을 견딜 만큼 단단하지 못했지

너는 바람의 아들
강을 건너고 산을 넘다가 드디어
관객 없는 골목에서 온 종일 말광대를 한다
그러다가 문득, 노란 개나리 꽃 숲에 황망히 숨는 자격지심
하나, 둘, 그리고
작은 창문이 닫히고
농부의 신음소리 달을 밀어 올리면



너의 옷자락은 전봇대에 기대어 아라비아의 피리소리를 낸다

너는 바람에 몸을 파는 검은 왕벌
오늘밤 나의 화려한 침소에 초대하리니
내 허무를 너의 자궁 깊이 가두어
너의 마지막 비행을 장식해다오.



현존재는 끊임없이 부정된다. 지금 여기는 언제나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유한한 삶의 불안을 구제하기 위해 현실 밖으로 탈주해야한다. 탈현실의 욕망은, 그러나 충족될 수 없다. 그래서 도리어 절망이 아니다. 결핍이야말로 유일한 삶의 의지이다.

나는 시를 쓴다. 시를 통해 결핍을 만든다. 사물과 현상에 숨어있는 생명의 암호를 해독하여 결핍을 재구성한다. 그것이 존재에 대한 내 방식의 긍정이며 신앙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보잘 것 없는 봉사이기도 하다.

임상 소식이 시를 쓴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내 시가 아직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기뻐다. 더 많은 결핍을 만들어 존재를 구원하라는 채찍으로 여겼다. 그러면서도 어쩐지 좀 부끄럽다.

봄바람에 골목을 날아다니는 검은 비닐을 보고 고향을 잃은 현대인의 허무한 삶을 발견했다. 그를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도 또한 허무했다. 허무와 허무가 만나는 찰나의 희열, 그것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일상에서 소멸해버린 신화적 미메시스의 부활이 그리웠다.

아내는 그림을 그린다. 아들은 사진을 찍는다. 그림과 사진이 시를 쓰도록 했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우산이 있는 풍경



인천 인동초등학교

김 용 아

평소엔
술 취한 남편 바지자락처럼
미안해하며
구겨져 있거나
뽀로통한 아내 입 매무새처럼
토라진 채 여머져 있다가

비만 오면
일에 취해 실룩대는
그의 장딴지 힘살처럼
불끈,
피가 도는 우산살.
감자 꽃 닮은 아내 얼굴같이
화알짝
웃어제끼는 우산깃.

그
팽팽한 삶의 등줄기 타고
툭, 툭.
튀며 흘러내리는
땀방울 같은
사랑.

신산스런 나날의 먹장구름
목울대에 엉겨 붙고
닿고 닿은
신발 밑창 사이
충혈된 빗물 스며들어

입술처럼
두 어깨 포개어 있는
빗 속 우산아래는
세상 다
피 담고도 남을



태곳적
궁창이 흐르고



느낌표처럼
떠르륵,
굴러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 속에
오롯이 담겨있는
지구 반 바퀴 너머
만년설 한 조각
땅 아래 어느 땃속으로 흘러들어
어느 시대 이슬로
다시 태어날까.

야위어가는 도시에
비.
내리면
후줄근해진 하늘 향해
와락,
두 팔 벌리는 우산의
그 뜨거운 포옹에
그렇그렇
북받쳐올라 뒤편거리는
내 고향 선산의
가파른 능선.



약 한달 전 개나리 가지들이 낭창낭창 가는 허리를 흔들거리던 4월 중순,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황망히 길을 떠났습니다. 입상소식을 들은 날은 사랑하는 막내 오빠의 발인 다음날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연꽃빛 이파리들이 너무 고와서 즐겨보며 다녔던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입술이 부르토고 마디마디 아프지 않은 삭신이 없는데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을 보면 아마도 눈동자가 가장 힘들었나봅니다. 힘들 때 지칠 때 뭉텅뭉텅 쏟아 내듯 써왔던 시들이 이전 날 위로합니다. 밤이 되고 뜨끈한 국물이 되어 눈물을 닦아줍니다. 친구와 오빠가 가만가만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리움과 슬픔을 반으로 접어 종이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의 수면 위에 배를 띄우고 다시 두박두박 세상 속으로 걸어가야겠습니다.

부족한 줄시를 뽑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뽕족한 감정들 모두 다 감싸안아준 남편과 두 아들 성휘, 성연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누군가의 마음 밭에 조용히 내려앉는 풀씨같은 시를 쓰고 싶습니다.



선운사에서, 동백



청원군 옥산면사무소
이 동 암

주머니 속의 길들을 모조리 꺼내 놓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마 같은 산 밑에 서서 완강한 달빛들을 세어봅니다
고집 센 겨울나무들이 어째서 이렇게 온순한 등불들을 숨기고 있었는지
알 듯도 합니다

이곳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를 잔뜩 돌운 앙상한 나무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 거친 뿌리로 움켜쥔 은밀한 계절들에 대해 물어봅니다
움켜쥔 것은 반드시 놓치고야 마는

내 못된 버릇에 대해 물어봅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켜버린 아이처럼 벌개진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이제 신발을 가지런히 모아둡니다
시들기 전에 모가지를 떨구는 저 맹목적인 자기살해의 숙명을, 힘주어
속삭여봅니다.





시를 쓸 때 먼 언제나 선운사에 활짝 핀 동백을 생각하곤 합니다. 많은 시인들이 그 꽃의 피고짐을 노래했습니다. 그곳의 동백은 보는 이를 쥐고 흔드는 무슨 마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 부족한 언어로 그 거대한 마력을 다 읊어내기란 아직도 요원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미련한 이미지들을 좋게 봐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는 아내와 항상 아빠를 보고 웃어주는 하람이에게, 동백이 가져다 준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경남 합천도서관

이 정 숙

그녀들의 점심식사

찬바람에 고개 숙인 붉은 손가락들이
비로소 안부를 묻는
늦은 오후
그녀들의 점심식사

비릿한 삶이 하나둘 발라지고
젓가락으로 침묵을 감아 먹는 시간
계절도 없이 소리치고 웃고 우는
한때는 선이 어여뻐던
끓은 목을 축이는 시간

길 위에 나부끼는 한모금의 여유
등 마른 고등어 위에 얹전히 앉고
더러는 말간 콧물을
소주처럼 운명처럼 들이키며
그녀들은 얼마나 많은 발등을 보았나.
얼마냐고 웃으며 묻는 발등에
언제라도 웃으며 답하는 그녀들의 시간.





제가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갓 고등학생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창밖으로 내민 제 손바닥 위로 교정에 피어 날리던 벚꽃잎 하나가 춤추듯 가만히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영혼이 그 작은 꽃잎에 기대어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손바닥이 아니라, 제 영혼의 여린 불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느낌은 뭐라고 한마디 말로는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저히 가만있지 못할 만큼 시를 쓰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늘 그 꽃잎을 생각했습니다. 저의 미미한 재주로 인해 훌륭한 시는 못되더라도, 적어도 단 한사람의 가슴이라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시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그 마음을 다짐으로 되새겨 봅니다.

끝으로 때때로 심각하게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던 지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글에 이렇게 귀한 상으로 웃을 입혀 주신 심사위원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전 갑 성

손을 번역하다

생의 지도를 촘촘히 읽는다
펼치면 출렁이는 바다
접으면 섬이 되는 조막만한 집
굽이굽이 삶을 풀어놓고 살았나보다
옹이 박힌 마디에서
등글게 닳은 문지방이 펄럭인다
먼 길도 때로는 가까이 보이듯
맷고 짠 세월의 금 간 뒀안길이
흰히 들어 다 보인다
틈은 아픔과 기쁨이 함께 숨 쉬는 목구멍
노랫가락으로 휘어지다가
흐릿한 신음소리로 몽그러진
수 천 갈래 굵고 여린 저 흔적들
곁에 살면서도 늘 부딪치기만 하고
따스한 사이가 되지 못한
좌우측 우리들
취었다 놓치는 것을 되풀이하면서도
고작, 아침저녁
도 닦는 흉내만 내었을 뿐
계속 웅그러 쥐기만 하면서 살았다
뒤집으면 바닥, 담은 그릇인 것을.





소중한 육체. 그중에서도 손이야 말로 우리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을 만드는데 1등공신이다.
그 옛날 어머니는 아픈 배도 살살 어루만져 달래주는 만병통치약 이었다. 손은 세월의 흔적
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보물이 아닐 수 없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형상화 시켰다 어설픈
졸작에 힘을 실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진흙과자



경주 신라중학교

조 재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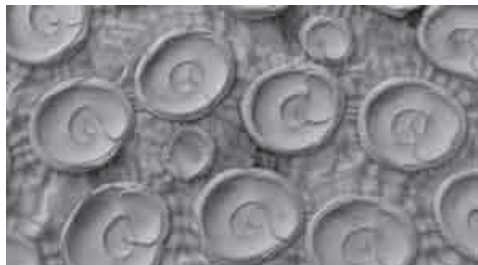
추운 겨울날 아침 신문¹⁾에 실린
 무너진 건물 잔해에 피투성이로 묻힌
 한 여인의 초점 없는 눈빛이
 가슴에 박혀 내내 마음을 찢른다

고작 하루 2달러로 이어간다는 삶
 신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가난한 그들, 수십만 수백만의 영혼을
 한순간의 재앙으로 덮쳐버린 것일까

진흙에 물과 소금, 마가린을 섞어
 말려서 만든다는 진흙과자
 소화가 안 돼 항상 배가 부르다는
 50원짜리 진흙과자를 먹는 아이티아이들은
 어디에서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을까를
 생각하면은

잘 익은 토스트 한 조각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이 투명한 겨울 아침을 나는
 행복에 겨워 울어야 하는지

눈물도 말라 버린 창백한 허공을
 무슨 수로 닦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지 않은가.



1) 서인도제도에 있는 나라 아이티(haiti)에서 2010년 1월 13일 지진이 일어남.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직면한 이방인의 절망적인 눈동자가 한 송이 꽃처럼 보인다면 지나친 역설이 되겠다. 실제로 곱게 핀 꽃 한 송이는 밝고 따스한 에너지가 되어 생동의 기쁨을 주지만, 삶에 늘 행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이렇게 절망의 꽃도 보고 사는 것이다. 낯선 이방인에 대한 연민의 정이 연민에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승화된다면, 그도 나도 아니 우리 모두가 꽃이 될 수 있으리라.

아울러 변변찮은 작품을 시로 읽히게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랑이 논

빈 눈에 인근의 꽃무늬가 뚱뚱 뜬다
이 한철 水位에 뜬 바람의 파문
바닥을 지나간 구불구불한 문장엔
파종이라는 해석이 붙어있다

물이 흐르는 계절 푸른 계단이 생기고
산이 듣고 버린 소리들이 논둑에 모여
가라앉은 바람에 뿌리가 돋는 철
논 고동 지나간 길을 걸어 오빠가 商高에 갔다

지나간 시간엔 단역의 얼굴들이 있다
첫새벽 험거운 장화, 절벽거리는 소리
넘어진 질곡들이 이제 편안한 표정이다
위워, 늘 힘센 시간을 따라가던 아버지
긴 발의 고랑이 지금,
아버지의 마른 얼굴에서 파종을 기다린다

봄이 없었으면 아버지도 없었을 것
무뚝뚝한 지휘로
온갖 곡물의 꽃들을 피워내던 솜씨

오늘도 모서리가 조금 닳고
위워, 끌려가는 날들
그 겹겹의 기억마다 따뜻한 논물이 채워진다.



진주세관
진 서 윤





시의 뒤편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부터 차라리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는 언제나 열정을 요구합니다.

어쩌다 잠깐 눈길을 딴 곳에 돌아치면 너무나 매정하게 돌아서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져 가끔은 슬픔의 밑바닥에 엎드리기도 하지만 시 속에 있는 동안 위로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에 사유를 몰고 올 수 있는 진정성의 시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조
부
문



금상

매물일지 _ 이창규

은상

한 점 水墨畫 같은 _ 이우식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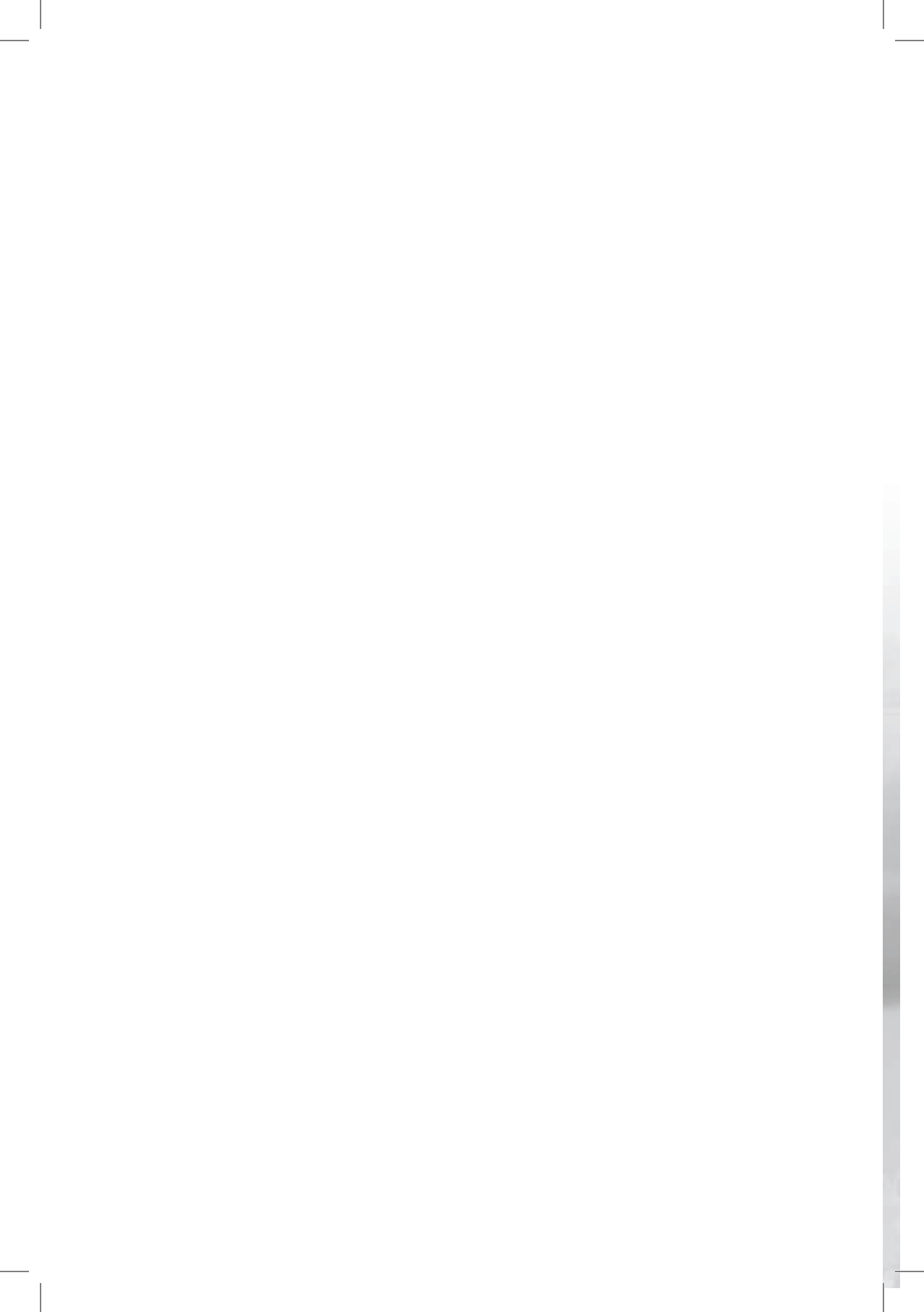
개화 _ 김영두

밭품 _ 안주봉

천 개의 강 _ 이상윤

연애편지 _ 정은숙







충북도청
이 창 규

매물일지

생살을 도려낸들 저리 아픈 소릴 낼까
산처럼 돌아서서 속울음 꺾꺾 담아내다
폭설에 갇힌 들녘을
수결하는 목선 달

두 갈래 발굽으로 한 생을 버틴 짓궂일까
흰가루 뿌연 길목 순장하는 행렬을 따라
살처분 매물일지에 갇힌 찌는 눈동자들

뚝, 뚝, 새강을 끊고 흘러가는 얼음장 밑
영각 소리 외로 서서 회향 길 열어나
다비식 비릿한 놀빔
소지 한 장 감긴다.



축혼제 올리는 마음으로 길을 열어봅니다.

제14회 공무원문예대전을 준비하고 완성하기까지 애쓰신 관계관 여러분과 영광스러운 자리에
줄시 '매물일지'를 올려주신 박시교 시인님과 홍성란 시인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분에 넘치는 오늘의 영광은 겨레시, 민족시인 시조문학 발전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뼈를 깎아 붓을 삼는 각고의 노력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운문의 시대를 지키는 간절한 소망으로!



전. 강원 평창군청
이 우 식

한 점 水墨畫 같은

말 없는 포장마차에 식구들을 태우고
초로의 한 사내가 거친 별판을 달린다
눈발이 점점 매서운 오르막 어디쯤일까

고향의 밀밭 언덕 아지랑이 아른대면
갓 캔 黑曜石처럼 반짝이는 뺨들마다
사나운 칼바람 뚫고 피어나는 국화송이

온몸으로 쌓아 올린 '괴사의 사담' 너머
갈라 터진 손끝으로 봉투를 접는 여인
안개꽃 하얀 입김이 여백을 메우고 있다.





즐락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自作 漢詩 한 수로 수상 소감을 대신합니다.

舊朋來訪(구봉래방)

庭前日暖綠風和(정전일난녹풍화)

燕蝶雙飛起細波(연접쌍비기세파)

夕暮來遊菴竹友(석모래유충죽우)

荊妻裁斷濾醞羅(형처재단여농라)

옛 친구의 내방

뜰 앞의 햇볕 따스고 녹풍 부드러운데

제비나비 두 마리 잔물결을 일으킨다

해질 무렵 고향 친구 놀러온다니

아내는 된술 거를 형곶을 재단하네. <이우식 作詩>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김 영 두

개화(開花)

그림벗 들고 온 사월의 봄햇살이
아지랑이 밑그림에 물감을 칠하다가
살구꽃 가지 위에다
한꺼번에 쏟은 분홍.

그 색감 살아나서 하늘을 태우는데
질고운 마음자락엔 점점이 붙는 불꽃
그리움 활활 타오른
시인의 영혼인가.

어쩌면 그것은 내안의 작은 기도
봄 오는 골목을 밝음으로 여는 염원
오늘은 나무로 서서
봄을 맞이합니다.





부족한 저의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집안은 대대로 문예에 대한 관심과 재질이 있었습니다 조부께서는 한시에 조예가 깊으셨고 저의 부친과 삼촌은 두 분 다 신춘문예를 통과한 쟁쟁한 시인이십니다.

어깨너머로 시를 공부하였고 저도 관심과 매력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특히 3장, 6구, 12음보의 정형의 자수율 속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노래하는 시조에 대하여 한번 써 보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뽑아주신 분들과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봄언덕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개화의 마음같이 저도 제 작품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발품



경북 청도군청
안 주 봉

면도날로 파고드는 찬바람을 달래가며
또 하루를 봉대 감아 피가 묻은 점박이 김씨,
두 식구 뗏거리도 안 될 폐지 속에 끌려간다.

짓밟고 뭉개어서 내다 버린 잡동사니
날마다 다시 펴고 펴진 것은 구기지만
삶이란 이름의 노역, 끝내 놓지 못하고.

‘내 언제 한눈 한 번 팔아본 적 있었던가’
발품에 목숨 걸고 절룩이는 어깨 너머
저녁놀 붉게 물들어 절망마저 마냥 곱다.





제가 살고 있는 청도는 이호우, 이영도 오누이 시조시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두 분 시조시인의 작품세계와 투철한 시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오누이 시조문학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오누이 문학제를 운영해 오셨고 민족시 시조의 부흥을 위해 지금도 애쓰시는 청도출신 시조시인이 계시니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시조문학제 개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분의 열정적인 시조사랑에 감동을 받아 시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빨리 과분한 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이 상은 제게는 무척 영광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를 매섭게 후려치는 회초리가 될 것입니다.

시조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리면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문학의 길은 결코 낭만의 끝에 놓인 꽃가지가 아닙니다.

수신이며 구도에 다름이 아닙니다.”

천 개의 강



전. 대구 선원초등학교

이 상 윤

강물이 천 개이면 물소리도 천 개련만
그 강물 모두 와도 소리는 하나이네.
나의 시 나의 사랑도 저 강물처럼 흐르리.

천개의 단풍잎은 천개의 빛 가졌건만
그 잎들 다 모아도 붉은 빛은 하나이네.
나 또한 가을이 와도 한 빛으로 익으리.

달면 삼키고 쓰면 탁탁 뱉는 세상,
낮은 길 험한 자리 독야청청 아니라도
바다로 가는 마음엔 그림자도 썰으리.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다짐을 노래한 작품.



마감일을 앞두고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마음을 정하고 작품을 보냈다.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외에는 시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여태 시조라고 써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발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입상이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비록 끝 등이지만, 생전 처음 써 본 작품이 입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이 일을 계기로 시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작품도 한 번 써 보고 싶다.



창원 해운중학교
정 은 숙



별매편지

시간과 시간 사이 켜켜이 쌓인 그늘
보고 싶다 말해도 전할 수 없는 노래
언제쯤 돌아볼까요 가지런한 망설임을

당신은 내 눈 속에 언제부터 계셨는지
단아둔 그리움이 때를 쓰며 눕는 밤
한사코 썼다 지우는 당신에게 가는 길.





언젠가부터 짧은 글 안에 담긴 긴 침묵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과 똑같이, 하기 싫은 말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말과 글이 부리는 사람 자신에게는 살아 있는 기쁨을 느끼게 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곱고 귀한 말과 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뽕히게 되어서 몹시 기쁩니다. 두고두고 기쁨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수필 부문



금상

생채기 _ 최원훈

은상

흔적 _ 임경희

새로운 길, 당신과 나의 의자 _ 최경호

동상

교사라서 행복하다 _ 박금용

라일락 _ 손달호

장자의 나비 _ 손병순

운조루의 덕목 _ 이은재

새끼발가락 _ 정서현

오래된 것의 소중함 _ 홍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최 원 훈

생채기

소년이 징계이송을 떠나던 날, 나는 수정을 채우기 위해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소년의 손목을 잡았다. 순간, 나는 소년의 혈관을 수직으로 가르며 손목에 난 생채기를 보았다. 불 꺼진 거울상가의 비상계단에서, 소년의 유년처럼 깨진 소주병은 소년의 심장에서 나온 어린 날의 생채기를 서럽게 찢었으리라.

- 본문 중에서 -



생채기

생활관 앞뜰의 목련이 지고 있다.

앞이 나기도 전에 꽃을 피운 후 쓸쓸히 진 목련은, 하얀 포대기에 싸여 어느 가정집 문 앞에 버려진 아기처럼 애처롭다.

청사로 가는 길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는 개나리와 붉은 원피스를 입은 숙녀처럼 새침하게 피어있는 영산홍 때문에, 화단에 떨어진 목련이 한층 서러워 보인다. 소년원학교 앞뜰마다 목련나무가 서있는 건 우연일까?

봄날의 상념에 젖어 있는 내 눈앞에 낮익은 호송차 한 대가 멈춰 선다. 노란색 체육복에 슬리퍼를 신고, 손목에 수정을 차고 있는 소년들이 호송차에서 내린다. 까까머리에 노란체육복을 입은 소년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흡사 병아리들이 봄나들이를 가는 것 같다.

아마 이들에게도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던 시절이 있었으리라. 햇빛에 반짝이는 소년들의 수정마저 아름다운 봄날, 노란체육복 소년들 중 유난히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걸어가는 소년 한 명이 눈에 띈다. 작년 이맘 때,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퇴원했던 제자였다. 생활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자 소년은 말없이 머리를 숙인다.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소년의 머리 위로 목련이 날린다.

동해안의 바닷가 마을에서 오징어 배를 타며 소년과 단 둘이 살아가던 아버지는, 5년 전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주위 친척들이 소년을

돌봐줬지만 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처음에는 호기심에 집을 털었고, 그 후로는 죄책감 없이 동네 분식집을 털게 됐다.

소년이 다니던 중학교 교실의 맨 뒷자리는 계절이 바뀌어도 비어있었고, 그 세월동안 소년은 경찰서와 분류심사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다 마침내 법정에서 서게 됐다. 법정의 구석진 자리에선 소년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갔던 소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부모의 부재(不在)는 소년의 가슴 속에 작은 생채기로 남는다. 소년은 한 동안 생채기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지만, 감성이 가장 풍부하고 예민해지는 나이가 되면 가슴속에 나있던 생채기가 소년을 채근한다.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그리움이라는 약은 더 이상 듣지 않으니 세상과 부딪쳐서 큰 상처가 되고 싶다고 소년을 재촉한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선 세월이 필요하지만, 소년은 하루 빨리 어른이 되려한다. 어른이 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오토바이에 몸을 실어 목적지 없는 길을 끝없이 달린다. 교복을 벗어 던진 소년은 집을 나와 친구들이 모이는 다리 밑으로 간다. 다리 밑 그들만의 공간은 햇살이 닿지 않아 그들이 지고 축축한 곳이지만, 그들에겐 어떤 밝은 장소보다도 아늑한 공간이 된다. 방과 후, 학교 앞 골목길을 지나는 한 학생 앞에 다리 밑 소년들이 길을 막고 선다. 소년들은 능숙한 솜씨로 학생을 협박하여 돈과 가방을 빼앗은 후 자신들만의 열쇠로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자리를 뜬다.

귀금속상가의 불이 꺼진 시간, 손에 돌멩이를 쥔 소년들이 출입문을 단번에 부순 후 보안업체의 벨소리가 끝나기 전에 주머니 속에 반지와 목걸이를 쑤셔 넣고 어둠속으로 사라진다.

이즈음의 골목길에는 갈지자걸음을 걷는 취객이 있기 마련이어서, 이 취객은 잠시 동안 소년들의 부축을 받은 후 차가운 길바닥에 편히 누워

있게 된다. 다리 밑 소년들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의 한적한 소도시에도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그들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소년들의 손목을 잡고 가슴속 생채기가 아픈 숨을 쉬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주머니 속을 뒤져 법(法)의 저울에 비행(非行)을 매다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소년원학교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진 나는 아이들의 아픔과 비행(非行)으로 엮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부족한 열정과 자질은 때로 실타래를 더 얹히고 할 뿐이었다.

몇 해 전, 언제나 내 곁에 계실 거라고 믿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가득 담아 숟가락을 올려드렸다. 아버지의 밥그릇은 어린 시절의 내 밥그릇만큼이나 작아보였고, 나는 어느새 그 시절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에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삼남매의 저녁밥을 뜨기 전, 아버지의 늦그릇에 따뜻한 밥을 가득 담으신 후 아랫목에 묻어 두셨다. 나는 아버지의 밥이 식을까 걱정되어 밥그릇을 가슴에 품은 채 잠이 들었고, 내 이마를 덮어주시던 아버지의 서늘한 손길에 꿈에서 깨어나곤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상은 변한 것이 없었다.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내 가슴속에 작은 생채기가 하나 생겼다는 것이다. 그 생채기는 때로 내 호흡을 한 없이 느리게 만들었다. 나는 숨이 가빠왔고, 목덜미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그 때마다 늦그릇을 가슴에 품고 잠든 나를 이불로 감싸주시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부재(不在)는 추억을 낳는다. 아버지의 부재는 나를 어린 시절로 이끌어주었다. 그 곳엔 언제나 아버지가 있었고, 가족의 따뜻함이 있었다.

일 년 만에 다시 만난 소년은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냉소를 얼굴

에 머금고 있었다. 나는 소년의 뇌리에 숨어있을 소중했던 추억을 떠올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자기소외의 유년을 보낸 소년의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나는 17번째 생일에 소년이 일기장에 쓴 글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나는 이제 법이 싫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은 울분과 불신의 바늘로 마음속의 생채기를 한 땀 한 땀 꿰매고 있었다. 결국 첫눈이 내리던 날, 소년은 학생식당에서 식판을 던졌고 스스로 음습한 다리 밑으로 들어가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했다.

소년이 징계이송을 떠나던 날, 나는 수정을 채우기 위해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소년의 손목을 잡았다. 순간, 나는 소년의 혈관을 수직으로 가르며 손목에 난 생채기를 보았다. 불 꺼진 겨울상가의 비상계단에서, 소년의 유년처럼 깨진 소주병은 소년의 심장에서 나온 어린 날의 생채기를 서럽게 찢었으리라.

나는 그 생채기를 애써 외면하며 수정의 한 쪽 끝을 소년의 손목에 걸쳤고, 법이라는 차가운 금속이 내는 소리를 들었다.

호송차에 올라탄 소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나는 추운 줄을 몰랐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어 무엇인가를 찾으려 했다. 숨이 가빠왔다. 나는 내 목을 따듯하게 감싸고 있는 목도리가 싫어졌다. 나는 목도리를 풀어 헤치며 호송차에 올라탔고, 소년의 손목에 난 지난한 삶의 생채기를 목도리로 감싸주었다. 저녁노을이 소년의 얼굴을 평화롭게 비춰주었다. 아마 소년은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나 또한 소년과 같은 꿈을 꾸고 있

었으리라.

파도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얀 모래톱 위의 작은 성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바위틈에 숨어 있는 조그만 돌게들을 잡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돌게도, 아이들의 얼굴도, 바다도, 노을빛으로 물들고 나서야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알았다. 아이들은 태양이 지고 있는 서쪽 방과제를 향해 달려갔다. 태양은 금세라도 손에 잡힐 듯 했고, 아이들은, 석양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언젠가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알로샤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야. 가족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의 추억을 언제까지나 기억해야 해.”

소년원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타의에 의해 소중한 유년시절의 한 조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찾아 주는 것이 소년원교육의 목표라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돌봐주시고 교육하시는 소년원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 이 상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손목을 잡아주시고, 아픈 생채기를 따뜻하게 감싸안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

임 경 희

흔적

내게도 세월의 흔적이 있다. 고단한 여자에게는 차마 다 들려줄 수 없
었던 남겨진 사연이다. 신산하고 굴곡진 삶을 감당해낼 수 없었던지 어느 날
문득 나는 암환자가 되고 말았다. 몇 차례의 암 수술을 받으면서 생긴 수술자
국은 신체 곳곳에 상흔을 남겼다. -본문 중에서-



흔 적

푸르스름한 여명 속이다.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컨테이너 벨트 위에 발을 올려놓듯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삶은 꼭짓점을 잘 맞춘 도형 같은 것일지 모른다. 꼭 들어맞는 도형처럼 살아가다가 문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서리에 부딪혀 깨지거나 다칠 때가 있다. 그럴 때 찾아가는 곳이 경주다. 경주로의 회귀는 상처 입은 영혼을 위무하는 짧은 쉽표이다.

거리마다 하얗고 분홍 물결이 넘실댄다. 신라 여인의 소박한 이름 같은 부용꽃은 경주의 따뜻한 환영인사다. 풀기가 사각거리는 하얀 시트에서 숙면을 하고, 경주시티투어 버스에 승차했다. 마지막 순회 장소였던 지 출입구 쪽의 한 좌석만 남아있다. 삼십대 후반으로 보이는 외국인 여자 옆이다. 탈색되고 윤기 없는 금발이 부스스하다. 여자는 책갈피에 끼어 놓았던 메마른 꽃잎 같다. 마음이 불편하여 시선을 창밖으로 던진다. 안내원은 옆자리 앉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란다. 여자는 건조한 목소리로 영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묻는다. 타인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모른다고 대답한다.

참 이상한 일이다. 어느 순간부터 여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시티투어 오전의 일정 내내 여자는 문화해설사를 둘러싼 관광객 무리로부

터 멀찍이 떨어져있다. 다보탑 앞에 선 여자는 몸만 와있고 정신은 어디론가 멀리 가버린 것 같다. 등에 매달린 배낭이 천근만근 무거워 보인다. 왜 혼자서 이 먼 나라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

“저 다보탑, 여자 같지? 저 석가탑, 남자 같지?”

나의 엉뚱한 영어를 알아듣거나 한 것인지 여자가 설핏 웃는다. 더 친절하고 탐미적으로 표현하지 못함을 후회한다. 백제의 석공 아사달을 찾아 서라벌까지 왔던 아사녀가 남편을 만나지도 못한 채 연못에 몸을 던진 슬픈 전설과 무영탑에 대해서도 말해주어야 했었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불국사 대웅전의 앞뜰 동서쪽에 마주보고 서있다. 풍화와 누수의 흔적이 역력했었던 다보탑은 1년간의 해체보수과정을 거쳤다. 지난해까지 투명 가리개에 싸여있던 다보탑은 본래의 화려한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방금 화장을 마친 새댁같이 뽀얗게 단장되었다.

삼층석탑인 석가탑은 서쪽 탑이다. 탑 주변에 상시계측시스템이라는 낯선 장비가 부착되어 있다. 석가탑도 보수정비작업이 있을 예정이란다. 웬지 석가탑이 말끔히 보수되어 초롱초롱 빛나면 서먹서먹할 것 같다. 어떤 사물이든 풍상을 겪으면 겪은 대로 사연과 흔적을 간직하고 있을 때 더 절실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천년이 넘는 고찰인 불국사에 세월의 상흔이 없을 수 없다. 한국 불교 미술의 백미인 두 탑은 일제강점기 이래 도굴이라는 수난을 당했다. 특히 석가탑은 도굴범들이 두 차례나 헤집어 금이 간 테다 탑을 보수하면서 생긴 상처가 컸다. 도굴 시도 과정에서 탑신에 금이 갔고, 2층 탑신의 몸돌 상단의 옥개석이 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탑은 한결

같은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준다.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부처님의 잔잔한 미소 같다. 거기에서 어떤 현란한 이론보다도 절실한 순명의 아름다움을 본다. 산다는 게 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석가탑에서 얻는다.

석가탑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다. 모든 것이 다 걸러진 석가탑처럼 살고 싶다. 언제나 관광객으로 들끓던 탑 주변이 호젓하다. 가까이 다가가 찬찬히 눈길을 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멀리서는 볼 수 없었던 석가탑의 표면은 풍화작용에 의한 수많은 기공과 흠먼지와 검버섯, 이끼, 군데군데의 균열과 깨진 부분들이 선명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여자가 나를 부른다. 코가 깨어진 외로운 돌사자 때문이었다. 다보탑의 모퉁이를 지키던 돌사자는 원래 4구였는데 어디론가 행방불명되고, 달랑 1구만 남아있다. 이제 여자는 나와 보조를 맞추어 걷기 시작한다.

마주 앉아 점심을 먹던 중이었다. 여자의 손목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상흔은 최근에 일어났음을 여실히 알려주는 붉은 색이다.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식탁 아래로 손을 내린다. 스위스에서 왔단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겨서 이혼하고, 딸과 둘이서 살다가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단다. 간신히 살아났을 때 어머니가 간곡하게 여행을 권했단다.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천년 전 동양의 시공간을 구도자처럼 떠도는 거였구나. 인간의 삶은 비슷비슷한 것인가. 동화 같은 알프스의 산자락에도 사랑과 배신이 존재하고, 치유하는 사람 또한 어머니라는 사실에 명치끝이 빠근해진다.

여자가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동병상련. 똑같은 인생 도정이다. 여자가 내민 핸드폰에 대여섯 살 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햇살처럼 웃고 있다. 이제는 내가 고해할 차례다.

나는 어땠는가. 영원을 다짐했던 사랑이 한 순간에 배신으로 변했을 때, 밤마다 죽고 싶다는 충동과 자괴감으로 아파트 베란다를 서성거렸다. 시간이 흘러 가까스로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망가진 상태였다. 인간에 대한 기대를 확실하게 걷어낸 것이다. 사랑이라는 고급 감정과 그렇게 결별했다. 그렇다고 삶을 방치한 적은 없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일했다. 어쩌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건디어 냈다. 여자의 눈빛이 촛불처럼 흔들린다.

일몰의 시각, 시티투어버스에서 하차했다. 여자는 주섬주섬 배낭을 열고 연고를 꺼낸다. 살이 돌아나는 중인지 상처가 가렵단다. 약을 얇게 펴서 발라 주었다. 고속버스에 승차하면서 명함을 내미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 차오른다. 가슴 한켠이 아려서 버스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서있었다. 그때였다. 감춰둔 내 피부 같은 황폐하고 거친 석가탑의 표피가 불쑥 떠올랐다.

내게도 세월의 흔적이 있다. 고단한 여자에게는 차마 다 들려줄 수 없었던 남겨진 사연이다. 신산하고 굴곡진 삶을 감당해낼 수 없었던지 어느 날 문득 나는 암환자가 되고 말았다. 몇 차례의 암 수술을 받으면서 생긴 수술자국은 신체 곳곳에 상흔을 남겼다. 그뿐이라. 방사선 치료로 인한 화상을 입은 피부는 검은 허물이 벗겨졌고 거뭇거뭇 변색되었다.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없다. 삶이란 느닷없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덮어가는 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게는 신산한

세월의 흔적이 주렁주렁 훈장처럼 달려있다. 하지만 어찌면 보수하지 않은 석가탑이 더 진실하고 절절한 자연미로 가슴을 적셔왔듯이, 나도 모든 상처를 받아들였기에 보다 인간적이고 삶의 연륜미를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폭풍 같았던 그 상처들은 분명히 나를 성장시켰다.

휘영청 신라의 달빛이 쏟아진다. 업 같은 짐을 다시 짊어지기 위해 천 년고도로부터 멀어지는데 보름달이 떠오른다. 문득 헤어진 여자가 궁금해진다. 여자가 힘든 과정들을 삶의 한 문양으로 새겨 넣고, 곳곳하게 이겨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피안의 세계인 경주에서는 모든 것들이 신라의 보름달처럼 둥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앞으로의 내 삶도 더 둥글둥글 너그럽게 살아 내리라.



언제부터인가 경주는 제게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입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지친 몸을 이끌고 경주로 왔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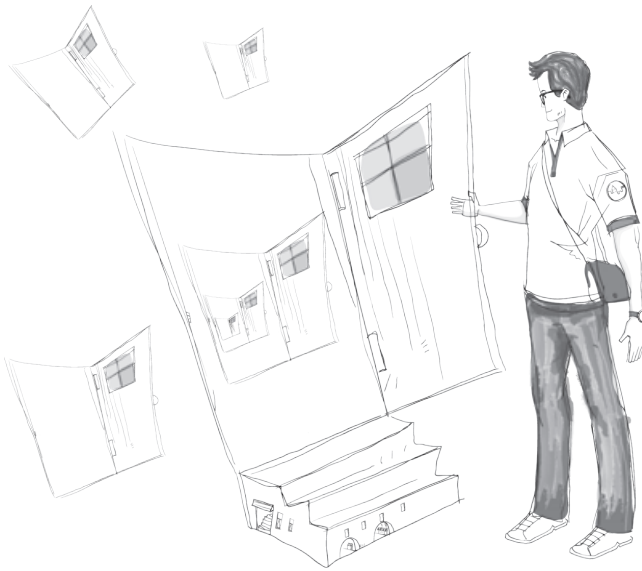
‘흔적’은 어느 불타는 여름날의 강렬했던 경주 여행에 대하여, 그리고 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공무원 문예대전 은상은 고맙고도 귀한 선물입니다. 이 값진 선물을 기쁘고 감사히 두 손 모아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군 제37보병사단

최 경 호



새로운 길, 당신과 나의 의자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주어질 새로운 한 자리의 의자, 그리고 다시
열 또 다른 문을 바라보려 한다. 오래 방점으로 남은 자리를 보살폈던 사람들
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한 걸음씩 채우고 갚으려 한다. -본문 중에서-

새로운 길, 당신과 나의 의자

우리는 살면서 몇 개의 문을 열고 나설까. 그리고 땀 흘려 세운 저마다의 터에는 또 어떤 자리를 마련하게 될까. 삶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비유가 있어 고래로부터 내려온 인류의 오랜 화두였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문을 여는 일, 그리고 조야한 빈 터에 땅을 다지거나 자리를 마련하는 일들로 살아가는 일일을, 그리고 일생을 따지거나 생각해보곤 한다.

언제나 공들여 한 문을 힘껏 연 뒤에는 오래지 않아 또 다른 한 문 앞에 서게 되기 마련이다. 큰 문, 혹은 작고 좁은 문을 가리지 않고 그 문을 제대로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문을 열기까지의 수고는 오로지 문 앞에 선 한 사람의 몫으로만 온전히 남는다. 지난한 일이지만, 여러 개의 문을 수없이 여닫으면서도 오로지 묵묵하게 앞만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희망이라거나, 꿈같은 가슴 설레는 바람을 깊숙하고 은근히 품고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문과 문 사이에 주어지는 짧은 시간도 놓칠 순 없다. 소박한 휴지가 되거나 혹은 정주(定住)의 한 때가 된다. 그러나 그 쉬어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지난 여독을 풀어놓고 다시 한 걸음을 딛기 위한 기회로 삼고는 한다. 혹여 조금 뒤쳐졌다면, 언제고 역전하고 말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말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교해 크게 남들보다 빼어난 것도 없었기에

유년 시절부터 줄곧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무던한 유년과 학창 시절을 지냈고, 다시 크게 자랑할 것 없는 대학 공부도 마쳤다. 또 조금은 늦었고 길었던 군 입대와 한 시절을 마친 후에는 다시 어련무던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햇수로 치자면 동년배라면 대개가 거칠만큼의 일반적인 여러 개의 문을 지나온 셈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일상적인 여단기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 오래지 않아서 아직은 서툰 그 경험들로 나와 바라보는 이들을 위한 작고 소박한 몇 개의 자리들이 놓였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빈 의자 몇을 만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남들보다 좀 늦게 군에 입대했다. 시작이 늦었으니, 전역을 맞이한 해에는 곧 서른이 될 무렵이었다. 뒤늦게 군을 택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적잖았다.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다. 해군이었던 아버지 덕에 유년 시절의 내 내 바다를 양껏 보며 자랐다. 한없이 크고 넓어 보였던 군함도 타 보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바다와 잔물결, 파도, 그리고 멀리 보이는 수평선도 친숙했다. 자동차가 귀했던 초등학교 시절, 학교를 파하고 흙바닥에서 뛰어놀다 아버지가 퇴근하실 무렵이면 나는 군인아파트 정문까지 한달음에 뛰어가곤 했다. 어스름이 조금씩 밀려오기 시작할 때 도로를 메우며 일제히 내려오는 카키색 군복을 입은 해군들의 자전거 행렬은 그야말로 너울진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은 장관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젊었고, 또 당신의 소명에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멋진 군인이었다.

많은 군인들 속에서 자랐던 나는 자연스럽게 하얀 제복을 입은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고, 또 당신의 아들이 군인의 길을 걸었으면 했던 바람도 쉽사리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택했던 바다에서의 길은 내 이

침대의 대부분을 온통 이끌고 갔다. 그렇게 몇 년의 절정을 오롯이 군에서 채우고 난 나는, 녹록치 않은 현실에도 꿈꾸기만은 여전했기에 다시 나를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열리라는 기대로 군문을 나섰다.

하지만 예상처럼 몸담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문은 좀체 열리지 않았다. 지난 시간이 통째 증발이라도 해 버린 것 같은, 강박한 마음으로 한동안을 보내야 했다. 써 보낸 이력서는 처음부터 수신지가 없는 것처럼 대부분이 기다려도 좀처럼 회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열쇠 없이 군게 닫힌 대문 앞에서 돌아올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마냥 한참을 아쉬운 마음에 언저리에 머물며 서성였다. 그러다 문득 다시 찾아온 생각에 짐을 꾸려서 무작정 절을 찾았다. 수험공부를 하겠노라 다짐했던 것이다.

수소문해 찾은 그곳은 경주 외곽에 자리한 한 작은 사찰이었다. 여름이 가까워오는 무렵 전화 한 통으로 통성명을 하고는 서둘러 찾아간 절에는 고요하지만 마냥 무겁지만은 않은 침묵이 배어 있었다. 주지스님과 첫 인사를 나누고 잠시 대화도 함께 했다. 목을 방에 들어가 창을 여니 앞으로 푸른 산이 네모진 창 너머 그득 펼쳐져 있었다. 군더더기 없이 다만 푸른 것들로만 가득 찬 풍경, 바람이 어딘가에서 불어올 때마다 산에 가득한 나무들의 이파리가 앞뒤로 뒤집히며 다른 색을 펼쳐 보였다. 나는 바람에 따라 색이 변하는 그 광경을 한동안 가만히 구경할 수 밖에 없었다. 덕분에 방을 정리하겠노라고 챙겨온 빗자루는 구석에 정좌하고 가만히 한참을 앉아 있어야만 했다.

고요와 그 속의 독경, 목탁 두드리는 소리와 지분자분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리고 특유의 향 올린 냄새 정도만이 전부일 것 같은 절에서도 소박하게나마 새로운 만남은 빠지지 않았다. 갓 스물이 된 대입준비생에서부터 나와 비슷한 또래의 각기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긴 휴양을 위해 시간을 내 절을 찾았다는 중년의 사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나름의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절을 찾은 첫날 가벼운 인사로 시작된 그들과의 인연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기댈 수 있는 친근한 지음(知音)처럼 가까워졌다. 제각각의 모습에 당장 다 다르고 싶은 목적도 조금씩은 달랐지만 모두들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엇 못지않은 동질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일의 일상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 공양 때마다 우리는 오랜만에 해후하는 벗처럼 반갑게 서로를 맞으며 짧은 한 시절을 나누었다.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인동초, 산을 조금 더 오르면 볼 수 있는,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선 산딸기며 오르내리는 길목에 든든하게 자릴 잡은 보리수나무, 그리고 비슷해 보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각기 고운 빛깔을 품고 나는 딱새며, 곤잘박이 같은 작은 새들, 비가 오는 날이면 신비하고 그윽한 안개에 숨고 마는 앞산이며 깊은 밤이면 활짝 불을 밝히며 유유히 날아다니는 반딧불이까지 모두 절에서 함께 사는 도반이자 식구들이었다. 또 새콤한 산딸기며, 보리수 열매를 맛보는 일은 절 생활의 작은 놀이이자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그 속에서 나는 해가 지면 자고 새벽이면 일어나 공양하고, 산책하고, 방에 들어앉아 책을 읽었다. 열어야 할 문 앞에서 잠시 돌아앉아 먼저 나부터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시간은 지나 예정됐던 시험일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 새벽녘까지 걱정으로 뒤척였던 탓에 일찍 깨어나 책을 다시 펼쳤지만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후에 방에서 지낼 사람을 위해 쓰고 닦은 후 처음 왔을 때처럼 그렇게 서둘러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야 했다.

고사장에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자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다. 떨리기도 했지만 무사히 문제를 풀었고, 다시 문 앞에 서

기다리는 구직자, 혹은 방황하는 청년으로 되돌아왔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시험의 결과는 흥분할 만한 것이었다. 합격자 발표를 하던 날, 선고를 받는 기분처럼 웹페이지를 열어 적혀 있는 내 이름을 보았을 때 가슴은 정신없이 마구 뛰었다. 일 년 여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비스듬하게 열려 너머가 살짝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얼른 활짝 열어젖히고 당당히 나아가고 싶었다. 드디어 다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그 해 가을 첫 출근을 하게 됐다. 한동안 별이 없이 지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기에 다소간의 긴장감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인사하고, 해야 할 일을 소개받는 동안 시간은 다시 조금씩 속도를 내며 앞서 나갔다.

그런데 문득 어딘가 몸이 말을 듣지 않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한 쪽 눈을 찡긍 감고 다른 편 눈으로 책을 들여다보니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피곤한 탓인가 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부랴부랴 동네 의원을 찾았는데, 대뜸 큰 대학병원에 가보라 했다. 다시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한 마디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슴에 커다란 납덩이 하나가 커다랗게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새 직장을 찾으면서 홀로 타향살이를 시작했기에 입원을 하는 일도 스스로의 몫이었다. 일터로 되돌아와 사정을 설명하고 짐을 꾸려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엉키고 지나갔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급하게 준비된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다. 한 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한 쪽 눈으로 비스듬히 누워 이리저리 사위를 훑었다. 세수도, 머리를 감는 일도, 힘차게 움직이는 일도 허락되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잘 될 것이라는 기대로 버틸 만 했다. 출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가를 냈던

탓에, 일단은 이런 일이 닥친 것이 당혹스러웠고, 또 내 빈자리를 메울 사람들에게 미안했다. 나는 서둘러 몸을 추스르고 이내 다시 일터로 향했다.

하지만 다시 조금은 곤두선 마음으로 지낸 탓일까. 수술했던 눈이 다시 문제가 돼 대치의 병원으로 찾아 올라가 두 번의 수술을 더 해야만 했다. 모두 세 번의 수술, 7개월간의 일이다. 결국 잣 시작한 새로운 일에서 잠시 떠나 있어야만 했고, 다시 열었던 그 문 바깥으로 되돌아셔야 했다. 혹 앞을 보지 못한다거나, 영영 땀 흘려 달리고 일할 수 없게 되거나, 띄엄띄엄한 독서지만 읽지도, 또 쓰지도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다. 큰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치는 것 같은 공포에 어둔 방에 홀로 앉아 몇 번이고 평소에는 절실히 간구하지 않던 신을 불렀다. 그저 한없이 위태로웠던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몇 번의 수술을 마치고 또 몇 개월의 공백을 거친 뒤 다시 일터로 돌아와 가끔 무거워지는 어깨도 어루만지며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에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또, 두 눈을 모두 가리고 누군가의 팔과 다리, 눈의 의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을 때 곁에서 함께 울었던 어머니의 눈물도 잊지 못한다. 나약해져 몇 번 눈물을 비쳤던 그 일이 지금은 그저 후회로 남은 순간이 되었지만, 그때의 절망을 비집고 다시 끈질기게 살아가겠다는 힘이 솟고 마는 것은 또한 주어진 생의 신비라 할 수밖에 없다. 처음 수술을 했을 때, 병실 침상 구석 간이침대에 불편하게 누워 쉬시던 당신들의 모습, 그리고 좁고 차가운 바닥에 다시 대강 자리를 펴고 쪽잠을 청하던 모습은 아직도 아프게, 아프게 가슴에 남아 있다. 영원히 떨치지 못할 큰 불효 하나를 더한 셈이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못난 아들이다.

서른 몇 해, 장성한 자식은 아직도 걱정만 한 무더기로 안기는 짝 한 사람 찾지 못한 못난 아들로 남아 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큰 문 앞에서 오래도 서성였던 시간에도, 여러 곳을 많이도 에둘렀던 순간에도, 또 다른 문 앞에서 몇 번씩 걸려 넘어지곤 했던 그때에도 어김없이 높고 낮은 자리들은 곁에 있었다. 그 자리가 누구나 우리러보는 높다랗고 근사한 것이든, 지난 두 해 낮은 병상에서 아파하던 눈물어린 것이든, 첫 문을 통과하고 설렘으로 앉는 조출한 자리든 앉고 서는 일에는 어김이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주어질 새로운 한 자리의 의자, 그리고 다시 열 또 다른 문을 바라보려 한다. 오래 방점으로 남은 자리를 보살폈던 사람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한 걸음씩 채우고 갚으려 한다. 또 한없는 어둠 속에서 기어코 빛을 보았듯이 새로운 문을 열게 해 준 몇 번의 기회에 감사하고, 모자란 만큼 더 낮게 정돈하며 살아가고 싶다. 되찾은 푸른 건강과 함께 말이다.

다만 나는 기도한다. 내가 마련한 그 자리에 이제는 염려와 아픔보다는 조요한 기쁨이, 어린 시절 보았던 파란 수평과 널찍한 젊은 아버지의 등 같은 든든하고 강건한 굳셈이 있기를. 그리하여 이제는 누이들의 아들, 딸을 품에 안고 황혼의 문 너머로 걷고 계시는 당신들의 길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평안과 축복이 비추기를. 그리고 그 환한 자리를, 의자를 이제는 아픔과 몰래 훔쳤던 슬픔은 말끔히 닦아내고서 내 손으로 직접 지어 소담스레 앉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여행자는 자기 문에 이르기 위해 낯선 문마다 두드려야 하고 마지막 가장 깊은 성소에 다다르기 위해 온갖 바깥 세계를 방황해야 합니다.

- 기탄자리 12 중에서(라빈드라나트 타고르) -



항상 말이 없이 묵묵한 편인 저는 언젠가부터 잔 침묵의 너머로 글, 시(詩)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빈한했던 말 대신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글로 옮기며, 짧은 토로로 써내려가곤 했습니다. 따지면 저는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닐까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리고 부박한 제 글은 누구에게도 선뜻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먼 길 긴 호흡이면 끝자리 어디쯤에라도 달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은, 욕심 탓인지 내려 놓지도 않았고요.

문예대전이라는 장이 있음을 처음 알고, 괜스레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말들이 언저리에 맴돌고 있나 곰곰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치오른 생각이며 말들을 두서없이 채우고, 끝맺음을 하고 보니 어느 때와 다름이 없는 나를 향한 토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투고하고 나서, 한동안은 잊고만 지냈던 이 장광설의 고백이 입상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을 들던 날, 처음에는 그저 기쁘고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얼굴이 훗훗하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은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 이제는 분심을 이리저리 흩뿌린 격정에서 한 발 쯤 비켜 서 좀 더 제대로 걷고 나아가 보라는 은근하고 중한 가르침으로 삼으려 합니다.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좋은 글을, 마음을 올리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부산국제고등학교
박 금 용

교사라서 행복하다

담임선생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퇴학(자퇴) 시킬 수 없다는 나의 다짐의 결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던 제자들이 생겼지만, 그들이 졸업하기까지의 나의 술한 괴로움은 물질로써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더 귀한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항상 '교육은 사랑'이라고 독백처럼 외친다.

-본문 중에서-



교사라서 행복하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심히 보기에 좋아야만 우리의 미래가 푸른 꿈으로 가득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을 천직(天職)이라 믿고, 교직에 종사한 지 어느덧 28년을 지나고 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시절, 나의 교무수첩에 적혀 있었던 좌우명 중의 하나가 ‘담임선생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퇴학(자퇴)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이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퇴학시킨 학생의 수만 해도 벌써 십여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83년도에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는데, 자퇴생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한 현실 여건 속에서도 결코 단 1명도 퇴학시킨 경험이 없었던 교사로서, 오늘까지 여러 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자퇴시킬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다.

담임선생의 역할이란, 그 당시 마치 50여 명 학생들의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말은 학급에서 한 학생만 문제가 발생해도 담임의 마음은 매우 괴로워진다. 돌이켜 보면, 학생들은 대개 가출, 탈선, 범죄 등의 개인 사정으로 자퇴(퇴학)를 하지만, 가끔 빈곤한 가정환경 때문에 수업료가 없어서 자퇴하려는 애처로운 상황의 학생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즘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수업

료 면제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학금 지급이 없었을 당시에, 전자과에 입학했던 한 학생이 있었다. 착실한 학생으로 천안이 집이라 평택까지 시외버스로 통학했다. 이 학생이 2학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학교를 떠나고 말았다. 대략적인 편지의 내용은, 집안 사정이 어렵고 하여 중학교 다니는 동생도 수업료를 못 내니 자신이 벌어서 동생이라도 공부를 시키겠다는 사연이었다.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했지만 담임으로서는 학생을 우선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수업을 마친 후 천안으로 내달렸다. 좁은 골목을 지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그 학생의 집을 물어 물어 겨우 찾아갔다. 부엌 하나 방 하나뿐인 학생의 집은 사글세로 지탱하고 있었으며, 학생의 어머니는 그 당시 월 14만 원을 받고 근무하는 닭싹대 만드는 작은 공장에서 잔업을 했기 때문에 집에 없었고, 학생의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방구석에 누워 계신 지 두서너 달이 지난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학생은 맏아들로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고, 어머니의 적은 월급만으로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방세, 아버지의 약값, 생계비 그리고 수업료를 마련하자니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집을 나가버린 제자를 찾아가서 지금의 고통을 참아 보자는 설득을 하기 위해 천안을 대여섯 번은 갔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나면 밤 12시가 되었다. 며칠이 지난 뒤, 학생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학생 스스로의 결심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 선생님께서 제자 사랑의 실천으로 월급을 쪼개어 기부한 성금으로 운영되는 ‘교사 장학회’에서 수업료를 해결해 주었다. 또한 학급에서도 ‘불우학우돕기’를 실시하여 도움의 손길을 주었었다. 결국, 그 학생은 우여곡절 끝에 영광스런 졸업장을 받았고 기능사 2급 자격증도 취득했다. 생각건대

이런 일에는 무엇보다도 담임선생의 굳건한 신념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갖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자퇴(퇴학)하는 학생 수는,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볼 때 진실로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닐 것이다. 몇 년 전에, 한창 학교 주변 불량배 추방 운동과 단속이 강화되기도 했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 학생들 중에는 학교 주변의 불량배로 변신하는 확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청소년 범죄 건수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따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이 어렵고 문제 많은 학생들을 교육시킬만한 특별한 사랑의 학교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고 두려워질 때가 종종 있다.

오래된 영화인데, 「To Sir with Love」라는 영화에서 받은 감명은 아직도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 문제아만 모아서 교육하는 곳이었지만 그 곳에서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학생들과 그들을 그렇게 교육할 수 있었던 흑인 선생님의 정열은 아직도 나의 마음에 남아 큰 교훈을 준다. 오늘의 교육이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이 무관심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우리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푸른 꿈과 희망을 주고 현실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 줘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수준이 그 사람의 가치로 평가되고 무엇이든지 쉽고 편리하게 되어가는 세상을 살면서, 어느 선생이라고 해서 솔선하여 어렵고 피곤하고 귀찮은 문제 학생 지도만을 원하겠는가? IMF 시기를

지나면서 교직에 대한 직업 선택의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공직생활이 시쳇말로 “무사안일이 장수의 비결이다.” 또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월급 받는 것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의 교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높은 기대 수준과 교사 집단의 학력이나 경력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사회로부터 받는 낮은 수준의 대우로 말미암아 대체로 의욕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학칙에 의해서만 원칙적이면서도 행정편의주의로 학생들을 다룬다면, 갈등 끝에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제자들을 보지 못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도 어려움을 딛고 졸업의 영광을 맛보았던 제자들이 기억난다. 특히, 단순히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과수원 일을 하시는 부모의 일을 도우며 학교에 오지 않던 공고(工高) 제자가 있었는데, ‘학교에 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다.’는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제자의 집이 있는 성환으로 찾아가서 설득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기적처럼 그 제자가 등교하게 되었다. 이 제자는 졸업 후에 대기업의 기술직에 취업하여 전문기술을 숙달하면서 기술의 최강국이라는 독일의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독일까지 출장을 가는 경험을 통해 국가의 명예를 높였고 지금까지도 스승의 날이면 전화로 나의 안부를 묻고 있다. 그래도 그 때는 순간적이었지만 이 제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다.

학교를 중도에 퇴학(자퇴)하는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도 밝고 건전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 교사로서의 큰 보람을 느낀다. 지난날 천안에 살았던 전자과를 우여곡절 끝에 졸업했던 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원에 있는 좋은 직장으로 옮겼고 춘삼월에는 결혼을 한다면서, 신히여행 중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부산을 찾아와 뵙겠다는 반가운 연락

이었다. 때때로 전화로 안부를 묻던 제자였는데 이런 좋은 소식은 교직 생활이라는 나의 삶에 행복감을 안겨 주었다.

세상 사람들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도 있지만, 어느 일간 신문에, 「‘가방끈’이 너무 길어서… 배고픈 박사, 공장으로 가다」라는 기사문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어떤 분이 “대학원 동기들을 보면 시간강사로 일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니다. 여기서 기술을 배워 취업해도 그 정도는 벌어요.”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1980년도엔 고졸자들도 학력이 높다고 ‘입학 거부’를 했던 직업전문학교였다.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졸업 후엔 용접공, 선반공, 건설현장 전기기술자 등으로 취업하는 이곳에 요즘 대졸자들이 몰린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보면 지난날 나의 실업계 제자들은 진로 선택을 잘했는지도 모르겠다.

담임선생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퇴학(자퇴) 시킬 수 없다는 나의 다짐의 결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던 제자들이 생겼지만, 그들이 졸업하기까지의 나의 술한 괴로움은 물질로써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더 귀한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항상 ‘교육은 사랑’이라고 독백처럼 외친다. 그러나 사랑이란 자기를 버리는 아픈인 것을 세월이 갈수록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는 내 제자들이 소낙비를 건디며 마침내 더욱 푸르게 변하는 풀잎처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주워진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네 잎 클로버가 우리에게 행운의 예고(豫告)라면 세 잎 클로버는 행복의 상징(象徵)이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은 기형이라 찾기도 어려운 네 잎 클로버를 찾아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운의 사나이가 되지 말고, 길

가에 핀 많고 많은 토끼풀의 세 잎 클로버를 찾는 마음가짐으로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변변치 못한 작품을 뽑아 주신 심사위원을 비롯한 공무원문예대전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교사의 경험에서 보면, 대체로 문제 학생의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좋은 부모처럼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만, 제자들이 이 사회의 좋은 인재로 배출될 수 있고 교사 자신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좋은 부모처럼 인내심과 열정으로 각자의 행복한 길을 찾아가면서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광된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살롱!



경주 안강중학교

손 달 호

라일락

라일락 잎이 유난히 푸른빛을 날리며 수술실 창틈으로 날아든 날이었던
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랑을 실은 라일락 향기가 피 냄새를 껴안아야 했던
시간들, 열네 시간의 이식 수술은 그녀의 간을 황천길만큼이나 멀리 있던 남편
한테로 옮겨 놓는데 성공했다. -본문 중에서-



라일락

엿저녁의 충격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지 희뵈한 새벽인데 눈이 떠졌다. 나의 상념은 곧바로 그녀의 내실로 옮겨가고 있었다. 남편도 지금 자신의 심장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는 잠에 곤한 아내를 보며 배 위에 살며시 손을 얹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슴에는 지아비의 명줄을 실타래처럼 길게 잇기를 소망하는 흔적이 새벽 강처럼 아래로 흐르고 있으리라. 베란다에 놓여 있을 바이올렛, 베고니아의 향기가 촌촌하게 꽤맨 상흔에 살포시 내려앉아 졸고 있을 것만 같다. 여명에도 또렷할 거친 수술 자국을 바라보며 남편은 무슨 생각에 들었을까?

수화기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껏 너무 적조했던 터라 애기가 온통 수다로 변했다. 나물 비빔밥으로 저녁 약속을 정하자는 것을 남자의 허세가 가로채어 고기 집을 우겼지만 꺾이질 않았다. 밥상과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담백한 나물을 담은 대접처럼 맑고 참했다. 거쑈들을 꼭꼭 씹으면서 할끔할끔 나를 쳐다보다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복부에 대수술을 해서 고기는 아직 흡수가 안 된다고 했다. 귀를 의심하는 나에게 여물게 새로 반복했다.

라일락 잎이 유난히 푸른빛을 날리며 수술실 창틈으로 날아든 날이 었단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랑을 실은 라일락 향기가 피 땀새를 껴안아야 했던 시간들, 열네 시간의 이식 수술은 그녀의 간을 황천길만큼이나 멀리 있던 남편한테로 옮겨 놓는데 성공했다. 온몸이 축 처졌지만

정신만은 초롱같았던 그녀. 노력해선 안 될 게 없다는 그녀의 눈빛엔 천정에서 내리쬔던 새하얀 형광등 불빛도 무색해졌지 않았을까? 호흡을 짓눌렀던 물탱크만한 복수를 자신의 간으로 건어낸 이 순간까지는 그녀의 인생 이력표이다.

초등학교만 서너 해를 같이 다니다가 일찍이 전학을 간 뒤로는 간간이 방학 때 만나는 게 다였다. 어느 겨울방학 때가 우리는 고입을 앞두고 아랫마을에 토정비결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노력해도 마음만 허비하고 얻는 것이 없다는 토정 할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금방 토라져 버렸다. 그녀의 화두는 늘 최선이었기 때문이다. 뽀로통해져 돌아서는 마음엔 최선을 다하면 토정비결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다짐받고 있었다.

돌담 몇 개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그녀와는 동갑내기였지만 누나 같은 버거운 동무였다. 소꿉장난 할 때도 남편을 극진히 여기는 그 어른스러움이 웬지 거슬렸다. 기침 콜록거리면 이 빠진 공기였다 먼지 띄운 물을 찰랑하게 담아 숭늉이라며 감기 맞지? 하고는 의심스레 눈동자를 굴러댔다. 고개를 젓고 일어서려면 아래로 처진 바짓가랑이를 꼭 잡아당기며 빨리 마시라고 양살을 부린다. 찬바람에 까칠해진 양 볼에는 욕심이 끼었고 눈망울엔 열정이 찼다. 조무래기시절부터 싸수가 달랐다.

그녀의 간 이식 집념에는 충무공 정신과 닮은 데가 있었다. 틈틈이 산을 오르내리며 몸에 지방분을 빼내고 맑은 공기를 마셔가며 오장을 신선하게 돌우었다는 얘기, 기름진 음식을 삼가고 텃밭에 손수 가꾼 무농약, 무공해 야채를 섭취하면서 깨끗하게 간을 가꾸온 이력들은 준비된 그녀의 간이식 역사였다. 여자의 간으로 모자랄 양에 대비해 큰아들을 수술대에 대기시켰다는 고백은 유비무환의 절창이 아닐 수 없다. ‘생즉필사(生卽必死), 사즉필생(死卽必生)’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절박한 심정을 털어낼 때는 끝내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 앞에 앉은 내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아니, 몸에 칼은 고사하고 주사 바늘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찔려 본 적이 없는 나는 자꾸만 고개가 밑으로 처졌다. 나는 그 혼한 헌혈에도 솔직히 인색했다.

대중탕에서 흉한 수술 자국을 보면, ‘전생의 죄로 중병에 걸렸던 게로구나.’ 하고 혼자 판단했었다. 오만하게 살다가 코 다쳤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가르치려 든 적이 있었다. 자비의 상흔인 줄을 알기는커녕 방자와 편견으로 혀를 뱉다면 이만저만 오버가 아니다.

그녀의 삶은 의지를 싣고 철로 위를 달리는 KTX이다. 그녀의 행로엔 장애물이 감히 얼찔거리지 못했다. 사랑과 열정으로 배합된 동력은 제트엔진같이 힘이 있었다.

서산으로 완전히 기운 남편의 사선을 밀어내고 자신의 배 위에 푸른 칼날로 사선을 판 그녀, 나는 비너스보다 더 아름다운 그녀의 가슴 위에 다 라일락 꽃 한 송이를 올려놓는다.



친구처럼 간을 이식하는 간절함으로 형상화해야 할 텐데 좋은 소재를 던졌음에도 능력이 못미치어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은 치열한 정신이 없어 졸작으로 그친 데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꼭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 서구청
손 병 순

장자의 나비

질은 푸른 잎을 가진 나무와 풀숲에서는 잠자리가 나풀나풀 거렸다.
뒹자리를 깔고 누워서 눈을 잠깐 감았다. 내 주위를 어른거리는 나비는 호랑
나비다. 문득 장자의 호접몽이 생각났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호랑나비인
가, 아니면 꿈속 호랑나비인가? -본문 중에서-



장자의 나비

몇 년 전에 시택이 있는 산골마을 너머 피서를 간 적이 있다. 시택이 워낙 산골짜기라 더 깊이 피서를 할 만 한 곳이 있을까 의문스러웠다. 시어른들이 오르내리며 살던 곳이다. 세상 어느 곳보다 물 맑고 경관이 좋다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이야기도 더러 들었다. 승용차가 겨우 지나 갈 수 있을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한여름 태양이 내리쬐이지만 시리다 못한 쪽빛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하늘이다. 매미들의 울음에 온 산은 깊은 침묵이 넘쳤다. 길가에 작은 꽃들과 무성한 풀더미 사이에 작은 벌레들의 합창은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힘든 걸음을 풀어주었다. 드디어 울창한 숲을 지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마을에 들어섰다. 숲속이라 대나무들이 우거져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마을에 들어서서는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릉도원이 여기인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마을이라서 그런지 점점 더 밝은 빛이 내 시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깊은 산중에 마을이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아서 인지, 또 마을이 워낙 밝아서인지 눈이 부셨다. 아늑하고 포근하다. 나의 첫 충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마을에는 언제나 쿵쿵 솟아나온다는 샘물이 있다. 그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을 법한 샘이었다. 지금은 시택 어른들이 가끔 집을 둘러보고 아랫마을로 가신다. 무너진 담장과 집이 허물어지

고 그 자리에 돌과 사금파리, 칙냉쿨들이 칭칭 감겨 텅 빈 세월을 지키고 있었다. 예전에 이곳이 흙이 좋고 물이 좋아 도공들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언덕배기 곳곳에 깨진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다

순간 무섭증이 왈각 몸에 파고든다. 그때 어떤 분이 화물차를 타고 오더니 주인 계시느냐고 물었다. 시내에 갔다고 하니까 어떻게 아느냐고 한다. 나는 이집의 며느리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 분은 집에 들어가는 듯했다. 나는 내 목적지대로 더 깊은 골을 찾아 걸어가다 보니 조금 전에 봤던 그 차가 올라온다. 어디까지 가느냐고 했다. 나는 산속에 있는 더 깊은 마을에 간다고 하니 자기네들도 그곳에 가니 타고 싶으면 타라고 했다. 사실은 걸어가고 싶었다. 걷는 것도 운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예전에 힘들게 걸었던 것이 생각나 염치불구하고 탔다.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찾는 마을에 가고 그는 모처럼 고향에 간다고 했다. 예전에 그 마을에서 친구들과 학교도 다녔다고 했다. 이 마을이 면소재지가 있는 학교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의 땡땡이치던 이야기며, 개울가에 먹을 감으면서 패를 갈라 놀던 이야기며, 눈 내린 겨울이면 아이들과 얼음 위에 지치도록 스케이트를 타던 이야기, 처녀들은 늦은 밤 김치서리와 화롯불에 밤을 구워서 먹었다고 웃는다. 어느새 마을에 도착했다. 여기서 마을 사람을 만나다니 내가 원했던 바이지만 설마 했다.

짙은 푸른 잎을 가진 나무와 풀숲에서는 잠자리가 나풀나풀 거렸다. 돛자리를 깔고 누워서 눈을 잠깐 감았다. 내 주위를 어른거리는 나비는 호랑나비다. 문득 장자의 호접몽이 생각났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호랑나비인가, 아니면 꿈속 호랑나비인가? 까치가 나뭇가지에서 푸드덕 날아올라 가지에 앉았다. 개울가에 발을 담갔다. 차가왔다. 더운 기운이 말끔히 싹 가셨다. 다행히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이곳은 두 분이 농

사를 짓는데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시내로 돌아간다고들 했다.

그야말로 산골의 정겨운 모습이다. 매미가 맴맴 쉴 새 없이 운다. 눈을 감았다. 개울가 앞에 물푸레나무는 내가 자리 잡은 곳을 한층 시원하게 했다. 눈을 감고 있으니 무릉도원에 온 것 같다. 아까 나를 태워 주신 분이 다시 왔다. 이리저리 쉴 자리를 찾다가 마땅한 곳을 못 찾았는가 보다. 물이 너무 깨끗했다. 1급수에만 산다는 가재와 다슬기, 피라미가 많았다. 잡았다가 풀어 주곤 그러기를 반복하였다

마침 하늘에는 전설 속에 살았다는 희고 큰 학같이 생긴 새가 내 주변에 맴돈다. 어디서 나비가 한 마리 날아든다. 나는 장자의 나비를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그곳을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시댁 근처 아주 깊은 산골에 피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댁도 워낙 산골이라서 더 깊은 곳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과 함께 따라 갔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을 따라 끝 모르는 대나무와 그 사이에 소나무들이 아름답리 가려진 그 길을 지나 마침내 “환한 빛” 뭐라고 할까? 눈이 부셔서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도연명의 무릉도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내 온몸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데도 있었구나.. 긴 개울가로 따라 물이 흐르고 아마도 봄이었으면 매화꽃잎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떨어져 개울가로 내려 왔을 것입니다.

개울 옆에 샘이 있었습니다. 샘에서 물이 쿵쿵 쉼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샘물을 마시면 어린애가 될 것 같은 착각이 내 뇌리에 스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고즈넉하고, 내가 그곳을 알게 된 것이 큰 행운이었습니다. 끝으로 나의 스승이신 유병근 선생님과 나에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저의 남편과 언제나 응원을 그치지 않는 우리 두 아이들에게 이 기쁨을 돌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이 은 재

운조루의 덕목

그 호방한 명성만큼이나 가진 자의 겸손함이 무엇인가
보여준 한 선비의 보석 같은 삶에 가슴이 뭉클하다.
권세 있는 자들의 만용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목마른
사막을 구원할 단비 같은 애기, 가난하여도
금도(襟度)를 지키며 지조와 의리가 있었던 선비정신을
실천한 운조루엔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일까.

-본문 중에서-



운조루의 덕목

초기 로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잘 이행되었던 모범적인 사회였다. 명장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와의 싸움에서 패색이 짙어가고 있을 때 로마 귀족들은 솔선하여 전쟁터에 나가 싸웠다. 또 기부금과 고액의 세금도 자진 헌납하여 바닥난 국고를 채웠다. 이에 고무된 평민들도 앞 다퉈 사재를 털어 군자금에 마련해 주었다. 그 결과 로마군은 맹위를 떨치며 카르타고를 물리쳤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의 앤드류 왕자는 위험한 조종사로 참전하여 상류층의 의무를 다했다. 빌 게이츠는 그의 뛰어난 도전정신과 재능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지만, 그를 부자로 만든 건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류사회의 구성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신의 부(富)를 사회에 환원했다. 이들은 상류층의 권리만을 향유하지 않고 도덕적 의무도 솔선하여 평민들의 귀감이 되었다.

언젠가 신문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골치를 앓는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빌 게이츠, 위렌 버펫 등 미국의 갑부들이 반대 시위를 한다는 것이다.

‘위렌 버펫’은 “부모가 부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잘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성공은 ‘상속’이 아닌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부자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번 돈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

고 역설하였다. 상속세 폐지를 반대했던 부자들의 아름다운 반란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옛날 우리나라 운조루(雲鳥樓)에서도 상류층의 도덕정신을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다.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 사는 집에서 살았던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고왔을까. 그 호방한 명성만큼이나 가진 자의 겸손함이 무엇인가 보여준 선비의 보석 같은 삶에 가슴이 뭉클하다. 권세 있는 자들의 만용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목마른 사막을 구원할 단비 같은 얘기, 가난하여도 금도(襟度)를 지키며 지조와 의리가 있었던 선비정신을 실천한 운조루엔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일까.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 사는 집’이라는 뜻과 함께 “구름은 무심히 산 골짜기에 피어오르고, 새들은 날다 지쳐 둥지로 돌아오네.”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첫머리 두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운조루(雲鳥樓)는 중요민속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운조루는 1776년 영조 52년에 삼수부사를 지낸 무관 류이주가 낙안군수 시절에 7년여에 걸쳐 지은 가옥의 사랑채인데, 지금은 가옥 전체를 운조루라고 부른다. 조선시대 선비의 품격을 상징하는 품자형(品子形)의 배치형식으로 지어진 99칸의 양반가옥으로 지금은 60여 칸만이 전해지고 있다.

운조루 들머리에 들어서면 맑은 연못이 기와집과 어우러져 운치를 준다. 연못 안에 수형 잡힌 소나무 한 그루가 선비의 지조를 엿보게 한다. 물옥좌 위에서 오수를 즐기는 청개구리의 여유가 평화롭기만 하다. 이 연못은 남쪽의 산세가 불의 형세를 하고 있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니 운조루를 지키기 위한 유비무환의 정신이 놀랍기만 하다. 대형 산불로 대웅전이 어이없게 전소된 낙산사에도 이만한 연못

이 있었다면 천년고찰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연못을 따라 운조루에 들어서면 멋들어지게 서 있는 솟을대문이 양반가의 저택임을 느끼게 한다. 행랑채 곳간에는 백미 2가마 반이 들어가는 목독이 있다. 통나무를 파내어 만든 원형 목독은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기 위한 쌀뒤주다. 원형 뒤주의 하단엔 가로 5cm, 세로 10cm 정도의 직사각형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구멍을 여닫는 마개에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써 놓았다. 타인능해란 “타인도 마음대로 열 수 있다.”는 뜻으로 가난한 마을사람들과 지리산을 지나는 과객 누구라도 쌀을 가져다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주인이 직접 쌀을 퍼 주지 않고 굳이 타인능해의 뒤주를 만들어 쌀을 퍼가도록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쌀을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가져가도록 하려는 깊은 배려였다. 주인의 이 같은 마음에 감화를 받아서인지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쌀의 양 1~2되 분량 외엔 그 누구도 몰래 더 가져가지 않았다고 한다. 가난하여도 양심이 살아있었던 사회였다.

운조루의 또 다른 아름다움은 가난한 이웃을 배려해서 만든 낮은 굴뚝이다. 굴뚝이 높아야 연기가 잘 빠진다는 걸 알면서도 낮은 굴뚝을 세운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끼니를 지을 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이 운조루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를 보며 상처받을 걸 염려한 것이었다.

또 이 댁 주인은 매달 그믐날에 쌀뒤주가 텅 비어 있지 않으면 며느리를 불러 호통을 쳤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가난한 이웃을 위해 뒤주에 들어간 쌀은 일 년에 36가마 정도였는데 이는 주인이 수확한 쌀의 20%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권세를 누렸던 양반가의 영화도 한때인가. 230여년이 지나 10세손이

살고 있다는 운조루 안채 들마루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균열 사이로 먼지만 뻗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100여명의 하인들이 있을 만큼 수백 명의 식솔을 책임졌을 가마솥은 녹슬고 구멍이 난 채 부엌 한 구석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가고 없는데 마당에 있는 맷돌, 절구통은 풍화에도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 있다. 양반가의 영화가 부엌데기로 멸시받던 절구만도 못하다니, 인생사가 이렇게 쓸쓸한 걸까. 사랑채 벽에 기대고 서서 흐드러지게 농익은 산수유 열매를 바라보다 눈시울이 절로 붉어졌다.

주인은 가고 없어도 운조루 뜰엔 나무와 꽃들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총총히 피어 있는 풀꽃들은 당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운조루 고택을 지키기 위해 환생한 건 아니었을까. 시대가 바뀌어 노비제도가 없어져 하인들을 내보냈지만 많은 하인들이 떠나지 않고 운조루를 지켰다는 증언을 보더라도 운조루에서 일어났던 감동이 어땠을지 짐작된다. 바람이 일렁일 때마다 꽃들이 전해주는 운조루의 옛이야기는 벽 찬 감동으로 아련히 내 가슴에 물들었다.

지리산만큼 역사의 수레바퀴가 진하게 밟고 지나간 곳도 없으리라. 지리산은 민란과 동학, 여순반란사건, 6.25 전쟁 등 쫓고 쫓기는 사람들을 어미 닭처럼 날개로 품어 주었던 포용의 산이었다. 구전에 따르면 운조루 사랑채는 빨치산들이 쉬어가던 아지트였다고 한다. 어쩌면 운조루의 주인은 어떤 이념을 넘어 배고프고 지친 행려자들 누구나 와서 배부르게 먹고 쉬어가도록 배려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온갖 난세를 겪으면서도 운조루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베풀며 살았던 주인에게 내린 하늘의 보상이 아니었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이기와 집단이기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운조루 얘기는 진한 감동을 준다. 운조루의 아름다움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베풀고 배려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한 나눔의 정신에 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한 배려, 받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지켜주려는 베풀의 자세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상류층이 도덕적 의무를 솔선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을 실천해 온 국가가 오늘날 선진사회를 이룬 세계 역사의 교훈에서 우리 사회가 우선해야 할 덕목은 바로 상류층의 도덕정신이 아닐까. 수많은 난리 속에서도 운조루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베풀며 살았던 타인능해의 목독에 있었음을 깨닫게 한 운조루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배려하고 보살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가난한 백성을 살피봄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임에도 예나 지금이나 포흠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가. 운조루 얘기에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건 나 또한 공직자이기 때문이리라. 한국사회에 부자는 많아도 귀족은 없다는 상류층의 부재가 자꾸만 나를 돌아보게 한다. 그 옛날, 타인능해의 선비정신을 철저히 지키며 선정을 펼쳤던 운조루의 덕목을 나도 이어갈 순 없을까.



희망, 나도 밥 살 일 생겼습니다!

아침에 차 한 잔 나누는 중에 밥 살 일이 생겼다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과학벨트 선정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지인이었습니다. 모두들 축하한다며 덩달아 좋아했습니다. 부동산이 많지 않은 나는 그런 얘기에 별 흥미가 없지만 재테크에 밝아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여태 무얼 하고 있는가!’ 가끔은 쓸쓸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 모습을 읽었는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도 남한테 퍼 주려고만 하지 말고 돈 모아서 땅 좀 사라.”……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올렸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휴대폰에 “제14회 공무원문예대전 입상을 축하합니다.”…… 저는 친구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친구야! 나도 밥 살 일 생겼다.”

문득 ‘지하철의 희망, 외판원 아저씨’라는 어떤 글이 떠오릅니다. 지하철에서 칫솔을 파는 아저씨가 목청을 높여 칫솔을 팔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4천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고…… 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희망, 그 희망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무엇으로 행복을 정의할까요? 비록 경제적 형제는 누리지 못했어도 수상 소식을 듣던 날 아침 전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저도 밥 살 일이 생겼으니까요.

담장을 휘감으며 붉게 핀 넝쿨장미의 향기가 진동하는 오월에 들려온 수상소식은 제게 희망, ‘다음 칸’이었습니다.

공무원문예대전을 기획하고 애써주신 행정안전부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들놈하고 수상식에 참석했는데 모처럼 아들과의 행복한 동행에 뿌듯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아들놈 손을 잡고 경복궁 등 서울 구경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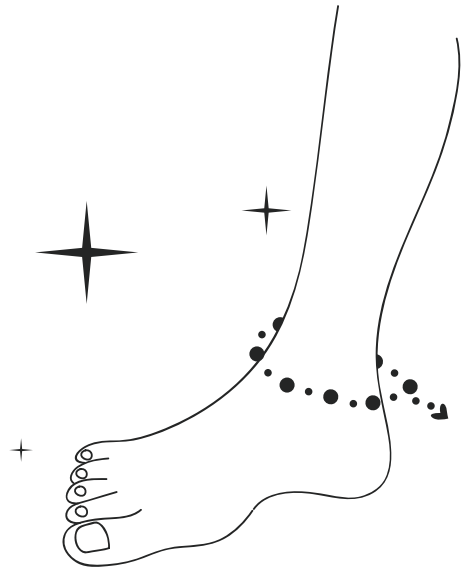


경기 평택시청

정 서 현

새끼발가락

우리 신체의 제일 아래, 그것도 맨 끝부분에 위치한 새끼발가락은 몸의 기울
어짐을 뇌에 전달하여 중심을 잡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새끼발가락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본문 중에서-



새끼발가락

모처럼 양말을 벗고 맨발로 앉아 내 발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예쁜 발은 아니지만 아담한 편으로 그럭저럭 봐 줄만 한 것 같다. 손이야 자주 씻고, 전용크림을 바르며 매만지기도 하지만, 발은 그렇지 못한 듯싶다. 아침저녁으로 씻거나 양말 신고 벗을 때, 그리고 발톱 자를 때나 마주하게 되니 말이다. 양말이나 신발 등에 가려져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 탓인가. 신체 구조상으로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다보니 더욱 그런가 보다. 손에 비해 숫자가 모자라지도 않고, 역할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새끼발가락으로서는 조금 서글픈 일이 아닐까싶다.

다섯 개의 발가락이 순서대로 정렬한 채 몸을 맞대고 나란히 붙어있는 품새가 정겹게 느껴진다. 가장 크고 듬직해 보이는 엄지 쪽으로 네 개의 발가락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 보기 좋다. 우애 좋은 5남매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맨 끝부분에 위치한 새끼발가락은 다른 것에 비해 유난히 길이가 짧고 뭉툭한 것이 볼품없어 보인다. 게다가 넷째 발가락에 어찌나 찰싹 붙어 있는지 강제로 벌려야만 떨어질 정도다.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막둥이처럼 좀체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 새끼발가락의 몸통은 다른 형제에 비해 통통한 것이 평소에도 조금 부어있는 듯 보인다. 신발에 닿는 왼쪽 부위는 굳은살이 박인 듯 딱딱하기조차 하다. 새끼발톱은 두 개로 갈라진 듯 싶

기도 하고, 언뜻 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인가, 다른 발톱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꽤나 두툼하다. 발톱을 깎을 적마다 새끼발톱의 만만치 않은 두께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지곤 한다. 여느 발톱은 크기가 일정하고 얇은 편이어서 소형 깎기로도 쉽게 자를 수 있다. 그러나 새끼발톱은 한 번에 자를 수 없고, 잘못했다간 조각조각 부서지기만 할 뿐, 제대로 깎기지 않는다. 좀 더 큰 깎기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곤 한다.

나는 평소에 발가락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다. 가끔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거나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잠깐 아팠던 기억은 있지만. 그런데 얼마 전, 새끼발가락의 중요성을 깨우친 사건이 일어났다.

업무 시작 전 열리는 아침회의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집을 나섰다. 고층에서 멈춰 선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급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보다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딱딱, 하이힐이 바닥에 급하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어느덧 걸음걸이에 가속도가 붙었다. 4층에서 1층 현관까지 내려오는 데 채 일 분도 걸리지 않았다.

1층 현관바닥이 바로 눈앞에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다 내려왔다고 방심하고 잠깐 딴 생각을 했었나 보았다. 발을 헛디디면서 중심을 잃고 두 서너 계단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와 현관바닥에 짜당, 처박히듯 넘어졌다. 그때였다.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픈 건 고사하고 창피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옷매무새부터 가다듬었다. 바쁜 오늘 아침에 얼마 전 새로 산 구두를

신을 건 무어람. 자신을 나무라며 구두를 고쳐 신었다. 이 불상사가 새 구두 탓인 양.

발을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면서 왼쪽 새끼발가락을 다쳤다. 구두를 억지로 신기는 했지만 아파서 걸음을 옮기기 힘들었다. 회의에 불참할 수도 없고 난감한 일이었다. 평소처럼 걸어서 출근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주 짧은 거리였지만 택시를 잡았다. 택시는 올라타자마자 다시 내려야 할 정도로 곧바로 사무실에 도착했다. 영문을 모르는 운전기사는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것을 따져볼 처지가 못 되었다.

택시에서 내려 3층 사무실까지 걸어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다. 이른 시간이어서 건물 안에는 직원들의 모습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왼쪽 구두를 벗어 손에 든 채 절름발이 도둑고양이처럼 절뚝거리며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갔다. 누군가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웃음을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재빨리 실내용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앞이 시원스레 뻥, 뚫려있는 여름용 슬리퍼였다. 그것 덕분에 새끼발가락의 통증은 한결 덜해졌다. 그러나 회의 내내 발가락이 쑤시고 후끈거리는 바람에 제대로 몰입할 수가 없었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다. 새끼발가락은 멍이 들었음인지 시커멓게 변했고 탕탕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의사의 지시대로 방사선 촬영을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천만다행이었다.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심한 타박상뿐이라고 했다. 약국에 들러 의사가 처방한 먹고 바르는 약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타박상은 쉽게 낫지 않았다. 3일 동안이나 출퇴근은

물론이고, 종일 슬리퍼를 신고 근무해야 했다. 정장차림에 슬리퍼라는 우스꽝스런 모습에다, 왼쪽 다리마저 살짝살짝 절어가면서.

새끼발가락은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듯 숨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고 숨어 지내온 듯싶다. 아무런 존재감 없이. 주인을 잘못 만난 탓에 혼한 발마사지도 받아보지 못한 채 말이다. 뽕족구두를 신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새끼발가락은 비좁고 음습한 구두 속에 갇혀, 신음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새끼발가락의 고통은 헤아리지 못하고 뻘뻘스럽게 지낸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며칠간의 고통이었지만, 이 사건마저 없었더라면, 새끼발가락의 존재는 영영 모르고 지냈을지도 모른다.

우리 신체의 제일 아래, 그것도 맨 끝부분에 위치한 새끼발가락은 몸의 기울어짐을 뇌에 전달하여 중심을 잡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새끼발가락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나도 새끼발가락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선 부족한 글을 수상작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글 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이기에 앞서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며, 종갓집 만며느리로 살아온 제 삶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제게 틈틈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고, 외조를 아끼지 않은 남편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울러 바쁜 엄마를 항상 이해해주고 미안할 만큼 배려해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게 있어서 수필이란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을 쓰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기도 하고, 현재의 내 모습을 살피는가 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수필을 통해 제 삶이 더욱 정화되고, 그로 인해 주위 분들에게 작은 위안과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도서관

홍 성 호

오래된 것의 소중함

요즘은 얼리어답터와 신제품만 대우받고, 관심을 받는 세상이다.
오래된 것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대부 구닥다리 취급을 당하는 세상인 것 같다. 이런 세대에서 한낱 검은색 가죽 장갑에 정이 들어 버린 건 오래된 친구나 물건을 하나쯤 가지고 싶어 하는 내 무의식 속의 외로움 때문이 아닐까?

-본문 중에서-



오래된 것의 소중함

나에게는 장갑이 하나 있다. 외피는 검은색으로 염색되어 있고, 내피는 토끼털이 들어차 있는 가죽 장갑이다. 매년 겨울마다 이 장갑을 끼고 다니면서 아직도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게 고맙고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장갑은 선물로 받은 것인데, 장갑과 내가 함께한 시간이 벌써 16년째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과 함께 군에 입대했다. 군에 입대한 첫해 겨울. 그러니까 일병을 달았을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귀던 첫사랑에게서 받은 선물이다.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 장갑을 끼고 다녔다기보다는 거의 가지고만 다녔다. 군대에서의 보직이 운전병이라 전투병처럼 땅을 박박 기어 다니며 장갑에 흠집을 낼 만한 일은 없었다. 장갑을 끼고 할 만한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운전대를 돌리는 일밖에 없었다.

그래도 장갑을 끼고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게 선물을 사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항상 장갑을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녔다. 그렇게 장갑은 휴가나 외박 때에만 끼는 특별한 액세서리가 됐다.

군대에서 두 해를 보내고 제대를 했다. 고맙게도 첫사랑의 여자는 제대하는 날 부대 정문까지 날 마중 나왔다. 우리의 사랑은 내가 소중히 여긴 장갑만큼이나 따뜻하게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속설을 증명이나 하듯 우린 제대하는 그해에 사소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헤어졌다.

헤어지고 나니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을 첫사랑의 기억과 함께 정리해야 할 것 같았다. 살가운 냄새가 남아 있는 연애편지는 불에 태우거나 잘게 찢어 버렸다. 약속을 새겨 서로 나눠 끼웠던 커플링은 금은방에 팔았다. 때맞춰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사준 시계는 건전지가 달아 시침이 멈췄다는 핑계로 매몰차게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데 선물 중 단 하나, 장갑이 문제였다. 버리기에는 군대에서 들었던 공만큼 너무 깨끗한 상태였다. 반지나 시계처럼 사시사철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물건도 아니므로, 새로운 여자 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는 의심 어린 추궁을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물건이었다.

그래서 결국 장갑은 계속 가지고 있기로 했다. 그 대신 장갑에 대한 예전과 같은 각별한 사랑은 거두고, 장갑 본래의 기능인 추울 때 손에 끼는 방한용 물건으로 이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후 몇 년간 가족 장갑은 겨울철 내내 손에 끼워져 있었고, 장갑에 깃든 첫사랑의 추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렇게 장갑은 내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물건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

군대 제대 후 4년, 직장도 생기고 결혼도 하게 되었다. 결혼 후에 아내가 몇 년이 지난 내 장갑을 보더니 새 장갑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장갑을 하나 사왔다. 질기고 탄탄한 외양에 부드러운 촉감과 가벼움까지. 색깔도 갈색이고 디자인도 말끔하니 가지고 있던 검은색 장갑과는 비교가 안 됐다. 6년이 지난 검은색 장갑은 투박하니 촌스럽게 느껴졌다. 곧 검은색 장갑은 아내가 사준 갈색 장갑에 밀려 집도 아닌 사무실 책상 서랍에 버려지듯 쭈서 넣어졌다.

그렇게 노병처럼 잊힌 채로 2년이 지났을까. 검은색 장갑이 다시 현역으로 복귀할 기회가 왔다. 내가 술집에서 갈색 장갑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새 장갑을 살 때까지 며칠만 다시 검은색 장갑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내가 장갑을 새로 사는 걸 잊었는지, 아니면 산 지 얼마 안된 장갑을 잃어버린 데 대한 벌인지 새 장갑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가 아내가 검은색 장갑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냥 쓰고, 잃어버리면 그때 새 장갑을 사주겠다고 했다. 나도 아내가 사준 장갑을 방정맞게 잃어버렸다는 미안함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검은색 장갑을 잃어버려야 새 장갑을 생긴다는 조건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검은색 장갑을 홀대하게 됐다. 겨울이 돌아올 때마다 장갑을 끼면서 사무실이건 술자리건 장갑을 벗어 놓을 일이 있으면 최대한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다. 누군가 실수로 툭 쳐서 나도 모르게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나, 어두운 조명의 술집 테이블 밑에 떨어진 후 발에 밟혀 회복불능으로 더러워지길 바랐다.

하지만 그렇게 장갑을 꼭 잃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 내 곁에 붙어서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았다.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술집을 나오면 그 집 종업원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며 내 장갑을 가져다주질 않나, 같이 동석했던 후배가 자기 호주머니에 고이 챙겼다가 씩 웃으며 나에게 내밀질 않나. 심지어는 출근길에 장갑을 도로에 떨어뜨려 트럭이 밟고 가도 타이어 자국만 찍혀 있을 뿐 찢긴 구석 없이 온전하게 나에게 돌아오곤 했다.

그러다가 장갑을 버릴 만한 최상의 핑계거리가 생겼다. 그것도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후배 하나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내 장갑에 맥주를 한 컵이나 쏟은 것이었다. 후배는 몹시 미안해하

며 휴지와 자기 손수건으로 장갑에 쏟은 맥주를 닦아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장갑이 맥주 한 컵을 다 들이킨 후, 뱉어낼 생각은 안 하고 그걸 가죽과 토끼털로 다 흡수해 버렸다. 나는 이참에 버리면 되겠다. 하고 되레 후배한테 저 장갑은 곧 버릴 장갑이니깐 괜찮다고 위로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맥주를 한 컵이나 머금은 장갑을 살펴보았다. 아 니나 다를까 장갑이 맥주의 알코올과 수분을 다 날려버리고 북어 대가 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모양마저 북어처럼 쪼그라들어 있었다. 내가 보 기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드디어 새 장갑이 생기는 것이 었다.

그런데 말라비틀어진 장갑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에는 장갑의 꼴 이 너무도 불쌍해 보였다. 어떻게 버릴까 생각하다가 새 장갑을 사되, 이 장갑은 세탁소에 맡긴 후 차에 다 놓고 세차 같은 허드렛일을 할 때 쓰기로 했다. 세탁소에 맡기는데 비용이 삼천 원이었다. 아깝기도 했지만 그리 큰돈은 아니어서 그냥 세탁하기로 했다.

이틀 후. 세탁소에서 장갑을 가져왔다. 그런데 웬걸 딱딱하게 굳어 있 던 장갑이 부드러워지고 털에 윤기가 살아 돌아왔다. 허드렛일에 쓰려 고 했는데, 다시 끼고 다닐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온 것이었다.

지금 장갑은 그 나이만큼 색이 바래서 회색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외 피 중간 중간엔 버짐이 하얗게 피어 있기도 하다. 내피에 오밀조밀 박 혀있던 토끼털은 원형 탈모처럼 듬성듬성 자리가 비워져 있고, 내 손의 땀과 유분을 먹어 윤기가 반들반들하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의 주름이 장갑에 그대로 새겨져 장갑에도 손가 락 마디와 똑같은 주름이 있다. 오래 기다 보니 내 손에 맞춰 장갑 모양 도 변해서 손에 착 달라붙는 맛이 장갑이라기보다는 피부에 가깝다. 이

제 나에게 빛바랜 검은색 장갑은 보온 장비가 아니라 신체 일부분이다. 털이 듬성듬성 빠진 장갑은 무생물이 아니라 추억을 함께한 오래된 친구다.

이젠 검은색 장갑을 버릴 생각이 없다. 장갑을 처음 만나고, 애지중지 아끼고, 또 미워하고.

문득 사람을 사귀는 과정과 너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난 장갑에 정이 든 거다. 사람과의 관계처럼 애증을 넘나들며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 버린 것이다. 요즘은 얼리어답터와 신제품만 대우받고, 관심을 받는 세상이다. 오래된 것은 사람이거나 물건이나 대부분 구닥다리 취급을 당하는 세상인 것 같다. 이런 세대에서 한낱 검은색 가죽 장갑에 정이 들어 버린 건 오래된 친구나 물건을 하나쯤 가지고 싶어 하는 내 무의식 속의 외로움 때문이 아닐까?

어느덧 나도 인생의 외로움과 오래된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나이가 된 것 같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필로 수상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단편소설 부분에서도 수상하여 그야말로 기쁨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받은 수상집을 안방에 있는 책꽂이에 꽂아두었습니다. 저는 그 수상집의 의미를 우리 아이가 모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해 1학년이 된 큰 애가 수상집을 펼쳐 놓고 열심히 글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 글은 아니고 다른 분이 쓴 동화였습니다. 제 눈높이에 맞는 글을 목차를 보고 스스로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기특해서 칭찬을 해주었는데, “아빠 글은 여기 있지.” 하면서 제 사진과 글이 있는 부분을 바로 펼쳐주었습니다. 쪽수까지 외우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애들의 아빠에 대한 관심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항상 바른 생활을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아빠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올해 시상식에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시상식장에서 딸은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수줍은 미소로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지원이와 준형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술 약속이 있어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집에 일찍 들어와서도 글을 쓴다고 노트북 앞에만 앉아 있는 저를 항상 이해해 주는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
편
소
설
부
문



대상

검은 문 _ 이재곤

은상

노랑진 _ 김성민

수몰된 고향 이야기 _ 이상영

동상

해뜨는집 _ 김금남

끈 _ 노학진

연화야, 다시 봄이다 _ 윤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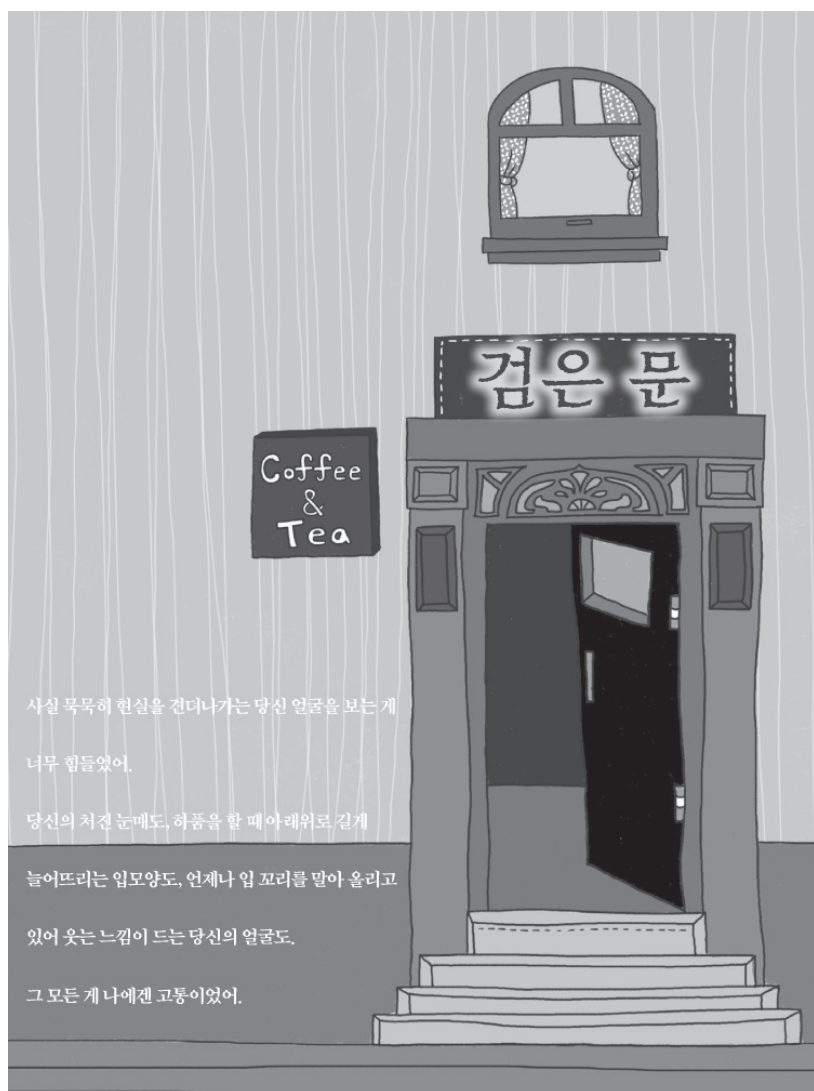
예감 _ 홍성호



검은 문



영천 중앙초등학교
이재곤



검은 문

정신을 차리고 처음으로 대면한 것은 짙은 어둠이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둠으로 인해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럴수록 나의 정신은 붉은 햇볕아래 놓인 물처럼 녹자지근하게 덥혀졌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주어진 모든 상황에 집중했다. 하지만 연말 결산의 마지막 관문을 남겨 둔 퀴즈 왕에게 주어진 힌트라고는 문제 그 자체뿐이듯 나에게 주어진 것 역시 어둠이 전부였다. 하는 수 없이 난 어둠을 향해 물었다. 이곳은 어디인가.

좀처럼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완벽한 어둠은 세상에 흔치 않았고 난 그런 곳을 추리할 만큼 똑똑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이런 절대적인 어둠 속에 갇혀 마냥 시간만 죽이고 있을 수도 없었다. 내 머리 속에 남아 있는 최근의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 천천히 기억의 저편을 더듬었지만 좀처럼 기억의 물결을 거슬러 오를 순 없었다. 그보단 내가 왜 이따위 어둠 앞에 사로잡혀 꼼짝도 할 수 없는가 하는 절망감으로 스스로를 더욱 움아맬 뿐이었다.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뚝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 눈 앞에 놓인 거대한 어둠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가 전부였다. 온몸이 묶인 듯 손가락 하나 달짝일 수 없는 공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리 없었다. 나의 정신은 공황상태에 빠진 듯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난 무장해제 되어가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

해 다시 소리칠 뿐이었다. 이건 꿈이야.

하지만 나의 외침은 끝내 소리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명징해지는 나의 정신이 그건 꿈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었다. 꿈이 아니라 여겨진 순간 이 현실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가 저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를 이런 절망의 공간 속에 가둔 사람을 잡아드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간을 벗어나야 했다.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하고 이 공간에서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났다.

공포라는 것이 그랬다. 처음엔 마주하기 싫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대상이지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나 역시 이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무도 없는 절대고독과 외로움이 공포의 장막에 둘러싸인 나에게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일러주었고, 난 그들의 말대로 순순히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나의 존재 깊이 잠자고 있던 기억이 하나, 둘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진아’였다. 아련히 혀속에 감기는 느낌이 좋아 그녀를 그냥 제이라 불렀다. 그녀는 대학가 변두리 골목 끝에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검은 찻집을 운영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 했다는 그곳은 그녀의 독특한 인테리어 감각이 돋보이는 장소였다. 한낮에도 습하고 어두침침한 검은 골목을 걸어가다 보면 그 끝을 조용히 차지하고 있는 암흑 같은 문이 하나 나오는데, 창고가 들어설 법한 그곳이 바로 그녀의 가게였다. 힘겹게 밀어야 서서히 열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검정색 벽면과 천장을 비추는 새하얀 벽걸이형 전등이 먼저 눈에 들어

왔다. 그리고 서서히 닫히는 문소리에 습관처럼 깜짝 놀라게 되지만, 외부의 빛이 차단되는 순간 주인의 조련찮은 인테리어 감각이 마음을 서서히 누그러뜨리는 묘한 곳이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소파와 티 테이블, 계산대까지 검은 색 일색이어서 그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벽걸이형 전등에서 나오는 하얀 빛조차 검정색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었다. 그 착각 속에 오래 있다 보면 그곳이 현실속의 공간인지 꿈속의 공간인지 의식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난 자연스럽게 검은 문을 열고 그 찻집을 드나들었지만, 어떻게 내가 그 찻집을 찾게 되었고 어떻게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인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검정색 티 테이블 앞에 앉아 찻집을 가득 채운 독특한 검은 향에 취해 검은 잔 속에 그득한 블루 마운틴의 부드러운 향취를 코와 혀 끝으로 음미하면 그 뿐이었다. 도심 속에서 느끼는 커피 한 잔의 여유, 그 여유 속에 녹아드는 그녀의 서늘한 미소 한 조각이면 충분했다.

제이는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내를 닮아 있었다. 가름한 턱 선과 뚝뚝한 콧날, 앙다문 입 매무새는 서구의 현대미를 보는 듯했고, 유난히 도톰한 눈꺼풀은 동양의 고전미를 보는 듯했다. 그렇듯 이 모두를 아우른 그녀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신비스러운 느낌이 가득했고 검은 찻집의 묘한 분위기가 덧입혀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거기에서 사이사이 비집고 드러나는 슬픈 눈동자는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 주었다. 단지 아내와 다른 것이 있다면 헤어스타일이었다. 웨이브 진 머리로 얼굴을 가린 아내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워 보였지만, 반듯한 이마를 드러내어 머리를 뒤로 질끈 묶은 제이의 얼굴은 한껏 입체적으로 보였다. 난 그런 제이에 게서 마냥 행복해 하던 시절의 아내 얼굴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의 기억은 거기까지였다. 검은 찻집과 그 가게의 주인인 제

이가 떠올랐고 덩달아 아내에 대한 기억이 그녀와 함께 이리저리 섞였지만, 지나간 기억의 흔재 속에 내 마지막 기억은 다시 자취를 감춰버리고 나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아득한 공간 속에서 다시 나의 정신은 몽글몽글 피어나는 연기처럼 저 멀리 떨어져 갔다. 무언가에 홀린 듯 까마득히 멀어지는 생각들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점점 깊은 잠에 까무러지듯 존재 자체가 열어지는 기분이었다.

재빨리 정신을 차렸을 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나의 의식 전체를 울렸다. 모래를 밟듯 자박자박 다가오는 열은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고, 구름이 잔뜩 낀 날 천천히 땅을 적시는 빗소리 같기도 했다. 아주 고요한 봄날 아무도 없는 백사장 위를 홀로 걸어 나갈 때 파도를 뚫고 들리는 내면의 발자국 소리처럼 앞으면서도 선명히 기억 속에 각인되는 소리였다. 아내가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홀로 거닐다 조심히 이불을 들추고 내 옆으로 다가올 때도 그런 소리가 났다. 서늘한 새벽 공기의 입자를 고스란히 체육복에 묻힌 채 슬픔은 털어내지도 못하고 그녀는 나의 품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내 가슴 한 쪽을 조용히 스쳐가는 유령 같은 기억 하나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지방의 맛과 멋을 소개하는 지면을 맡은 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아내는 제 가슴 속에 묻어둔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조증과 우울증을 넘나들기를 반복했다. 희뽀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저녁이 되면 그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창을 톡톡 두드리는 비라도 나리는 날엔 금방이라도 어둠이 내미는 손길에 몸을 맡길 것만 같았다. 그날도 그랬다. 사흘간의 취재로 발걸음은 이미 무거워졌지만, 날씨 때문이었을까 집으로 들어가는 나의 가슴엔 묘한 긴장감이 일렁였다. 어둠은 적당히 아파트 주위에 내려 앉아 나를 기다렸고, 아파트 입구를 들어설 무렵엔

어린 아이의 새끼 손톱만한 빗방울까지 툭툭 땅을 적셨다. 콧잔등과 팔뚝 위로도 빗방울은 떨어졌고, 정수리엔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바람이 빠져나갔다. 난 얼른 고개를 들어 6층 베란다를 올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그림자가 풍경처럼 그곳에서 있었다.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섰을 땐 이미 폭풍이 몰아친 듯 자신의 무릎을 이기지 못한 물건들이 볼품없이 바닥 위에 늘려 있었다. 작은 유리 어항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속에서 노닐던 새끼 금붕어 두 마리는 바닥 위에 악취를 풍기며 썩어갔다. 그녀가 보다 만 신문 중 몇 장은 찢겨 있었고, 몇 장은 바닥 위에 온전히 펼쳐져 있었다. 그 중 한 장 위에 인쇄된 붉은 별 하나가 깨진 어항 속의 물에 젖어 있었다.

난 거실 입구에 서서 무연히 창밖을 내다보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잠시만 방심하더라도 아파트 단지에 자리 잡기 시작한 어둠이 아내의 머리채를 닦아채어 밀으로 끌어당길 것만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 가득 차 있었다. 등을 보이고 선 아내의 몸 그림자엔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아내에게 남겨진 아픔의 크기를 가늠하듯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내 가슴팍에 들어온 그녀의 몸피는 작고 여위었지만 오히려 아내에게서 느껴지는 아픔이 나를 감싸는 듯했다.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고르게 퍼지는 아내의 숨소리, 그 소리들에 맞춰 오르내리는 그녀의 서늘한 가슴, 그리고 그녀의 가슴팍을 감싸고 있는 나의 팔뚝. 이 모든 것들이 낯설었다. 팔뚝 속에 갇힌 아내가 마른 꽃잎처럼 바스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는 한없이 껴안았다.

- 아파.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아내는 나의 가슴을 밀어내며 나직이 중얼

거렸다. 그리고는 싱크대로 가 쌀을 씻은 후 압력 밥솥에 안치기 시작했다. 아내는 언제나 그랬듯 거실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흔적들을 쓸어 담으며 붉은 별이 그려진 신문을 구겨 쥐고는 나를 향해 쓸쓸히 웃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그날 새벽 아내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밤새 뒤척이다 일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과 작은 방을 천천히 배회하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자박자박 꺾바퀴를 울리는 아내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난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결론짓지도 못하고 서서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늘한 기운에 슬며시 눈을 뜨자 아내가 두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제야 난 새벽녘에 들은 꿈결 속의 발자국 소리가 현실 속 아내의 발자국 소리였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의 온몸이 우는 듯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조명등을 켜고 젖은 그녀의 옷을 벗기려 했지만 그녀는 묵묵부답 그렇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젖은 옷을 벗기려 한참 실랑이를 하다 제풀에 꺾인 난 그녀 옆에 앉았다.

- 어디 갔다 온 거야?

- 화성.

그녀의 말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 화성에 가고 싶어. 붉은 사막이 한없이 펼쳐진 그곳으로 말이야. 그곳엔 신이 살고 있다는 거대한 산이 있대. 태양계에서 가장 높다네 그 산. 그래, 올림포스 산. 그곳에 가면 생을 관장하는 수많은 신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힘없이 자신의 말들을 뱉으며 고개를 들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웨이브 진 머릿결과 형형한 눈동자가 조명등에 반사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바람의 결을 고스란히 새겨둔 붉은 화성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기력하게 갇혀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았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채 들려오는 소리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억이 물어다주는 쓸쓸함만을 떠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누워 있는지, 아님 앉아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존재 자체를 울리는 감각을 제외하곤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알게 들려오던 그 발자국 소리도 이내 사라졌고 침묵을 압도하는 이명만이 가득차기 시작했다. 이명을 떨쳐내기 위해 무슨 생각이라도 떠올리려 애를 썼다. 그러자 아무도 없는 사막 위를 걸어 나가는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하얀 맨발을 드러낸 아내는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 위를 홀로 거닐었다. 사막의 거친 모래 폭풍 속에서도 그녀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 거대한 모래 바람 사이에서도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이명을 뚫고 살아나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때였다. 바닥을 울리는 섬세한 진동이 내 의식 속을 조금씩 파고들었다. 금속성의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잠시 나더니 이내 날카로운 물체로 벽을 긁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린다기보다는 의식 내밀한 곳에 숨어있는 것들을 울린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고막을 거쳐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의식 자체를 긁어내는 기분 나쁜 울림이었다. 기분 나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갇힌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살짝 기분이 들뜨기도 했다. 하지만 처절히 무언가를 긁어내는 소리 틈으로 들려오는 흐느낌은 다시 나를 알 수 없는 나락의 끝으로 내몰았다. 이런 공포에 맞닥뜨린 몸이라면 웅당 가슴이 가맴게 타들어간단든지 자기도 모르게 몸이 와르와르 떨어온단든지 하다못해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라도 들어야 정상이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느낌도 차단당한 채 의식만 남아 있었다. 몸의 반응로부터만 자유로울 뿐 지금의 상황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난 다시 어둠을 향해 소리쳤다. 이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에 서서히 화가 났다. 답이 없는 난센스 퀴즈를 푸는 어린 꼬마의 기분이 이러할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낯선 상황에 버려진 강아지처럼 온통 처참하다는 생각뿐이었다. 애타게 누군가를 불러 보지만 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고, 소리가 새어 나온다면 들리는 것은 내 목소리의 메아리가 전부일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이와 비슷한 기분은 비단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사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막막한 현실 앞에 갇힌 나 자신이 전부였다. 왜 나에게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소리쳐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질문의 메아리였다. 그 잔인한 시간들 속에 두 눈만 깜빡이고 있을 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지금의 어둠 속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난 아내 몰래 검은 찾집을 찾았다. 그곳은 어두웠지만 혼자라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제이는 항상 두 개의 시디를 틀었다. 언제나 그곳엔 잔잔한 뉴에이지 풍의 음악이 흘렀고, 그 음악의 배경으로 땅을 적시는 빗방울 소리가 내부를 감쌌다. 그리고 그 빗방울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검은 닥스훈트 한 마리가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꿈에 취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 ‘몽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였다. 성대 제거 수술을 받은 그 닥스훈트는 짖을 수가 없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았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독특한 내부 장식들에 낯설어 했고, 유령처럼 앉아 있는 그 개를 무서워했

다. 세상 모든 존재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개의 무심한 눈빛을 보고 나면 그 가게의 단골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곳으로부터 발길을 끊게 되었다. 그럴 때 마다 제이는 ‘충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쓰며 매상을 걱정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곧 평정을 되찾은 그녀는 안타까운 눈빛을 감추며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제이는 검은 찻집에 오는 손님 중 그를 맞이할 때 항상 들뜬 표정을 지었다. 묘한 설렘이 가득한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 도수가 높은 은테 안경을 걸친 그는 제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포용하고 있는 그의 미소를 보고 있자면 나 역시 아득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그 어떤 아픔도 어루만지겠다는 눈빛을 한 그에게 의지하고픈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가 가게 구석에 앉아 있는 나와 가끔씩 눈을 마주칠 때도 예의 그 온화한 미소만은 잊지 않았다. 그가 가게에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검은 찻집의 한 모퉁이를 차지한 채 그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고, 제이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그 대화에 흠뻑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하루는 제이가 검은 찻집을 나에게 맡겨 놓고 그를 따라 나간 적이 있었다. 그녀는 뒤로 질끈 묶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검정색 에이프런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후 붉은 빛이 감도는 검색 코트를 입고 가게 문을 나섰다. 그 순간 제이의 모습이 아내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건 아주 잠깐이었다. 아무도 없는 검은 가게 안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야트막한 빗소리에 갇힌 나와 검은 닥스훈트 한 마리가 전부였다. 나와 몽이가 검정색 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렇게 어색하게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기에 난 찬찬히 몽이를 훑어보았다. 몽이의 검정색 털엔 윤기가 가득했고, 모든 허무가 매달린 듯 두 귀는 축 쳐져 있었다. 우물처럼 깊게 파인 몽이의

검정색 눈을 지그시 응시했다. 하지만 몽이의 우묵한 눈동자 속에는 어떤 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순간 몽이가 무심히 눈꺼풀을 깜빡이며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 괜찮아?

끝없이 내려간 우물 속에 숨어 있는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깊은 소리였다. 블루마운틴의 향을 코끝으로 가져오던 난 기습적인 질문에 의미 없는 소리로 받아쳤다. 괜찮지 않으면? 하지만 그뿐이었다. 몽이는 다시 깊은 눈동자를 깜빡이며 나를 바라보았고, 나 역시 그런 몽이를 무심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은 눈이 내릴 것처럼 쥐색 구름이 낮게 드리운 날이었다. 전날은 아이의 유치원 졸업식이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와 있었다. 난 디지털 카메라에 찍힌 졸업식 사진들을 식탁 앞에 앉아 확인하고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아이는 자신의 빠진 이가 수줍은 듯 웃고 있었다. 배를 살포시 감싼 사진 속의 아내는 품이 넓은 붉은색 스웨터를 입은 채 꽃다발을 안고 아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손녀의 손을 잡고 있던 사진 속의 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깊은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홀로 자식을 키운 시간들을 더듬어 보는 듯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은 쓸쓸해 보였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엔 투명한 기름기가 감도는 잡채와 불고기, 조기가 올라와 있었다. 아내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미역국을 덥혔고, 딸아이는 아빠의 생일인줄도 모르고 아직 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난 여느 날처럼 식탁위에 올라온 반찬들을 주섬주섬 주워 먹고는 출근을 서둘렀다. 이미 북한강 끝자락에 위치한 식당의 사장과 취재를 약속한

상태라 서둘러 사무실에 들어가 장비와 질문지를 재확인해야 했다. 어머니 딸아이가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아이에게 졸업 선물을 사준 후 곧바로 시골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다. 전날 미리 준비한 어머니의 용돈을 아내에게 쥐어주며 아이의 졸업식 자리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아내는 내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며 나에게 찡긋 눈을 감아 보였다. 고마운 마음에 난 그녀의 어깨를 살짝 껴안은 후 출근을 했다.

취재 준비를 마치고 휴게실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TV 화면으로 그 장면이 흘러나왔다. 조금씩 나리는 하얀 눈 사이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였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남의 사고로만 여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로부터 딸아子和 어머니가 그 건물의 아동복 매장에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난 딸아이를 찾기 위해 취재를 취소하고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어머니와 딸아이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붉은 화염이 훑고 간 자리에는 검은 재만이 남아 있었다. 곧 대책 위원회가 꾸려졌고 휴대폰 추적을 통해 어머니와 아내의 마지막 통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유족 측 대표와 쇼핑몰 관계자와 정부 측 특별대책위원회의 지리멸렬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그 동안 아내는 5개월 된 뱃속의 아이를 유산했다.

세월이 꽤 흘러 아령치한 나의 기억속에서도 분명한 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였다는 것이다. 아동복 매장의 화재 경보 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관계 직원이 기계의 작동을 멈추어 놓았고, 비상구 계단엔 많은 짐들로 발을 디딜 틈이 없었다. 건물의 오래된 난방 장치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많은 상인들이 쇼핑몰의 방침을 어기고 개인 난방 기기를 사용했다. 그 중 누군가는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며 값싼 기기를 주문했고 하필 그 중 하나는 불량품이었다. 그렇게 한 매장에서

불꽃은 시작되었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 사고는 커져갔다. 화재를 안 다른 직원이 화재경보기의 전원을 다시 올렸지만 이미 커져버린 화염 속에서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는 뒤늦게 작동했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렀다. 이 모든 것들이 빈틈없이 맞물려갔다. 어머니의 열차 예약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이른 오전에 아이와 함께 쇼핑을 가야했다. 어머니 손녀와 둘 만의 데이트를 하고 싶다며 아내에게 집에 있을 것을 권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도심의 화재 사건이 잊혀 질수록 아내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다.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일쑤였고, 비가 내리거나 어둠이 세상을 감싸면 아득한 지상을 향해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이어졌다. 난 그런 아내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다. 회색 벽 위의 오래된 금처럼 아내와 나의 일상에 조그맣게 나있던 균열의 틈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점차 벌어지는 틈을 보면서 아내의 손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어떤 것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런 나의 마음이 전해진 것인지 아내는 신이 살고 있다는 화성에 집착한 이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 갔다. 고자누룩해지던 그녀의 감정들도 망각의 톱니에 다시 맞물려 돌아가는 듯했다.

잔약한 나의 정신을 새되게 긁어대던 금속성의 소리는 투둑 무언가가 뜯겨나가는 소리와 외마디 비명을 끝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흐느낌은 한참동안 계속되었다. 흐느낌과 비명 소리가 몇 번 더 오간 후 서서히 얇은 숨소리로 잦아들었다. 잦아드는 숨소리 속에 어떤 존재가 서서히 미끄러져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벽에 기댄 누군가가 서서히 바닥

으로 가라앉는 소리 같았다. 난 어둠 속에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았지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먼저 비명소리의 주인을 찾고 싶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이 내가 알고 있는 여자일 경우와 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제 3자인 경우를 먼저 생각했다. 제 3자인 경우는 어차피 추측이나 상상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을 게 뻔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주변의 여자들로 다시 압축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역시 아내와 제이었다. 나의 바람일지 모르지만 이들이 절대적인 어둠 속에 놓여 있다 해서 나를 알아보지 못 할 리는 없었다. 물론 아내의 쇠약한 정신 상태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치료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여자일 확률이 높았다. 취재를 통해 만난 사람 이거나 사무실에 있는 여자 후배일 경우가 있었지만, 난 그들과 이렇다 할만한 교류가 거의 없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휘저었고 이도저도 아닌 제 3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다시 들어왔다. 그럴수록 나의 머릿속은 헝클어져 갔고 다시 존재 자체가 열리는 기분이었다.

의식의 고삐를 놓치려는 순간 툭툭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난 그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것인지 집중했다. 하지만 암흑 속에 갇힌 나로서는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 다만 바닥과 금속성 벽면을 긁는 소리가 바로 주위에서 났다. 지난번의 새넌 소리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규칙적으로 긁는 소리에 푸룩푸룩 거친 숨소리가 간간이 섞여 있었다. 순간 그 소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밥 때가 되었을 때 몽이가 검은 찻집의 주방에서 내는 소리였다. 배가 고픈 몽이는 푸른색 타일이 깔린 주방으로 가

뻔게 다가가 바닥과 업소용 대형 냉장고의 벽면을 긁는 게 습관이었다. 그러면 제이는 알았어,라며 가볍게 말한 후 한입 크기의 생고기를 익히지도 않고 던져주었다. 바닥과 벽면을 긁는 시간의 간격이 정확하게 몽이의 그 행동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 내 짐작이 옳다면 몽이는 배고픔이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이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드디어 난 이곳을 검은 찻집의 어느 장소라고 결론지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몽이 덕분이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와 몽이의 행동 패턴을 통해 검은 찻집의 주방 근처라는 것까지 생각이 미쳤다. 하지만 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고, 완전한 암흑이라는 조건까지 충족시켜 주는 곳은 더더욱 생각나지 않았다. 난 검은 찻집을 평면으로 놓고 도면을 그리듯 되짚어 나갔다. 주방 앞의 계산대 뒤에 있는 수납공간이 의심되긴 했지만 그 장소는 두 명의 사람이 들어갈 만큼 넓은 장소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업소용 대형 냉장고는 어떨까. 직접 열어 본적이 없어 크기가 어느 정도 인진 알 수 없지만 주방 밖에서 얼핏 본 크기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그리고 금속성의 소리들은 그런 추측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 속이라면 절대적인 어둠속의 시야도 합당하게 설명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곳은 역시 냉장고 속이 분명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공간에 갇힌 사람은 제이일 확률이 높았다. 제이. 헛속을 스치는 바람이 내 기억 속에 맴돌았다.

나와 함께 최악의 상황 속에 놓인 이가 제이라면 범인은 나와 제이 사이를 알게 된 아내일 것이다. 우리의 관계에 상상을 키워나가며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 아내가 우리를 이곳까지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조울증 약을 끊었으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였기에 나의 추측은 더욱 확신으로 굳어져 갔다. 혹여 아내가 아니라면 가끔씩

검은 찻집에 들러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그는 어떨까. 나와 제이 사이를 시기해 눈이 먼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통속적이긴 하지만 이 역시 가능한 이야기였기에 상담소의 소장인 그 역시 용의 선상에 올려두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측에 불과했다. 어긋난 추측은 망상의 길이만 더할 뿐이었다.

아내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 화성에 끝없이 집착했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가 화성에 가고 싶다고 한 그날 이후 부터였다. 신들이 살고 있다는 그 행성의 사진과 기사를 찾아 벽지 위에 오려붙이는 것이 시작이었다. 붉은 불의 기운이 감도는 화성은 물론 그 행성의 두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까지 화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끌어 모았다. 큰방 천장에는 태양계의 8개 행성을 모아둔 모빌을 걸어 두었고, 거실 선반에는 화성탐사로봇 모형이 올려져있었다. 양중맞은 두 대의 장난감 로봇은 달팽이 눈처럼 생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고,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라는 이름을 가진 그 로봇들은 절대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품은 듯 하나의 받침대 위에 등을 맞대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아내의 화성에 대한 호기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나의 속옷까지 화성과 관련된 상표를 찾아 주문했다. 포보스라는 상품명을 찾아 클릭하는 그녀의 눈빛엔 곧 화성에 도착할 것 같은 의지가 서려있었다.

그즈음 끝을 보이지 않던 우울도 서서히 씻겨 내려갔다. 불의 행성인 화성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제외하곤 다시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화성에 대한 자료가 모일수록 아내에게는 알 수 없는 설렘이 우울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어둠과 비가 함께 내려앉은 날에도 아내는 더 이상 베란다에 서지 않았다. 난 그것을 자의대로 생에

대한 의지로 해석했다.

- 화성에 다녀올게.

아내는 막 잠에서 깨어난 부스스한 얼굴로 출근을 서두르는 나에게 말했다. 해맑게 하품을 하며 말하는 아내에게 난 현관문을 열고 무심히 대답을 했다.

- 빨리 갔다 와야 해.

사무실에 앉아 기사의 오타자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내의 그 말이 자꾸 입에서 맴돌았다. 화성에 갔다 올게. 혼자 나직이 반복하는 데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쳤던 아내의 그 말이 예의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1분이 지나도록 연결음만 지속될 뿐이었다. 한 번의 시도였지만 예민한 감각을 찌르는 불길함이 엄습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곳은 집 아래 화단이었다. 아무런 흔적 없이 가벼운 일상을 스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 젖혔지만 그곳에도 아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큰방과 작은방을 다시 확인했지만 그 곳에도 아내는 없었다. 남은 곳은 이제 마지막 한 곳이었다. 제발, 나직이 중얼거리며 욕실 문을 여는 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욕조 속을 가득 채운 붉게 물든 물이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것인지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욕조 속에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는 아내의 하얀 표정은 아이처럼 편안해 보였다. 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아득한 표정과 달리 나의 가슴은 가뭇게 타들어갔다.

아내가 눈을 떴을 땐 이미 밝은 희뵈한 빛에 휩싸이기 시작한 새벽이었다. 난 병상 옆에 앉아 붕대를 감은 아내의 왼손을 잡은 상태로 조용

히 잠이 들었고, 깨어난 그녀가 몸을 비틀어 오른손으로 나의 어깨를 조심히 흔들고 있었다. 한쪽 병상이 비어있는 2인실엔 적막이 가득 찼다. 그 어떤 소리도 꿰뚫지 못할 만큼 밀도 있고 적요한 새벽이었다. 무거운 방안의 분위기를 밀어내기 위해 난 억지로 메마른 입술을 떼며 그녀에게 물었다.

- 잘 다녀왔어?

- 응.

아내의 짧은 대답을 끝으로 다시 실내는 고요가 들어찼다. 무겁게 내려앉은 새벽녘의 공기는 어떤 대화에도 좀처럼 밀려 나지 않을 기세였다. 난 링거의 조절 관을 조금 더 조여 놓은 후 천천히 떨어지는 수액을 바라보았다.

- 그곳에 신은 없었어.

실망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던 아내의 목소린 메마른 모래처럼 벋석거렸다. 난 아내의 왼손을 살포시 잡으며 다시 내려앉기 시작한 침묵을 바라볼 뿐이었다.

- 붉은 황무지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양중맞은 로봇 두 대가 전부였어. 인간들이 물을 찾기 위해 보낸 두 대의 로봇. 그들은 극과 극에 떨어진 후 서로의 존재는 가마득히 잊은 채 사막 위를 헤매고 있었지. 스피릿(spirit)과 오퍼튜니티(opportunity)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 보였어. 매일 아침이 되면 자신의 태양 전지판을 활짝 펼친 후 그곳을 통해 흡수되는 빛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게 일상의 시작이었어. 그리고 프로그래밍 된 순서에 의해 지구를 향해 전파를 쏘아 보내는 거야. 무사하다는 신호를 받은 인간들은 습관처럼 환호했고, 로봇들은 인간의 신호를 다시 기다렸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

아내는 목이 마른지 잠시 말을 끊고 물을 찾았다. 난 작은 물통에 달린 빨대를 그녀의 입에 갖다 대었다. 아내는 불우물을 만들며 힘껏 물을 빨아 당긴 후 지그시 허공을 응시했다. 계속 말을 이어가는 아내의 눈빛엔 정말 붉은 돌과 모래가 가득한 화성을 바라보는 듯했다.

- 서로의 존재를 가마득히 모른 채 화성의 시간으로 90솔(솔: 지구의 하루와 길이가 비슷한 화성의 단위 시간)만 견뎌내면 그들의 임무는 끝이었어. 하지만 그들은 기적과도 같은 4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버텨내었지. 난 그렇게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어. 올림포스 산에 존재한다던 신의 가호 덕분인지.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뜻밖이었어. 그곳에 신은 없다는 거였어. 결국 그들의 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야.

- 아마 그게 그들의 운명 아닐까.

나의 대답에 아내는 여전히 허공을 향한 허허로운 눈빛으로 계속 말을 이었다.

- 운명이었을까. 운명은 신이 있을 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지구에도 화성에도 신들이 산다는 올림포스 산에도 신은 존재하지 않았으니. 인간들도 그렇게 오래 생존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 했으니 실수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까. 실수라면 이 모든 것이 용서될까.

아내의 목소린 핏기 없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닮아 있었다. 난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서서히 밝아 오는 아침 햇살 아래 놓인 아내의 손을 다잡았다. 나의 손길에 아내는 눈물을 숨기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어떤 말도 아내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냥 이렇게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 사실 묵묵히 현실을 견뎌나가는 당신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당신의 처진 눈매도, 하품을 할 때 아래위로 길게 늘어뜨리는 입모

양도, 언제나 입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어 웃는 느낌이 드는 당신의 얼굴도, 그 모든 게 나에게겐 고통이었어. 심지어 당신이 밥을 먹을 때 사용 하던 왼손까지. 당신을 볼 때마다 화염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아이의 얼굴이 생각났어. 할머니 품에 꼭 안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그 아이의 불과 양증맞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도 신은 없다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임이잖아.

아내의 얼굴은 어느덧 나를 향해 있었고, 아침 햇살에 고스란히 드러 난 그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후 아내는 화성과 관련된 수집품들을 하나 둘씩 버려나갔다. 마지막 으로 큰방 천장에 걸려 있던 태양계 모빌을 떼어내고는 조울증 약들 도 서서히 끊어 나갔다. 더 이상 그녀는 집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자기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 도시의 변두리 지역을 돌아다니다 작은 가게도 하나 마련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일상을 걸어 나갈 힘을 그날 이후 얻을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일까. 더 이상 이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하 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왔는지, 누가 이런 일을 도모했는지도 의미가 없었다. 이 공간 속에 갇혀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약도 없 이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누군가가 나에게 근육이완 제와 같은 몹쓸 약을 주사한 것인지 아니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에 있 는 신경이 눌러 모든 감각이 마비되었는지도 궁금하지 않았다. 단지 모 든 것을 차단한 어둠과 아무도 없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 만 이곳을 벗어난다 한들,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자 모든 것이 피곤해 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의식 자체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이번엔 존재 자체가 투명해져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러자 벌어지는 존재 옆으로 무수한 추억들이 스쳐갔다. 어렸을 적 어머니와의 추억은 물론 아내와의 연애 시절을 거쳐 아이와 단란했던 기억들, 그리고 아이와 어머니의 죽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빛과 같은 속도로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빠른 속도로 스쳐가더니 그 기억들 역시 점점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 벌어지는 생각과 추억들 틈으로 나의 마지막 기억이었을지 모를 낯익은 장면 하나가 스쳐가고 있었다.

제이와 난 검은 찻집의 문을 닫고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집에 혼자 있을 아내 걱정을 하면서도 난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제이가 따라준 맥주를 마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이는 얼마 전 같은 간담소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의 의심스러운 눈길을 제이는 못마땅했고, 그녀는 할 수 없다는 듯 그곳으로 나의 손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자살방지 센터 소장의 신분으로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 검은 찻집을 나에게 맡겨 놓고 그를 따라가던 제이가 찾은 곳이 그곳이라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의심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연구 중이라는 기계가 있다며 괜찮으면 한 번 실험해 볼 것을 권유했다. 사람을 실험한다는 말이 좀 언짢았지만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의 말에 난 선뜻 동의했다. 그렇게 제이와 난 하얀 방에 앉아서 서로의 머리에 전극을 붙였다.

송신자의 뇌파를 스캔해 컴퓨터로 전송하면 그 상태를 똑같이 재현해 수신자의 전극을 자극하고, 수신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는 기계였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까지 임상 실험 단계에 있는 감정교류 기계에 체험 신청을 한 것이 제이였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들이라는 말까지 친절하게 일러주었

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올까 고민하던 차에 나의 의심이 그녀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소파에 한껏 몸을 묻고 그 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맥주를 마시는 나를 향해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 난 당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날 우린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최면에 걸린 당신은 머리에 전극을 붙인 채 모든 것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 하지만 난 당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어. 나 혼자만 그렇게 아픈 줄 알았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당신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넘어올 때, 사실 너무나 무서웠어. 끝도 모를 깊은 구덩이 속에 당신이 숨어 있었어. 절대 헤어 나올 수 없을 만큼 깊고 차가운 구덩이었지. 나를 초월한 그 아픔들에 현기증이 났어. 나만 이렇게 되돌려 놓은 채 당신은 왜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건지 두려웠어. 당신만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내가 어리석었어. 존재의 끝에 숨어 있는 당신을 끌어올리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절대 헤어 나올 수 없는 깊이에 당신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그래도 이 아득한 우주 속에 흩어진 우리들의 시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적어도 당신과 난 자그마한 텃밭무더기에 함께 핀 꽃이니깐.

제이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깊은 잠에 빠지듯 소파위로 쓰러졌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대청 위에 앉아 있다 맞이한 졸음 같았다. 그런 나의 망막에 비친 제이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제이의 투명한 눈망울에서 푸른 물방울 하나가 천천히, 끝도 모를 시간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매번 말간 얼굴을 한 화면을 볼 때마다 막막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표정을 그 속에 담아 볼까. 약간은 시니컬했으면 좋겠어. 아냐 그래도 무게감 있는 근엄한 얼굴은 어떨까. 음, 그건 너무 무거우니 약간 담백한 표정은 어때. 이런 생각만으로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기를 수 백 번. 그리고 한 자 한 자 새겼다 지우기를 수 천 번. 저에게 있어 쓴다는 일은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자그마한 뚝단배가 아닐까 합니다. 나침반도 없이 무작정 육지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뱃사공. 커다란 섬일지, 대륙일지 모르지만 그 뱃사공이 운 좋게 흠을 밟았다는 표현은 조금 지나친 것일까요.

먼저 소설의 바다로 인도해주신 대구교대 이강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쓸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는 교수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엄창석 선생님과 이야기 마을 식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대구 중앙도서관 토론실에 앉아 재미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고 비평해주는 이야기 마을 식구들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제 자리를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글 뽑아주시는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정진하여 좋은 글로 모든 이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한안균청
김 성 민

노 랑 진

인제 어떡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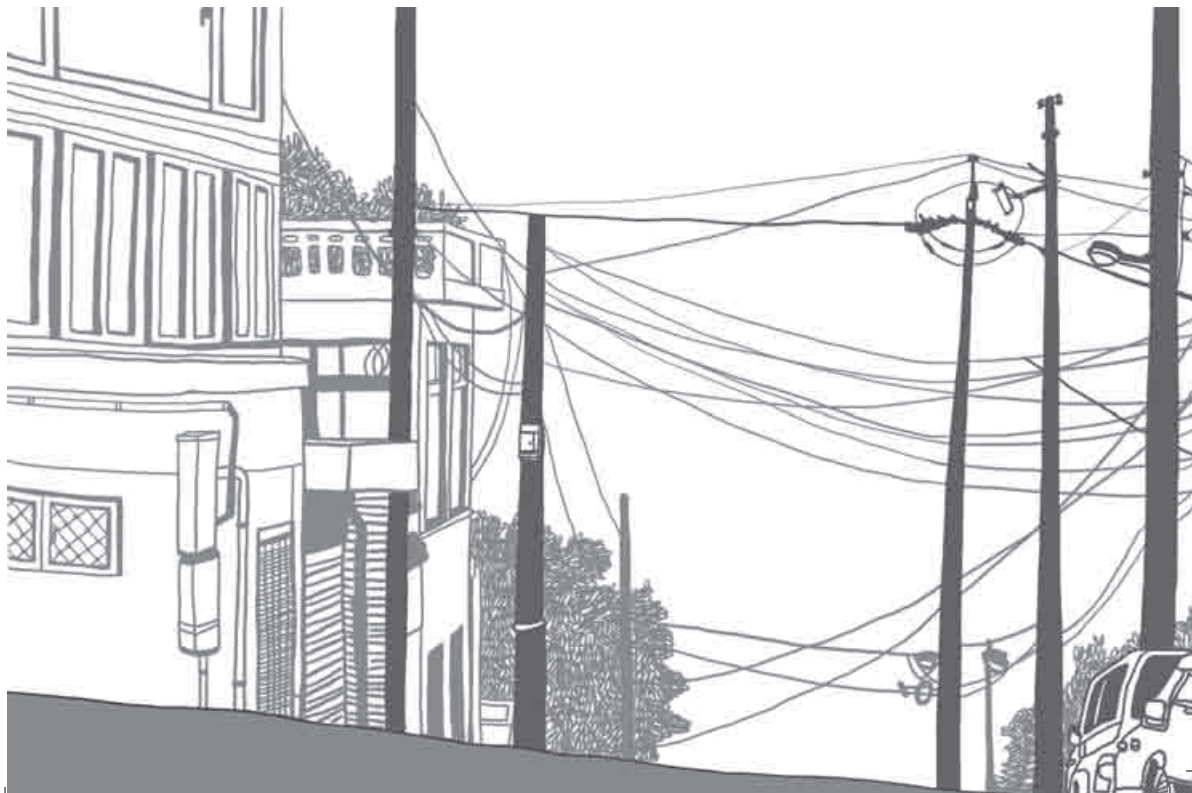
선영이 은우의 빈 잔을 채우며 물었다.

다시... 시작할 거야?

지금 선영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은우는 알 수 없었다.

선영이 들으려는 자신의 길에 대해 은우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하나.... -본문 중에서-



노 랑 진

1

유월의 오후 다섯 시. 4층짜리 고시원 옥상출입구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낡은 컴퓨터 앞에 은우가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열린 옥상문 밖에서는 가루비가 훑날리고 있었다. 이른 여름의 눅눅함이 구석 벽의 곰팡내에 실려 전해졌다. 열린 문을 통해 이따금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초여름 비의 쌀쌀함이 반팔 먼티 밖으로 드러난 은우의 팔에 소름을 돋게 했다. 은우는 두 손으로 팔을 쓸어대다가 목 뒷덜미를 가볍게 주물렀다. 작년 여름 동대문에서 산 장당 팔천 원짜리 먼티의 목 부분이 늘어져 조글조글했다.

「귀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버튼을 누르세요.」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수험번호를 각각 입력할 수 있는 공란 세 개가 무뚝뚝한 글씨체의 <국가공무원 임용고시 합격자 조회>라는 제목과 함께 무뚝뚝하게 떠있었다. 애초 홈페이지 제작자도 ‘흠’이 물씬 풍겨대는 무뚝뚝한 분위기를 의식해서였을까? 윗니를 살짝 드러낸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표준적인 안내 자세를 취한 정장차림의 여성모델이 심심한 화면 한 모퉁이를 포인트 벽지처럼 차지하고 있었다.

아주 잠깐, 은우는 그녀가 모델이라서 예쁘고 모델이라는 직업이 있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우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재빨리 입력한 후 지갑에서 반으로 접힌 응시표를 꺼내어 펼쳐보았다. 응시표 왼쪽공간을 차지한 증명사진의 어색한 웃음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20대의 끝물에 다다를 때까지 애써 무시해왔던 ‘현실’이란 것에 화해의 손을 슬쩍 내밀어 보는 몇 째 웃음이었다.

은우는 응시표에 적혀진 응시번호 여덟 자리를 한자씩 조심스레 확인해가며 입력한 후, 마우스 커서를 확인 버튼으로 가져갔다. 숨이 멎었다. 심장박동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은우는 자신도 모르게 두 다리를 요란스럽게 떨어대며 왼손 엄지의 굳은살을 물어뜯었다. 흑하고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이번에는 팔에 돋은 소름을 느끼지 못했다. 마른침을 삼키며 확인버튼을 클릭했다.

「귀하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빛을 포함한 주위 모든 것이 고요 속에 잠겨버렸다. 귓속에서는 매미가 웅웅 울어대는 듯했다. 커서를 쥔 손바닥은 땀으로 미끈거렸다. 요란스럽게 떨어대던 두 다리는 힘이 풀린 듯 움직임을 멈췄다. 비가 굵어졌는지 옥상 바닥이 비에 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우는 다시 이름부터 차근차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했다.

귀하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귀하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 번 · 더!

귀하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모니터에 단단히 고정된 두 눈이 아려오는 듯하더니,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음, 음…….

등 뒤에서 헛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은우는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언제부터 서 있었던 걸까…, 추리닝 차림에 뒷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에선 불안과 피곤이 느껴졌다.

저기……, 죄송한데 컴퓨터 줌…….

한여름 땀별 아래서 낫술을 들이켰을 때 마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등과 가슴팍에서는 더운 기운이 뻗쳐 올라왔다. 은우는 컵물을 한번 훌쩍 대고는 응시표를 바지 주머니에 꾸겨 넣은 채 서둘러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갔다. 슬쩍 스친 그녀에게서 건조한 먼지 냄새가 나는 듯했다. 처음 선영을 만난 날, 그녀에게서도 비슷한 냄새가 스치듯 났다.

2

은우가 선영을 처음 만난 것은 이년 전. 그러니까 은우가 불안한 행복의 나날이었던 이십대에 작별을 고하고 몇 개월간 빠듯하게 준비한 끝에 생애 처음으로 ‘낙방’이라는 고배를 마셨던 서른의 그해- 머리를 뽁뽁 밀어버리는 것으로 굳은 결의를 대신하며 들어온 이곳 노량진에서의 생활에 점차적인 익숙함과 그에 비례하는 무료함이 찾아들던 가을 무렵이었다.

그날도 아침 8시에 시작하는 입시학원 무료특강을 좀 더 나은 자리에서 들으려 새벽부터 서둘러 고시원을 나섰다. 6시 20분..., 아직 사위가 어스름한 이른 시간임에도 늘어선 줄이 제법 길었다. 3층 강의실 문 앞에서 시작된 이 줄은 곧 아침 해가 만들어내는 긴 그림자 마냥 학원사무실과 휴게실이 있는 2층 복도를 거쳐 각종 임용고시 서적이 준비한 1층 서점을 지나 학원 옆 커피숍 건물입구까지 길게 이어질 터였다.

한데 그 줄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은 공무원임용시험 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이 아니었다. 새벽의 쌀쌀함이 내려앉은 빈 학원복도에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은 누가 쥐도 가져갈 것 같지 않은 허름한 가방 혹은, 중고서적 등이었다.

이른 새벽에 나서다 보니 대부분 아침밥을 거르기 일쑤였는데 공복으로 점심시간까지 강의를 듣는 건 일종에 고행 같은 것이었으므로 수도승이 아닌 공시생들에게는 그것이 곧 고역이었다. 또한, 수험생들에게는 아침밥이 집중력을 올려주는 브레인 푸드라고 어느 저명한 두뇌연구 학자가 말하지 않았던가. 하여 공시생들은 너나할 것 없이 자신을 대신하여 낡은 가방이나 서적 등으로 영역표시를 하고 아침을 해결하려 나갔다. 그리고 출근인파로 거리가 생기를 찾을 무렵인 7시 30분쯤이면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와 조금은 쓸쓸했던 학원 복도를 푸석푸석한 생기로 채웠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식권으로 세끼 식사를 뷔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고시식당에서 토스트로 아침을 해결한 은우가 돌아온 건 7시 20분. 대부분 공시생들이 자신들의 영역으로 복귀해있었지만 은우 앞에 우두커니 놓여있는 가방 주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가방 하단에는 체크무늬 천으로 만든 테디베어가 조그맣게 매달려 있었는데 곳곳에 때가 묻어있었다.

7시 30분. 학원사무실 직원이 강의실 문을 열자 공시생들은 먹이를 들고 제집으로 돌아가는 개미들 마냥 자신들을 대신했던 물건들을 각자 들고 줄을 줄여 나아갔다.

이윽고 줄어든 줄이 은우 앞까지 왔지만 가방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인 없는 가방을 슬쩍슬쩍 발로 밀며 앞으로 나아갔다. 가방에 매달린 테디베어가 가방바닥과 복도바닥 사이에 끼인 채 끌려갔다. 그 모습이 웬지 쓸쓸해 보여 은우는 가방을 한 손에 들고 강의실로 들어가 옆자리에 올려놓았다.

가방 주인은 이날 특강이 시작되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은우는 짝 찬 강의실에서 유일하게 비어 있는 자신의 옆자리와 덩그러니 비워둔 자리에 대한 주위의 눈총이 꽤 신경 쓰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특강이 끝나자 공시생들은 각자의 수업이 있는 강의실이나 다른 학원으로 향하느라 분주히 일어났다. 은우는 빠져나간 학생들로 텅텅그렁한 강의실에 텅텅그렁하게 남아있는 가방의 쓸쓸함을 어찌지 못하고 사무실에라도 가져다줄 요량으로 들춰 메고 나섰다.

그날따라 2층 사무실에는 수강신청자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다음 수업시간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터라 은우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어 들고 사무실 앞 게시판에 부착된 안내문들을 의미 없이 읽어보았다. 대부분 새로운 특강이나 자격증 시험에 관한 안내문이었다.

톡톡. 누군가의 손끝이 가볍게 은우의 등을 두드렸다. 은우가 돌아보자 부스스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민얼굴에는 피곤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한낮의 햇볕에 섞인 듯한 나른하면서도 건조한 먼지 냄새가 묻어나는 듯했다.

혹시…… 그 가방…….

아, 하고 은우가 반가움을 가방에 담아 전하려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심하게 빨개지는가 싶더니 지옥의 문 앞에라도 선 것처럼 일그러졌다.

욱!!

곧 그녀 주위를 맴돌던 건조한 먼지 냄새는, 이른 새벽 도심의 뒷골목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걸쭉하고도 시큼털털한 냄새로 대체되었다.

욱, 욱, 우웨엑!!

지난밤 그녀가 누군가와 신나게 불러대었을 다양한 메뉴가 학원복도와 은우의 낡은 운동화와 그의 청바지에다 화려한 색상의 꽃을 틔웠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코에는 콧물이, 입에는 기타 등등의 부산물이 그렁그렁했다. 가뜩이나 단조로운 일상에 무료해 있던 공시생의 눈들이 이 진귀한 아침풍경을 놓칠 리 없었다. 뒤처리고 뭐고 은우는 그녀의 손을 넓다 잡고 다급히 학원을 빠져나와 옆 건물의 커피숍을 향했다.

다행히, 이른 아침인데도 커피숍의 문은 열려 있었고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커피숍은 한산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을 향했다. 은우는 그때까지도 자신의 어깨에 둘러메진 그녀의 가방을 구석진 자리에 놓고는 테이블에 놓인 냅킨으로 더러워진 바지와 운동화를 대충 털어내고 맞은편에 앉았다.

아침 햇살로 눈부신 창밖의 거리는 느리고도 한가했다. 커피숍에서는 FM 음악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아침방송의 디제이 음성은 가볍고 여유로웠다. 은우는 세상의 한가함과 여유가 제 것인 양 편안하게 느껴졌다. 의자에 몸을 기대는 채 잠깐 눈을 감았다. 얼굴에 닿는 가을 햇살이 실내를 여운처럼 감도는 은은한 커피 향과 제법 어울렸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그녀가 마주앉았다.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젖어있는 머리칼을 귀 뒤로 쓸어 넘

졌다. 살짝 드러난 귀는 단정하고 정갈했다. 심플한 링 귀고리가 걸린
깃불이 빨강게 돌아올라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선영이라 했다.

3

맥없이 옥상에서 터벅터벅 내려오던 은우는 자신의 방이 있는 삼층
을 지나 일층 현관 밖으로 나왔다. 그 사이 빗줄기는 한층 더 굵어져 있
었다.

은우는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이고는 한 모금 깊이 빨아들였다. 혹 -
하고 담배연기를 내뿜자 연기가 눈에 들어갔는지 두 눈이 알알하니 쓰
려왔다. 손등으로 눈물을 슬쩍 훔쳐내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스카
이 고시원」. 짙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굵게 쓰인 고시원 간판이
지지대에 매달린 채 땅을 딛지도 하늘에 오르지도 못하고 비에 흠뻑 젖
고 있었다.

스카이 고시원은 근래에 지은 듯 비교적 깔끔한 4층짜리 건물로, 1층
에는 주차장과 휴게실이 있었고 2층에는 여자 수험생들의 방이, 3층에
는 남자 수험생들의 방이 들어차 있었다. 은우가 기거하는 3층에는 총
열한 개의 쪽방이 한 개의 공동세면실과 함께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
다. 4층에는 ‘스페셜 룸’이라 하여 개인 샤워시설까지 갖춘 다소 넓
은 방이 다소 비싼 방값을 요구하며 자리 잡고 있다고 은우는 들은
바 있다.

연거푸 두 대의 담배를 피운 은우는 낯선 여행길에서 방향을 잃어버
린 사람 마냥 망연히 서 있었다. 이따금 추리닝 차림의 공시생들이 종
종걸음으로 한둘 지나다닐 뿐 비에 젖은 고시원 앞 골목은 한차례 명절
대목을 치러낸 재래시장만큼이나 한산했다. 아마 오늘 발표된 시험결

과에 따라 누군가는 골방에, 누군가는 때 이른 술집에,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기다리며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은우는 바지주머니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단축번호 1번을 꾸욱 눌렀다. 이내 액정화면에 「선영」이라는 이름이 떴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익숙한 통화연결음이 들려왔다.

3분여에 지나지 않는 곡이지만 말야……,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지금의 나를 지겹도록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쉽게 잊을 수 있어. 끝을 알 수 없는 초조와 불안만으로 꾸며진 미로에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우주 끝으로 올려다 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나의 미래도 투명하게 보일지도 몰라.

언젠가 은우가 선영의 고시원 방을 처음 찾아갔던 날, 선영은 MP3로 이 곡을 들려주며 말했다. 그때 들은 좁디좁은 방에 나란히 누워있었고 선영의 시선은 무심히 천장을 향해 있었다. 은우도 선영의 시선을 따라 천장을 보았다. 무한히 반복되는 듯한 격자무늬 벽지에 여기저기 쥐들의 오줌들로 얼룩져 있는 천장이었다. 은우는 저 초라한 천장을 뚫고 사뿐히 날아올라 커다란 달빛 아래에서 무심히 이곳 노량진 고시촌을 내려다보고 있을 선영을 상상해봤다. 그 곁에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있으려나…. 은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은우는 그런 선영의 손을 꼭 감싸 쥐었다. 가늘게 떨리는 숨결이 은우의 입술에 와 닿았다. 그날 은우는 처음으로 선영을 안았다.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오니 뻘 소리가 난 후…….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은우는 담배를 한 대 더 피우려다 말고 자신의 방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고시원 내부는 늘 그랬듯 생기라고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괴괴했다. 은우는 무겁게 가라앉은 고요를 조용히 헤치고 들어가 자신의 방문을 열었다. 3평 남짓한 공간에는 정말 1인만 사용할 수 있는 1인용 침대가 잣빛 책상에 맞대어 놓여 있었고 침대 쪽 벽면에는 에어컨이, 책상의 한 쪽 여유 공간에는 간이냉장고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신기에 가까운 정도의 공간활용도를 자랑하는 방이었다.

은우는 침대에 털썩 드러누웠다. 매트리스의 눅눅하고 차가운 기운이 등으로 전해졌다. 긴장이 빠져나간 자리로 피곤이 무겁게 찾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정숙만이 허락된 3평의 공간으로 빗소리가 가득 들어찼다. 욕지기가 날만큼 들여다 본 각종 수험서들이 빗소리에 뚱뚱 떠다녔다. 문득 가슴이, 체한 듯 갑갑해졌다. 몸을 누인 이 공간이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할 관처럼 느껴졌다. 오한이 든 듯 오슬오슬 떨려왔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돌아누웠다. 은우의 코앞으로 건고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어 그것을 만져봤다. 벽. 거기에는 한없이 고요하고 차가운 것이 완강하게 서 있었다. 벽.

정말로, 이대로 익사해버릴지도…몰라.

4

은우 형……, 은우 형…….

휴대전화기 너머로 은우를 찾는 목소리에는 애써 울음을 누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울음은 홍수로 잔뜩 부푼 독처럼 불안하고 위태
했다.

.....

은우는 그저 침묵으로써 불안한 예감을 부정하고 싶었다. 침묵으
로써 상대를 재촉하여 예감에 지날지 모를 불안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은우 형, 성구 형이, 성구 형이....., 씨발, 성구 형이 죽었대. 으흐흑,
형이 죽었대.....

성 · 구 · 형 · 이 · 죽 · 었 · 대.

은우의 귓속에 들어온 말은 헛도는 바퀴처럼 그것이 만나야 할 의미
에 닿지 못하고 각각의 음절로 흩어졌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더는 울음
을 잡지 않았다. 터져버린 울음은 거뻐졌다. 거센 울음은 저녁공연을 위
해 걸음을 재촉하던 은우의 두 다리를 휘감고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
어대는 홍대거리 보도블록 위에 그대로 얼어붙게 하였다. 툭, 툭, 관자
놀이의 핏줄이 불거지는 듯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성구 형이 죽다니, 지금 그게 무슨,

턱 막힌 숨이 말문을 막았다. 은우는 마른침을 삼켰다. 수화기 저쪽에
서 거세게 몰아치던 울음의 홍수는 이제 거의 통곡으로 바뀌어있었다.

이 썰까,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데!

한파주의보가 붙어 닥친 겨울의 거리 한가운데서 기타를 맨 채 악다
구니 치는 은우 걸을 사람들은 흘깃대며 잔걸음으로 지나쳤다. 전화기
를 잡은 손이 심하게 떨렸다. 갑자기 오금이 저리면서 변의가 느껴졌
다. 하지만, 얼어붙은 두 다리는 쉬이 움직일 줄 몰랐다.

을씨년스런 겨울 저녁과 달리 장례식장은 망자를 기억하는 산 자들

의 움직임들로 부산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성규 형의 죽음을 알려준 지훈이 머리를 감싸 쥔 채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은우가 기타를 맡고 있는 모던 록 인디밴드 ‘나무 라디오’의 보컬이자 밴드의 막내였다. 홍대클럽에서 같은 멤버로 활동해왔던 보컬이 축산업을 하는 부모님을 돕겠다며 낙향해버리고 은우가 그 자리를 그럭저럭 메우고 있던 4개월여 전, 모던 록의 몽환적인 여백의 울림이 지금의 자신을 닮았다며 합류한 곱상한 외모의 20살 청년이었다. 특히 가성과 육성을 자유롭게 오가며 ‘라디오 헤드’의 ‘Creep’을 부를 때엔 은우조차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지훈은 은우가 입구에 들어섰을 때 봤던 그 자세 그대로 한참을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 막 소년의 티를 벗고 홀로 세상에 발을 딛기 시작한 이 청년의 슬픔에는 어쩌면 은우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은우는 먹먹한 마음이 들어 그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은우 왔니?

메마른 음성의 누군가가 등 뒤에서 불렀다. 밴드에서 베이스기타를 맡고 있는 재희 형이었다. 재희 형과 성규 형은 같은 나이로 ‘나무 라디오’를 함께 만든 원년 멤버이기도 했다. 모든 감정이 빠져나가 버린 듯 재희 형의 얼굴은 무감했다. 천천히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아직은 소년의 순수함이 채 가시지 않은 청년의 앓된 두 눈이 퐁퐁 부어 있었다.

인디밴드 활동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웠다. 아니, 밴드활동만으로는 밴드유지조차 힘들었다. 클럽공연에서 얻는 수익은 0원. 그래도 고정적으로 무대에 올라 마음껏 공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행복했다. 오로지 자신들의 소리를 담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대부분의

인디밴드들이 그랬다. 그들은 꿈과 함께 가난을 얻었고 가난 속에서 열심히 꿈을 현실로 퍼 날랐다.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가 남았다. 멤버들은 부업으로 생계를 해결해야 했다.

밴드에서 드럼을 치던 성구 형은 아르바이트로 피자배달을 했다. 형이 일하던 피자가게는 동종업계에서도 꽤 유명했던 곳이었다. TV광고에서는 아이돌 스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자를 먹음직스럽게 한입 베어 물며 주문한 즉시 30분 안에 배달이 완료된다는 점을 강조하던 곳이었다.

이날도 형이 모는 배달오토바이는 ‘30분’이라는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한파로 얼어붙은 도로 위를 밟고 또 밟아야 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좌회전하던 형의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서 미끄러졌고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형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성구 형의 빈소는 쓸쓸했다.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은 것은 성구 형의 영정과 형의 유일한 유품인 드럼스틱 그리고..., 적막이었다. 홀로 유복자인 외동아들을 키워온 노모는 혼절을 거듭하다 막 응급실로 실려나갔다고 했다. 영정 속의 형은 장난스런 웃음을 짓고 있었다. 형의 웃음과 형의 죽음은 쉬이 섞이지 않았다. 웃고 있는 형과 죽어 있는 형, 이들은 각각의 현실을 살고 있는 듯했다. 은우는 이들이 한없이 낯설었다.

재희 형, 이제 그만두고 싶어.

은우는 빈 소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장례식장 객실 한쪽에 빈 시선을 던지고 있던 재희 형은 잠깐 은우를 바라보다 말없이 빈잔을 채워주고는 다시 시선을 돌렸다. 재희 형이 바라보는 곳에는 삼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한창 고스톱 판에 몰입하고 있

었다. 재희 형 앞에 놓인 일회용 국그릇에는 식은 지 오래된 듯 고깃국 물이 벌건 기름에 엉긴 채 담겨있었다. 지훈은 울음으로 하루의 모든 힘을 소진했는지 서너 잔의 술에 일찌감치 킁아떨어져 버렸다.

사실, 몇 개월 전에 정민이 녀석이 밴드 때려치우고 고향서 돼지 치는 부모님이나 돕겠다며 떴을 때, 그때 나도 흔들렸어. 아니, 솔직하게 말 하자면 난 그 자식이 부러웠어. 그래도 너는 비밀 언덕이라도 있구나, 지금이라도 움켜쥐고 오를 수 있는 동아줄이라도 있구나.

은우는 소주를 한입에 털어 넣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형들을 만나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고 생각해. 이진 진심이야. 집에서 내놓은 자식 취급해도, 하루를 라면 한 끼로 때워야 해도 형들과 오르는 무대는 늘 설고 가슴 한쪽이 벅찼어.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나무 라디오 멤버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 죽을 것 같았어. 미친 듯이 꿈을 좇아가는 내가 세상 속 바보들과는 달라 보여 그게 너무 대견스러웠어. 그래서 이대로 죽어도 뭐 하나 아쉬울 것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했어.

재희 형은 여전히 시선을 노름판에 던지고 있을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은우는 자신의 빈 잔에 소주를 채우고는 잔을 들어 입술만 적셨다.

근데 언제부턴가 행복이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밴드들이 뜨고 지는 지금, 변변한 곡 하나 없이 10년, 20년까지도 내가 하고픈 이야기를 맘껏 내지르며 이 무대에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때에도 배고픔을 그저 배고픔으로 희희덕거리며 웃어넘길 수 있을까. 혹 내 주제도 모르고 오르지도 못할 길을 택한 건 아닐까. 차라리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대다수가 지나갔고 지나고 있는 저 길이 정답인 게 아닐까, 어쩔 저 길의 진부함과 비굴함이 삶의 보편타당한 본질이 아닐까…….

술기운이 제법 오른 듯 은우의 얼굴이 불쾌해졌다. 은우는 긴 숨을 토해냈고 재희 형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물론 지금 이런 말을 주절대는 내가 속물처럼 보여 부끄럽고 역겹기도 해. 그런데도 드문 손님처럼 불쑥 찾아오는 불안감 앞에서는 처음 외줄을 타는 것처럼 위태롭고 두렵기만 해. 지금의 모든 것에 회의가 들 정도로. 그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들고……. 형,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너 이 새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 꼬름한 야바위 새끼!

지랄하고 있네. 니가 잘 못 한 걸 누구한테 어깃장을 놓아, 이 병신 지랄 같은 새끼!

갑작스런 고성과 소란에 고개를 돌렸더니 노름판에서 드잡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덩치가 제법 크다 할 만한 두 명이 서로 주먹질이라도 해댈 듯 분위기는 험악했고 친구들은 엉거주춤 말리고 있었다.

저참, 상갓집에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하네.

누군가가 한마디 했고 주위에서는 흘깃대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주위 시선 따윈 아랑곳없다는 듯 온갖 짐승과 생식기관이 난무하는 험한 욕지거리가 계속되었다. 그들은 노름판을 한판 벌이기 전에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던 듯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재희 형이 일어나더니 그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토록 몰입해 있던 노름판의 담요 자락을 와락 얹어버렸다. 이 새로운 사태 앞에서 그곳에 있던 모든 이의 모든 동작이 일순 정지되었다. 재희 형은 정지된 공기를 땀땀하게 헤치고 나와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드잡이를 하던 사내 중 하나가 형에게 뭐가 대거리 질을 할 기세였지만 친구들이 붙들어 잡고 말렸다. 주위의 시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음을 그제야 깨달았는지 사내는 알아듣지 못할 욕설을 한마디 내뱉고는 자리에 앉아버렸다. 곧 그들은 이미 깨져버린

노름판을 거두고 다시 술판을 벌였다.

49재 때는 잊지 말고 꼭 와줘라. 그래도 성구 자식이 은우 널 친동생 이상으로 끔찍이 여겼잖아.

재희 형은 자신의 잔에 소주를 채우더니 단숨에 들이켜고 빈 잔을 은우에게 내밀었다. 잔을 건네는 형의 눈에서 살짝 물빛이 비치는 듯했다. 은우는 형의 붉어진 시선을 애써 피하며 컷물을 한번 훌쩍대고는 잔을 받았다.

은우는 장례식장의 야외휴게실로 나와 담배를 꺼내어 물었다. 박명
의 새벽빛에 물든 겨울도시가 깊이 얼어버린 잠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
었다. 저 멀리 교회 첨탑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화려하게 깜빡이고 있
었다. 20대의 끝자락에 닿은 은우의 그해 12월은 행복했던 꿈과 알 수
없는 미래가 불안으로 뒤엉킨 채 그렇게 겨울바람 속에서 뒤채기고 있
었다.

5

은우는 문득 눈을 떴다. 어디선가 진동음이 알개 들려왔다. 은우의 눈
은 어두운 공간을 한동안 더듬었다. 고시원이었다. 까무룩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그새 비는 그쳤는지 방안 가득했던 빗소리는 어디론가 빠
져나가고 어두운 고요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은우는 누운 채 입가로 흘러내린 침을 스윽 손등으로 훔쳐내고는 규
칙적인 진동음을 내보내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더듬어 찾았다. 액정화
면 위로 선영의 이름이 빛을 내고 있었다.

잠깐만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은우는 전화기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고 고시원 옥상으로 올랐다.

초여름 비가 훑고 지나간 도시의 야경은 투명하게 맑았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는 비가 남긴 물비린내가 상쾌하게 실려 있었다. 은우는 자신과는 무관한 것만 같은 도시의 생기에서 무거운 소외감을 느끼며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했었네?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놓고선 서랍 안에 넣어 둔 바람에 전화 온 줄도 몰랐어.

가볍게 알코올기가 섞인 듯한 선영의 목소리는 초여름 바람만큼이나 산뜻하고 유쾌하게 들렸다. 그 목소리를 타고 하루를 마감한 도시인들의 편안한 활기가 섞여 들어왔다.

어디야?

은우는 또 한 번의 소외감으로 가라앉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물었다.

응, 오늘 회식이라 사무실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회 · 식과 사 · 무 · 실.... 은우에게는 한없이 낯선 단어를 자연스레 말하는 선영이 문득 멀게 느껴졌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시간은 좀 ... 힘들겠다, 그지?

오늘? 왜?

물기가 바짝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사무적인 말투에는 묘한 긴장의 날이 빠져죽이 서 있는 듯 했다. 은우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둘 사이의 침묵에 조급함이 묻어남을 느낀 은우가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결과발표가 있었어.

아.....

선영은 무겁고도 짧은 탄식을 내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침묵. 늘어

진 침묵 속을 비집고 오르는 초조함.

그냥...그냥 뭐 조금 심란해서 혹 시간 되면......

그럼 그냥 사무실로 바로 전화하지 그랬어? 진작에 알았음 이리저리 둘러라도 됐지, 지금 어떻게 나 혼자 빠져나와?

선영은 짜증으로 은우의 말을 간단히 잘라 버렸다. 은우는 말이 아니라 심장 한 부분이 잘려나간 듯했다. 머리 뒤로 와 닿는 저녁공기가 서늘했다.

물론 은우가 선영의 사무실 번호를 몰라 걸지 않은 건 아니었다. 선영의 이름과 연락처가 선명하게 찍힌 명함은 여느 명함들과 함께 은우의 지갑 한 쪽을 두툼히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우는 그 명함들에 적혀 있는 번호들을 단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무적인 속성이 그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인냥 이질적이고 낯설었다. 은우와 명함들 사이의 거리는 아득했다.

이따 내가 다시 전화할게.

선영의 목소리는 한층 가라앉았지만 거기에는 아직 뭔가가 부유하고 있는 듯했다.

아냐, 그냥 다음에 보는 게 낫겠다.

은우는 거북스럽게 부유하고 있는 그 뭔가에 치밀어 오르려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말했다. 이어지는 선영의 긴 한숨.

이따 전화할게.

바스러질 듯 건조한 말투. 잠깐의 침묵.

이따 전화할게.

선영은 다짐 농뿔 짧게 말하고 끊었다. 은우는 담배를 꺼내어 물고는 길게 빨아들인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희부연 담배연기가 바람을 타고 저 멀리 화려한 시가지를 향하다 이내 흩어졌다. 초여름 바람에

실린 도시의 야경은 투명하게 아름다웠고 따듯했고…… 까마득했다.

6

어때? 썩 나쁘진 않지?

창으로 내리는 봄 햇살이 제법 나근나근한 일요일 오후였다. 은우와 선영은 커피숍의 창가에 자리를 잡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달뜬 얼굴로 은우에게 명함을 건네는 선영의 음성은 봄의 거리 위로 막 튀어 오르는 햇볕 같았다. 흥조를 띤 웃음으로 드러난 가지런한 윗니에서는 민트향이 묻어날 듯 했다.

웹디자이너 황선영

선영이 건네준 짙은 회색바탕의 명함에는 선영의 이름이 자줏빛으로 새겨져 있었다. 특별한 문양 없이 필요한 것만 간략히 적혀있는 명함은 단출하지만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선영은 지난해 공무원시험을 끝으로 미련 없이 노량진을 떠났다. 이후 선영은 은우를 만나기 위해 가끔 들를 뿐 ‘끝을 알 수 없는 초조와 불안만으로 꾸며진 미로’ 같은 노량진에 일부러 발을 들이지는 않았다. 대신 국비가 지원되는 직업전문학원에서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했다. 자격증취득까지 무난하게 마친 선영은 그러고 얼마 후 홈페이지제작 전문 업체에 채용되었다. 대규모 웹에이전시에 비하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댄 정도의 회사였다.

후회하지는 않니?

흐뭇하면서도 낮은 명함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은우가 물었다.

후회? 공무원 포기한 거? 아님, 그다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한 거?

가벼운 웃음으로 돌아온 선영의 물음에 은우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자신의 지갑에 선영의 명함을 넣었다.

선영은 은우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다.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더 크고 멋진 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길로 들어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걷고 있다는 건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거지.

선영은 은우의 팔짱을 끼며 눈을 감았다.

사무실 사람들도 모두 활달하고 친절해.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아.

선영의 얼굴 위로 봄 햇살이 비쳐들었다. 은우는 선영의 얼굴에 든 봄별을 가만히 만졌다. 선영은 팔짱을 꼭 끼며 은우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선영의 따뜻한 입김이 은우의 목에 와 닿았다. 은은한 민트향이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은우는 불안하고 외로웠다.

시험을 일주일 남긴 4월의 늦은 밤, 고시원으로 선영이 찾아왔다. 근 3주 만에 만난 선영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새로운 작업들로 야근이 잦다고 했다. 이날도 이틀간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고 종일 일에 매달려 있다가 겨우 잠을 내었다고 했다.

선영의 손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죽이 들려 있었다. TV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있는 죽 전문집에서 수험생을 위해 호두와 보리로 쏜 죽이라 했다. 고시원 휴게실에서 선영과 나눠 먹는 동안의 시간은 따뜻했고 든든했다.

이날 선영과 은우는 긴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선영은 연이은 야근으로 초래했고 은우는 바투 다가온 시험일로 매시간이 초조했다. 업무와 사무실, 시험과 고사장에 대한 각자의 얘기를 들려주면서도 이따금씩

시계의 눈치를 보던 둘은 갈 길이 먼 여행자들처럼 서두르듯 고시원을 나섰다.

4월 중순이 지났지만 선영을 바라다주는 밤길은 아직 쌀쌀했다. 은우는 일부러 표까지 끊어 지하철역까지 선영을 배웅했다. 걷는 동안 줄곧 이어지던 각자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지하철 플랫폼에 섰을 때 문득 끊어졌다. 잠깐의 침묵이 서먹했다. 은우는 멍쩍게 웃으며 팔짱을 낀 선영의 손을 빼내어 꼭 쥐었다. 여전히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지상에 설치된 노랑진역에 내린 밤은 어둑하고 쓸쓸했다. 희薄的한 가로등 주변으로 어디서 날려 왔는지 벚꽃들이 흐트러져있었다. 얼마 전까지 연분홍빛으로 생의 절정을 피워냈을 꽃잎들은 암갈색으로 말라있었다.

부자연스런 침묵을 가르며 지하철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늦은 밤, 노랑진역에서 오르내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닫힌 창 너머로 은우를 향해 작고 찬 손을 살짝 들어 흔들던 선영은 지하철과 함께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홀로 남은 은우의 발밑에서는 짙은 정적과 말라버린 벚꽃들이 바스락댔다.

그날 밤 은우는 한참 동안 잠에 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뒤척였다. 그날따라 유난스레 큰 탁상시계의 초침소리가 은우의 의식을 뚫고 들어와 머릿속을 마구 헤집었다.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빼곡히 정리된 오답노트를 꺼내 펼쳤지만 모래알이 들어간 듯 눈만 따끔거려울 뿐, 물먹은 스펀지 같은 머릿속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심한 공복감이 밀려왔다. 시험 당일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는 미리 정해놓은 취침시간에 익숙해져야 했지만 이날 잠은 틀린 듯했다. 은우는 라면과 빵을 사와 아무도 없는 고시원 휴게

실에 앉아 꾸역꾸역 공복감 속으로 밀어 넣었다. 마지막 빵 봉지를 뜯는 순간 몸속 어딘가에서 강한 경련이 밀려왔다. 은우는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다.

은우는 변기에 머리를 처박은 채 그날 먹었던 모든 것을 게워내야 했다. 경련의 여진은 한동안 이어졌다. 매운 눈물이 코끝에서 맺혔다.

7

선영과의 통화를 끝낸 은우는 무거운 걸음을 이끌고 거리로 나섰다. 이날 있었던 시험결과와는 상관없이 노량진의 밤거리는 인파들로 흥청했다. 학원가 뒷골목 곳곳에 들어선 술집들은 저마다 화려한 불빛의 간판으로 공시생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거리 어느 곳에서는 어떤 이가 이른 취기에 기대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고 연인으로 보이는 어떤 이들은 커다란 간판을 내건 비디오방 앞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미국에서 건너왔다는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에는 빈자리 없이 사람들로 붐볐고 길거리 음식을 손에든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재잘대며 은우를 스쳐 지났다.

문득 은우는 각각의 발걸음으로 항상 바쁜 이 거리를 2년 동안이나 밟아 왔지만 정작 자신이 갈 곳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량진에 서의 모든 길은 열려 있는 듯했지만 굳게 닫혀 있었다. 많은 이들이 머물고 있지만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는 곳이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싸한 바람이 일었다.

한참을 하릴없이 배회하던 은우의 발걸음이 한 곳에 멈추었다. 오락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또 다른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철권’

이라는 격투기 게임기기가 대부분인 오락실에서 공시생들은 각자의 자리를 하나씩 꿰차고 앉아 모니터 속의 적들을 쓰러뜨리는 데 온 힘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들은 학원에서처럼 아무런 말없이 오로지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개중에는 타격기술이 화려한 고수들도 있었는데 그들 뒤로는 구경꾼들이 삼삼오오 모여 경이로운 표정으로 간혹 탄성 같은 것을 내뱉었다.

그들 틈에 끼여 잠깐 구경하던 은우는 오락실 구석에 설치된 간이노래방의 문을 열었다. 노래방은 좁고 콧콕했다. 천정에는 작은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온갖 먼지가 엉겨 붙은 채 멈춰있었다. 벽에는 난잡한 낙서들로 가득했고 ‘절대 금연’이라고 써 붙인 스티커는 라이트로 그슬려있었다.

은우는 동전 몇 개를 집어넣고는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에는 예전 밴드에서 주로 연주했던 모던 록을 택했다가 로큰롤을 거쳐 중국에는 헤비메틀로 옮겼다. 머리가 터져나갈 듯 소리를 질렀고 마음껏 고개를 흔들었다. 좁고 지저분한 간이노래방에는 오로지 은우가 내지르는 소리만이 존재했다. 이마를 따라 땀이 흘러내렸고 흘러내리는 땀으로 눈물이 섞여들었다. 마지막 곡으로 주다스 프리스트의 ‘Painkiller’ 불렀을 때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간이노래방은 은우의 해방구가 되어 있었다.

노래를 마치자 문 쪽에서 탄성과 함께 박수소리가 들렸다. 은우가 흠칫하여 돌아보자 세 명의 사내가 엄지를 치켜세우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잔뜩 머쓱해진 은우가 서둘러 노래방 문을 열고 나왔다. 열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지나칠 때 킁킁거리는 소리가 지독한 술내에 섞여 전해졌다.

지금 어디 있어?

선영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온 건 은우가 잔뜩 움츠러진 하루를 좁은 침대에 누이고 한참을 뒤척일 때였다. 탁상시계 바늘은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8

아외 포장마차에 마주앉은 선영에게서는 더 이상 건조한 먼지 냄새도 산뜻한 민트향도 나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대변 하듯 고기냄새가 진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저녁도 안 먹고 대체 뭐 한 거야?

선영의 염려 섞인 책망이 소주를 타고 들어와 은우의 속을 데웠다. 은우는 연거푸 소주잔을 비웠다.

빈속에 술만 마시지 말고 안주도 좀 챙겨 먹어.

은우는 고등어구이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었다. 입안이 비렸다. 어묵국물로 비린 입안을 헹궜다.

인제 어떡할 거야?

선영이 은우의 빈 잔을 채우며 물었다.

다시…… 시작할 거야?

지금 선영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은우는 알 수 없었다. 선영이 들으려는 자신의 길에 대해 은우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하나……. 저 3평 남짓한 관에 남아 욕지기를 꾸역대며 천 페이지가 넘는 수험서들을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봐야 하나. 300명의 푸석푸석한 생기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학원 강의실에서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새벽전쟁을 또 얼마나 치러야 하나.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문을 열

마나 두드려야 하나…….

얼근한 취기를 따라 ‘나무 라디오’ 식구들이 떠올랐다. 재희 형과 지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배고픈 행복 속에서 희희덕대고 있으려나. 갑자기 눈앞이 어룡거렸다.

은우는 소주를 한입에 털어 넣었고 선영은 앙다문 입술사이로 한숨을 내쉬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일단…….

은우가 빈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뗐다.

일단은 이곳을 벗어나야겠어. 지금이라도 짐을 싸고 여길 떠나겠어.

은우를 바라보는 선영의 눈빛은 뭔가를 재촉하고 있었다.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든 다른 길을 찾아나서든 이곳은 아닌 것 같아. 더 이상은 이곳의 잿빛 표정과 죽은 공기를 견뎌내기 어려워. 미칠 것 같아.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가서…….

나, 결혼해.

선영은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표정과 어투로 은우의 말을 잘랐다. 선영의 말은 너무나 담담해서 마치 ‘나 지금 가야해’ 정도로 들렸다. 은우는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결혼한다구, 미안해.

선영은 표정의 변화 없이 은우를 응시하며 말했다. 은우는 연달아 석잔의 소주를 들이켜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나 많이 취한 것 같다.

선영은 앓은 채 그런 은우를 물끄러미 올려다봤다.

뭐해? 어서 가자. 데려다 줄게.

은우는 팔을 뻗어 선영의 손을 잡았다. 그 작고 차가운 손은 은우의

손에서 쉽게 빠져나갔다. 은우는 그만 멍멍해졌고 가슴 속으로부터 시종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뭔가가 울컥하더니 고향으로 터져 나왔다.

대체 왜 그래? 결혼은 뭐고 미안한 건 뭐야? 대체 뭐가 미안한 건데? 말해봐 씨발,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은우와 선영 쪽으로 쏠렸다. 선영은 은우의 시선을 피한 채 무덤덤한 얼굴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나섰다. 세상 모든 것이 은우만을 내팽개친 채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듯했다. 정신이 나간 듯 한동안 망연스레 서있던 은우는 비틀거리는 의식으로 성큼 걷는 선영의 뒤를 쫓았다.

선영아, 우리 얘기 좀 더하고 가자.

선영은 택시를 잡기위해 도로에 섰다.

얘기 좀 더하자고!

은우는 선영의 팔을 잡아 돌려세웠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된 줄 알아야…….

울먹이는 은우를 바라보는 선영의 눈빛은 한없이 낮설었고 완강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은우는 그녀가 더 이상 손닿을 수 없는 곳에서 있음을 직감했다. 은우는 잡았던 선영의 팔을 힘없이 놓았고 선영은 고여있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다. 그들 앞으로 택시가 섰고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그녀가 다시 노랑진으로 오는 일 따윈 없을 것이다.

9

집에 택배로 부칠 짐을 모두 꾸린 은우는 침대에 앉아 택배기사를 기다렸다. 행뎡그런 방은 2년 동안 머물렀던 기간이 무색할 만큼 어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색함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시험이 끝난 고시원은 떠나는 사람들과 새로이 찾는 사람들로 간만에 분주했다. 봄은 지나간 지 오래……,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볕이 제법 따가웠다. 고시원 총무는 원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각 방의 에어컨을 점검하고 있었다. 은우의 방에도 에어컨이 탁한 소리를 내며 텅텅한 바람을 내보내고 있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살아가는 동안 내내 행복하길」이라는 문자를 보내려다 그만뒀다. 달리 할 일이 없던 은우는 가방에서 기출문제 노트를 꺼내어 펼쳤다. 형형색색의 펜으로 쓰인 메모가 여기저기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심란해진 은우가 한숨을 쉬며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으려는데 뭔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언제였던가……,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잠깐 산책을 나왔다가 오락실 앞에서 함께 찍었던 스티커 사진이었다. 뭐가 그리 행복했었는지 얼굴을 맞댄 둘은 그저 헤헤거리고 있었다. 은우는 스티커 사진을 떼어 내어 간이냉장고 문 앞에 붙이고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탁한 소리를 내던 에어컨이 갑자기 웅- 하고 울더니 텅텅한 바람대신 차가운 바람을 은우의 머리 위로 내보냈다. 갑작스런 찬바람에 부르르 몸이 떨려왔다. 코가 시큰해지더니 이내 콧물이 났다.

젠장 에어컨이라도 좋은 것 좀 달아 둘 것이지. 냉장고 문 앞에서 은우는 한동안 흘쩍였다.



‘노량진’을 소재로 글을 쓰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을 카메라 앵글로 담은 어느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였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불합격’이라는 시험결과를 고향의 부모님께 전하며 소리 없이 흐느끼던 어느 수험생의 뒷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어깨는 절망으로 마구 울고 있었다. ‘청년실업 100만 시대’. 이제 이 말에도 익숙해져 버린 지금, 대안 없는 희망과 그것이 던져주는 절망으로 많은 청춘이 울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되지 않은 과거의 나이기도 했다.

참으로 험겁고 어수룩한 글이지만 글쟁이에게 있어 한편의 글은, 잘났던 못났던 자식 같은 존재인지라 입상소식에 그냥 뻔뻔하게 기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모자람이 많은 나에게 한번쯤 어깨를 펴고 자랑스러운 ‘아빠’로, 혹은 ‘남편’(혹은 아들이나 사위, 직원, 그냥 아는 사람, 기타 등등…)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깊이 그리고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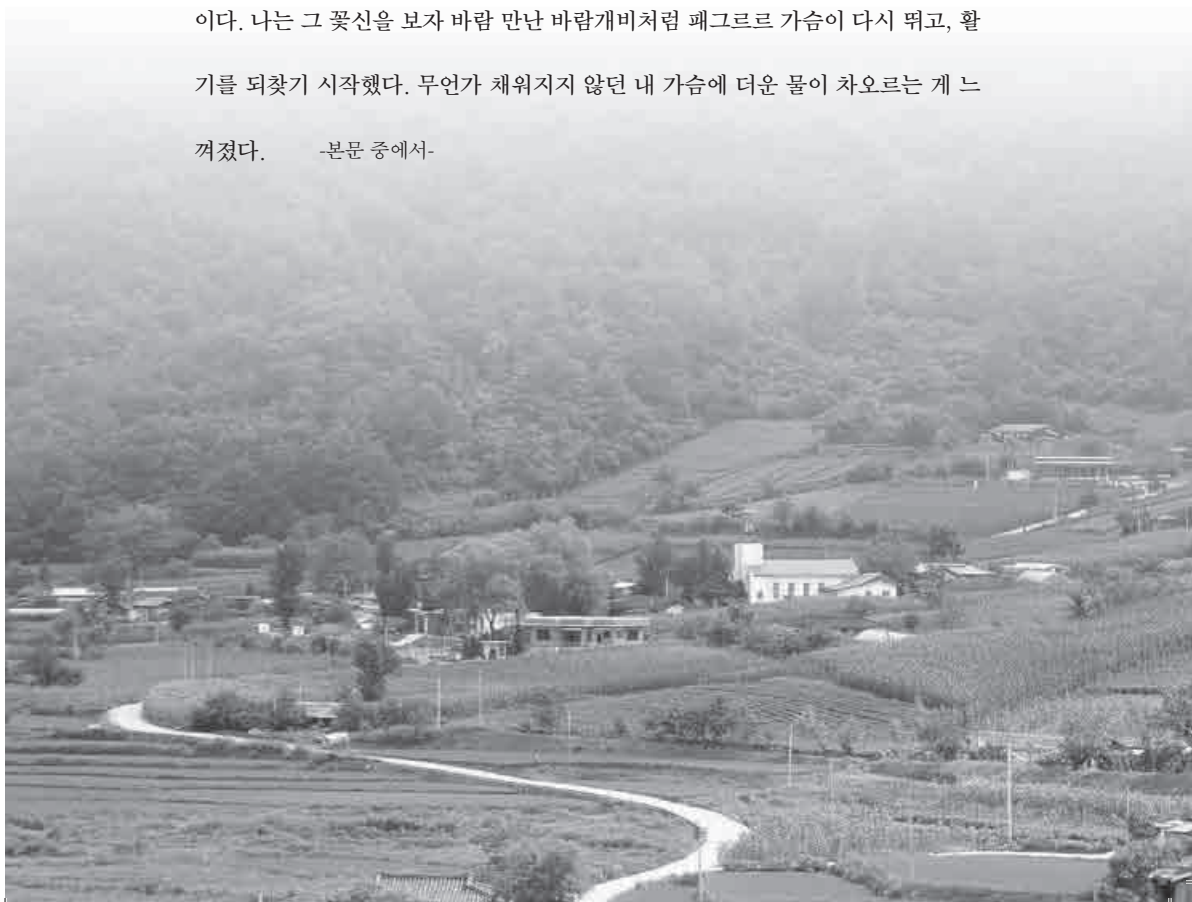


전. 고창군 성내면사무소

이 상 영

수몰된 고향 이야기

내가 바라고 바라던 그 채 장수는 딸인 효녀를 데리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나는 그 꽃신을 보자 바람 만난 바람개비처럼 패그르르 가슴이 다시 뛰고,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던 내 가슴에 더운 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본문 중에서-



수몰된 고향 이야기

시내를 빠져 나온 승용차는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처럼 미끄러지듯 서서히 속력을 냈다.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니 방음이 잘된 창호를 닫은 듯 갑자기 조용하다. 새벽부터 내리던 세찬 비는 그쳤으나 는개가 내려, 가끔 윈도우브러시가 길을 재촉하듯 앞길을 헤친다. 낮부터는 화창한 날씨가 될 것이라는 일기예보만 믿고 새벽부터 나서는 나에게 현관까지 따라 나온 딸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곳을 뺏 하러 이렇게 비오는 새벽에 나서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말이 풍경소리보다 긴 여운을 남기며 되살아난다. 딸 말마따나 내 행동이 좀 이상한 것일까 아니면 나이 먹은 객기(?)일까. 엿저녁 달뜬 기분에 잠을 설쳤던 탓인지 선하품이 나오고 머릿속이 멍멍 하고 귀가 조금 울렸다. 얼마 전에 귀가 울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나이가 들면 조금씩 이명 현상 같은 증상이 온다며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왠지 신경이 쓰인다. 몸은 피곤하나 정신은 초롱초롱 소풍을 떠나는 초등학교생처럼 설레, 마음은 이미 고향에 다 간 듯, 옛날 고향 마을의 산하가 한눈에 들어온다.

수몰되기 전 우리 집은 본채 앞에 행랑채가 있었고, 그 행랑채에는 빈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은 부엌이 딸려있어 행상이나 장이가 머물러 있다 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어머니는 당신 말마따나 당신은 독하지 못해, 누가 찾아와 그 방에 묵고 가겠다고 사정하면, 그 정을 외면하지

못해 허락하시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도 덕을 베푸는 것이라 복을 받는 일이라 하여 매번 흔쾌히 허락하였다.

행상이나 물건을 고치는 장이는 행랑채 그 방을 임시로 쓰면서 물건도 보관하고, 물건을 고치는 장소로 활용하여 여러 날 지냈다. 그들은 인근 마을을 돌며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의 대가로 받은 곡식을 품종별로 자루에 넣어 머리에 이거나 지게에 지고 우리 행랑채에 드나들었다. 그 곡식 자루는 색깔이 각각 다르고, 어떤 것은 닳고 헤어져 기운 것도 있어, 마치 네마 보파리처럼 보기가 흉한 것도 있었다.

이런 것이 보기 싫은 누나들은 어머니께 행랑채 그 방에 사람을 들이지 말도록 애걸복걸해도 어머니는 그것이 덕이 되며, 덕을 베풀어야 복을 받는 것이라며 계속 찾아오는 행상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 생각은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은 뜻이었는지, 어머니 뜻에 따르는 눈치였으므로 누나들 의견은 자연히 묵살되고 무시됐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베푼 덕 때문에 그랬던지, 나는 어렵다던 IMF를 슬기롭게 보내고 이렇게 정년까지 마치고 수물된 고향을 찾아 가는지도 모르겠다. 정년을 마치는 것이 얼마나 축하할 일인데요 하며, 퇴임식장에서 우울한 내 표정을 살피며 하던 처형의 말이 떠올랐다. 삼십여 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철처럼 폐기된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쓸쓸한 기분과 바람 든 무처럼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였고, 어떤 가식적인 위로의 말처럼 들렸다. 직장을 떠난다는 아쉬움보다 내가 벌써 정년이 됐다는 허탈과 비애, 세월의 무상함이 나를 슬프게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별 탈 없이 정년까지 직장에 있었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내가 죽고 같이 지내는 딸이 내가 수물된 고향 이야기를 하며 그 옛

날을 그리워하면, 연어만 회귀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회귀본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며, 나를 가장 원초적이고 동물적이며 소아병적인 본능을 가진 인간으로 취급했다. “유독 아이들이 구석을 파고들어서 숨어 있기를 좋아하는 것도 가장 평온하고 아늑했던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회귀본능이래요. 아이가 구석을 좋아하면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구석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육아 시간에 배웠어요.” 나이 삼십이 넘어서 시집갈 생각도 하지 않고, 직장에만 매어 사는 딸애가 하는 이야기였다. 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아빠는 왜 그렇게 없어진 고향을 늘 못 잊어 하냐고

차창너머로 안개 낀 들녘에 푸룽푸룽 돌아난 풀이 봄을 알리는 성급한 전령인양 내 시선을 붙든다. 승용차는 엔진 소리와 도로 표면의 마찰음을 내며 숨 가쁘게 기신거렸다.

나는 어렸을 때 이 행랑채에 이렇게 행상이나 고치는 장이가 드나드는 것이 좋고 나쁘다는 이해득실을 따져보지는 안했지만, 누나들처럼 싫지는 않았다. 오가는 사람이 많아야 볼거리가 있어 좋았지만, 손님이 오면 왠지 모르게 좋고, 그 손님으로 인하여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기대와 설렘이 있듯이, 행랑채에 누가 와서 묵으면 왠지 모르게 좋았다.

그들은 행랑채 그 방을 임시로 쓰면서 물건을 보관하고, 또 고치는 장소로 활용하여 여러 날 지냈다. 행상으로는 비단 장수, 젓갈 장수, 옹기나 유기그릇 장수 등 많았으며, 물건을 고치는 장이로는 솔이나 양은그릇이 구멍이 나면 때우는 땀장이, 물통이 낡으면 태를 메어주는 태 메는 장이 등 다양했다.

땀장이가 도가니에 숟가락 부러진 것이나 쇠조각을 넣고, 풀무로 부

친 불에 달구면 쇠가 녹아 붉은 쇳물이 되고, 술의 구멍이 난 부분에 거꾸집을 데고 그 이글거리는 쇳물을 부어 술을 때우는 것을 보면 신기했다.

또한 체나 어레미를 만드는 작업 역시 구경거리였다. 나무를 얇게 벤 판자를 불에 구면서 휘어, 철파퀴를 만들고 그 밑에 말갈기나 꼬리털을 엮어 만든 천을 대면 체가 만들어 졌고, 철사로 엮은 철망을 대면 어레미가 됐다.

어느 해 봄날, 체 장수가 내 동갑 나이인 여덟 살 정도 보이는 딸을 데리고 행랑채에 나타나, 며칠 지낼 것을 요청하니 어머니는 역시나 흔쾌히 승낙하셨다. 그 체 장수는 체나 어레미도 팔지만 쓰다 못 쓰는 체나 어레미를 고쳐주기도 했다.

체 장수가 물건을 팔거나 수거하러 갈 때는 그 딸을 행랑채에 두고 나갔기에, 나는 그 애와 쉽게 말을 걸고 친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단발머리에 색동옷을 입고 옥색 치마를 입은 눈이 크고 볼이 붉은 계집애였다. 그녀가 옷을 때는 보조개가 들어가고 씩 웃는 모습이 무척 귀엽고 예뻐다. 나는 내 또래 꼬마 사내들과 놀았지, 여자애와 논 적이 없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였는지 모르나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 집에 시집 온 형수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우리 형수보다 더 예뻐다.

『너! 이름이 뭐니?』

『효녀.』그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웃고름을 매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추억거렸다.

『나는 현옥이야. 이 현옥이.』나는 그 애 이름을 물어 봤으니, 그녀가 내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어도 이름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하고 내 이름

을 댔다. 그 애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몸을 꼬며 수줍어했다.

『몇 살이니?』

『여덟 살.』 그 애는 나와 동갑내기였다.

나는 그 애와 통성명(通姓名)을 나누고 누룽지를 남몰래 그녀에게 주면서, 친해지려고 애썼다. 그 애와 말을 나누고 친하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애와 대화중에 알았다.

효녀 아버지가 장사하러 나간 뒤, 나는 틈만 있으면 그녀한테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소꿉놀이를 하며 놀았는데, 깨진 그릇이나 병을 가지고 흙을 재료로 절구통에 곡식을 찧어 밥도 하고, 밥상도 차리며 어른들이 하는 것을 흉내 내고, 서방 각시놀이도 했다. 또 장난감 놀이도 했는데 그 당시 장난감이 없으니, 막대기나 풀잎을 가지고 놀기도 했다. 가느다란 풀잎을 막대기에 묶어 여자 머리를 만들고, 그 머리에 쪽을 지어 비녀를 꽂아 낭자도 만들고, 서방 각시를 만들어 결혼식 흉내도 내고, 나무로 집을 지었다.

우리가 노는 곳은 주로 담장 밑이나 별이 잘 드는 곳에서 흙을 가지고 놀았다. 흙으로 집을 짓고 산과 강도 만들었는데, 물이 없어 돌이 오줌을 누어 강과 연못을 만들기도 했다. 그녀가 오줌을 놀 때는 나보고 술래처럼 뒤로 돌아 눈을 감고 있으라 했다. 나는 밥만 먹으면 그녀와 같이 놀며 시간을 보냈고, 옷에 흙이 묻어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그녀와 노는 것에 팔려 시간가는 줄 몰랐다.

어느 날 나와 효녀는 다람쥐를 잡는다고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산에 간 적이 있었다. 효녀는 다람쥐가 체 바퀴 돌리는 것을 봤다며, 다람쥐만 있으면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준다고 했다. 우리는 다람쥐를 잡아 체 바퀴 돌리는 것을 볼 생각으로, 돌이 마을 인근에 있는 산에 올랐다.

숲속을 헤치고 가며 다람쥐는 여러 마리 봤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다람쥐는 우리를 조롱이라도 하는 냥 높은 노송나무 위로 올랐다가 뛰어 내리기도 하고, 바위틈으로 빨리 도망쳐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다니다가 내가 나무 등결에 발이 걸려 앞으로 꼬꾸라지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나는 코피가 터지고 정강이에 생채기가 났다. 그녀는 바로 달려와 나를 붙잡고 일으켰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쭉을 뜯어 손으로 비빈 뒤에 피가 나는 콧구멍을 막아주었다. 정강이에 난 상처도 그녀가 쭉을 비벼 지혈을 시켜 주었다.

『이를 어떻게 하지. 너의 부모님께 야단맞을 텐데.』그녀는 몹시 안타깝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걱정이 되는 눈치였다.

『괜찮아 얼굴은 세수하고 발은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어른스럽게 치료해준 그녀가 너무나 대견스럽고 고마워 안심시키고 싶었다.

『내가 산에 가자고 했는데…….』

『걱정 마, 내가 가자고 했다고 하지 않을게.』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혈을 시키고 일어나니까 다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개울가에서 세수를 하니 얼굴은 말짱했는데 다리가 아파 문제였다. 우리는 다리가 좋아질 때까지 한나절 산에서 같이 보냈다. 나는 효녀가 한쪽을 부축해줘 바듯이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잔걸음을 땔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쭉으로 코를 막고, 이렇게 치료할 줄 알았지?』

『우리 엄니가 하는 것 봤어.』

나는 그녀가 나를 치료한 것에 대해 너무나 고마웠다. 나는 다리가 다쳤던 것을 어머니한테 숨기며 아픈 것을 내색하지 않고 참고 견뎠다.

매번 망향정(望鄉亭)만 둘러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보트를 타고 수

몰된 고향 수만리를 둘러볼 작정이다. 추석이나 설 때 수몰된 수만리까지 갈 수 없어, 군청에서 지어준 망향정에 앉아,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펴놓고 댐에 찬 푸른 물만 보다가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며 돌아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에서 최근에 댐 주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보트를 구입했다는 말을 듣고, 해당부서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보트를 빌려 타기로 허락을 받아 놓은 터이다.

논개는 그치고 자욱한 안개 사이로 간간히 햇볕이 들고, 노면에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났다. 승용차는 새벽부터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불평이나 하는 듯 ‘츠쯔쯔 웅웅’ 숨 가쁜 마찰음을 내고, 히터는 켜지도 않았는데 발밑에서 열을 품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 무렵 한 가지 도락(道樂)을 가지고 있었다. 나만이 활용하는 비밀스러운 곳을 만들어 어른들한테 야단을 맞는다든가 기분이 울적할 때, 그리고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그곳에 들어가 공상도 하고 나 혼자 즐겼다. 그곳은 같은 행랑채로 행상들이 묵고 가는 방 대문 맞은편에 있었다. 머슴인 칠봉이 형이 자는 방 쪽 헛간 짚더미 위에 짚으로 사람 둘이 빠듯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짚으로 만든 공간이었다. 그 공간은 짚을 쌓아 놓은 짚더미를 밟고 올라가야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였다. 새 보금자리처럼 보드라운 짚으로 바닥을 깔고 밖을 내다 볼 수 있도록 작은 틈새도 만들었다.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포근하고 아늑함을 느꼈다. 나는 가끔 그곳에 들어가 나만이 혼자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다.

딸애가 이 말을 들으면 아빠는 어릴 때부터 구석을 찾는 회귀본능이 다분한 사람이었다고 했을지 모르겠다. 친구들한테 따다 논 유리구슬과 딱지,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장난감도 그곳에 보관했

다. 말하자면 내 보물 창고이며 나만이 알고 있는 안락 처였다. 나만이 아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소중한 장소를 효녀에게 알려줄 것인가를 두고 한참을 고심했다. 결론은 효녀에게만 그 장소를 알려주고, 그 비밀스러운 곳을 서로 공유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효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한 결정이었다. 그녀가 내 결정을 좋아하리라고 생각하고 보물이라도 숨겨둔 곳을 알려주듯 그녀에게 그곳을 알려주려고 그녀와 같이 짚더미 위로 올라갈 것을 요구했더니, 그녀는 짚더미를 조금 헤치고 올라가더니 무서운 짐승을 보고 놀란 사람모양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내려와 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내가 포기하고 말았다. 내 청을 거절한 그녀를 나는 미워했다.

내말을 듣지 않는 그녀가 미웠고, 한 동안 거리를 두다가 그녀는 갑자기 우리 집을 떠났다. 서로 헤어진다는 말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싸늘한 한기와 함께 내 가슴에 느껴오는 감정은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하였다. 얼마나 허전하고 서운했는지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아파, 그 비밀스러운 내 아지트에 가서 엉엉 울었다. 그녀가 싫어했던 그곳에 자꾸 가자고 요구했던 일을 그때야 후회했다. 그녀가 떠난 이유 중에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 동안 실의에 빠져 식욕이 없었고, 그녀와 놀았던 곳을 돌아보며 그리움을 달래야 했다. 식욕이 없는 나를 보고 어머니는 걱정하시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며 나를 살폈는데, 아버지는 현육이가 크려고 그런다고 걱정하지 말라 하셨다.

나는 효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동네에서 놀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그 방을 내다보며 학수고대(鶴首苦待) 다시 돌아오기만 바랬

다. 어미 닭의 품안에서 부화되고 있는 병아리처럼 효녀의 존재는 내 기억의 날개 깃 안에서 점점 크게 자라고 있었다.

그 무렵 집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문을 배워야 한다고 하여 나는 동네에 있는 서당을 다니게 되었다. 서당을 다니면서도 글공부보다는 효녀와 놀았던 그때를 생각하며 아쉬움과 그리움에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무정란을 품고 기다리는 한 마리 들새처럼 허망한 기다림만이 계속될 뿐이었다.

승용차는 고향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휴일이 나 휴가가 다가오면 그렇게 설레고 기다렸는데, 막상 긴 휴가(?)를 얻고 보니 해야 할 일도 없고 할 만한 일도 없다. 2년 전에 아내를 여의고 내 삶은 이스트가 빠져 부풀지 않은 빵처럼 딱딱하다. 무엇을 보고 삶을 부대끼며 살아왔는지 줄 끊어진 연을 바라보듯 허전하기만 하다. 앞만 보고 산 퇴색된 내 꿈의 잔흔들이 재 가루처럼 흩어져 내리고, 위험한 놀이를 하다가 다친 사람처럼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 직장에 다니는 딸과 같이 지내는 형편으로,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책이나 TV를 보는 것이 전부이다. 반복되는 낡은 일상은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없고, 존재감을 잃은 내 마음은 겉돌고 몸이 떠서 아귀가 맞지 않는 문처럼 덜컹거린다. 앞날을 걱정하기보다는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일로 시간을 보낸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회귀본능일까? 회귀본능의 대표적인 연어에 대해 인터넷을 찾은 적이 있다. 연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산란하기 위하여 되돌아오는 것과 그곳에서 죽는다는 것이다. 길고 긴 바다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자신이 태어난 하천을 발견하여 회귀하는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찾아 가는 것일까? 이

에 대한 추측은 여러 학설이 있었다.

- 연어의 회귀능력이 환경자극에 대한 유전적인 반응이라는 설과 - 태양의 위치나 천체의 특징을 이용한다는 설. - 후천적으로 모천을 찾아올 수 있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설 등이다. 그러나 연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사람도 회귀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고향은 짜릿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미지를 가진 시니피앙(signifiant)이다. 그러나 그 향수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딸애는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서울에서 살고 있어 향수를 못 느끼는 것 같다. 나는 고향이 물속에 사라져서 그런지 거기서 보냈던 추억의 상념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행랑채 그 방은 계속 비어 있었고, 다소 퇴색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채 장수는 아니 오고 방물장수가 와서 묵게 되었다. 방물장수는 여자들에게 소용되는 화장품, 바느질 재료, 패물, 얼레빗 참빗 따위를 파는 장수였다. 그 방물장수는 삼십 중반의 여자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 곱게 쪽 찢 머리 위에 비녀를 꽂고,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방물을 이고 다녔다. 방물을 이고 다니는 그녀는 큰 키에 허리가 잘록하고, 목이 길어서 옷맵시가 좋아 보이고 걷는 모습이 아름다웠으며, 그녀가 옆에 지나가면 아카시아 꽃잎을 씹을 때 터지는 꿀물 같은 달콤한 향내가 났다.

이 방물장수가 행랑채에 들어오면서 그 방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칠봉이 아저씨 말마따나 말(馬)만치 큰 동네 처녀들이 행랑채를 자주 드나들었다. 어린 나는 여자들만이 출입하는 그 방을 동네 누나들을 따라 들어가면, 그 방 윗목에 진열된 방물을 볼 수 있었다. 바느질할

때 쓰는 골무며 실과 실패, 얼굴에 바르는 분이나 크림 등 화장품, 참빗
 알레빗과 면경(面鏡), 사탕같이 생긴 즙약, 얼룩덜룩한 색실 등 많은 물
 건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물건들이 신기하여 만져보고 싶어 가까이
 다가서면

『우리 도령님은 서당에서 배운 글공부나 하시지. 여자들이 쓰는 물건
 을 뭇 하러 보러 하세요. 여자들이 소용되는 것을 남자가 보면 못쓰지
 요.』

방물장수 아주머니는 나를 도령님이라 호칭하며 사내로 구분하고 내
 접근을 말렸다. 방물장수가 의미 있게 여운을 남기는 말에 깔깔 웃는
 누나들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할 수 없이 내 체면에 그 망을 나오는 수뿐
 이 없었다.

방물장수가 우리 집에 온 뒤부터 여자들이 드나드는 것 외에 남정네
 들이 가끔 그 방을 기웃거리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내 친구 경석이
 아버지와 은주네 오빠도 기웃거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어머니께 그 사
 람들이 기웃거리는 것을 봤다고 했더니, 아무한테도 그 말을 옮기지 말
 라 하시며,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저녁에 우리 집 일꾼인 칠봉이 형이 방물장수가 기
 거하는 방문을 기웃거리는 것이 내 눈에 띄었다. 방물장수가 머무는 방
 에는 호롱불이 켜있었고, 머리를 감았는지 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니 머
 리를 빗는 여인의 실루엣이 창호지에 비쳐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칠봉이 형이 그 방 앞으로 가다가 멈추어 방안의 동정
 을 살피고 있는 게 아닌 가, 나는 목젓이 아프도록 마른침을 꿀떡 삼켰
 다. 그때 마침 우리 집 식모인 분네 누나가 꼬리를 사려감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칠봉이 형은 분네 누나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듯했다. 그 장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기감에 나는 숨을 골라야 했다. 분네 누나는 칠봉이 형 가까이 다가서서 칠봉이 형 귀를 낚아채듯 그를 끌고 그 방문 멀리 나오는 것이었다. 칠봉이 형은 무 캐다가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며, 꿈쩍 못하고 분네 누나에게 끌려 나왔다.

『여자 혼자 있는 방에 뒛 하려고 기웃거리는 거여? 수상쩍게.』 분네 누나는 누가 들을까 봐 작은 목소리로 칠봉이 형에게 말하며 그를 끌고 나왔다

『응, 둥둥 그리무 하나 사려고 했구먼. 이 귀 놓아.』 그는 놀랜 때와 다르게 침착하게 대답했다.

『남자가 둥둥 그리무는 어디다 쓰게? 괜히 기웃거리다가 들키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 분네 누나는 칠봉이 형을 올려대며 뒛달을 하였다.

『남의 속도 모르고 너한테 하나 사주려고 그랬다. 에이 참.』 칠봉이 형은 뽀로통하며 대꾸했다.

『그러면 낮에 사지.』

『남정네가 낮에 사기는 좀 뒛해서…….』

그 때 마침 방물장수가 기거하는 방문이 열리며

『밖에 누가 계신가요?』 방물장수가 밖에서 나는 인기척을 듣고 문을 열고, 어두운 밖을 내다봤다. 방안에 밝은 빛 때문에 어두운 밖이 잘 보이지 않았는지, 허공을 보며 말했다. 『둥둥 그리무 하나 살까 해서, 밤중에 미안해요.』 칠봉이 형이 방문 쪽으로 다가서며 더듬거리며 방물장수에게 말했다.

『둥둥 그리무가 얼마예요?』 칠봉이 형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는 방물장수에게 재차 말했다.

『여러 가지예요. 들어와서 보시고 사세요.』 방물장수 아줌마는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했다. 칠봉이 형이 방으로 들어가니까 분네 누나도 따라 들어갔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줄려고 그러나 봐요?』

그들은 물건을 구경하며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칠봉이 형은 크림을 사가지고 한참 만에 나왔다. 칠봉이 형은 나오면서 그 크림을 분네 누나에게 주었다. 분네 누나는 그 크림을 받아들고 그것을 든 손을 치마로 가리고 우물가로 가고, 칠봉이 형은 자기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나 말고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그 후 얼마 뒤 아침밥을 먹고 서당을 가려고 책을 끼고 행랑채를 지는데, 이웃 동네 이름 난 부잣집 김 진사 댁 아랫사람들이 행랑채 그 방에 와서 방물과 물건을 팔고 받아 둔 곡식을 지게에 싣고 있었다. 나는 왜 그 사람들이 방물장수 아주머니의 물건을 가져가는지 궁금하여, 서당에 가던 길을 되돌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알바 아니니 서당이나 가라고 해서 그냥 서당을 가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서당에 가면 언제나 그날 배울 것을 훈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배우는데, 서당에 도착한 순서대로 배웠다. 생도들이 다 배우려면 아침나절이 다 지났다. 아직 차례가 안 된 생도들은 전날 배웠던 것을 붓으로 쓰기도 하고, 목청을 다듬어 큰 소리로 글을 낭송하였다.

『현옥아! 너희 집에 별일 없느냐?』 가르치기를 마친 훈장님은 조금 지친 듯, 대통에 잎담배를 손으로 집어넣고, 불을 붙이면서 뜬금없이 나에게 물었다. 『네, 훈장님! 왜요? 우리 집에 아무 일 없는디오?』 나는 무심히 그냥 대답했다. 『너희 행랑채에 별일 없느냐? 이 말이다.』 훈장님은 나를 빤히 바라보면서 재차 물어보았다. 나는 집에서 나올 때 행

랑채에서 일어났던 일이 퍼뜩 생각났다. 『별일은 없고요. 자리미골 김 진사 댁 아랫사람들이 행랑채에 와서 방물장수 짐을 지게에 싣고 있는 것을 봤어요.』 훈장님이 행랑채를 지목했기에 나는 내가 본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 『그래, 그것만 봤느냐?』 『예 그것만 봤는디요. 뭐 잘 못 된 것이 있남노?』 『알았다. 글공부나 계속해라.』

훈장님은 나와 나누던 대화를 단절하고, 그 분이 늘 하시던 대로 한지에 글을 쓰기 위하여,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훈장님이 나에게 물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행랑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네 나이에 어른들이 하시는 일을 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물어 볼 수가 없었다. 그 뒤 내가 안 사실은 이웃 마을 김 진사 댁, 증손자가 자기 마누라가 이태 전에 죽어 홀아비로 지냈는데, 방물장수 아주머니를 보쌈 하여 마누라를 삼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보쌈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승용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댐이 설치된 고향 쪽으로 가는 국도로 진입하는 중이다.

나는 우선 댐 아래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 간다. 낯선 이방인을 대하듯 위아래로 잠시 눈길을 주던 식당 아주머니는 나를 방으로 안내하며 늦게 영너리를 쳤다. 수자원공사 직원이 식당에서 먼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와 수인사를 나눴다.

우리는 새우탕과 붕어찜을 주문하고 그와 담소를 나누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 주문한 붕어찜이 나와 우리는 같이 식사했다.

나는 일찍이 일류 기업에 취직이 되어, 서울에서 생활 하게 되었고 고향에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날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외에

는 내려가지 못했다. 고향은 누구나 있는 것 늘 으늑하고 따뜻한 마음의 안식처요, 어려운 비탈길에서 손을 뺄으면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어 마음 든든한 소나무처럼 느껴졌던 고향일 뿐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 마을 아래 지역에 댐이 설치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설마 했더니만 그 계획은 구체화 되고 고향에서는 댐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고, 필요한 경비를 성금으로 받는다 하여 나도 얼마쯤 내며 내 체면을 유지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몇몇 동네 사람들의 힘으로 막는다는 것은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보트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플라스틱 물통 같은 용기를 여러 개 엮어 부표를 만들고 그 위에 판자와 헌 타이어로 만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선착장이었다. 나는 노란 구멍조끼를 입고 보트에 올랐다.

멀리 보이는 수평선에는 물안개가 피어 시야를 가리며 수목담채화를 보는 듯 고즈넉했다. 나는 수몰되기 전에 이곳이 어떤 지역인가를 산능선을 짚어 헤아려 봤다.

날씨는 청명하고 하늘의 햇살은 창끝처럼 날카로웠다. 산의 형태와 능선을 보니 옛날 집에서 보던 앞산과 뒷산이 보인다. 집 뒤에 상수리 나무가 그대로 크고 있었다면 이 보트가 떠 있는 물 높이나 될 성싶다. 나는 한 동안 상념에 잠겨본다.

행랑채 그 방은 그해 무덥던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 때까지 한동안 비어있었다. 나는 천자문을 거의 끝내고 책거리를 앞두고 있었고, 천자문을 끝내면 다음엔 사자소학(四字小學)을 배울 차례였다. 아버지는 천자문을 떼는 나를 대견스럽게 여겼으며, 책거리 할 때 떡과 음식을 잘 장만하여 훌륭한 책거리가 되도록 어머니께 부탁하셨다. 서당

을 다니면서도 행랑채 그 방에 대하여 언제나 궁금하여, 누가 또 왔는지 혹시 채 장수가 오지나 않았는지 확인하며 다녔다. 오직 효녀 아버지인 채 장수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서당에서 돌아오면서 행랑채 그 방을 보니, 신방돌에 작은 계집애 신발이 놓여 있었다. 그 신발은 효녀가 신었던 작은 그 꽃신이었다. 내가 바라고 바라던 그 채 장수는 딸인 효녀를 데리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나는 그 꽃신을 보자 바람 만난 바람개비처럼 패그르르 가슴이 다시 뛰고,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던 내 가슴에 더운 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나는 바로 그 방문을 열고 확인했다. 효녀는 나를 보고 입가에 물이끼처럼 피는 희끄무레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효녀는 예전보다 조금 더 큰 것 같고 그 때보다는 많이 여물고 바래져보였으며, 그리고 더 예뻐다. 그녀를 보니 너무 반가워 하마터면 그녀를 안을 뻔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해후상봉(邂逅相逢)의 기쁨을 맛보려 했으나, 그녀는 내가 잡은 손을 슬그미 빼며 내가 들고 있는 천자문책에 관심을 보였다.

『서당에 다니니?』

『응,』

『어렵지 않니?』

『어려운 것 없어. 훈장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

『재미있니?』

『재미없어. 정말 재미없다. 너는 다니지 마.』

『나도 다녔으면 좋겠다.』 그녀는 호기심 있게 말했다.

『그럼 너도 같이 다녀.』 나는 싱겁게 말했으나 그럴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늦게야 알았다.

『현욱아! 그리고 그때 네가 올라가자고 한 곳 한번 가볼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그토록 올라가기 싫어했던 내 아지트를 보자고 하니, 그동안 그녀의 심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눈 속에 희미하게 스치는 동요를 엿볼 수 있었다.

『그래, 이리 따라와.』 나는 천자문책을 신방돌에 땡개쳐놓고 그녀를 데리고 짚더미를 헤치고 앞장을 섰다. 한손으로 짚더미를 부여잡고 또 한손으론 그녀의 손을 잡고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아지트를 찾았다. 짚더미 속에 새 보금자리같이 뭉개진 흔적이 있는 내 아지트가 나타나났다. 그녀는 먼저 그 곳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만지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이곳에 올라오니 그렇게 좋니?』 그녀가 나를 뵈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다. 갑자기 한 그녀의 행동에 어떻게 할지 몰라 얼굴이 타 오르고 숨이 막힐 정도였다.

『네가 올라와서 너무나 좋아.』 나는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고마웠다. 그녀에게 무슨 말인가 꼭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현욱아! 근방 들어오는 것 같더니만 어디 갔지? 밥 빨리 먹고 서당에 가야지.』 어머니가 우물가에서 내가 들어오는 것을 봤는지, 나를 부르며 혼잣말을 하셨다. 나는 그 아지트에서 빨리 나와야 했다. 나는 효녀 보고 내가 먼저 나갈게 나중에 나오라는 말을 남기고 빨리 그곳을 빠져 나왔다. 나는 효녀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어머니나 누나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그것이 큰 흉이나 죄악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라 저녁밥을 먹는 등 마는 등 먹고 그 방 신방돌에 놓인 효녀의 꽃신을 보고 다시 서당으로 향했다. 나는 너무나 좋아 뛰며 서당을 갔다. 그녀와 놀 생각을 하니 너무나

좋았다. 서당에 가서도 내 머리에는 온통 효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고민이 하나 있었다. 매일 서당에 가는 내가 효녀와 논다고 서당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서당에 가면 효녀와 놀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피병을 앓아 서당에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날 저녁부터 몸이 아프다고 엄살을 떨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한 효녀의 행동으로 쉽게 잠이 들지 않아 미열이 나고 추운기도 있었다. 저녁에 자면서도 앓은 소리를 냈더니, 어머니는 쉽게 내 엄살에 속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 내가 늦게 일어났더니 나보고 그대로 누어있으라고 하면서 이불을 덮어주고 안방으로 가셨다.

『현욱이가 열이 조금 있고 시름시름 앓은 것이 몸살인 것 같아요. 천자문을 떤다고 무리하게 공부를 해서 몸살이 난 것 같으니, 오늘은 쉬도록 해야겠어요.』 안방으로 넘어간 어머니 말이었다.

『그렇게 하세요. 공부를 한답시고 제 댄에는 지쳤나 봐요. 현욱이가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방에서 쉬도록 하세요. 내가 훈장님께 말하리다.』

내 피병은 그렇게 쉽게 먹혀 들어갔으나 또 한 가지 고민은 밖에 나가 지 말고 방에 누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서당에 가는 것만은 가지 않아도 되나 아픈 사람이 밖에 나간다고 말할 수 없어, 방에서 누어 있다가 틈을 봐 나갈 생각을 하며 방에 있었다. 그 때 누가 안방에 찾아 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말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할 말이 있어 찾아 왔습니다.』

『편히 앓게 나, 할 말이 무언가?』 둘이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들으니, 안방에 찾아 온 사람은 효녀 아버지인 체 장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귀는 당나귀 귀처럼 안방으로 길어졌고, 신경이 팽팽히 당겨졌다.

『어르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방을 두 번이나 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을 ……』

『어르신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오늘은 간곡히 말씀 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말해 보게나. 간곡히 할 이야기가 무언가?』 잠시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다름이 아니라, 이 집에 일하고 있는 분네 씨를 소인이 제 아내로 맞이하려합니다.』

『그래? 분네도 같은 마음인가?』

『네, 어르신! 둘이 같이 살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넌방에 있는 어머니와 부엌에 있는 분네 누나를 불렀다. 조금 뒤에 분네 누나와 어머니가 들어가는지 미닫이문을 밀고 닫는 소리가 들렸다.

『분네야 거기 앉아라. 이 사람과 같이 살기로 서로 약조하였다는 말이 사실이나?』

『네, 죄송해요. 어르신! 사실입니다.』 분네 누나가 기어들어가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참 우리만 몰랐네. 그러지 않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래, 둘이 서로 같이 살자고 약조하였다니, 우리야 할 말이 없네만, 자네는 어린 딸이 있으니 초혼은 아니겠지?』

『네, 맞습니다. 초혼은 아닙니다만 분네 씨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나는 분네를 총각한테 시집을 보내려 했는데.』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둘이 가정을 꾸민다고 하니 우리야 할 말이 있겠는가만, 분네는 내가 낳은 친 딸은 아니나 내 딸같이 여기고 살았네. 자네가 잘 거두어 잘 살게나. 그건 그렇고 언제쯤에 식을 올릴까?』

『그래서 그런데요. 여기서 식은 생략하고, 저희 집에 가서 물을 떠다 조출하게 식을 올리려 합니다. 그리고 혼수도 죽은 처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 있어 별도로 장만할 필요가 없고요. 결혼식도 생략하고 결혼식비용을 절약하여 살림에 보태 쓸려고요.』

『그래, 둘의 뜻이 그렇다니, 잘 살아야지. 무슨 뜻인지 알겠네. 그 결혼 비용까지 돈으로 지급해 달라 그 말이겠다.』

『네, 어르신! 살림하는데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 당시 여자 애를 어렸을 때부터 식모로 데리고 있으면, 커서 혼처를 마련하고 결혼식을 올려주고, 혼수까지 마련하여 딸처럼 시집을 보내주는 것이 풍습처럼 내려온 관례였다.

『좋은 생각이네. 형식적인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언제까지 결혼비용과 혼수비용을 챙겨주면 되겠는가?』

『마련만 되면 되는데로 저희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봄에 왔을 때 이미 서로 약조하고 같이 살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결혼비용은 언제까지 챙겨드리면 되겠는가?』

『어르신이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저희야 오늘이라도 마련되면 떠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야 나도 오늘 어떻게라도 변통해 보겠네.』

『미안해요.』

『그러면 돈을 구해 올 터이니, 오후까지 말미를 주게.』

『그리고…….』 체 장수가 말을 잊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응 또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 보게.』

『제 안식구가 될 분네 씨 이야기인데요.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돈이 되는 대로 시차를 두어 제가 먼저 나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분네 씨가 그 뒤에 저와 합류하여 떠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려고?』

『재취 자리로 누가 봐도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할뿐더러,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어르신!』

분네 누나 대답이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네.』

조금 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버지와 체 장수가 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머니와 분네 누나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요. 마님! 봄부터 그 사람과 약조했어요. 체장사하면 굶어 죽지는 안 할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어딘가 좋아졌어요.』

『나는 네가 칠봉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칠봉이와 결혼시켜 우리 집에 길게 데리고 있으려 했는데.』

나는 상황이 그렇게 된 만큼 내 방에서 나와 행랑채 그 방문 앞까지 갔다. 그 방 신방둘에 체 장수와 효녀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효녀야! 놀자!』 나는 여러 가지 궁리하다가 용기를 내어, 방안에 들리도록 효녀를 불렀다.

『나중에 같이 놀지 그러냐. 효녀는 자고 있다.』 효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자고 있는 효녀가 너무나 야속했다. 나는 효녀와 놀지 못하고 내방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그 뒤 아버지는 돈을 마련해 오고, 체 장수와 효녀가 점심에 초대되어 우리 안방에 우리 식구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효녀는 자기 아버지 옆

에 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 안방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니 씩 웃어 보이며 눈짓을 했는데, 그 얼굴이 너무 예뻐, 나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식사가 끝난 뒤 채 장수와 효녀가 우리 부모님의 전송을 받으며 우리 집을 떠났다.

나는 어른들 사이에서 효녀와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그녀를 보내야 했다. 나는 끝내 효녀와 헤어지고 말았다. 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일수록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그 뒤 또 기다리고 기다린 그 채 장수와 효녀는 우리 행랑채를 다시 찾지 않았다. 다시 그녀가 남기고 간 적막이 나를 슬프게 하였고 그녀의 뒷모습이 언제까지 내 어린 눈에 밝혀, 내 어린 가슴을 아프게 했었다.

보트는 행랑채와 마당 위를 선회한다.

행랑채와 마당이 보이고 대문을 향하는 길이 흰히 물속에 비쳐 보인다. 거기서 뛰노는 작은 꼬마와 효녀가 보인다. 우물에서 물을 길는 분네 누나도 보인다. 어머니가 우물가에서 “현옥아”하고 나를 부른다. 나는 목이 메어 대답을 못한다.



아파트 앞 산기슭에 흐드러지게 핀 아카시아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아침부터 까치가 자지러 지게 울더니만 뜻밖에 공무원 문예대전에 입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응모하면서도 설마 했는데 막상 수상하고 보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시간 여유가 있어, 틈틈이 책을 읽었더니 이런 행운이 온 것 같다. 재직 시에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일들이 지금은 후회스럽고 그냥 스쳐지나간 세월들이 새삼스럽게 아쉬움으로 긴 여운을 남긴다.

전직 공무원에게까지 이런 기회를 준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느낀다. 시상식과 다과회 등 수상자에게 베푼 배려에 대해 역시나 공무원의 사기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운 면모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작품은 전북도청에 근무하다가 사무관에 승진하여 첫 부임지인 고창군 아산면장 재임 시에 댐(전북 고창군 아산면 은곡 댐)으로 인하여 고향을 잃은 애달픈 실향민의 사연을 듣고, 그 이미지와 잊혀 지나간 나의 옛날 추억을 형상화 한 것이다.

이제 습작에 불과한 첫 작품을 이렇게 내놓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리고 필시 내키지 않은 선택에 만족치 못한 표정을 지었을 심사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



서울가정법원

김 금 남

해뜨는 집

‘해뜨는집’ 무슨 고아원 이름 같네.

김밥집이면 ‘그냥 먹자 김밥’이나 ‘김밥 선생’ 정도가 딱 인데.

인영이 웃었지만 인애는 ‘해뜨는집’에서 비로소 매일 아침 해를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본문 중에서-



해뜨는 집

이래서 치과에는 오기가 싫었어. 생각하며 인에는 미간을 찡그렸다. 칫솔질로 마모된 윗니 부분만 살짝 메우고 스케일링만 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양쪽 어금니에 충치가 있을 뿐 아니라 금이 나 있다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틈이 벌어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도 했다. 간호사는 크라운 두 개와 마모된 치아 사이를 메우는데 모두 90만원이 든다며 90이란 숫자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였다. 생각지도 않게 치과에 거금을 쏟아붓게 생겼으니 인애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하지만 삶이란 늘 예상외의 일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음 놓고 있는 순간 복병처럼 찾아오는 일들이 때로 삶을 통째로 흔들고, 흐르던 물길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었다. 그걸 깨닫기까지 크고 작은 비용을 수없이 치렀다고 생각하며 인애는 오늘의 복병이 돈 문제임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기기로 했다. 어차피 수중에서 빠져나갈 돈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니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다며 치료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돈보다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였다. 두 해 전,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해 인애는 한동안 병원을 들락거려야 했다.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두통, 스트레스성 장염에 이어 마지막에는 스트레스성 탈모 증상까지 생겼다.

“어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아파트 상가의 단골 미용사가 분무기를 들고 머리카락을 들추다가

호들갑을 떨었다. 인애는 무표정한 얼굴로 거울 속의 미용사를 바라보았다. 원형 탈모예요. 그것도 두 군데나. 인애가 손거울을 집어 들었다. 보시면 충격 받으실 텐데요, 하면서도 미용사는 의자를 회전시키고 탈모 부분이 손거울에 비치도록 도와주었다. 뒤통수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동그라미 두 개가 허영게 피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흥했다. 총 맞은 자리가 그럴까? 인애의 충격은 컸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나 속이 쓰라리거나 머리가 아픈 것도 참기 힘들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머리통에 숭숭 구멍이 난 것처럼 온몸이 시리고 떨리던 그 때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애는 당장 입 속의 일에만 생각을 집중하려고 애썼다. 앞으로 치과에는 며칠이나 다녀야 할까? 통증은 건널 만한 것일까? 어떻게든 일손이 한 가한 시간에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오른쪽 잇몸에 마취 액이 흘러드는 동안 인애는 잠시라도 잠이 들었으면 싶었다. 불안하고 찻찻한 기분을 떨쳐내려고 몇 번 심호흡을 한 덕분인지 문득 누워 있는 등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생각해 보면, 너무 오랫동안 등허리를 혹사해 왔다. 모처럼 길게 뻗고 누우니 등 짝인들 이 기회를 놓치고 싶겠는가 생각하니 조금 서글퍼지기도 했다. 그나마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슬프거나 외롭다는 감정도 다 여유가 있을 때나 부릴 수 있는 사치였다.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소리가 들렸지만 인애는 받지 않았다. 입 부위만 동그랗게 뿔려있는 치료용 가리개가 얼굴을 덮고 있어 움직이기도 귀찮은 데다 마취 기운이 금방 오른쪽 뺨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휴대폰은 세 번이나 연속 울리다가 진동을 멈추었다. 인영에게 맡겨놓은 가게일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재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고 나왔으므로 손바닥만 한 김밥 집에 뭐 급한 일이야 있겠어? 일을 하다

급하게 받은 전화일수록 대출이나 보험을 권유하는, 관에 박은 목소리
이기 일쑤여서 짜증이 나곤 했던 기억을 인애는 떠올렸다.

치료를 마치고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보니 아까의 전화는 학교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며칠 전 훈이가 교육부장관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혹 그 결과가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인
애는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라고요? 마취가 덜 풀린 인애의
발음이 불안정하게 빠져나왔다. 이틀 후에 다시 나오라는 간호사의 말
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인애는 치과에서 뛰어나와 택시를 탔다.

신호등이 많아 학교까지 30분은 족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 인애의
마음이 조금해졌다. 훈이 어머니, 일단 학교로 나오시면... 전화 속 담
임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차분하지 않아 인애의 가슴은 두
근거렸다. 훈이가 어딜 다쳤나요? 마취된 뺨 주위를 문지르며 최대한
소리를 모아 물었을 때 담임선생님은 분명, 훈이는 괜찮다고 했다. 아이
가 무사하다니 뭐 더 큰일이야 있겠어? 인애는 하나, 둘 호흡을 고르며
자신을 달랬다.

훈이가 어떤 아이인가? 열여섯 살 먹은 소년이라기엔 너무도 의젓한
아이다.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전교 일등을 놓치지 않는 아들 덕분에
인애도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탔다. 학부모 모임 때면 평소 안면
이 없던 엄마들까지 인애 주위에 몰려들었다. 엄마들은 훈이가 어떤 학
원에서 무슨 과목을 수강하는지, 어떤 참고서를 활용하는지, 고교 진학
은 어떤 특목고를 선택할 것인지를 궁금해 했다. 제가 뭘 아나요? 아이
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거드름을 피우기 위해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
었다. 그러지 마시고 좀 가르쳐 줘요. 우리 아이도 학원을 바꿔야 하는
데... 참고서 정보 좀 공유하자고요. 학습매니저 역할에 충실한 엄마일
수록 인애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하며 인애를 탐색하려 들었다. 과

외는 하지 않고 영어, 수학만 주말 학원에 보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들은 다른 질문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다. 평소 아이의 수면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이에게는 무얼 해서 먹이는지 등등 시시콜콜한 질문도 마다하지 않았다. 인애는 훈이 덕분에 학교에 가는 일이 늘 즐겁고 자랑스러웠다.

이런 기쁨과 잘잘한 재미를 아이 아빠는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인애의 입 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혼 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남편은 훈이의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왔지만 정작 자라나는 아이를 만나 보지는 못했다. 훈이는 요즘 키와 몸무게가 부쩍 자라 제법 사내다운 티가 났다. 한창 성장할 때라 밥은 어찌 그리도 잘 먹는지. 인애는 밥을 푹푹 떠먹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 둘이 먹는 밥상이지만 매번 새롭고 영양이 풍부한 식탁을 마련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다. 오래도록 보지 못한 아들이 건강하게 지내는지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해 하는 남편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다. 당신의 걱정 따위 한 치도 필요 없을 만큼 아이는 완벽하다고 말할 때마다 인애는 통쾌했다. 이혼 문제로 한창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을 때, 인애가 남편에게 다시는 아이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며 썰기를 박을 필요도 없이 아이가 먼저 제 아빠를 응징해 버렸다.

“엄마와 살 거예요. 아빠와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남편의 얼굴이 확 붉어지는 것을 인애는 놓치지 않았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훈이 덕분에 인애는 겨우 자존심을 추스를 수 있었다. 아이의 손목을 잡고 대전을 떠난 이후 세 식구가 만나는 일은 물론 부자간에 만나는 일도 없었다.

처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쪽은 인애였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분노감에 시작한 일이지는 하지만 내심 이혼까지 할 작

정은 아니었다. 껄뽀하기로 말하면 이혼 보다 더한 것으로도 갇고 싶었지만 그래도 혼이를 위해서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남편이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둘 작정이었다. 변호사도 일단 소장을 낸 후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적당한 때에 소송을 취하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혼 소장을 받아든 남편은 극도의 흥분상태로 손까지 부들부들 떨며 인애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혼을 하자구? 당신이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 대체 그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어? 겨우 생각한다는 게, 생판 모르는 판사 앞에서 어린애처럼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었어? 에이, 나 원 더럽고 치사해서…….”

기가 막힌 쪽은 인애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친단 말인가. 뻔뻔스럽게도 경멸 섞인 표정까지 짓고 있는 남편을 보며 인애도 야멸치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뒤통수를 먼저 친 사람이 누군데? 당신 그 잘난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버젓이 처자식 있는 사람이 그런 남부끄러운 짓을 해? 혼이에겐 대체 뭐라고 할 참이야?”

인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 버렸다. 이혼 소송이 걸린 걸 알면 남편은 순간의 실수를 인정하며 제발 이혼만은 말자고 빌 줄 알았다. 그러나 인애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여자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큰 실수였다. 남편에게서 여자를 확실하게 떼어내려고 주위의 조언을 따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과 여자는 자연스럽게 한통속이 되어버렸다.

첫 재판 때 피고석에 나란히 선 그들을 보는 순간 인애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항상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고, 당연히 자신의 옆자리에 있어

야 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한 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신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들의 결속이 너무나도 단단해 보여 인애는 제 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도 안간힘을 써야 했다. 그래, 당신이 원한 게 겨우 이거야? 뜻대로 해주지. 남편의 비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두 번째 재판 때 남편은 반소장이라는 것을 제출했다. 이혼을 당할 상대방이 도리어 반소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내용을 읽고 인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반소장에서 남편은, 자신도 이런 여자와는 살 수 없다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7년을 연애하고 13년을 함께 살아 인애를 너무나 잘 아는 남편은 인애의 허물과 약점을 이혼이라는 틀에 교묘하게 짜 맞춰 내놓을 줄도 알았다.

“당신이, 이려고도 사람이야?”

인애는 소리 지르며 반소장을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놀란 변호사가 손짓으로 저지했고 법정 경위가 소란을 피우면 퇴장해야 한다며 주의를 주었다. 법대에 앉은 판사도 인애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했다. 남편은 불쾌한 듯 얼굴을 한번 찡그렸을 뿐 즉시 냉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피고가 된 여자가 남편의 어깨 너머로 흘끗, 안됐다는 듯 돌아보았을 때 인애는 엄청나게 일이 꼬여가고 있음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다. 법정 안에서 흥분하여 날뛰는 사람은 자신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담담했다. 마치 자신이 큰일을 저질러 위험인물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이렇게 감정기복이 심하니 제가 참고 살기도 어려운 겁니다. 남편이 때맞춰 입을 열었다.

- 원고는 평소 의부증이 심해 피고의 일상을 늘 감시하고 다른 여자와 눈만 마주쳐도 난리를 쳤습니다. 피고가 최근 새로 맡게 된 일 때문에 여자 후배 연구원과 자주 만나게 된 것을 오해하여 따라다니더니 그

후배의 집까지 찾아가 다그치며 망신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무슨 대단한 불륜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원고는 그 여자와의 관계를 주위에 떠벌리고 연구소에 투서까지 넣어 저의 사회생활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물론 저도 둘 사이에 아이가 있고, 연애결혼을 한 만큼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여 참고 살았습니다만 매사 이런 식이니 함께 살아갈 부부로서의 대화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원고가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제기한 이상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혼을 청구합니다…….

의부중이라니? 아아, 이혼 재판이 아무리 서로 뒤집어씌우는 난장이라고 해도 어떻게 의부중이란 말로 자신을 엮어낸단 말인가? 인애는 도무지 진정할 수가 없었다. 변호사는 재판을 권투시합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원고와 피고가 링 위의 선수가 되어 공격과 방어를 하고 판정을 받는 것이라면, 인애는 초반부터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강한 반격에 피부부터 흘린 땀이었다. 녹아웃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인애를 불안에 떨게 하였다.

설마, 하며 쳐들어갔던 그 여자의 오피스텔에서 인애는 똑똑히 보았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껴안고 있었다. 인애가 좋아했던 그의 이지적인 눈매와 웃음이 다른 여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 순간 인애는 휘청거렸다. 다른 것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었다.

“중년기의 남자들도 사춘기 아이들과 똑같이 다루어야 한대. 그 또래 아이들이 결과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중년의 바람도 뒷일 감당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저지르는 일이라.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일이라니까 언니가 한번만 눈 감아 주라. 많은 여자들이 그러고 살잖아…….”

인영이 충고랍시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인생이 바둑이라면, 까짓 거 한 수 물러줄 수도 있는 거라고 인애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포석을 잘못 놓은 탓인지 상황은 인애가 마음대로 물러설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인애가 소송을 취하해도 남편이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남편의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덮에 걸린 짐승마냥 인애는 버둥거렸고 그럴수록 점점 숨통이 죄어드는 위기감에 짓눌렸다.

인애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남편이 좋았다. 두 사람은 대학시절에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다. 동아리 친선 농구시합에서 골절상을 입은 남편을 간호학과에 다니던 인애가 우연히 돌보게 되면서 둘은 가까워졌다. 인애는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실까지 동행하였다. 한 번 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 평범한 외모의 인애에 비해 남편은 준수한 외모에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답게 매너 또한 좋았다. 그를 만날 때마다 인애는 ‘빠대 있는 가문’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악다구니를 치는 엄마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자라 예의범절을 모르는 인애네 형제들과 남편은 확실히 달라 보였다. 박식하고 논리적인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지적 수준이 상승되는 것 같아 인애는 뿌듯했다. 그에 맞추기 위해 인애도 열심히 책과 신문을 읽고 여러 매체에서 흘러주는 지식과 교양을 쌓았다. 남편 뿐 아니라 남편 주위의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인애는 늘 신경을 썼다.

결혼하고도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계속 공부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인애는 기꺼이 도맡았다. 삼교대를 해야 하는 종합병원의 간호사 일을 놓지 않았으므로 몸은 항상 바빴지만 티를 내지도 않았다. 남편이 대전의 연구소에 취직하고 나서야 인애는 병원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이사하였다. 대신 재테크에 눈을 돌려 아파트 평수와 함께 적금액도 착실히 불렸다. 자라나는 아들을 살뜰하게 거두고 시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인애를 남편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아껴주었다. 인애가 그 여자 후배의 존재를 알아내기 전까지, 세 식구는 남들이 부러워 할 만큼 단란한 외식과 가족 여행을 즐기며 부족함 없이 지냈다. 그러나 결혼 전 꿈꾸던 아름다운 가족의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인애가 느낀 행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한 번 금이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유리그릇 같은 것인 줄을 진작에 알았다더라면 좀 더 조심하며 살았을까? 인애는 고개를 저었다.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하는 바람에 인애의 몸이 앞으로 확 쏠렸다. 노란머리의 소년이 굉음을 울리며 오토바이로 자동차 사이를 쏘살같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소년의 등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또래의 여자아이가 착 달라붙어 있었다. 둘 다 헬멧을 쓰지 않아 여자아이의 긴 머리칼이 바람에 날렸다.

“저런 미친 애새끼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대체 요즘은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혀를 차면서 나이 지긋한 운전기사는 인애를 힐끔거렸다. 그러게 말예요.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걸 인애는 꼭 참았다. 사실 인애가 자랑할 필요도 없었다. 학교에서 뿐 아니라 아파트 현관을 같이 사용하는 이웃들에게서도 훈이는 칭찬감이었다. 경비원이든 누구든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은 물론 시키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지나가는 노인들의 무거운 짐도 나누어 들 줄 알았다. 아비 없이 자식 키우는 것이 두려워 자존심까지 팽개치고 남편에게 매달렸던 인애에게 이제 훈이는 존재 이유 그 자체였다.

서울로 돌아온 첫 해, 인애는 증오심과 억울함을 가누지 못해 정상적

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집을 옮기고 아이를 전학시켜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시도했지만 그저 몸만 낫선 곳으로 옮겨왔을 뿐 머리와 가슴에는 새로운 것이 담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질긴 불면의 고통이 인애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가리지 않고 공원이나 한강을 배회하던 인애에게 훈이는 어느 날 컴퓨터 마우스를 쥐어주었다. 잠이 안 오면 매트릭스나 고스톱 게임이라도 해보라며, 제발 밖에 나가지 말아달라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 했다. 고작 6학년인 아이의 불안감과 상실감까지는 계산에 넣지 못했던 인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매일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돌아올 때까지 잠을 잘 수 없었다던 아이의 어린 등을 쓰다듬으며 인애는 비로소 자신에게 남아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돌보기 시작했다. 증오의 감정은 매물비용일 뿐이라고 했던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붙잡고 늘어져 있는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에 인애는 발등을 찢고 싶었다.

뭐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상가를 돌아다니다가 처음에 계약한 가게는 계약금만 날리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감이 없는 터에 사기까지 당하고 보니 번듯한 가게를 얻는다는 것이 겁이 났다. 우연히 거리 모퉁이의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인애는 즉시 중개업자를 찾아가 계약을 했다. 그렇게 작은 가게라면 크게 잃을 것도 없겠다 싶어 안심이 되었다. 이왕 커피점이 문을 닫았으니 업종을 바꿔 김밥 집을 해보기로 했다. 김밥이야 특별한 재주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몸만 건디면 될 것 같았다. 너무 좁아서 손님은커녕 허리를 기댈 의자 하나 변변히 놓을 자리가 없었지만 대충 작업대 겸 판매대를 꾸미고 간판을 내다 걸었다.

‘해뜨는 집’

무슨 고아원 이름 같네. 김밥집이면 ‘그냥 먹자 김밥’이나 ‘김밥 선생’ 정도가 딱 인데. 인영이 웃었지만 인애는 ‘해뜨는 집’에서 비로소 매일 아침 해를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이혼 후 수개월 동안 규칙적인 생활이라곤 해보지 않았으므로 자고 나면 밝은 아침이 온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다. 한 줄에 1,500원 하는 김밥 때문에 허리가 녹아들고 다리가 통통 부었지만 덕분에 불면은 생각할 수도 없이 누우면 바로 잠이 들었다.

김밥은 생각보다 잘 팔렸다. 한창 바쁜 시간대에는 인영의 손을 보태도 김밥을 비닐봉투에 담아주거나 돈을 헤아려 받을 사이가 없어 아예 돈 통과 비닐봉투와 나무젓가락은 서서 기다리는 손님의 코앞에 내다 놓고 알아서 챙겨가도록 했다. 대전의 연구단지 아파트에서 비슷한 연구원 부인들과 아이들 과외그룹을 짜거나 학원에 데리러 갈 순번을 정하던 한가한 때에 비하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인애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겨 더 중요한 것을 저버린 남편보다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은 훈이가 선사해 주었다. 고맙게도 훈이는 갈수록 공부를 더 잘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반에서 2,3등 하던 성적이 2학년 때는 1등으로 오르더니 3학년이 되면서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운전기사에게 훈이 애기를 꺼낼 필요는 없었지만 훈이 생각을 하자 인애의 마음은 다시 급해졌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왜 선생님은 그냥 학교에 와보라고만 하고 내용을 일러주지 않았을까? 불안감을 감추려 인애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늦은 저녁부터는 비가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를 건성으로 듣던 인애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멎었다. 건너편 상가 건물 한 모퉁이에서 기름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자동차 보닛을 열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카센터의 익숙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인애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 나왔다.

마지막까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법률사무소를 뛰어다닌 일은 소용도 없이 인애는 이혼하였다. 인애가 소송을 취하할 테니 제발 반소도 취하하고 다시 잘해보자고 할수록 남편은 더욱 냉정하고 싸늘해지며 미련 한쪽 남기지 않았다. 법원까지 가서 자신을 망신시키고 재판기록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도록 한 인애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편을 빼대 있는 집 자식으로 오인하게 만든 것의 실체가 바로 그놈의 체면과 자존심이었음을 인애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간 남편이 보여준 남에 대한 배려와 반듯한 예의는 결국 자신의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이 오빠의 이야기만 꺼내지 않았더라면…….

-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처가 식구들 때문에 결혼생활은 늘 방해를 받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서 잔소리를 하거나 뉘두리를 하는 장모님과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장인을 상대하는 일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처남이 더 문제였습니다. 처남은 지금…….

오빠 인철을 생각하면 인애는 가슴이 미어졌다. 인애보다 고작 한 살 위인 인철은 천성이 여리고 순했다. 술만 마시면 어린 자식들에게 닥치는 대로 욕을 하고 두드려 패기까지 하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기를 펴 본 적 없이 자란 인철이었다. 그럴 때마다 인애와 인영은 눈치껏 엄마의 악다구니 밑으로 숨었지만 인철은 그런 눈치도 없이 고스란히 매를 맞곤 했었다.

“빨리 도망 가. 이 멍청한 녀석아!”

엄마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대도 인철의 동작은 빨라지지 않았다. 결국 엄마가 나서고 거친 부부싸움으로 집안이 이수라장이 된 후에야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곤 했다. 제풀에 지친 아버지가 코를 골며 잠이 들면 인철은 다시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다. 민첩하지 못해 뺨이며 등짝에 선명한 손자국이 찍혀버린 아들의 미련함에 새로 끓어오르는 화를 감당할 수 없어 엄마는 인철에게 갖은 욕을 퍼부어댔다.

계집애처럼 희멀건 얼굴에 말수가 적던 인철은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했다. 인애가 공부를 더 잘하니 인애를 대학에 보내라는 것이었다. 연년생이라 대학생 둘을 감당할 수 없는 집안형편을 인애도 모르지 않았지만 인애는 오빠의 양보를 받아들였다. 진학을 생각하기에는 인철의 성적이 가당치도 않았고, 포기하기에는 인애의 학업성적이 아까웠으므로 엄마도 “계집애가 대학은 무슨…….”하고 혀를 한 번 치는 것으로 넘어가 버렸다.

공고를 졸업한 인철은 카센터에서 잠시 일을 도우다 이듬해에 군에 입대하였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데이트 시간을 조절하느라 인애가 면회조차 변변히 가보지 못한 사이 제대하였다. 눈치가 없어 군대에서 고생만 진탕했을 것은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지만 그러나 인철은 사람이 달라져서 돌아왔다. 마음만 좋았지 매사 의욕이 없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활기가 있어 보였다. 반면 건물 경비 일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 아버지가 조용해졌다. 만성간염을 비롯한 각종 퇴행성 노인질환을 달고 병원 출입이 잦아진 아버지는 눈에 보이게 몸이 줄어들었다. 마음까지도 줄어들었는지 자식들을 붙잡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없어졌다. 늘 식물인간처럼 기운이 없던 인철의 어깨가 조금씩 펴지는 것이 보여 인애는 마음을 놓았다. 인철은 다시 카센터에서 일하며 장래 가게를 직접 운영할 꿈이 있음을 비추기까지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무엇이 인철을 달라지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인철은 어느 날 해사한 얼굴에 몸집이 유난히 작은 여자를 집

에 데리고 왔다. 여자의 배가 불룩했다. 키만 멀쭉하고 말주변이 없는 인철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여자는 웃음이 많고 사근사근했다. 미련 곰탱이에게도 한 가지 재주는 있었나 보네. 식구들은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곧 두말없이 여자를 인철의 짝으로 받아들였다. 카센터 주인은 인철이 따로 나와 살림을 차리고 살 수 있도록 부엌 딸린 조립식 방을 내주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인철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돌았다. 뿐 아니었다. 더 놀라운 일은 아버지의 변화였다. 도무지 자식들과는 눈길 한 번 맞추지 않았던 아버지였지만 손자 귀한 줄은 알아, 아기 엄마가 담배기운이 아기에게 해롭다고 하자 몇 십 년 묵은 엄마의 잔소리에도 꺾끗하게 피워대던 담배를 바로 끊어버렸다. 귀신 곡할 노릇이네. 엄마는 생각할수록 손자가 신통방통하다며 시장 사람들과 큰소리로 수다를 떨었다. 집안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끼며 인애도, 인영도 비로소 남들처럼 살 수 있으리란 자신감이 생겼다. 돈을 관리할 줄 모르던 인철은 어느 사이 아들을 위해 적금과 보험 통장 두어 개를 간직할 만큼 야무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대로만 살 수 있었다면…….

아이가 두 돌을 넘겼을 무렵이었다. 며칠 째 비가 내려 손님도 없는 가게를 지키느니 본가에나 일찍 가봐야겠다고 인철이 막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다. 작은 부품이나 자동차용 액세서리 따위를 팔기도 하고 손님 대기실로도 사용하는 간이 사무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저어…….”

인철은 자동차도 없이 카센터에 찾아온 청년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다는 생각을 했다. 어색한 표정으로 봐서는 분명 카센터가 처음인 것 같은데 선한 눈매와 약간 두툼한 아랫입술이 아무래도 익숙했다. 부끄

러움을 타는지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청년은 목덜미까지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청년의 시선이 가게에 딸린 방문으로 옮겨졌다. 그날은 제사가 있었으므로 인철의 처는 낮에 아기를 데리고 본가에 가고 없었다. 안에서 아무런 기척을 들을 수 없자 청년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아기를…… 아기를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해서…….”

인철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청년이 아기라고 말하는 순간, 청년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이 딱 겹쳤던 것이다. 인철의 식구들 중 눈매가 아래로 처지고 아랫입술이 두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철은 순식간에 머릿속의 피가 다 빠져나간 듯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처음부터 흠뻑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므로, 아기 엄마가 인철을 속인 것은 아니었다. 잘못이라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고 데려온 것이 잘못이었다. 작년에 군에서 제대한 청년은 우연히 입대 전 사귀어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오랜 고민 끝에 얼굴이나 볼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다는 청년의 얼굴이 긴장감과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인철은 본가에 가지 않았다.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걱정이 된 인철의 처가 찾으러 왔을 때 인철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술병과 그릇을 집어던지는 것도 모자라 부엌에서 칼을 찾아 들었다.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 겁이 난 인철의 처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등에 칼을 맞고 쓰러졌다. 끔찍한 대물림이었다. 인애는 엄마의 등에 있는 칼자국을 잘 알고 있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인애는 진저리를 쳤다. 아버지에게 말대꾸 한번 못하고 맞기만 하며 자란 인철에게 아버지의 폭력적인 유전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인철의 처는 그날로 아기와 함께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사라진 것은 아기와 아기 엄마만이 아니었다. 인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카센터에서 노상 걸치고 있던 작업복이 사라졌으며 서랍 속의 통장도 하나씩 사라져 갔다. 카센터에서 쫓겨난 인철은 아이를 찾는다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군대에서도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는 꿈으로 가위눌려 식은땀을 흘렸던 인철이,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노숙자들의 무료급식소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강원도의 카지노에서 봤다는 소식도 들렸다. 정말로 아기를 찾아낸다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식구들은 아기 엄마가 차라리 쫄쫄 숨어있기를 바랄 지경이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정신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애가 찾아갔을 때 인철은 병원에 없었다. 그동안 크고 작게 저지른 폭행사건들이 들통이 나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했다.

인애는 몰래 면회를 다니면서 시댁식구들이 행여 그런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전전긍긍했다. 눈치를 쳤으면서도 꼬치꼬치 묻지 않는 남편의 점잖음이 마냥 존경스럽고 고마웠다. 하지만 그 점잖음의 밑바닥에 어떻게 마지막에 쓸 비수를 숨겨두고 있는 줄은 몰랐다. 20년이나 변함없이 자신을 좋아했던 인애를 당치도 않은 의부증으로 몰며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이, 불쌍한 오빠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할지 두려워 인애는 더 이상의 법정 다툼을 포기했다. 오빠의 불행이 자신의 이혼사건에서 다시 거론되는 것을 견디고 싶지 않았다.

사거리를 지나자 오른쪽으로 학교가 보였다. 차가 밀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인애는 택시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교무실을 향해 걸었다. 누군가 창을 통해 이쪽을 바라보는 듯했지만 인애는 눈길을 돌릴 틈도 없이 곧장 교무실 문을 열었다. 창가에 선 남자가 남

편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인애는 잠시 제 눈을 의심해 보았지만 쓸데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길? 왜, 왜 당신이 여기에 와 있는 거야?”

3년 만에 만나는 남편은 그러나 놀라움 대신 싸늘하게 인애를 노려보았다.

“대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거지? 혼자 완벽하게 잘 키우고 있다면 서?”

인애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필요한 조치는 훈이 아버님이 하셨으니 너무 걱정 말라는 담임선생님의 설명은 더 더욱 납득할 수가 없었다.

“마침 훈이 아버지가 서울에 와 계셔서 빨리 연락이 되어 다행입니다. 민구 아버지와도 이야기가 잘 되었고 다친 부분도 괜찮은 것 같으니 천천히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지금은 상담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그렇지 않던 아이가 그랬으니 부모님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만 학교에서도…….”

하다가 선생님은 그 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멍하니 서있는 인애를 보며 그제야 뭔가를 깨달은 듯 덧붙였다.

“아, 훈이가 그러더군요. 부모님께 연락할 거면 엄마는 바쁘니까 아빠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체육시간에 훈이가 사고를 냈다고 했다. 운동장에 마침 배달원이 세워놓은 스쿠터가 있었는데 갑자기 훈이가 올라타서는 반 아이를 향해 돌진해 버렸다는 것이었다. 놀란 친구가 바로 몸을 피했으므로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지만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했다. 민구라는 그 친구는 얼마 전 대전에서 전학을 온 아이로, 훈이와 친하게 지낸다고 인애도 들은 기억이 났다. 하지만 인애는 여전히 아무

것도 믿을 수가 없었다. 훈이가 오토바이를? 그것도 친구를 향해?

문이 열리며 상담실에 있던 훈이가 들어왔다.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을 뿐 아이의 표정은 태연했다. 분노에 휩싸인 인애의 팔이 아이의 얼굴을 향해 앞으로 뻗었다.

“뭐하는 것이야?”

아이에게 한 대 후려치려던 인애의 팔을 남편이 꼭 붙잡았다. 인애는 모욕감을 느끼며 남편을 밀쳤으나 훈이를 때리지는 못했다.

“나도!”

훈이가 소리를 질렀다.

“나도, 아빠가 있다는 걸 애들에게 알리고 싶었어.”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그 친구가 다른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을 훈이가 들었다고 했다. 재는 이제 아빠 못 만나. 재네 아빠 다른 아줌마랑 사는 걸 내가 대전에서 봤어. 초등학교 때 우린 같은 반이라…….

“미안하다. 훈아.”

남편이 아이를 껴안았다. 훌쩍 자라기는 했지만 아직은 아이의 키가 제 아빠에게 미치지 못했다. 남편의 얼굴이 금세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일그러졌다. 쭈뼛거리며 어색해 하던 아이의 등이 조금씩 들쭉거렸다. 남편이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런데 훈아, 너 오토바이는 탈 줄 아니?”

남편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낮고 부드럽게 들렸다.

“예전에 아빠가 타는 걸 많이 봤잖아요.”

“보는 것이라 타는 것은 다르니까 제대로 배워서 타야 한단다. 오늘은 그냥 타 본 거지? 면허를 따려면 만 열여섯 살이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아빠가 천천히 가르쳐줄게.”

아이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늘 의젓하다고 느꼈던 아이의 웃

는 모습이 천진스러웠다. 자신이 흐뭇하게 바라보던 훈이가 남편의 모습을 빼닮았다는 사실에 인애는 새삼 놀랐다. 변성기가 된 아이가 말투까지 제 아빠를 흉내 내고 있다는 사실도 비로소 알아 차렸다. 다 자란 줄 알았던 아이는 이제 막 열다섯 번째 생일을 맞은 소년이었다. 두 사람이 이마를 맞대고 웃고 있는 모습을 뒤로 하고 인애는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대기가 눅눅한 것이 곧 비가 오려나 보다 싶는데 눈가에 고인 물이 흘러내렸다. 나이가 드니 마음보다 몸이 더 정직한 모양이야. 중얼거리며 인애는 손바닥으로 눈물을 훔쳤다. 빨리 해 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입상 소식을 듣는 순간 참 난감했다. 곧 내가 쓴 글이 공개 되겠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직 누구에게 보여줄 정도는 아닌데, 언젠가 제대로 쓰게 되면 몰라도, 그날 오후 내 내 곤혹스러웠다. 처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생애 단 두 편 써본 소설로, 두 번 다 상금까지 받았으니 이제 어쩔 것이냐? 운 좋게 걸머진 이 짐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다가, 아직도 곁포장에만 급급한 자신의 허영기에 기가 막혔다. 습작기의 작품을 누군가 읽어주시는 것만 해도 꾸벅! 하는 것이 예의이거늘, 먼저 이 버르장머리부터 고쳐야 되겠다….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조건 감사드립니다.

끈



서울구치소
노 학 진

참아야 했다. 참아야 했다. 이 슬픈 현실을 만들지 말아야 했다.

나만 아프면 될 것을 이렇게 그녀를 울게 하고 있다.

‘진수야 왜 그랬니.’ ‘정말, 그렇게 해야 했니!’ 많은 시간을 되새김질 하면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 너무 명백하게 결론이 찾아오고 있다. -본문 중에서-



끈

잠에서 깼다. 새벽은 아직도 멀었는데, 꿈이 나를 일어나게 만들었다. 꿈에서 자꾸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살아 움직이며 앞으로 다가온다. 메스꺼운 냄새가 온 몸을 휘감고 목을 조여 온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몸은 그날에 저지른 일은 기억하고 있다. 한번 떠오른 그날의 기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을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다. 참아야 했는데, 참지 못한 대가로 이렇게 나는 세상 밖으로 격리된 교도소에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창살에 나뉜진 하늘이 보인다. 어둡진흙을 먹은 하늘은 아직도 조용히 꿈을 꾸고 있었다. 잠들지 못하는 나의 영혼은 오늘도 말없이 어둠에 숨어, 다른 이들의 숨소리를 세고 있다. 어디서 시작된 소리일까, 쇠창살의 틈바구니 안으로 살며시 들려오는 죽어간 자들의 비명 소리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초승달은 구름 뒤에 숨어서 나오려하지 않고 있다.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려 본다. 하지만 새벽이 찾아오려면 시계바늘은 지금 내가 흘리는 땀만큼 흘러야 달려야 한다. 두렵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두발을 가슴으로 모은 채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보고 싶다. 어머니의 따뜻한 심장소리가 그립다.

छ다. 겨울의 입김이 철창살에 매달리고 싶어 하는 봄 햇살을 쫓아내고 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해진 어둠 저편, 산 정맥에서 들려오는 낮선 까치의 울음소리에 아침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하

지만 까치는 조용히 다가온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안개는 어둠도 밀어내고, 담장 앞까지 왔다. 4m나 되는 교도소 담장을 넘어오려다 잠시 머뭇거렸다. 머뭇거리는 안개 속으로 까치는 기지개를 펴듯 날아오르고 있다. 까치의 발길질에 안개는 산산이 깨어지고 있다. 부서진 알갱이들은 교도소 담벼락 아래 차갑게 쌓이고 있었다.

아침을 기다리며 깨어진 안개 알갱이를 주워 모은 지 벌써 6년이 지나가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사형 확정 통지를 받던 날 아침에도 이렇게 낱알을 모으며 무의미한 그리움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던 그날의 비명소리는 아직도 심장을 두드리며, 온몸의 신경을 깨우고 있다. 내 육신이 허공에 매달려 교도소 담벼락 아래에 묻힐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도 식어가는 아침 미역국에 목숨의 끼니를 위로해 본다. 사라져가는 온기를 살며시 붙잡고 있는 방바닥에 육신의 슬픔을 나누어 주고, 철 지난 라디오 방송에 웃음을 짓고 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 같은 새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하고 있다. 잠이 찾아오려고 한다. 새벽을 온몸으로 바라본 아침이면 여지없이 졸음이라는 놈이 기웃거린다. 육신이 배불러서 그럴까! 때론 이렇게 놀려 온 졸음 녀석이 반갑다.

“3256. 면회 왔습니다. 준비 하세요.”

눈을 잠시 깜빡이려고 하는데, 피곤함에 찌든 교도관의 목소리가 나를 설레게 한다. 졸고 있는 등을 벽에 기대는 채 고개를 들어 창살을 바라봤다.

“누가 왔나요. 어머니는 어제 오셨다 가셨는데, 찾아 올 사람이 없는데요. 누군지 알 수 없나요.”

“잠시만.”

어머니가 무슨 일 있어 또 오셨나, 아무 일도 없어야 하는데, ‘혹시 오늘이 마지막 날.’ 머릿속을 가득 차오르는 생각을 밀어내고 밀어내 본다. 벽에 기댄 등을 일으켜 본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하지!’ 초침과 경쟁하는 생각은 불안함을 낳고 있다. 오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며 교도관을 기다렸다.

“황 혜정이라는 여자 한분하고 꼬마가 왔다는데.”

“황 혜정. 설마.”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름인가? 마음에 묻었던 이름이 나의 입술을 서서히 깨웠다. 흠어졌던 지난 시간의 부스러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 본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6년 전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한 때였다. 어머니를 비롯하여 나를 알고 있던 모든 이들이 울음으로 나를 배웅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이리저리 부서지는 울음소리 안에 그녀가 있었다. 물방울을 두 눈 가득히 담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고 누런 나비모양의 머리핀은 살며시 내려진 그녀의 머릿결을 잡고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에 둘러싸인 그녀의 손을 잡아보고 싶었다. 손을 힘껏 뻗어 보았지만 나의 앞을 가로막는 교도관의 팔에 이끌려 법정을 나와야만 했다. 천천히 단혀가는 문틈으로 그녀의 향기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여러분 잠시 주목.”

늙은 여우가 오늘은 무슨 트집을 물었는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일할 신입사원이 오셨습니다. 인사들 나누시고 업무 파악하는데 도와주고 그러세요.”

‘늙은 여우가 새로운 먹잇감을 물고 왔구나.’ 고개를 들어 새로운 먹잇감에 애잔한 눈빛을 던져주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된 황혜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칸막이를 타고 넘어오는 그녀의 음색은 평범했다. 이른 가을 오후에 살며시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 잎처럼 조용했다. 이리저리 흠어지는 인사들을 거치고, 나는 조용히 눈인사를 청한 후 애잔한 눈빛을 거두었다.

“오늘 새로운 식구도 왔으니 한잔 해야죠.”

늙은 여우의 충실한 김 대리는 오늘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일어났다.

“그렇까!”

“예. 오늘 제가 실력 좀 발휘하겠습니다.”

김 대리는 컵을 잡고 돌리는 시늉을 하면서 술 제조자가 꿈이었다고 너스레를 핀다. 늙은 여우의 얼굴에 웃음을 선사한 김 대리는 어깨에 힘을 주었다. 저녁에 늙은 여우를 향한 김 대리의 용비어천가를 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지겨워진다. 약속이 있다고 빠질까, 하지만 이제 늘어놓을 핑계도 바닥이 났다.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는 김 대리의 주장에 맞설 새로운 학설을 펼치고 싶지만, 논쟁은 사람을 아프게 하기에 그만 둔다. 생각은 저녁의 닳아버린 풍경을 그리다 입 밖으로 한숨을 내보냈고 있다. ‘그래도 오늘은 늦게까지 일하지는 않겠구나.’ 이것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머뭇거리는 시간을 재촉해본다.

“자. 다들 마무리하고 나가지. 오늘은 뭘 먹을까?”

“삼겹살요.”

역시 김 대리. 삼겹살 못 먹고 죽은 귀신이라도 있는지 왜 늘 돼지고기만 주장하는지. 물론 특별히 주장하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요즘 너무 삼겹살과 데이트를 한다.

“혜정 씨가 메뉴 선택해봐! 오늘의 주인공이잖아!”

늙은 여우의 낡은 배려에 우리는 잠시 그녀의 입술을 주목했다. 나는 제발 다른 종목을 선택하라고 주문을 걸어보지만, 그녀는 나의 주문을 가볍게 차버렸다.

“저도 삼겹살이 좋아요.”

“그럼, 오늘 삼겹살 향수 좀 뿌려볼까!”

“자, 그럼 출발.”

신난 김 대리는 오른손을 번쩍 들며 적진 앞으로 돌격을 외쳤다.

우리는 종종 가던 멀지 않은 곳에 등지를 마련했다. 사장은 우리의 잦은 방문에 이름까지 불러주며 반겨주었다. 늙은 여우의 자리를 보살피는 김 대리의 천편일률적인 식순이 시작했고, 삼겹살은 향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한잔 두잔 받아서 먹은 소주가 어느새 아나콘다가 되어 전신을 조여왔다. 모여드는 잔상들이 하나 둘씩 소주잔을 덮었다. 지겨운 회사 이야기는 어느새 온 몸에 엉켜 붙고 있었고, ‘위하여’는 서서히 바닥에 주저앉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시간의 지겨움을 못 견디고 있었다. 피곤했는지 술이 빠른 속도로 온 몸을 질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신이 혼미하다는 핑계로 김 대리의 꼬부라진 꼬리를 살며시 훑아 보고 싶은 마음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지만 지나가던 바람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어깨를 두들겨 준다. 술이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그런지 졸음이 밀려온다.

“혜정 씨는 고향이 어디야?”

뜬금없는 김 대리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충청도요.”

“충청도. 아버지 도오올 굴러 가유! 그 슬픈 사연이 있는 곳.”

김 대리는 혼자서 박장대소 했지만, 그녀는 늘 들어왔던 이야기인 듯

그냥 빙그레 웃었다.

“가만, 충청도. 진수씨도 충청도 아닌가?”

나는 잠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잠시 그녀의 눈을 보았다.

“동향이네, 동향. 잘 됐네. 그럼 앞으로 진수 씨가 혜정 씨 챙겨주면 되겠네!”

그녀는 아주 잠시 나의 눈을 보고 살며시 웃었다. 그녀의 미소에 졸음이 잠시 흔들렸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정말 다 그렇게 느긋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진수 씨는 어느 때 보면 꼭 나무늘보 같아요.”

나무늘보라는 말에 모두들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는 멍쩍게 한번 웃어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다들 손뼉을 치며 신나게 웃고 있다. 그 웃음 곁에 그녀도 있었다. 나는 또 한 번 웃을 수밖에 없었다.

지겨운 일상의 얘기꺼리가 다 떨어졌는지 종종 침묵은 고기판 위에서 타고 있었다. 더 풀어 놓을 지루한 얘기가 없는지 늙은 여우는 슬슬 보따리를 집어 들기 시작했다. 재빠른 김 대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나눠주지 않았다. 늙은 여우의 지팡이가 되어 안전하게 모시고 있었다.

“다들 고생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고 혜정 씨 반가웠어요.”

황급히 닫히는 택시문은 답가의 여유를 주지 않았다. 김 대리는 멀어져 가는 택시에 꾸벅 인사를 던졌다. 늙은 여우가 떠난 자리에 우리는 타원형으로 모여 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누군가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를 기다리며 그냥 쭈뼛쭈뼛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특별한 요구도 없이 다들 무미건조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보급자리로 향했다. 동료들이 하나, 둘씩 눈에서 멀어질 때 발걸

음은 늘 기다리던 정류장으로 옮겼다.

“선배님은 몇 번 타고 가세요?”

어둠속에서 흠여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추억이 되어버린 지겨운 일상을 회상하고 있는데, 아직은 익숙지 않은 목소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혜정씨도 버스타고 가려고요. 저는 799번요.”

“어, 저도요.”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환하게 웃었다.

“좀 더 다른 젊은 직원들하고 놀다가지 그래요.”

“오늘은 피곤하네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나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라도 동행이 생겼다는 무언의 표정이 나의 얼굴을 감싸 안고 있었다. 조용한 침묵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미는 도시의 소음이 어색해지려는 분위기를 방해했다. 그녀와 나는 같은 곳을 바라보다 간혹 얼굴을 마주쳤다. 어색한 눈동자는 재빨리 도시의 불빛을 찾아갔다. 허공을 헤매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밀려왔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길 때쯤 버스가 불빛을 흔들며 다가왔다.

어정쩡한 시간인지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녀와 나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다.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자리에 앉자 그녀는 피곤한 등을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잠시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을 건넸다. 나는 그냥 웃어 주었다.

그녀는 어두워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 창문에 비친 그녀를 바라보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어색한 눈 돌림은 어색한 하품을 불러왔다. 무슨 말이라도 건네야 한다는 나의 어색한 생각이 다시 그녀를

잠시 쳐다보게 하였다. 그녀가 살며시 웃어주었다. 거리의 조명이 버스 창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3256 준비 됐나요. 면회실로 가 볼까요.”

나를 데리고 갈 교도관이 문 앞에서 준비가 다 되었는지 보고 있었다. 굳게 입을 다문 철문이 ‘철커덕’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유의 향기를 토해내고 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선에 묻어오는 과거의 사진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왜’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지냈을까!’ ‘결혼은 했겠지!’ ‘아직도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을까!’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던 햇살의 추억이 그림다. 버스 창문에 비치고 있던 그녀의 눈이 그림다. 그녀의 웃는 모습이 보고 싶다. 그녀의 웃음 소리가 들린다. 기억 속에 숨어있던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직도 가슴을 뛰게 한다. 그녀를 보고 싶어 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고 있다. 가슴 속에 찾아온 추억들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픔은 참고 싶었다.

내가 저지른 일에 어이없게도 그녀의 아버지도 있었다. ‘아버님 장례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지!’ 그녀가 나를 용서해줄까? ‘용서!’ 그 무의미한 단어에 자꾸 입술을 깨물고 있다. 아픈 기억이든 행복한 시간이든 가슴을 시리게 한다. 철문을 등 뒤로 밀어놓고 그녀와 함께 했던 여정의 긴 터널로 빠져들었다.

문 밖에서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고 있던 하얀 고무신의 차가움이 나를 반겨준다. 아직 아침을 인식하지 못하고 듬성듬성 깜박거리는 멍든 형광등이 머리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한다.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는 벽들은 간지러운 곳을 문질러 달라고, 어제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용하다. 바닥에 흐르는 봄비는 벌써 겨울을 떠나보내고 있었다. 우측보행이라는 낯선 표지판을 멍하

니 쳐다보고 기다림에 발걸음을 던졌다.

‘얼마나 왔지!’ ‘아직도 여기야’ 오늘따라 면회실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머뭇거리는 발걸음을 재촉해 본다.

“좀 천천히 가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다리가 짧아서 쫓아가기가 힘드네요.”

뒤에서 종종걸음으로 따라오던 교도관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늦지 않았다는 소리에 밀창이 닳아버린 하얀 고무신과 함께 나도 깊은 한숨을 쉬어본다.

“어제 술 한 잔 했더니 힘드네.”

교도관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술 냄새의 아련한 추억이 코를 스쳐갔다. 잠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생각은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다. 창살을 넘어온 바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절름발이 의자 밑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휴지는 인기척에 황급히 숨을 죽이고 있다. 이리저리 볼펜 자국을 품은 달력만이 찢어진 하얀 벽을 달래고 있었다. 거미줄은 먹은 스피커는 천장을 떠받들고 있다. 잠시 머뭇거리다 빼걱거림을 자랑하는 의자를 하나 골라 자리에 앉았다.

“아휴, 힘들어 아침부터 운동했네. 뭘 발걸음이 그리도 빠른지.”

다리를 주무르는 교도관에게 나는 그저 한번 웃어주었다.

“면회 해 보셨죠. 방송 나오면 지정된 면회실로 가면 됩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나는 또 그저 한번 웃어주었다.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떻게 지냈니? 아냐! 어떻게 지냈어요.’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요.’ ‘결혼은 했어.’ ‘무엇을 물어 봐야지!’ 입으로 수없이 많은 단어를 중얼거렸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팔을 감싸 안았다. 머리를 긁적였다. 앉았다.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머리를 숙였다. 천장을 보았다. 창살을 바라봤다. 한숨을 쉬었다. 바닥을 봤다. 바닥에 있는 종이에 무미건조한 시선을 던졌다. 시계의 초침을 재촉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창살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은 나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진정하라고 한다.

“딩동.”

가슴을 덜컥 움켜쥐는 벨소리에 떨리는 두 귀를 열어본다.

“3256번은 3호실로 가세요.”

그녀를 만나러 간다. 힘이 빠진 두 다리는 자꾸 주저앉으려 한다. 벽을 더듬어 발걸음을 옮겼다. 저 모퉁이만 돌면 된다. 6호실. 벽을 통해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5호실. 그녀의 발소리가 들린다. 4호실. 그녀의 심장소리가 느껴진다. 3호실.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의 온기가 전해져 온다. 문을 열었다.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들어갔다. 조금 열려진 문틈으로 그녀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녀가 보인다. 그녀가 들어왔다. 그녀가 지금 내 앞에서 있다.

“선배님. 김 대리는 너무 재수 없어요.”

산 정상을 눈앞에 두고 앞서가던 그녀는 뭔가 짜증나는 일이 생각났는지 미간을 찡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냥 웃어주었다.

“선배님은 마냥 웃기만 해요.”

“혜정이라도 처음에는 웃기만 하던데!”

그녀는 그냥 웃으며 다시 앞서가고 있다. 산기슭을 타고 내려오는 그녀의 향기가 나의 마음을 안아주고 있다. 바람을 리듬 삼아 가웃거리는데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햇살이 찾아왔다. 나뭇잎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햇살은 도시가 만들어내는 네온 불빛보다 아름다웠다.

“선배님, 빨리 좀 오세요. 늬은이 흥내 내지 말고.”

“혜정이라도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아직 멀었거든요.”

“자만하지마송.”

그녀가 웃는다. 나도 따라 웃었다. 살며시 건넌 그녀의 손은 나의 마음을 움켜쥐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은 너무 깨끗했다. 군데군데 서 있던 구름은 고생했다고 바람을 보내주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뻐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쳐다본다. 그녀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웃고 있었다.

바람이 잠시 산등성이를 넘어간 틈에 다리도 쉴 겸 너른 바위에 앉아 막걸리로 목을 축였다.

“선배님, 다음 주말에도 산에 와요?”

“다음 주는 안 되는데.”

“왜요. 다른 여자 생겼어요.”

그녀는 킁킁거리며 웃었다.

“내가 인기가 좀 있지.”

“선 보는구나!”

그녀는 이번에는 골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뚱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아냐, 집에 좀 갔다 오려고.”

“왜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어머니 좀 뵙고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배는 집 얘기는 안 해 주더라.”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자.”

“뭐야, 비밀이 너무 많은데.”

나는 조용히 막걸리를 마셨다. 순식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나의 목을 조이는 것 같다. 갈증이 났다.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졌다. 뭔가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구름 뒤에 숨어 있던 지난날의 괴로워했던 시간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잊어야 한다.’ ‘잊어버리다.’ ‘기억하지 말자.’ ‘기억에서 사라졌다.’ 스스로의 주문은 계속되었다.

우울한 내 표정이 싫었던지 그녀는 웃으며 내 옆구리를 마구 찢러 댔다.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을 접지 않으면 그녀의 공격을 계속 받아야 했다. 나는 그런 그녀가 좋았다.

바람이 분다. 어깨를 감싸 안았던 땀을 구름 속으로 던져버렸다. 온 몸으로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다. 잠시 떠오른 지난 과거는 어느새 바람을 타고 날아간 것 같다. 떠나간 기억은 돌아오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생각이 구름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녀가 내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손을 그녀에게 맡긴 채 나는 그녀를 내 눈에 담았다.

“오빠 잘 지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환한 미소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을 본 순간 나는 바위가 되어버렸다. 손을 뻗어 보았다. 그녀도 손을 뻗어 주었다. 세상을 갈라놓은 투명 칸막이를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온기가 나를 마법에서 풀어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울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도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이미 눈물의 무덤이 만들어졌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다. 그녀도 내 눈물을 어루만지고 있을 것이다. 서로 맞닿은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만, 한번만 그녀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했는데, 막상 내 앞에 그녀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고만 있다.

그녀의 우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 옆에서 있던 꼬마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아, 결혼했구나. 애가 많이 컸구나.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지. 당연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지내고 있었겠지. 다리에 힘이 없다. 내가 뭘 바라고 있었던 건가. 마음이 요동친다. 팔에 힘이 풀린다. 다리는 이제 몸을 지탱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 무슨 기분일까. 슬프고 싶은데 웬지 슬프지 않은 것은, 내가 슬퍼해야할 자격이 있는 거야. 나는 살며시 그녀의 눈에서 멀어졌다.

“그래, 엄마 괜찮아. 우리 진수가 엄마 걱정해 주는 거야!”

진수. 진수. 그녀는 진수를 꼭 안아 주었다. 진수. 진수. 얼마 만에 그녀에게서 들어보는 이름인가, 그녀가 나를 부르고 있다. 가슴이 뻥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답답하다. 뛰쳐나가 그녀에게 안기고 싶다. 그녀를 한번만 안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으려 한다.

“진수야, 엄마 아저씨랑 얘기 좀 해야 하니까, 밖에 할머니랑 있어.”

그녀는 꼬마 진수의 울음보가 터질 것 같았는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진수는 그녀의 옷자락을 쉽게 놓지 않았다.

“착하지. 할머니 혼자 있잖아. 할머니랑 같이 있어.”

망설이던 진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또 다른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열렸다. 진수가 밖으로 나가고 있다. 서서히 열

리는 문틈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인다. 진수는 할머니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진수는 할머니를 뒤에서 안았다. 살며시 보이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참 포근해 보였다. 나도 뛰어갈 수 있다면 그 포근함에 안기고 싶었다. 그 옛날 엄마의 품에 안겼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진수야, 자고 있니. 엄마 품으로 좀 와봐.”

어둠이 어둠을 먹고 있었다. 초승달은 어둠 위에서 뿔뿔이 서 있었다. 달콤한 향기가 넘실거리는 막대사탕 나라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부른다. 엄마가 나를 끌어안고 일으키려고 한다. 나는 깨기 싫어서 자꾸 막대사탕 나무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나무에서 떼어 놓으려고 한다.

엄마가 주섬주섬 무엇을 입혀 준다. 두 눈을 감은 채 이리저리 바람을 먹고 움직이는 상가 앞 광고 인형처럼 손발을 흐느적거렸다. 엄마는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자꾸 나를 깨우려 했다.

멀리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노래 같기도 하고 그냥 소리치는 것 같기도 하다. 질질 끌리는 구두 뒤굽 소리가 고함소리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아버지다. 막대사탕 나무를 놓았다. 눈을 떴다. 엄마는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혹시나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엄마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있었다.

점점 커진 구두 뒤굽 소리는 어느새 집 앞까지 걸어오고 있었다. 집 앞에서 잠자던 바둑이는 이미 몸을 숨겼다. 엄마의 가슴에 안겨 뒷마당을 돌아 나왔다. 아직도 어둠은 초승달에 묶여 있었다. 엄마와 나는 멀리 가지 못했다. 엄마는 잠시 품에서 나를 내려놓았다. 발이 차가웠다. 맨발이다. 엄마는 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발에다 호호 입김을 불어주었

다. 따뜻했다.

초승달이 구름 뒤에 숨어서 안쓰러운 눈으로 서서히 어둠을 풀어주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우리는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 바둑이는 벌써 앞에 와 기다리고 있었다. 소리는 점점 담벼락 뒤에서 울리고 있었다. 흥얼거림과 깨지는 소리, 고함소리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바닥을 질질 끌고 걸어오는 아버지의 뒤굽 소리가 귀에서 멀어질 때까지 엄마와 나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살며시 끊어지는 불안정한 음식너머로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나면 엄마는 나를 더욱 꼭 안았다.

차가운 담벼락에 숨을 죽이며 엄마의 얇은 외투 속에서 아버지의 숨소리를 피해야 했다. 시간이 쌓여 갈수록 화가 치밀어 오기도 했지만 엄마의 떨리는 심장소리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엄마의 품은 늘 따뜻했다.

아버지는 새벽까지 이어진 투전판에서 돈을 다 잃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술에 취해 있었다. 무엇이 아버지를 그런 세상으로 밀어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와 나는 그런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버지의 몸부림에 수없이 많은 생채기를 만들어야 했다.

아무것도 몰라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엄마는 늘 안아주었고, 세상의 두려움을 막아주었다. 그렇게 나는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엄마의 품에서 자랐다.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변할 거라는 기대는 했지만 시간만 지나가고 아버지의 몸부림은 변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은 도망가서 살라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주었지만, 그것은 단지 외면에 불과한 배려였다.

어머니는 늘 참아왔고, 어머니의 품에 있던 나는 그것이 최선인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었다.

이슬이 담벼락에 하나 둘씩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어머니의 포근함은 담벼락에 부딪히는 차가운 기운을 막아 주었다. 담 너머 들려오는 음성은 없어졌다. 세상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간 것 같다. 나도 다시 막대나무 사탕숲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언덕위에 살짝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던 어머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위의 어둠이 깔까봐 조용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셨다.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의 음성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오빠 무슨 말이라도 해봐! 혜정이가 왔잖아.”

나는 고개를 다시 들 수가 없었다. 보고 싶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가슴을 치며 그리워했는데도 그녀를 볼 수가 없다. 두렵다. 지금 그녀를 보면 영원히 그녀가 사라질 것 같다.

“오빠, 괜찮아. 나 좀 보고 말 좀 해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그녀가 보고 싶다. 보아야만 한다. 얼마나 그리워했는가. ‘진수야 고개 좀 들어라.’ ‘응, 진수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를 보아야 하는데.

“진수 오빠, 나야 혜정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화난거야! 미안해 오빠! 내가 잘못했으니까 얼굴 좀 보여주라! 응.”

참아야 했다. 참아야 했다. 이 슬픈 현실을 만들지 말아야 했다. 나만 아프면 될 것을 이렇게 그녀를 울게 하고 있다. ‘진수야 왜 그랬니.’ ‘정말, 그렇게 해야 했니!’ 많은 시간을 되새김질 하면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 너무 명백하게 결론이 찾아오고 있다.

“오빠, 이제 매일 울게. 그러니까. 얼굴 좀 들어봐!”

그녀는 밀려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나의 괴로움은 그녀에 비하면

구겨진 종이 한 장도 안 될 것 같다. 그녀가 불쌍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가슴속으로 수천 번 되새긴 말들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딩동”

“면회 종료 1분전입니다.”

낡은 기계음이 벽에 기대서서 우리의 현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오빠,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봐!”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간직해야 하는 것은 젖은 슬픔뿐이다.

“면회가 종료됐습니다. 면회가 끝난 분들은 기다리는 다음 면회자를 위해 면회실에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슬픈 현실을 차가운 기계로 싹둑 잘라버렸다.

울고 있는 그녀를 면회실에 두고 나와야만 했다. 슬픔을 이겨보려고 한참을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울고 있다. 뛰쳐나가고 싶다. 달려가서 그녀에게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그리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가진 현실은 쇠창살뿐이다.

철창살이 가득한 방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키 작은 교도관에게 이번에는 이끌려 방으로 돌아왔다. 철문은 등 뒤에서 다시 한번 나를 가렸다.

어지럽다. 토하고 싶다.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주저앉았다. 숨 쉬기가 힘들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목을 조여 오는 슬픔에 혈떡이는 것뿐이다.

혈떡이던 슬픔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문틈에 숨어 있던 줄음녀석이 고개를 들며 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잘 개어진 이불더미에

몸을 숨기려고 나는 다리를 모았다. 하지만 안개처럼 그 녀석은 조용히 밀고 들어왔다. 그 녀석이 내 안에 들어왔다.

집 앞에 바둑이가 없다. 어머니가 울고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고통의 흔적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었다. 멍든 팔로 땅을 딛고 일어설 힘조차 없어진 어머니는 그냥 어깨만 잠시 흔들 뿐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돌아온 아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을까. 어머니를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어머니를 나는 한없이 쳐다보고 있어야 했다.

돌아섰다. 어디론가 달렸다. 부딪히는 것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나눠 주고 싶었다. 얼마를 달렸을까. 숨이 차다. 얼굴이 따끔거린다. 어둠을 헤엄쳐 가는 바람이 생채기를 꼬집고 갔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주위에는 어둠만이 가득하다.

어둠 저편에서 고향치는 소리가 들린다. 어둠 저편에서 구두 뒤굽이 땅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둠 저편에서 많은 노래의 춤소리가 들린다. 어둠 저편에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어둠 저편에서 흐느낌의 소리가 들린다. 어둠 저편에서 어둠이 밀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어둠 저편에서 어둠에 갇혔다.

라이터를 켜다. 작은 불꽃이 나의 한쪽 눈을 밝히고 있다. 어둠을 벗어난 불빛은 나의 과거의 추억을 물고 왔다. 어둠에 묶여 멀리 가지 못한 불빛이었지만 나의 분노를 태우기엔 충분했다.

불빛이 어둠 저편으로 날아가고 있다. 그 불빛을 나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갑자기 날아가는 불꽃을 잡아야한다고 생각했다. 팔을 뻗었다. 불꽃은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졌다.

석유 냄새가 밀려왔다. 순식간에 어둠은 눈에서 사라져 갔다. 주위에 사람들의 고향치는 소리가 들린다. 나의 팔이 타고 있다. 정신없이 혼

들었다. 내 팔은 햇불처럼 더 밝아만 갔다. 누군가가 나를 밀었다. 검은 천이 나를 덮었다. 나는 햇불과 함께 어둠에 갇혔다.

불빛이 사라졌다. 천이 벗겨졌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빛나고 있었다. 멀리서 한 사람이 불을 안고 달리고 있다. 그의 몸부림은 너무 힘들어 보였다. 몸에서 떨어지는 불똥에서 악취가 나고 있다. 그윽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불을 안은 사람은 뒤로 돌아 나에게로 걸어왔다.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얼굴은 더 일그러지고 있었다. 낯익은 모습이다.

아버지였다.

“안 돼! 오지 마! 제발! 제발! 안 돼!”

미친 듯이 소리쳤다. 생생하게 그날의 일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고 싶어 몸부림을 쳐 보았지만 허공으로 날아간 나의 외침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왜, 그러세요.”

허둥지둥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달려온 교도관이 창살 창문으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악몽을 꾸셨나봐요.”

모았던 다리를 풀고 벽에 기대서 가만히 앉아 있는 나를 힐끔 쳐다본 교도관은 빠른 결론을 내리고 나의 시선을 무시한 채 사라져갔다.

몸에는 아직도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다. 아직도 내 앞에서 아버지가 불에서 타고 있는 것 같다. 그윽 냄새가 손에 가득하다. 어지럽다. 온 몸에 땀이 흐르고 있다.

씻고 싶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귀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머리를 바닥에 박고 귀를 막아본다.

‘제발, 나 좀 그냥 나줘. 제발’ 계속해서 외쳐보지만 소리는 귓속을 파

고들고 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구역질이 난다. 팔은 마비된 것 같다.

이제 그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다.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싶다. 힘들다. 버리면 버릴수록 고통은 되돌아오고 있다.

나에게 남겨진 희망이 있을까. 그녀. 어머니. 나는 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일까! 고통을 준 이들에게 속죄하기 위해서일까.

하루하루 목숨을 구걸하며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만 떠나도 되지 않을까! 고통을 준 이들을 찾아가 사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와도 화해하고 싶다.

깨질 것 같았던 머리가 깨진 것 같다. 험뻑이던 숨은 지쳐가고 있었다. 구멍 난 창살로 바람이 밀려오고 있다.

나를 지켜주던 창살에 상의 속옷을 찢어 만든 줄을 매달았다. 낮은 창살에 내 목을 의지하려 한다. 시간은 길게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녹슨 쇠창살을 바라보며, 바람을 바라보며, 어둠을 바라보며, 담장을 바라보며, 안개를 바라보며, 그녀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바라보며 숨은 차가워지고 있다.

내 육신은 불구덩이에 던져지겠지. 결국 내가 지른 불에 내가 타 버리는구나. 머리가 하얘지고 있다. 내 작아지는 숨소리가 들린다. 몸이 축늘어지고 있다. 이런 기분이구나.

잘 다듬어진 육신의 가루는 바람에 뿌려졌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도 가고. 그녀가 있는 곳에도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도 가고. 그렇게 바람을 따라 가고 싶다.

주위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만 생각하고 떠나

고 싶다. 내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저녁에 비가 오고 있었다. 엄마가 나를 불렀다. 엄마는 나에게 검은 옷을 입혔다. 할머니는 울고 계신다. 엄마가 나를 품에 안았다. 할머니가 커다란 사진을 가지고 오셨다.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찌는 더위를 피해 나무그늘에서 어깨를 식힐 때 멀리서 꼬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그만 실수로 땅에 놓쳤습니다. 억울하고 자신의 바보같은 실수에 분에 못이겨 울고 있습니다. 꼬마는 눈물을 얼굴에 가득 담고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꼬마를 살며시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 뜯으려던 엄마의 아이스크림은 꼬마의 두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나무그늘 안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무거웠던 어깨를 바람에 놓아봅니다.



대전 용산고등학교
윤 정 아

연희야, 다시 봄이다

두근거립요. 선생님, 두근거립 때문이었어요. 죄짓는다고 생각 안했
어요. 부모도 버린 저를 안아주고 다독여 주니까, 불을 끄고 누울 수 있었으니까 괜
찮다고 생각했어요.죄 지은 거 아니라고 해 주세요.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해 주시면
안돼요? -본문 중에서-



연희야, 다시 봄이다

느티나무 새 잎 오르는 기운에 심란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공연히 눈물이 났다. 봄 눈 띄어오던 게 엇그제 같은데 채 삼주도 지나지 않아 학교 뒷산은 온통 갈맷빛이다. 주말에 비가 내린다니 다음 주면 푸른 빛깔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고 번잡한 마음은 통곡이 될 참이다. 해질녘 교정 구석에 앉아 바람을 맞다가 가만히 ‘연희야’ 이름을 불러보는데 독 터지 듯 툭툭 눈물이 났다. 내 마음이 이렇게 헐리는데 열일곱, 열팔에 홍조가 채 피지도 못한 그 불쌍한 아이의 울음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진달래가 피면 온 천지가 활활 불탄다고, 소낙비라도 내릴 참이면 시냇물이 뒤집어 진다고 울먹거리던 녀석이니 유난히 비가 많은 봄이라 여름조차 금방인 지금, 어디 웅달진 곳에 앉아 나뭇잎보다 더 퍼렇게 멍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어디서 찾아야 하나. 내일은 다 미뤄두고 음성에 산다고 했던 연희의 고모를 만나러 다녀와야겠다. 바람이 스산해 지는 것이 예보보다 이른 비가 내릴 모양이다.

소매가 날근날근한 싸구려 점퍼 차림의 연희는 교복도 없이 입학했다. 기름때가 여기 저기 묻은 무릎이 툭 붙거져 나온 청바지에 색이 바란 다홍색 점퍼를 입은 아이가 새로 산 교복의 옷태를 자랑하는 아이들 틈에서 눈에 들어온 것이 당연했다. 가만히 다가가 얼굴을 보는데 참 어여쁘게 생긴 얼굴이다. 가름하게 약간 긴 얼굴형, 보일 듯 말 듯 흐린

쌍꺼풀이 없힌 제법 커다란 눈매는 긴 속눈썹 때문에 꽤나 선명하다. 살구를 닮은 듯 살짝 올라간 코끝도 귀엽다. 꽃샘추위 때문에 위아래 꼭 다물고 있었는지 피돌기가 멈춘 입술이 붉게 상기되었다. 그런데 얇은 턱 선을 따라 부스럼이 보였다. 영양결핍이 분명했다. 가난하면 제일 먼저 아껴야 하는 것이 입성이고 다음이 먹성이다. 나는 연희의 가난을 그렇게 가늠했다.

- 교복 준비가 안 되었나 보구나. 하교하기 전에 교무실에 잠깐 들렀으면 싶은데.

- 네.

주눅 들었거나 새침하거나 둘 중 하나일 줄 알았는데 대답하는 목소리가 높고 유순했다. 안심이 되었다. 종례 후 학생부에 들려 졸업 후 아들이 남기고 간 교복 중 상태가 괜찮은 몇 벌을 골랐다.

- 더 없을까요? 교복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데 좀 입혀보고 골랐으면 싶어서요.

- 혹시 김 선생님 반에 소연희라는 학생이 배정되었나?

- 네. 교복을 마련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아서요.

- 교복만이 아닐 거야. 아마 작년 가을쯤이라는 것 같던데, 개 엄마가 남편 죽고 얼마 안돼서 현관문에서 목을 매었는데 그 험한 꼴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너석이라니 충격이 이만저만 한 게 아닐 거구……. 자살의 이유도 경제적 형편 때문이었다니 모쪼록 이것저것 잘 좀 살펴줘야 할 거 같아.

- 네.

높고 유순했던 연희의 대답과는 달리 내 대답은 무겁고 힘겨워 졌다. 학생부장의 설명은 간단했는데 교무실로 향하는 마음은 복잡해져만 갔다. 엄마의 질푸른 주검을 발견한 열다섯 살의 여자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교사가 된 지 십 년, 아버지의 빚 때문에 야반도주 중 내 자취방 창문을 두드리며 깨금발을 던던 헤림이도 있었고,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새아버지가 미워 가출한 뒤 야간업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효석이도 있었다. 지방으로 일하러 간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집안으로 남자를 끌어들이는 엄마가 미워 그 엄마의 미용실에서 보란 듯이 파마 약을 마시고 신음하던 송이도 있었고, 비만 오면 4층 도서관에서 창문 아래로 떨어질 궁리만 하던 키가 훑 크고 비쩍 마른 기연이도 있었다. 다들 나이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고, 머리로 감당하기에는 복잡한 일이었으며, 마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었으리라. 해를 거듭할수록 헤림이도 효석이도 송이도 기연이도 그 수가 늘어만 갔다. 아이들을 제 자리로 돌려놓고자 지난 십년 간 기를 쓰고 매달려 봤지만 결국 몇 명은 놓쳐버렸고 몇 명은 놓아버리게 되었다. 가난하고 슬프고 무식한 부모 밑에서, 참고 참다가 마음을 다치면 환자가 되고, 기어이 참지 못하면 열여섯에 빠끼나 웨이터가 되는 아이들을 되돌릴 방법조차 찾지 못했는데 조실부모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연희를 어찌 야하나 참으로 막막했다.

- 여기 골라봤다. 내가 눈대중이 없는 편이라 맞을까 모르겠네. 입어봤으면 좋겠구나.

- 네. 저기 화장실에서 입어볼게요.

교복을 챙겨 교무실을 나서는 연희의 발걸음이 무겁다. 꾸며낼 수 있

는 목소리와 달리 배고픔에 지친 걸음이다. 어쩌나 싶었던 걱정의 신경 줄이 더 팽팽해진다 싶었는데 짝꿍인 서 선생이 말을 거든다.

- 김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집이 없대네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일해 주면서 뒷방 한 칸에서 잠은 잔데요. 부모가 없나 봐요. 올 해도 역시 한 짐이시네요. 아무튼 담임 운 없는 건 알아줘야 한 다니까요.

그제야 연희의 옷에 묻은 기름때들이 이해가 되었다. 불 꺼진 식당, 온기 없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식은 밥 한 덩어리로 고픈 배를 삭히는 잔상까지 떠올라 명치 쪽이 먹먹해졌다. 눈시울까지 흔들릴 것 같아 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금방이라도 샛노란 물감을 뿜어댈 것같이 봉오리 진 개나리가 둘레둘레 둘러 운동장에는 하교하는 아이들이 봄기운 만큼 재잘거리고 있었다.

- 선생님, 이게 낫겠어요.

돌아보니 아까의 사복차림 보다 더 작아진 연희가 수줍게 서 있었다. 무릎 밑으로 한참이나 내려온 치마에 소매가 중지까지 닿는 옷웃을 입고 있는 아이의 마음씀씀이가 안타까웠다. 아마 더 자라게 될 앞으로의 삼년을 고려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 너무 큰 것 같다. 좀 줄여야겠는데.

- 금방 자랄 거예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교무실 벽에 걸린 시계에 재빠르게 눈길을 주는 걸 보니 점심시간에 맞추어 식당으로 돌아가려 서두르는 것 같아 그저 일찍 오라는 말만 당부한 채 돌려보냈다. 가져가지 않은 곱게 개켜진 교복을 치워두고 다시 운동장 쪽을 쳐다보는데 연희가 빠른 걸음으로 교정을 빠져나간다. 뛰는 건 아닌데도 참 숨이 가쁜 걸음이다. 개나리가 막 터지려고 하는데 연희는 그 벽찬 꽃망울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재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교정이 텅 비자 봄비가 사분사분 내리기 시작했다.

그 주 주말에 연희가 머물고 있다는 식당을 찾았던 나는 십 분도 안 되어 짐을 챙겨들었다. 오렌지 색 벽지가 누렇게 바랜, 탁자가 네 개 놓인 작은 홀을 지나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 한 불결하기 짝이 없는 좁은 주방 뒤로 문조차 없는 작은 방이 보였다. 무참했다. 밀가루가 가득 쌓인, 방이라 불리기에는 너무도 협소한 공간의 한쪽 귀퉁이에는 연희의 잠자리로 짐작되는 해진 솜이불 하나가 놓여있을 뿐이었다,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썰렁했다. 짐작컨대 겨우내 밑불 한 번 들이지 않았으리라. 짐이라고 해 봤자 해진 옷 몇 벌을 싸 놓은 보통이 두개와 교과서 몇 권, 신발 한 켤레가 다였다. 연희를 앞세워 짐을 챙겨 나오는데 주인 부부가 앉기를 권했다. 따라준 업차를 한 권으로 치우자 여자의 얼굴이 사나워졌다. 남자는 목이 늘어진 속옷만 걸친 채 흘금흘금 연희를 쳐다보더니 가슴과 머리를 번갈아 긁으며 연신 하품을 해 대었다. 입술이 붉고 눈썹이 매서운 여자가 내 눈을 응시하더니 담배를 물고는 주절대기 시작했다.

- 재 엄마랑 나랑 친구였어요. 빗지고 목땀으니 대신 일해서 갚으라고는 했지만 사실 사람이 어디 그렇게 모진가요. 잘 데리고 있다가 일

배우게 해서 괜찮은 놈한테 붙여 주려고 했는데 선생이 책임진다면 할 말이 없지요. 데려 가세요. 그런데 빛은? 선생이 갇아 주실라우? 얼마 안돼요. 삼천만원.

연희가 내 손목을 잡았다. 아이를 쳐다보니 입술을 꼭 다문 채 도리질을 하고 있었다. 삼천만원이나 꾸 줄 수 있는 형편이라면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비위라고는 손톱만치도 찾아 볼 수 없는 저 따위 남자와 살을 비비며 살 여자가 아니었다.

- 차용증 있으세요?

공증된 문서는 무식한 인간을 무지와 경악으로 내몰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연희를 앞세우고 그 여자의 핏대 세운 목소리만큼 끔찍한 소음을 내는 알루미늄 문을 열고 나오는데 채 일본도 걸리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다. 봄이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햇살이 쏟아지는 따뜻한 봄날이었다.

계획 없는 이사였기에 당장은 방법이 없어 작은 방에 넣어 둔 짐을 빼고 연희의 짐을 들였다. 다용도실에 묵혀 두었던 앓은뱅이책상을 대강 먼지만 털어 놓아 주었더니 연희가 나서서 짐 정리를 시작했다. 책상에 달린 작은 서랍에 옷가지를 넣는데 그 작은 서랍에 가지고 온 두벌의 바지와 세벌의 윗옷 그리고 도저히 여학생 것이라고 보기 힘든 낡디 낡은 속옷이 암전히 들어갔다.

- 점심부터 먹고 속옷 좀 사러가자.

-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연희가 맑은 얼굴에 더 맑은 음성으로 물어온다. 두려움이나 조바심이 섞인 음성이 아니다. 많이 생각하고 정리된 질문이다. 식당에서 연희의 짐을 꾸려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까지 안쓰러운 심정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던 나는 아연해졌다.

- 당분간은 나랑 지내고 거처할 곳을, 제대로 된 곳을 알아보자꾸나.

- 선생님께 폐가 되기는 싫어서요.

- 당분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구나. 밥부터 먹자. 배고프다.

오후에 나가 속옷 몇 벌과 잠옷, 편히 입을 수 있는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예쁜 노랑 고양이와 붙어 있는 핑크색 이불 한 채를 샀다. 물건을 골라두고 쓰기에 괜찮겠냐는 질문에 연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힘들었는지 저녁 먹기가 무섭게 잠 든 연희의 얼굴을 쳐다보니 녀석의 얼굴이 내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다. 그랬다. 연희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이유, 가난하고 서글픈데다가 희망이라고는 실오라기만큼도 보이지 않는데도 맑은 음성으로 세상을 대하는 녀석의 눈매가 내 죽은 아버지를 너무도 많이 닮아 있었다.

서른일곱 해를 살아오면서 아쉬운 사람도 그리운 사람도 아주 없다 하지 못하지만 가끔씩 헛살았다 느끼는 것은 손뿔을 친구가 셋도 되지 않음에 있다. 어릴 때는 지독한 가난이 창피해 집안에 친구를 들일 수 없었다. 아기자기한 플라스틱 주방 기구가 없어 엄마아빠 놀이에 끼어 들지도 못했으니 애당초 소꿉친구 따위는 만들지 못했다. 학교생활도

학업을 제외한 부분은 소홀 할 수 밖에 없었다. 소풍은 어찌어찌 재료가 부실한 김밥이라도 싸들고 구멍 난 운동화를 숨겨가며 따라갈 수 있었으나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수학여행은 꿈꾸지 않았다. ‘꿈꾸지 못했다’ 말하지 않고 ‘꿈꾸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마가 집을 나간 열두 살 이후로 이미 만사가 덧없고 허무했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진학한 뒤로는 수업료를 낼 형편이 안 되어 매 분기마다 최우수성적 우수자에게만 주어지는 장학금이 절실했기에 주위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 내 공부를 비롯한 모든 것을 남과 나눌 수 없었다. 국어시간,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쓰다가 나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마음 착한 친구들이 다정히 건네는 말에도 양갈지고 신경질 적으로 대하는 말투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원고지가 젖을 때까지 운 기억이 있다. 삶의 절박함 때문이었다. ‘어린아이였던 적이 없었다’ 말하면 과장이라 비웃겠지만 당시의 나는 빛이 두려워 집을 나간 엄마에게 버려진 처지였다. 게다가 불이 들지 않는 골방에는 하루 종일 기침을 하다가 해질녘이면 노을보다 선명한 붉은 피를 한 바가지나 쏟아내는 폐가 상한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비참했다. 동에서 나오는 보조비로는 아버지의 약값도 충당할 수 없었다. 독에서 겨우 굶어낸 쌀 한 바가지로 멸건 흰 죽을 쑀어 주인집에서 어찌다 퍼 주는 묵은 무장아찌 한 사발을 반찬삼아 일주일을 버틴 적도 있고, 백 원짜리 라면 다섯 개로 열흘을 산 적도 있다. 그렇게 3년, 나의 고달프기만 했던 사춘기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마무리 되었다. 인문계 진학은 엄두도 못 낸 채 3개년 장학금을 보장받은 상업학교에 원서를 쓰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마루 끝에 쪼그린 채 앉아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고는 있었지만 때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는 이미 호흡이 사라진 아버지의 피폐한 육신을 알아보았다. 뉘엿뉘엿 넘어가던 겨울 햇살이 아버지의 마른 핏줄

이 선연한 발등어리를 비추고 있었기에 춤지는 않으셨겠지 위로를 삼는 것이 다였다.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채 감지 못한 흐린 눈에 가득 맺힌 눈물이 보였다. 찬 손을 들어 광대뼈가 앙상한 볼을 만졌을 때 고였던 그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었을 테지만 정작 아버지를 위해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 슬퍼할 여력도 없이 마땅히 매장 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허둥거리던 나는 아버지의 장례에 그 어떤 식으로도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마을 어른들은 어린 것이 안스럽다고 돌려 말하면서 기실은 폐병쟁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은 지 하루 만에 서둘러 화장(火葬)을 했다. 그리고는 타고 남은 재는 동네 저수지에 뿌렸다. 자식의 몫이어야 하나 사는 동안 짐이 될 수도 있으니 그것까지 떠맡겼다 자칭한 이장의 이기적 배려로 마을 저수지에서 너무나도 쉽게 단 세 번 만에 아버지의 유해는 탈탈 털렸다. 부모 없이 고학을 하여 읍에서 서울로 대학을 간 첫 청년, 새마을 운동 플랜카드 옆에 나란히 이름을 장식한 마을의 자랑, 선택받은 농민 후계자, 마을의 굿은일이란 굿은일은 다 도맡아 하는 좋은 사람으로 추앙받던 아버지를 말이다. 공중된 유연장이 없다는 이유로 집과 논이 빗잔치로 사라졌고 내게 남은 건 부조금으로 걷힌 삼 만원이 다였다. 호흡이 힘들어도 가끔씩 높고 유순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던 아버지, 서늘하게 움푹 꺼진 눈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 응달진 곳이라도 괜찮으니 억지로 우겨서라도 묘지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뺏가루라도 조금이나마 지니고 있었으면 다소 위안을 삼을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는 없다. 그저 막막하게 누군가 그리운 날엔, 이유가 없기에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아픔이 그 깊이를 더하는 순간에 치유의 수단이 필요해서이다. 타인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싫어 애시 당초 배우지 않은 술로 위로를 삼을 수도 없

고, 읽으면 읽을수록 잘못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에 상처를 달래 주는 커녕 소금을 비벼대는 꼴이 되고 마는 술한 책도 싫증이 나고, 내가 즐기는 몇 가지 안 되는 잡기 중 그 어떤 것에서도 마음의 위로를 찾을 수 없을 때, 찾아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묘가 있었으면, 만져보고 울적함을 달랠 수 있는 땃가루라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게 된다. 공중된 유연장이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아버지의 유품 중 그 어느 하나 챙기지 못하는 내 무지에 경악하며 낡은 옷가지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나서야 했을 때에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방적공장에 입사했을 때에도 열아홉에 만나 스물에 헤어진 첫 사랑이 실패했을 때에도 아버지의 핏줄 도드라진 마른 발등어리와 목소리를 기억하며 찾아갈 수도, 추억할 수도 없다는 현실에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좌절했었다. 대학가 근처, 방 한 칸에 작은 부엌이 딸린 전세방을 마련하고 통장에 한 학기 입학금이 마련되었을 때 나는 스물 두 살이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던 그 날, 게시판에 붙은 합격자 명단에서 아버지가 주신 이름 석 자를 몇 번이나 살펴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아버지의 높고 유순한 목소리가 너무나도 간절했다.

-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오늘 오후에 연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장님.

연희의 거주 문제가 해결된 것은 이팝나무 꽃잎들이 온천지 사방에 쌀알처럼 날리던 늦은 봄이었다. 여러 곳의 보육원과 청소년 쉼터에 연락을 해봤지만 마음을 놓고 맡길 만한 곳이 없었고 설령 있다고 해도 버스로 한 시간 넘는 거리였기에 연희가 마음 내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연희의 딱한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숙소로 쓰는 방이 두개 있는데 이번에 인원 감축이 되면서 방 하나가 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저녁은 파출소 식구들 먹을 때 챙겨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도 계셨다. 청소시간 연희를 불러 일러 주었더니 펄펄 뛰지만 앓을 뿐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 방세가 없으니 동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으로 잘 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할 수 있겠지?

- 네, 사실은요 선생님, 잘해 주시기는 하지만 폐 끼치는 게 죄송했어요. 편하고 좋긴 한데 ‘여긴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엄마 돌아가시고 겨울 지낸 그 식당은 좀 무서웠어요. 식당 주방 쪽의 백열등 하나로 버텨야 하는데 그것마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구석구석 놓인 짐이 많아서 불쑥불쑥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두려운 생각이 들곤 했는데 선생님 댁에서 보낸 두 달 동안은 언제나 밝아서 좋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 때문에 자꾸만 죄송하기만 하고…… 정말 다행이에요. 방이 생긴 것도 좋은 데 게다가 파출소에 딸린 방이라니까. 이제 불 꺼도 무섭지 않을 테니까요.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전등불을 끈 적이 없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일제 소등 시스템이었던 기숙사에서조차 나는 작은 스탠드를 준비해 이불속에 몰래 켜 놓곤 했었다. 이후로도 사위가 어두워지면 집안의 불들을 다 켜두곤 했다. 연희야 저를 위해 그리 한 것이라며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지만 실은 내 두려움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어 달에 한 번씩 어둠속에서 희미한 형체의 커다란 그림자가 문득문득

뒤통미를 서늘하게 하곤 했는데 나는 그것이 함부로 던져진 아버지라 생각했다. 물론 나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말을 걸지도 어떤 해코지도 않는 그 그림자는 해묵은 서러움을 꺼내기에 충분한 대상이었기에 상처가 덧날까봐 무서웠던 셈이다. 그리고 보니 연희와 보낸 시간동안 엄습하는 그림자를 느낀 적이 없었다. 외로움과 쓸쓸함에서 시작된 헛된 망상이었음을 확인하고 부인할 수 있게 되었다. 빈 몸과 빈 마음이었으니 먹은 것이 적어 기운이 없는 날이거나 일주일 넘게 비가 와 정신을 흐리게 만들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게 되는 날, 감히 등 뒤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따뜻한 연희를 곁에 두면서 괜찮아졌다. 전등의 불을 밝히 것이야 습관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그로 인해 연희의 두려움이 가셨다고 했지만 도움을 받은 쪽은 오히려 나였다. 연희가 떠난 뒤에 두려움이 다시 엄습하면 어쩌나 싶어 방을 비우는 일이 서운했지만 내 허전함을 핑계로 연희를 붙잡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불 꺼진 방이 두려운 건 내가 더하다, 서늘한 그림자를 만나는 일이 두렵다’라고 통곡하며 어떻게든 붙잡았어야 했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마음 저리는 일이 덜했을 테니 말이다.

나와 연희의 동거는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연희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있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조차 이야기 거리가 된 지 오래였다. 동정에서 시작한 일이 연희가 내 과목에 대한 중간고사 시험을 잘 치룬 뒤로는 거침없는 험담으로 변질되어갔다. 윗분들의 연이은 충고가 이어지고 학생부장의 염려가 더해지면서 내키지 않았으나 결국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했다. 사실 이십년 가까이 혼자 살았던 나는 연희와의 동거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던 참이었다. 아침과 저녁 빈한한 찬이기는 해도 금방 뜰을 올린 따뜻한 밥을

나누고 지독한 감기에 걸려 열이 높을 때 매우 고춧가루가 범벅이 된 콩나물국을 끓여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좋았다. 주말이면 미뤄두었던 빨래와 청소를 마친 뒤 햇살 바른 마루에 교자상을 펴 놓고 서로 이마를 맞댄 채 나는 책을 읽고 연희는 공부를 했다. 가끔은 만화책도 빌려와 순서를 바꿔가며 깔깔거렸고 비 오는 주말 오후에는 멋진 금발의 남자배우들이 도배된 영화를 빌려 감탄해 마지않으며 화면을 삼킬 듯 노력하기도 했다. 소꿉장난 같았던 두 달 남짓한 짧은 동거는 매사에 전전긍긍하던 내 버릇도 고쳐주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음악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나를 발견한 순간, 내 눈매가 부드러워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스스로 선택한 유배의 족쇄가 노래 하나로 풀려나는 기쁨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연희로 인해 천천히 살아나고 있었다. 연희도 그랬을까. 너무도 복잡한 삶의 문양 속에서 내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기대어 살아볼만한 삶의 지렛대를 찾았을까. 혼란과 혼잡, 혼돈 속에서 숨 쉴 수 있게 된 건 나뿐이었을까. 지독하게도 악랄했던, 이기적인데다가 비겁하기조차 했던 나는 우리의 동거가 끝나도록 감히 물어 볼 수 없었다. 그저 그 아이의 당당함을 빌미삼아 그랬을 거라 위안삼고 있었을 뿐이었다.

부모로 인해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못했기에 예민해 진 탓도 있겠지만 감수성이 남다른 연희는 단 한 번도 함부로 말하는 법이 없었다. 또래에 비해 사고가 깊은 아이였다. 오죽하면 학교에서의 별명이 ‘늑대이’였다. 느리다 굼뜨다 했지만 그렇다고 할 일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신중하고 신중했다. 절제라는 단어를 입히기에는 어리긴 해도, 감수성을 어리광의 수단이 아닌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알았고 그래서 귀여움을 받았다. 그 아픈 기억이 소멸 되었을 리

만무했는데도 침통하거나 울적한 얼굴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저 담담하고 정확하게 매 순간을 살아내고 있었다. 문득문득 아버지의 눈물이 생각나 가끔씩 나직이 울게 되는 마흔 가까운 나보다 나았음은 물론이다. 내 나이의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내게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가 힘에 부칠 정도로 많은 양의 일을 떠맡기 때문이라는 동료 교사의 비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 재주가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 아프다는 생각들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력을 소진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연회는 달랐다. 연회와의 하루는 참 단순하게 흘렀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까지 소소하게 진행되는 일과들을 다른 사람들의 배가 되는 노력이 동반되었고 초조함이나 서두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순한 눈동자로 모든 과정을 천천히 수행했다. 모르는 사람이야 속 터지는 일이 아니냐고 할 지 모르지만 연회의 느낌 속에는 생각이 있었고 순서가 있었기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바닥까지 긁어내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내 생활이 달라졌다. 혼자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없었기에 나도 느려져갔다. 연회와의 동거가 끝나갈 무렵 나는 느긋함이 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울컥울컥 아무 때나 찾아오는 삶의 울분을 사유를 통해 짚어갈 수 있는 능력이자 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연회의 이삿날에 반 아이 두 명이 동행했다. 옷가지를 찢아 보통이의 개수가 늘었고, 세 개의 라면 박스에 빠듯하게 들어가는 책, 그리고 이불한 채와 구두 한 켤레와 운동화 두 켤레가 지난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굳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음에도 동행한 아이들 때문에 짐보다 짐꾼의 부피가 더 커져버린 이사, 십 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녀석들이 얼마나 시끌시끌 웅알웅알 거리는지 그 초여름날, 세상의 행복이란 행복은 죄다 내 작은 차 안에 스며드는 것 같았

다. 새로 벽을 발라 새뜻한 풀냄새 내는 방안에 짐을 푸는데 파출소 소장님께서 여섯 칸으로 나뉜 책장이 달린 책상하나를 들여 주셨다. 새 식구에 대한 선물이라 하시면서 연희의 등을 쓸어주시는데 그 때까지 해맑게 웃기만 하던 녀석이 금방 눈물을 떨구었다. 이어 파출소의 순경 두 분이 휴지와 세제 등을 놓고 갔고, 저녁 무렵에는 학교에서 몇 명의 교사들이 찾아와 여느 집 이삿날처럼 자장면에 탕수육을 그럴싸하게 펼쳐 놓고 웃고 떠들고 노래했다. 그렇게 그 초여름 밤, 방 한 칸을 얻은 후 세상을 다 얻은 듯 좋아하던 연희는 반딧불이 만 한 불빛조차 허락되지 않은 컴컴한 창고에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배웅을 마다하는 나를 따라나선 연희가 파출소 뒤쪽 길에 놓인 밤나무 아래서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 오늘 왔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제 인생이 더 속상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아이들이 부럽고 질투 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요. 자꾸만 비교하게 되면, 제 형편과 견주게 되면 제가 꼴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선생님, 저 좀 더 씩씩해 질 거예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 때문에 아직 불을 끌 수는 없지만 노력해 보려고요. 선생님, 좋은 집에서 더 좋은 부모 밑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 놓고 선택하고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는 친구들이 부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최대한 감사하려고 해요. 물론 친구들 보다 고개를 숙이는 일이 많겠지만 티 내지 않고 웃어 보일 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걱정 안하셨으면 싶어요. 처음 만날 날 기억나세요? 교복 얻어 입고 교정을 나오는 데 개나리가 어찌나 예쁘던지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식당에 늦게 들어가면 배달이 밀리니까 혼이 날 거고 어쩔 수 없이 종종 걸음을 치는데 안타까워 죽을 뻔 했어요. 그날 밤에 비가 왔거든

요. 밤새 봄비 소리 들으면서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다음 날 학교 등교 하던 길로 개나리부터 살펴보았다니까요. 제 손톱에 개나리 꽃물이 노랗게 들면 좋겠다 싶어서 연신 쓰다듬었어요. 꽃물들이듯 그렇게 살아 보려고요. 그러니 제 걱정 안하셔도 돼요.

그랬다. 입학식 날, 하교하는 연희의 뒷모습에서 내가 본 것은, 가난 하다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초조함이었던 것이다. 정작 연희는 봄꽃이 아쉬워 속이 상했다는데 내 추한 선입견으로 아이의 감수성을 묵살해버리고 함부로 판단했던 셈이었다. 나는 그토록 어리석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주변 사람들의 모함에 지쳐 연희가 주었던 맑은 기운과 식은 손발을 데워주는 온기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병긋병긋 웃게 만드는 평화로움을 묵살한 채 거처를 따로 정하는 데까지 이어진 셈이었다. 고마움을 잊은 어리석음으로 말이다.

밤꽃이 활짝 피었다는 기억밖에는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불운했다고 불행했다고 질책하고 책망했던 내 지난날들이 부끄러웠다. 연희처럼 그저 어깨에 붙은 먼지를 탁탁 털어내듯이 우울함을 떨쳐버렸다면 서른을 훌쩍 넘겨 마흔이 코앞인 지금에도 아버지의 발에 돌아 있던 푸른 혈관을 아파하지 않았을 터이고 허상에 불과한 그림자를 두려워 할 일도 없었을 것이었다. 마음만 고쳐먹었다면 벗어나야 할 모든 것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테인데. 없는 것에 아쉬워하거나 갖지 못한 것을 시기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내 방 불을 켰다. 어둠속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으나 눈을 뜨고 확인하기 보다는 눈을 감는 것이 더 평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밤꽃 향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달콤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따스한 바람이 요 밑으로 조심스레 불어와 내 잠자리를 평온하게 흔들고 가만가만 가슴을 다독여 주는 꿈까지 꾸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도 사람도 심지어는 내 기억조차도 두렵지 않았다.

바람소리가 스산해 지고 플라타너스 잎이 수분을 잃어 마을의 길이란 길은 죄다 황하게 쓸쓸해지던 가을 초입부터 연희의 낮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단풍잎이 처음 떨어진 날, 연희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중간고사 시험을 치루는 첫날이었다. 아침부터 시험지 인쇄상태가 말끔하지 않아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느라 교실을 채 확인하지 못했는데 1교시 시험 후 감독관이었던 교사가 연희의 부재를 말해주었다.

- 누구 연락받은 사람 없어?

- 어제 연희 자취방에서 공부했는데 종일 아프다고는 했어요. 먹기만 하면 자꾸 토하고 열도 있고요. 선생님 아시면 걱정하신다고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시험 끝나고 부반장이랑 가 보려고요.

반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전하는데 불안해 졌다. 낮빛이 거칠었던 것과 열이 있고 속이 안 좋다는 말에 코끝으로 역한 비린내가 풍겼다. 십 몇 년 전, 시간 속에 묻혀 두었던 잊고 싶었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첫 사랑이라고는 해도 간절한 그리움으로 남은 사람은 아니다. 그저 쓸쓸한, 참 재미없는 풍경 같은 기억이다. 열아홉 겨울, 검정고시 학원의 강사였던 그는 따끈한 우동 몇 그릇으로 나를 유혹했다. 대학에 가기위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조차 아까워하던 때이니 야간 수업이 끝나고 그가 사주는 푸짐한 우동 한 그릇은 뱃속까지 데워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후한 만찬이었고 스무 살,

봄 비 내리던 그 밤에 입술을 허락했다. 다시 겨울이 되었을 때에는 마지못해 사 주는 것이 분명한 우동을 앞에 두고 그 냄새의 역함 때문에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는 봄이 오면 대학 때 부터 사귀던 여자와 결혼을 한다며 면이 붙어 그릇에 넘치는 순간까지 미안하다를 반복했지만 낮에 혼자 찾았던 병원에서 엄지손가락만한 게 자라난 아이를 확인했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기차로 춘천까지 내려간 나는 팡팡 얼어붙은 호수 근처를 하루 종일 헤맸다. 해 질 무렵, 허름한 산부인과를 찾아가 통장을 털어 만들어 온 수술비를 선납한 뒤 이제 막 십일 주 된 아이를 끄집어내었다. 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해서인지 정신이 들었을 땐 비릿한 피 냄새에 토악질이 더해지면서 멍해지고 말았다. 왜 버려야 할 기억들은 태워지지 않는 것일까. 연희의 혈색 없는 얼굴에 비린내가 살아나면서 이유도 없이 입이 말라왔다. 네 시간의 시험 감독을 마치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파출소 쪽방을 찾았다.

- 두근거립요. 선생님, 두근거립 때문이었어요. 죄짓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부모도 버린 저를 안아주고 다독여 주니까, 불을 끄고 누울 수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죄 지은 거 아니라고 해 주세요. 잘 못한 거 아니라고 해 주시면 안돼요? 제 앞에서 흔들리던 엄마를 지워준 사람이에요. 그냥 안아주는 것 토닥여 주는 게 좋았을 뿐이었어요.

시험이 끝난 주말, 김의경의 고향집에 찾아갔다. 두 시간이나 되는 거리였지만 나도 연희도 김의경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여정이었다. 대문도 열어주지 않는 걸 간신히 설득해 마당에 들어섰을 때 잘 정리된 정원수와 야트막하게 정리된 화단에 단정하게 들어선 국화꽃을 보고 패배를 직감했다. 이렇게 반듯한 집안에서 자살한 엄마를 둔 연희를 맞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했다. 예순 가까워

보이는 김의경의 부친은 반듯한 이마에 더 반듯한 입매를 하고는 말없이 방문을 닫았다. 짙은 감색 치마에 하얀 저고리, 분홍색 배자를 받쳐 입은 김의경의 모친은 단아했다. 그만큼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열다섯쯤 되었을까. 김의경의 막내 동생이라는 레이스달린 벨벳 원피스를 깔끔히 차려입은 여자아이 하나가 차를 내왔다. 또록또룩한 눈망울로 나와 연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발랄한 걸음걸이로 이내 사라졌다. 연희나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 듯 보였다. 제대로 된 부모와 정원이 딸린 커다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아이가 자라는 집에 연희가 설 자리는 없어 보였다. 내 시선이 딸 아이에게 고정된 것을 눈치 챘는지 김의경의 모친이 입을 열었다.

- 아이가 있으신가요?

- 아닙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이라는 말을 들을 그녀의 표정이 잠깐 안쓰러워하는 것 같더니 이내 도도한 모양새를 하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얼굴이 파리한 연희를 쳐다보았다.

- 부모가 없다고 들었어요. 선생님밖에 나설 분이 없다고 해서 좀 뵈자고는 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아무튼 저희 아이도 수궁한 일입니다. 없던 일로 하자고 말입니다. 기환이는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위로 누나 넷을 낳고 제가 좀 늦게 얻었거든요. 아직 미혼이시라니까 이해는 무리실테고 아무튼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는 선생님이 데리고 가 주세요. 기환이에게 그것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의경의 모친이 내민 것은 흰 봉투였다. 두툼한 것을 보니 만 원 권

지폐가 들었으리라. 철없는 아들이 저지른 일을 단 돈 몇 십 만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네의 심보도 고약했지만 제 어머니가 횡포를 부리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김의경도 한심해 치밀어 오르는 대로 말을 뱉고 말았다.

- 김의경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 기환이와도 이야기가 끝난 일입니다. 아마 저 아이와도 이미…….
- 어머니 말고 김의경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연희에게도 말했지만 저한테는 벅찬 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의경이 침착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밝히자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버티던 연희가 몸을 일으키며 내손을 잡아끌었다.

- 선생님, 가요.

권태롭고 짜증스러운 말투였다. 신중함이 무기였던 아이였는데 상처 받은 것을 감추기 위해 함부로 던지는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당초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연희에게 힘이 되 주리라 생각했던 내 의지도 무참해졌다. 김의경의 모친은 말로 대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몸을 보여주고 그 안에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는 아이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연희를 앞에 두고 아들의 비위를 걱정하는 모양새가 영 말이 되지 않았다. 연희가 일어나고 더 들을 말도 해 줄 말도 없던 나도 일어났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연희는 두어 번 토악질을 하고 차창에 이마를 대었다. 어른어른

비치는 얼굴에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가만히 손을 잡아 주는데 손등어리에 혈관이 선명했다. 아버지의 발등어리에 돋았던 혈관과 닮아 있어 내 가슴이 미어졌다. 깨지 못하는 수면제가 있었다면 서슴없이 물에 타 나눠 마시고 잠들고 싶었다. 지리멸렬한 인생, 아이는 지워야 했다.

- 내일 오후에 가자. 맹장수술로 하고 일주일 쯤 병결처리 하마.

연희가 사라진 뒤, 하루에도 몇 번씩 기가 죽고 비틀거리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다. 좁은 방안에서는 자유롭다가도 너른 바닷가로 나오면 행해지는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연희가 파출소 쪽방으로 옮기던 주말부터 편지쓰기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가족관계가 불행하거나 말썽이 잦은 아이와 1교사 1결연이라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시작된 일이었다. 애시 당초 제도의 목적은 어른들의 횡포로 베이고 피 흘리는 상처를 달래주기 위한 일이라고 했으나 편지의 첫줄을 적을 때부터 내가 더 위로 받으리라 짐작했다.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결국 어느 토요일 오후 아무리지 못한 채 마음 한 구석에 던져두었던 내 상처를 끄집어내어 하소연하는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한 순간 편지쓰기를 멈추었다. 횃수가 더해갈 수록 편지의 문장들이 서른을 넘겨 마흔해 가까이 살아오면서 비쩍 마른 몸뚱아리와 그보다 더 마른 정신이 내 재산의 전부였기에 기억되는 모든 순간들이 외줄에 오른 광대처럼 위태롭기만 했다는 고백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었다. 결국 나는 2학기가 시작되면서 써 두었던 몇 통의 편지를 내 서랍 속에 넣어 둘 수밖에 없었다. 이기적인 감정으로 내 상처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연희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단어가 오가기도 했다. 연희가 끄집어 내지 못했던 마음 저 아래 고여 있던

울분들이 쏟아져 나왔고 마르지 못했던 눈물이 점차 그쳐갔다. 감춰진 편지 때문에 답장은 연기되었지만 다 되었다고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며 크고 엄청난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처럼 오래 아프지 않기를 바랐고 타고난 품성이 다른 연희는 내 바람보다 빨리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그때쯤 김의경이 연희에게 손을 내밀었을 것이다. 내 잘못이었다. 아직은 아니었던 것을 몰랐다. 순전한 웃음으로 대견하게 살아내고 있어 방심했다. 십년도 아니고 이십년이 가깝도록 치유되지 않는 상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일 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자만이였다. 기억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죄책감이 덜했을 것이나 그 겨울의 비참한 노을빛까지 선명했었음에도 나만큼 아팠을 연희를 놓쳤으니 이 죄를 어찌나 싶었다. 연희의 행방불명은 팔 한쪽을 썩 베어내는 참형이었고 고름을 비집고 쏟아져 나오는 핏덩어리였다. 김의경의 집에서 돌아온 날 저녁 연희는 헤림이, 효석이, 송이, 기연이가 그랬던 것처럼 편지 한 장을 남겼다. 기르지는 못 할 테지만 아이를 낳을 거라 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면 검정고시라도 할 테니 걱정 말라고도 했고 앞으로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고도 썼다. 새벽 두 시, 눈 내리는 게 아프다고 써 있었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시리운 것이 몸살이라고도 적었다. 그리고 눈물자국이 분명한 번짐도 있었다. 연희는 그렇게 사라졌다.

연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매일 매일을 기다렸다. 주말이면 인터넷에 소개된 미혼모를 돌보는 곳을 방문했지만 그 어디에도 연희는 없었다. 방학이 되고 크리스마스 즈음 엽서 한 장을 받았다. 잘 지내고 있다는 짤막한 글이 전부였다. 소인을 살펴보았지만 번질대로 번져있어

발신처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 유난히 눈이 많은 겨울이었다. 삼십년만의 폭설이라고 유난을 떠는 것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눈이 쏟아졌다. 보충수업이 끝나는 날,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했다. 아무리 뭉치고 던져도 정강이 언저리까지 쌓인 눈은 줄지 않았다. 반장이 눈을 굴리기 시작했고 이내 커다란 눈덩어리 두개로 눈사람을 만들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분필 조각으로 얼굴 모양을 새긴 눈사람은 웃고 있었다. 어디에 있건 어떤 모습으로 있건 연희도 그만큼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봄이 되면 세상을 덮은 눈이 다 녹을 때쯤이면 다시 말끔한 얼굴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제자리로 돌아와 더러는 흔들리고 더러는 서글프고 더러는 울게 되더라도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누군가 저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알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눈 녹이는 비가 몇 차례 내리고 봄이 오는 예감이 들고 개학을 하고 다시 새 학기가 시작 되도록 연희의 소식은 어디서도 들을 수도, 찾을 수도 없었다.

여덟 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아이들 셋에게 번갈아 가며 욕실을 내뱉던 연희의 고모는 쌓아 둔 고지서와 전단지를 뒤지더니 작은 종이쪽지 하나를 건넸다. 물때가 덕지덕지 붙은 물잔 속의 멍멍한 커피를 비우고 일어서는데 그녀가 입을 열었다.

- 지난달에 애 아빠가 받아 적어 둔 거예요. 한 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사는 게 이래서. 지난여름에 찾아왔었는데 차비도 못 주고 보냈어요. 찾으시면 연락해 주시겠어요?

아이들 과자 값에 보태라고 지갑을 비워주는데 한사코 거절하던 그

너가 연희의 눈매로 나를 쓰다듬었다. 당신이 더 아파보인다고 천천히 쓸어주는 것 같은 적당히 서럽고 적당히 서글픈 젖은 눈매로 말이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제일 작은 아이의 보챌 뒤로 한바탕의 욕설이 쏟아졌다. 악다구니라 해도 말을 건넬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그녀가 부러웠다면 내재된 이기(利己)로 보일 것이지만 나는 그만큼 사람이, 연희가 그리웠다. 그 혹독한 그리움은 그저 마음 언저리 한 구석에 얹혀 있을 것 같더니 이내 울체가 되고 끝내는 설움의 덩어리로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삶은 달걀의 반 가른 속을 들여다보며 ‘달이 두개네요’ 하기에 ‘이외수의 시네’했더니 배시시 웃어주던 연희,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강아지 발자국을 만들어 내며 친구들과 해맑게 웃던 연희, 떡볶이를 먹으며 연신 ‘맵다’를 중얼거리면서 찬물 한 사발을 벌컥벌컥 비워내던 연희, 성적표를 받으며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웃던 연희, 다 저녁 시장 모퉁이에서 시든 상추 두무더기를 내 놓고 있는 할머니에게 선뜻 일주일 치의 용돈을 내 주던 연희, 체육시간 후 수돗가에서 물장난을 치다 흠뻑 젖은 채 꾸중을 듣던 연희, 맑고 높고 유순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연희가, 그 아이가 너무나 그리웠다. 이제 곧 달수가 차고 아이를 낳을 테니 제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보통이를 싸놓고 기다릴 것만 같은 연희를 찾아야 했다.

오늘은 새로 얻은 주소를 들고 찾아갈 셈이다. 교실 뒷정리를 하는 아이들의 교복소매와 치마가 꺾충하다. 연희의 낡은 교복은 이제야 잘 맞을 것 같다. 건네지 못했던 편지들을 꺼내 가방 안에 넣는다. 봄비가 내리고 송화 가루가 자동차의 앞 유리창을 덮었다. 교정의 개나리는 며칠 전 내린 봄비에 반쯤 흠뻑 젖어 말린 싹알처럼 운동장을 굴러다닌다. 조금만 더 따뜻해진다면 밤꽃도 필 것이다. 진달래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물기를 머금었다. 이제 연희가 돌아오면 그 어여쁜 아이는 그 꽃들

을 쓰다듬고 웃어줄 수 있을 것이다. 연희야, 봄이다. 연희야…… 다시 봄이다.



오래전에 써 두었던 글이다. 다양한 글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쓰고자 노력했던 과거의 어디쯤, 상처받은 아이들에 관해 주저리 주저리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어 두었던 것을 조심스레 응모했고 수상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밝고 맑고 예쁘고 희망적이어야 하는 학교엔 어둡고 슬프고 좌절하는 아이들이 가득 차 있다. 하나하나 눈물어린 시각으로 보듬어 보면 결국 어른들의 잘못이다. 혼탁한 세상, 어른들의 나쁜 버릇을 먼저 배운 아이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공무원 문예대전’이라는 소통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학교 현장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너무 과장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에 할 말은 없다. 소설이니까. 그러나 소설이 현실을 소재로 반영하고 답습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싶다. 좀 더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현장에 살고 싶다. 언젠가 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삶에 감사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소망이 담긴 글을 마음 가는 대로 쓰고 싶다.

마지막으로 서툰 글을 아프게 읽고 선택해 주신 모든 심사위원들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

-2011년 6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법원도서관

홍 성 호

예 감

“이현미는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는 걸 예감했던 것 같아. 여자의 육감 같은 거지.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없는 무서운 예감 말이야. 그래서 급하게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하지만 둘 다 죽어버려서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 중에서-



예 감

1

고준영의 호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묵직한 진동으로 주인을 재촉했다. 밤 9시 30분 4호선 전철. 늦은 퇴근길 불과한 얼굴을 한 취객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다. 준영도 그 틈바구니에 앉아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진동을 느낀 준영은 호주머니에서 꺼낸 휴대전화의 통화버튼을 발신번호도 확인하지 않고 눌렀다.

“네, 고준영입니다.”

“피곤하지? 지금 전철인가?”

익숙한 목소리였다. 강 팀장이었다.

“사건입니까?”

준영이 선수를 쳤다.

“응, 고 형사 집이 돈암동 삼미아파트지?”

“네.”

준영은 짧게 대답했다.

“살인사건이 하나 생겼어. 공교롭게도 고 형사가 사는 아파트 단지네. 출동한 지구대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강도 살인 같은데, 지금 과학수사반은 출발했고.”

“우리 팀 사건이네요. 돈암동이니까요.”

“그래, 고 형사 아파트 단지니깐 고 형사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무래도 탐문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네니깐 말이야.”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다. 112 순찰차의 경광등만 아파트 입구에서 소리 없이 번쩍이고 있었다. 과학수사반의 승합차와 119 구급차도 112 순찰차와 마주 보고 주차돼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주민과 경비원 몇 명이 순찰차 주변에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동네 주민 중에는 준영의 옆집 미영 엄마도 있었다. 미영 엄마가 준영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다.

“영지 아빠 아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미영이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영지 엄마가 아빠께서 무척 바쁘다고 하더니 진짜 바쁘시네요.”

“형사가 뭐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인가요? 듣기로는 여기 사는 변호사가 죽었다고 하던데요?”

미영 엄마는 준영의 딸인 영지의 친구 엄마이기도 하지만 동네 마당발 통장님으로 더 유명했다. 그런 미영 엄마가 가끔 집에 놀러와 아파트 단지 사람들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하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요? 피해자가 변호사랍니까?”

“네. 여기 1층집 남편이 변호사예요. 그 재수 없는 여자 남편이요.”

“아, 그렇군요. 전 현장에 좀 들어가야 해서. 이만…….”

미영 엄마는 몇 마디 더 하고 싶은 눈치였으나, 준영은 말을 끊고 살인사건 현장에 들어갔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니 입구에서부터 핏자국이 보였다. 핏자국은 계

속 이어져 거실 한가운데까지 계속됐다. 현관의 핏자국은 벽지에는 굵은 입자의 스프레이 자국으로, 바닥에는 손톱만한 빨간 점으로 남아 있었다. 그 불길한 빨간 점은 레이저 포인터처럼 점점이 찍혀 피해자가 걸어간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 점은 거실 소파에 범벅이 된 형태로 커져 있었다. 그리고 다시 거실 쪽으로 향했다.

거실中间的 핏자국은 점이 아닌 큰 면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면의 가운데 피해자가 엎어져 있었다. 대단히 큰 출혈이었다. 여러 현장에 출동했었지만 이 정도로 큰 출혈은 본 적이 없었다.

안방을 비롯한 모든 방의 문은 모두 활짝 열려 있었다. 방안의 서랍도 모두 열려 있었다. 서랍의 옷가지나 잡동사니들은 바닥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베란다의 창문과 거실 중문이 연달아 열려 있어 차가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돈암 지구대 손 경장이 인사를 했다. 손 경장은 준영의 입사 동기이고 1년 전까지 같은 팀에 있었다. 제법 실적도 좋은 형사였는데, 둘째를 낳더니 돌연 사건 현장의 시체와 피 냄새가 싫다며 전출신청을 하고 지구대로 내려와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준영이 손 경장에게 물었다.

“여기 신고자가 아파트 단지 경비원인데, 어떤 놈이 이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걸 보고 절도로 신고했어. 그래서 출동해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지 뭐야.”

“그럼 신고된 게 바로 사건 직후란 얘기가 되네.”

“아마도 그렇겠지.”

준영은 엎어져 있는 시체를 쳐다보았다. 시체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로 엎어져 있었다. 오른쪽 목에는 바닥에 뿌려진 피만큼이나 깊고 섬뜩한 자상이 있었다. 준영은 고개를 들어 손 경장을 쳐다보며 물었다.

“여기 상처가 전부인가?”

“아니, 아까 구급대원이 지혈과 심폐소생을 하려고 피해자를 뒤집었는데, 왼쪽 목에 하나, 그리고 복부에도 하나 더 있었어.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지. 곧 검안의가 올 거야.”

“하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산다는 게 더 이상하지. 그럼 피해자는 다시 원위치 한 건가?”

“응, 발견 당시에는 그 상태로 엎어져 있었어.”

“목격자는?”

“응, 신고한 경비원 외에는 없어. 그런데 경비원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얼굴은 못 봤대. 그쪽에서 더 건질 건 없을 것 같아. 단지 트레이닝복에 스포츠머리 정도만 기억하더라고. 그냥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해 보는 게 더 빠를 거 같아.”

준영은 수첩에 트레이닝복에 스포츠머리, 라고 적었다. 그리고 쫓고 리고 앉아 피해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심히 살폈다.

“국과수에 부검의뢰 하려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야겠네. 난 사무실로 다시 들어갈 테니 네가 현장 정리 좀 해줘. 관리사무실에 CCTV 화면을 잘 보관하라고 알려주고, 부탁해.”

손 경장에게 사건 현장을 부탁하고 한참 족적과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 과학수사팀 민 경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민 경장, 여기 현장사진은 금방 나오는 거지?”

“걱정 마시고 가서 영장이나 치고 있어. 금방 들어갈 테니.”

준영은 현장을 나와 다시 사무실로 발길을 돌렸다.

자정. 준영은 밀려오는 졸음을 녹녹한 종이컵에 담긴 싸구려 자동판매기 커피로 간신히 방어하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성명 이준식

나이 41세

성별 남자

직업 변호사, 서초동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 개업 중

주소 서울 성북구 돈암동

가족관계 처, 이현미, 37세

학력 지방 국립대 법학과 졸업

절도사건을 접수한 돈암 지구대 소속 순찰차 현장 도착. 목과 복부 도합 세 곳에 큰 자상을 입은 피해자 발견. 곧이어 119 구급차량이 도착했으나, 과다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피해자 사망.

압수수색영장의 기본 사항을 작성한 준영은 의자를 쫓히고 기지개를 켜면서 과학수사팀으로부터 넘어온 피해자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진을 본 준영의 입이 한쪽만 썰룩 위로 올라갔다. 형사 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생긴 버릇이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어느 순간엔가 한쪽 입 꼬리만 올라가는 것이었다.

피해자를 사진으로 다시 보니 아까 봤던 현장에서의 핏자국과 피해자의 자상이 준영의 머릿속에서 합성되면서 한 편의 동영상이 만들어져 돌아갔다.

피해자가 변호기를 누르고 아무 방비 없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변호기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범인은 현관 왼쪽 작은 방에 몸을 숨겼다. 현관에 들어선 피해자는 구두를 벗으려 몸을 숙였다. 그 순간 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노리고 일격을 가했다. 그 첫 번째 공격은 목에서 거센 피를 뿜게 했고 그 피는 현관과 현관 왼쪽 벽지에 피해자가 숙인 만큼의 높이로 얼룩졌다.

불의의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세워 공격자를 찾는 동시에 방어 자세를 취했다. 범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날 선 물건을 힘차게 찔렀다. 피해자의 양손에는 칼을 막기 위한 방어흔이 깊게 생기고, 깊은 방어흔만큼이나 그의 복부에도 큰 상처가 생겼다. 그렇게 몇 초.

피해자는 범인이 뒷걸음치는 대로 빨간 피를 뿌리며 소파까지 끌려갔다. 거기서 범인은 힘차게 칼을 비틀어 뺐고,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손에 큰 상처를 남겼다. 피해자는 고꾸라지고 소파 위에서 몸부림쳤다. 소파 위에는 피해자의 고통과 몸부림이 검붉은 색으로 범벅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 피할 곳을 찾았다. 피해자의 모든 감각은 사라지고 오로지 공간을 지각하는 감각밖에 남지 않았다.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몸을 피했다. 그렇게 몇 걸음 더 간 게 거실이었다. 거기서 피해자는 멈췄다. 그리고 끝이었다.

사진 속의 피해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엎어져 있었다.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과 칼에 찔린 부분만 클로즈업한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칼에 의한 자상은 목에 두 군데, 복부에 한 군데, 모두 세 군데였다. 그리고 양손에는 방어흔으로 보이는 자상도 있었다. 피해자 왼쪽 목의 자상은 사진으로만 보아도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큰 칼로 찔렸음이 분명했다. 더군다나 찔린 부분은 대동맥이 지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오른쪽 목의 또 다른 자상이었다. 현관에 있는 핏자국을 봐서는 범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공격한 게 분명했다.

또한 복부의 자상도 복부 정중앙에서 피해자 왼쪽으로 치우친 부분으로, 아래서 위로 찌른 것이었다. 절대로 왼손잡이가 할 수 있는 공격 형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오른쪽 목에 자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쓰러진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에 다시 3차 공격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일종의 확인사살.

범인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절명케 한 그 칼에 분노는 전혀 없었다. 정확하게 계산된 치밀한 공격이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강도에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누구에겐가 계획적으로 살해당한 것이다. 범죄현장의 열린 서랍과 장롱, 그리고 쏟아놓은 옷가지나 잡동사니는 속임수인 것이다.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준영이 여태 맡은 살인사건은 이성과 돈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세상이 복잡하고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욕망의 지향점은 똑같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그와 마찬가지로 금전에 의한 원한 관계나 내연 관계 중 하나가 사건 발생의 원인일 것이라고 준영은 생각했다.

3

다음 날 오전, 어젯밤 살인사건에 대해 회의가 있었다. 강력 2팀 모든

팀원이 스프링이 푹 꺼진 낡은 소파에 앉았다. 원탁에는 티백 하나로 재탕, 삼탕 우려낸 녹차가 뚝은 김을 내뿜으며 사람 수만큼 놓여있었다. 회의의 주재자는 강 팀장이지만, 언제나 회의 주도는 준영이 했다. 강 팀장은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고 부업으로 편의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 거기에 신경이 쏠려 있는 터였다.

준영이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운을 띄웠다.

“국과수의 부검결과는 오늘 오후에나 나올 것이고, 나는 결과와 상관 없이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계획적 살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으면 해.”

“피해자가 변호사라면서요?”

“그래, 서초동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이었어. 김 형사는 변호사 사무실 위주로 원한관계를 조사해보고, 남 형사는 피해자 처의 주변을 좀 조사해봐. 어제 사건 후부터 지금까지 연락 두절이야.”

“내연관계 말입니까?”

신참인 남 형사가 수첩에 뭘 잔뜩 적으며 준영에게 물었다.

“응. 내연관계 위주로 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 내역을 파악해보고, 남편 이름으로 들어둔 보험도 다 조사해봐.”

“네.”

“그리고 피해자 처인 이현미는 부산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러 간다고 나갔다는 데 아직까지 휴대전화 통화조차 안 되고 있어.”

“그럼 남편이 죽은 것도 아직 모르겠네요?”

준영의 한쪽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글쎄…….”

오후 5시. 강 팀장을 제외한 강력 2팀이 원탁에 다시 모였다.

“자, 이제 조사한 내용을 다 내놔봐.”

준영이 후배 형사들에게 말했다.

“선배님, 이현미라는 여자가 좀 냄새가 나기는 하네요. 최근 2년 동안 남편 이름으로 자기가 수익자가 되는 생명보험을 3개나 들었던데요. 예상 보험금은 모두 15억 정도이고요.”

“휴대전화 쪽은?”

“현재 이현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고, 최근 6개월간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특별히 건질 만한 건 없었습니다.”

남 형사가 실망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방금 부검 결과가 왔는데, 자상 중에 치명상은 두 개. 목에 찌른 칼이 모두 대동맥을 꿰었대.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자가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은 것으로 추정된대.”

준영이 부검결과와 과학수사팀의 추가 보고사항을 후배들에게 간략히 말했다.

준영은 예상한 대로 부검 결과가 나와 만족했다. 이제 범인은 집과 사무실에 관련된 사람 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 체포는 시간 문제다.

다만, 피해자의 처가 연락이 안 된다는 게 깨름칙한 것 이외에는.

계속 이어지는 조사 결과 보고에는 준영의 구미를 당길만한 단서가 없었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무실은 실장과 여직원으로 구성된 조그만 개인 사무실이었는데 사건 수임이 뜬한 변호사라고 했다. 그나마도 최근 3개월간은 사건을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해 여직원 월급을 변호사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줬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성북경찰서 고준영 형사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이 다소 힘 빠진 얼굴로 준영을 맞았다.

“예림 씨, 여기 차 두 잔만.”

준영은 서초동 피해자 사무실로 전화해서 잠시 조사할 게 있다고 약속을 해 두었다. 그리고 퇴근 무렵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곧 여직원이 차를 가지고 왔다.

“실장님, 저는 학교 때문에 이만 퇴근할게요.”

“그래요. 예림 씨. 열심히 하고, 이제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네.”

스무 살 중반. 아직 얼굴의 젖살이 덜 빠진 듯한 통통한 얼굴에 잘록한 허리와 매끄럽게 빠진 다리를 가진 여자였다. 거기다가 터질 듯이 팍 찬 가슴은 남자들의 숨을 멎게 할 만큼 인상적이었다. 차예림이라는 여직원은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수업 때문에 바로 나가야 한다며 준영과는 눈길도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총총히 사무실을 나섰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사건은 없었나요?”

“네, 워낙 사건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됐나요?”

“네, 몇 년 전까지는 장인 회사에서 주는 사건이 고정적으로 있어서 그럭저럭 사무실 운영은 가능했는데, 장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변호사 업계도 경쟁이 심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장인이 고정적으로 줬다는 사건은 뭐였죠?”

“처갓집이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사소송과 거래업체들 대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얘기지만 다 지저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게 그 장인어른 사업 방침이었죠. 근로자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지치게 한 다음에 합의를 봐주고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돈으로 사채놀이도 했는데 그 돈 회수도 우리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 회사, 그러니깐 장인이 수입료는 제대로 줬습니까?”

“아, 그거요. 돈은 제대로 줬습니다. 자기한테도 유리하니까요. 일단 건당 몇 백씩 주고, 그 돈을 7:3 비율로 나눴어요.”

“나누다니요?”

“그 회사에서 돈을 수입료 명목으로 지출하고, 다시 일정 비율을 장인어른 개인이 회수해 가니깐, 결국은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변호사는 별 불만이 없었습니까?”

이 실장은 손을 깍지 끼고 손가락으로 손등을 톡톡 치면서 발끝을 까닥거렸다.

“개였죠.”

“네?”

“집 지키는 개 아시죠? 우리 변호사는 그 꼴이었습니다. 처갓집 돈 지키는 개.”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는 대학교 때 제법 명석한 두뇌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라서 나이가 있었고 사법연수원 점수도 좋지 않은 편이어서 판사나 검사로는 임용되지 못했다. 대형 로펌은 고사하고 중

소 규모의 로펌도 들어가지 못해서 사법연수원 수료 후 개업과 회사 취업을 놓고 고민했었다. 그러다 마지못해 개인 사무실을 개업했고 곧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을 했다.

“우리 변호사도 자기를 금전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지방에 있는 본가에서 개업 자금도 도와주지 못할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럼,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장인 회사가 부도나면서부터 이 사무실도, 부부생활도 급속도로 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변호사도 그렇지만 와이프가 더 못 견뎌 하는 거 같았습니다.”

“못 견디다니요?”

“돈 못 쓰고 사는 거 말입니다. 비록 크지 않은 회사였지만 항상 현금을 만질 수 있으니 돈은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 와이프도 어릴 때부터 부모덕에 부족한 거 없이 살았던 거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덕에 먹고 산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와이프 성격은 어땠죠?”

“같이 식사도 몇 번 했었는데, 성격은 별로였습니다. 특히 남에 대한 배려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오냐오냐 하고 키웠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자신의 관심 밖의 내용이면 말하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지겹다는 내색을 했습니다. 또 자기 액세서리나 옷에 대한 얘기는 남이 듣거나 말거나 계속 떠벌이곤 했습니다.”

이 실장은 한쪽 눈을 살짝 찌푸리며 입으로 짹 소리를 냈다.

준영은 소파에 앉은 채로 사무실을 한 번 둘러보았다. 5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이 두 개, 사건 의뢰인을 위한 소파가 전부였다. 변호사의 업무공간은 두 개의 책상 앞에 있는 방이었다.

아까 회의 때 김 형사가 변호사 방을 살펴보았다는 보고는 없었다. 그래서 준영은 방을 한 번 봐야겠다고 이 실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에 들어갔다. 방도 외부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행했다. 큰 원목책상에 변호사 이준식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그곳이 피해자의 자리였다는 걸 말없이 알려주고 있었다.

준영은 법률 서적이 잔뜩 꽂혀 있는 책장을 한 번 훑어보고 곧 책상 서랍을 열어 보았다. 수첩이나 필기구 같은 잡동사니가 대부분이었다. 그 중 명함첩이 눈에 띄었다. 명함첩을 한 장씩 넘기다가 눈길이 멈췄다. 그리고 분홍빛 명함을 한 장 꺼내서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맨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다. 열쇠가 있는 곳을 찾다가 책상 위 필통에서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었다. 준영의 쌍꺼풀진 큰 눈이 활짝 더 커졌다. 동시에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났다.

준영은 바로 사무실에 있는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는지 물었다. 김 형사는 잠시만이요, 하더니 곧 피해자 가방에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준영은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이 실장에게 보여주었다.

“이 휴대전화는 뭐지요?”

“아, 변호사 세컨드 폰입니다. 집에는 가져가지 않죠. 아마 명의는 변호사 본인 것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 명의죠.”

“그럼, 대포폰이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변호사한테 여자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엔 비즈니스 클럽에 자주 가는 거 말고는 고정적으로 만나는 애인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 실장의 말이 끊겼다. 준영은 이 실장의 눈을 바라보며 괜찮다, 라

는 표정을 지었다.

“최근에 우리 사무실 차예림 씨와 변호사의 관계가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번엔 레스토랑에서 둘이서 식사하는 모습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사무실에서도 둘이서 얘기하거나 쳐다볼 때 뭔가 끈끈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젠 제 추측입니다.”

5

준영은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서 내렸다. 역을 나서자마자 안주머니의 분홍색 명함을 꺼내 들었다. 오프로드.

준영이 명함에 적힌 비즈니스 클럽을 찾아온 건 피해자의 단골이었기 때문이다. 책상 속에는 고무줄로 대충 한 묶음씩 묶어 놓은 명함 몽치와 변호사, 검사의 명함을 깨끗하게 정리한 명함첩이 있었다.

그런데 비즈니스 클럽 명함은 명함 몽치가 아니라 명함첩에 보관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그 분홍빛 명함 뒷면에는 수진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고, 쉬는 날과 생리주기도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 비즈니스 클럽의 뜨내기손님이 아닌 단골손님인 것이다.

준영은 비즈니스 클럽에서의 조사를 좋아한다. 비즈니스 클럽을 찾는 남자들이 술집 아가씨한테 자기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경향 때문이다.

술집에서 취한 손님의 고백 아닌 고백이 사건의 증거는 안 되겠지만, 수사의 방향을 잡는 단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준영은 이런 조사를 좋아하는 것이다.

준영은 폭신한 소파에 앉아 쿠션에 팔을 기대고 마담이 가져다준 맥주를 마시며 수진을 마주 보고 있었다. 그의 예상대로 이 집은 피해자의 단골집이고 수진 또한 피해자의 단골 파트너였다.

“이준식 변호사라고 알지? 그 사람 살해됐어.”

수진은 어깨를 움찔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아니 왜요? 너무 매너 좋은 분이셨는데.”

“그래서 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떤 걸?”

“응, 이준식 씨가 여기 자주 왔나?”

“네, 그렇죠.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왔었지요. 이런 데 맛 들이면 다른 데서는 술 못 마셔요. 술 마시는 데 아가씨가 최고죠.”

“그럼, 올 때마다 수진이만 찾았나?”

“네, 술은 다른 아가씨랑 먹더라도 2차는 꼭 저하고만 나갔어요. 제가 한 미모 하잖아요.”

수진은 이준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는 것인지 얼굴에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이준식 씨와 부인과의 관계가 어땠지?”

“그 변호사님 와이프 바람났잖아요.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랑 만나서 바람피운 걸 잡았나 봐요. 남들한테 말도 못 한 것 같더라고요. 하긴 창피한 일이니까요. 하여간 그것 때문에 와이프랑은 잠도 따로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와이프 약점 잡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미 마음은 저만치 떠났어요.”

“이혼 이야기는 안 하던가?”

“네, 이혼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할 법한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잠도 따로 잘 정도인데. 이혼하면 위자료 줄 게 걱정돼서 그런가…….”

“그럼, 자기 같은 아가씨들 말고 사귀는 여자가 따로 있던 건 아닌가?”

“글쎄요. 저한테 말한 건 요즘에 자기 사무실 여직원하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면서 가끔 만난다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성관계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린 동생 같아서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수진은 아, 하고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여직원한테 야간 대학을 다니라고 권유했대요. 등록금도 자기가 대준다고 했어요. 뭐, 그 정도면 마음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나?”

“한 달 전쯤. 요즘 사무실 사정이 좀 어려운데, 조만간 큰 사건을 몇 건 맡으면 곧 좋아질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당분간 바빠서 못 올지도 모른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돈이 많이 생길 거라 말하면서 표정은 그리 밝지 않더라고요.”

6

평일 오전 커피숍은 한산할 줄 알았는데, 제법 사람이 많았다. 준영은 가장 끝자리 창가 쪽 자리에 앉아서 미영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죠.”

미영 엄마가 자리에 앉으면서 미안한 눈빛으로 인사를 했다.

“왜 갑자기?”

미영 엄마는 준영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보자고 한 이유가 궁금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우리 단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좀 여쭙볼 게 있어서요.”

“제가 도움될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미영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파트 단지 마당밭이시지 않습니까.”

준영이 웃으며 답했다. 그러자 미영 엄마도 늦게 온 것에 대한 미안함을 지웠는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준영의 웃음에 미소로 답했다.

“피해자 부인, 그 여자가 했나요?”

“아, 수사 초기 단계라 아직 진전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해자 부인에 대해 좀 아시는 게 있는지 해서 여기까지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준영은 사건이 있었던 아파트 앞에서 미영 엄마가 했던 재수 없는 여자란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재수 없는 여자란 말을 왜 했는지 동네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 미영 엄마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음, 한마디로 자기는 이 동네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이 동네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낫으면 타워팰리스 같은데 가서 살면 되지, 서민들이 사는 곳에서 전세 살면서 유세를 떠는지 참 알 수 없는 여자죠.”

“아, 자가가 아니고 전세입니까?”

“네, 우리 단지에서 40평대는 그 동이 유일하잖아요. 처음에는 거기 12층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걸 팔고, 1층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어요.”

“그런 정보들은 다 어디서 듣습니까?”

“아, 네. 우리 통장들은 자주 만나니까요. 자기 동이 아니더라도 서로 이야기 하다 보면 튀는 사람들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랄까, 뭐 그런 거죠. 아, 그리고 그 집엔 차가 2대나 있었는데, 외제 차 한 대랑 국산 대형 차 한 대. 그 두 대중에 외제차는 그 여자가 타고 다녔고 나머지 차를 죽은 변호사 양반이 타고 다녔는데 최근에 국산차는 팔았다고요.”

“음, 미영 어머니께서 재수 없는 여자라고 했던 건 그런 것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뇨, 아뇨. 설마요. 제가 철부지도 아니고 남편이 변호사거나, 외제 차를 끌고 다닌다고 부러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재수 없다는 건 꽤나 잘나가는 척하면서 연말연시에 아파트에서 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이나 쌀 모으기에 돈이나 쌀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것 때문이에요. 경비아저씨 명절 떡값 모아주는 것도 그렇고. 갈 때마다 그 동 통장이 무안을 당했다네요.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보고 인터폰으로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했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할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통장이 경비아저씨한테 혹시 그 집 사모님이 명절 용돈이라도 챙겨 주셨냐고 물어보니깐 그런 일 없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풋.”

미영 엄마는 알밋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까지 쳤다.

“그 집 사모님이 좀 박한 사람인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잘 나가는 변호사라면 이런 동네에서 전세로 살겠어요? 보아하니 판, 검사 출신 변호사도 아닌가 보던데.”

동네 정보망치고는 꽤 정확성이 있었다.

“말씀을 들으니 그 여자가 재수 없는 여자 축에 들긴 하겠네요. ㅎㅎ.”

미영 엄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다시 말할 자세를 잡았다. 그런데 뭔가 주저하는 눈빛이었다.

준영은 그런 눈빛을 잘 안다. 그래서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영 어머니, 여기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은 남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전 사건 관련 얘기는 우리 집에서도 안 해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비밀로 할 테니 편하게 말씀하시죠. 제 입 무거워요.”

미영 엄마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한번 끄덕였다.

“그 여자가 재수 없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의 이중성 때문이에요. 저, 저기 뭐냐, 여성전용 클럽이라고 아시죠?”

“여성전용?”

“네,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술집이죠. 바 말이에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도 가끔 가거든요.”

미영 엄마가 말하길 주저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여성전용 바에 다닌다는 사실을 옆집 남편에게 말하기가 좀 곱끄러웠을 것이다.

“노원역에 있는 건데요. 호스트바 같은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해놓고 양주만 파는 그런 곳이죠.

가격은 아주 비싸요. 뭐 그 정도 해놓고 장사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대신 여성전용이라서 서빙 하는 사람들은 젊은 남자만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러니깐 아주 가끔이죠. 친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날 때만 가끔 가요. 그런데 바에서 그 여자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요. 물론 그 여자는 절 모르죠, 저는 알지만.

처음에는 우연인가 했는데 거의 갈 때마다 만나다 보니 그 여자가 거기 자주 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단골 웨이터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웨이터한테 톱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항상 한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여성전용이라면서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웨이터한테 물었더니, 그 남자는 그 술집 사장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그 술집을 소개해 준 거 같더라고요.”

“음,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건 아니고요?”

“그 여자가 재수 없기는 하지만 워낙 스타일이 세련되고 어디 가서 빠지는 얼굴은 아니라…….”

미영 엄마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준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여자가 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바의 뒤편이 모텔 골목인데, 바에서 나와 바로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한 두어 달 됐어요.”

준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 남자 인상착의가 기억나시겠네요?”

“네, 운동선수 같은 체격에 짧은 머리였어요.”

7

사건 발생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되는 피해자의 부인이 이번 사건의 교사자로 용의선상에 올랐다.

부부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친정집의 갑작스러운 부도와 그로 인한 경제적 곤궁. 옛 애인과의 부적절한 만남과 가정불화. 남편 앞으로 들어둔 거액의 보험금. 그녀에게는 남편의 살인을 교사할 만한 충분한 동

기가 있었다.

준영은 사건 현장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의도적 살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런 직감을 증명해 주는 부검결과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다. 바로 연락 두절인 피해자의 부인.

그녀가 직접 남편을 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살인을 교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약점이 하나 있다. 남편을 죽일 것을 계획하고 살인을 청부하였다면 집에 들어가 강도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이다. 그런데 이 유력한 용의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왜일까?

준영은 이런저런 생각에 팀원들이 다 모인 것도 깜박하고 있었다. 모인 팀원들을 확인하고 겹연쩍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살인이야. 이현미가 경비원이 목격한 짧은 머리에 살인을 교사한 거지. 그 동기는 모르겠지만.”

신출내기 남 형사는 입을 삐죽이며 준영의 말에 끼어들었다.

“이 여자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휴대전화도 꺼놓고, 아마추어 같이.”

용의선상에 오른 이현미의 휴대전화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꺼져 있었다. 수사진은 전국에 지명수배만 해놓고 친정가족과 친구들에게 갈 만한 곳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준영이 계속 말을 이었다.

“김 형사와 남 형사는 피해자가 자주 간다던 술집과 모텔 주변을 탐문해봐. 그 여자가 나타나야 이번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서 신출내기에게 미영 엄마한테 들었던 단골 웨이터 이름을 알려주었다. 탐문을 맡은 두 형사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해자 부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건질 만한 것이 없었지만,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한 피해자의 세컨드 폰 통화내역에서는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사건 당일까지 김원식이라는 남자와의 통화가 12건이나 되었던 것이다. 김원식은 형사들의 전화를 받고 자진해서 출두했고 아까부터 조사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김원식은 젤을 발라 바짝 세운 짧은 머리에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다. 준영은 김원식 앞에 앉았다.

참고인 자격이지만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피해자와 빈번하게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다. 그것도 대포폰으로. 준영은 이 남자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흔들리는 눈동자 초점과 양쪽 다리를 번갈아 꼬았다 풀었다 하는 초조한 동작들이 직감을 더 공고히 해주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건, 아시겠지만 죽은 이준식 씨와 통화내역 때문입니다. 이 사건 3일 전부터 피해자와 빈번한 통화를 했는데 뭐 때문이죠? 더군다나 피해자의 그 휴대전화는 본인 명의도 아닌 대포폰인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통화만 이 휴대전화로 한다는 말이죠. 무슨 내용이었죠?”

준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본론을 물었다. 이 남자가 얼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치기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잘 통했었다.

준영의 의도가 정확히 맞아 들어갔다. 남자는 다리를 꼬는 걸 멈췄다. 그 대신 기도하듯이 두 손을 맞잡고 쓱쓱 소리가 나게 비비고 있었다. 입술도 타들어 가는 지 두 입술을 계속 움찔거렸다.

그렇게 몇 분. 남자는 드디어 그 사이에 바짝 마른 입술을 움직였다.

“전 그냥 잠시 만났을 뿐입니다. 네, 그뿐입니다.”

“누구 말이죠?”

“현미요. 이현미. 이 변호사님 부인 말입니다. 제가 영업사장으로 있는 골프용품점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걸 계기로 몇 번 만난 것뿐입니다. 현미와 저는 학교 다닐 때 애인관계였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이 남자의 자백만 받으면 된다. 가정불화와 옛 애인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집중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역.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남자를 강하게 쏘아보았다.

남자는 천천히 말했다.

“만가웠습니다. 몇 년 만인지. 둘 다 결혼은 했지만 다시 만나니 젊은 시절 생각도 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만나다 어느 날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관계 말이죠?”

준영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자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실을 이 변호사님이 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우리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저를 감방에 처넣어 버리겠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변호사인 자기에게겐 쉬운 일이라면서…….”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무서워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까? 이현미와 모의해서 말이죠.”

남자는 머리를 곤추세우며 준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닙니다. 전 절대로 이 변호사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다. 준영은 엉, 하고 남자에게 물었다.

“그럼, 죽기 3일 전부터 피해자와 그렇게 많이 통화한 이유가 뭘니까?”

“아, 그건 이 변호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감방에 보낸다고, 그게 싫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 을 한 겁니다.”

준영은 뒷목이 뻗뻗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럼, 사건 당일 8시에서 9시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대학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럼, 술을 같이 마신 친구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저까지 3명이 먹었습니다.”

“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셨죠?”

“8시에 만나서 11시까지 마셨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김원식 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준영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피해자의 사망추정 시간은 8시 30분 전후였기 때문이다. 남자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동석했던 친구들 모두 남자의 진술과 동일하게 대답했다. 다만 술을 마시다 김원식이 한 30분가량 자리를 비웠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자신이 근무하는 가게에 무인경보시스템을 세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다시 확인한다는 이유였다고 했다.

자리를 비운 게 수상했지만 술을 마신 분당과 사건 현장인 돈암동까지는 가는 데만 해도 30분이 넘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 잠시 빠져나가 사

람을 죽이고 다시 돌아오기에는 불가능했다.

또한 김원식은 짧은 머리 외에는 아파트 CCTV에 찍힌 용의자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김원식은 곧 귀가했다. 이 정도 혐의로는 영장청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미행은 붙여놓았다.

8

준영의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서 부르르 진동을 일으켰다. 신출내기였다. 남 형사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하나 물었습니다.”

“뭐, 하나 건졌어?”

“네, 여기 웨이터한테 이현미가 자주 만나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얻었어요. 선배님! 더군다나 이놈 뭐하는 놈인지 아세요?”

남 형사의 목소리는 한층 더 톤이 높아졌다.

“하하, 지금은 놀고먹는 놈인데요. 얼마 전에 제대했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래요. 웨이터가 그러는데 이놈이 자기가 대검 다루는 건 자기 부대에서 최고였다고 항상 자랑하고 다녔다네요. 누구든 한 방에 보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준영은 뒤로 젖히고 있던 의자를 바로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놈 잡은?”

“네,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응, 기다려 내가 갈게.”

차 안은 4명의 건장한 남자로 꽉 찼다. 짹짹한 땀 냄새와 피 냄새

도 차에 가득 차 있었다. 뒷좌석에는 김 형사와 남 형사가 방금 체포한 정영민을 가운데 끼고 앉았다. 정영민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뒤로 젖히고 등받이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의외의 성과였다. 애당초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해서 묻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와 미행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다가구 주택 입구에서 남 형사가 우편함을 뒤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뒷걸음쳐 달아나는 짧은 머리가 있었다. 행동으로 자신이 용의자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었다.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준영과 김 형사는 그 짧은 머리를 보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 문을 박차고 나갔다. 추격은 길지 않았다. 동네 편의점을 다녀온 듯한 가벼운 트레이닝복 차림에 슬리퍼로는 멀리 가지 못했다.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반항은 격렬했다. 준영과 김 형사가 놈에게 주먹과 발로 머리를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뒤늦게 달려온 남 형사가 놈의 뒤에서 목덜미를 팔로 휘감아 시간을 버는 사이 김 형사가 팔과 손목을 간신히 비틀어 놈의 무릎을 꿇렸다. 그리고 바닥에서 겨우 일어난 준영이 비틀어 놓은 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어깨는 떡 벌어졌고 다부진 가슴은 트레이닝복을 작다고 느끼게 할 정도였다. 오른쪽 입가는 체포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피가 배어 있었다.

놈은 폭력혐의로 1년간 육군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 강제 전역된 전력이 있었다.

준영이 아까 얻어맞은 턱을 어루만지며 짧은 머리를 노려보았다.

“덕분에 운동 좀 했네. 정영민, 넌 긴급체포 된 거야. 그리고 아파트 CCTV에 네 짧은 머리와 얼굴이 아주 생생하게 찍혀 있어.”

사실이었다. 짧은 머리의 정영민이 베란다를 넘어 화단을 통해 달려가는 모습이 두 대의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준영은 한 마디를 덧붙였다.

“그 여자는 어디 있지? 이현미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네들이 찾아야지. 난 약속대로 한 방에 끝내고 잔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네. 잠수 탔나? 크크.”

짧은 머리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우리도 궁금해서 그래. 사건 당일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어. 진짜 통화 안 되나?”

준영은 재차 물었다.

“응? 형사 양반 전원이 꺼져 있다고? 신호는 계속 가던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신호가 간다고?”

“흐흐, 위치 추적 안 해 본 거요? 원, 형사 나리들이 허술하시기는.”

순간 준영의 머리에 스쳐 가는 게 있었다. 피해자의 잠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세컨드 폰.

아차. 그걸 생각하지 못했군. 용의자인 그녀도 다른 휴대전화로 일 처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한 자신을 나무랐다.

“그래, 그 여자 전화번호가?”

준영은 짧은 머리의 휴대전화에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아 긴급히 위치추적을 의뢰했다.

짧은 머리는 시원시원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아주 신속하

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신문이라 할 것도 없었다.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자판을 두드리기만 하면 됐다.

이현미가 그를 만난 건 스포츠센터였다. 수영장과 헬스트레이닝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면서 안면을 익혔다. 처음에는 오가며 눈인사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수영반 교실 강사와 함께 호프집에서 동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 통성명하고 말을 트기 시작했다.

사람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다부진 체격인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고 직업이 없다는 걸 알고 이현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은 다름 아닌 살인.

그가 술을 먹고 지껄인 단검의 귀재라는 말에 솔깃했을 것이다. 또한 제대 후 특별한 직업 없이 놀고 있다는 것과 이것저것 재는 것 없는 단순한 성격이라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죽이는 계약을 맺었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일단 침입의 편의를 위해서 12층에서 1층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친정 엄마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와 그 전화로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자신이 지방에 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에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물론 시체 발견은 지방에서 돌아온 자신이 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면 강도사건으로 처리되어 사건은 강도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했다. 작업이 성공하면 남편의 보험금에서 2억을 살인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을 맺고 살인 계획을 실행하기 전 이현미와 짧은 머리는 몇 차례 성관계를 했다. 비록 성관계는 이현미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번 계약을 실행하는 짧은 머리에게 던져주는 일종의 호의였을 것이다. 또한 남편을 살해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자신의 비밀스러운 곳

을 내어주면서 짧은 머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현미의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짧은 머리는 이현미에게 사회의 음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하루하루 먹이를 찾아 헤매는 더러운 하급인간일 뿐이었을 것이다. 단지 남편을 죽이려는 목적을 달성시켜 줄 훌륭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짧은 머리는 성욕만 채우면 됐고, 곧 2억이라는 큰돈이 들어온다는 기대에 차 있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계약을 실행한 후, 곧 살인이 끝난 후부터 일이 틀어졌다. 짧은 머리는 약속대로 깔끔하게 일을 실행하고 이현미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현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강력 2팀이 한자리에 모였다.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김빠진 콜라를 마신 얼굴이었다.

전날 살인범에게서 진술조서를 받은 준영이 기름 낀 얼굴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

“모두 수고했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서 다행이야.”

김 형사가 준영의 말을 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의 처, 그러니깐 이현미가 시체로 발견됐어. 공사가 중단된 빌딩 공사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죽은 채로.”

이현미의 시체는 자신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 시체는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다. 차의 창문은 모두 닫힌 상태였고, 차 안에는 타다 만 연탄이 있었다.

그녀의 차 안에서는 두 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꺼진 채로 이현미의 백에서, 하나는 짧은 머리로부터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걸려 온 채로 차의 글러브 박스에서 발견되었다.

휴대전화와 더불어 수면제 포장과 생수통이 함께 발견되었다. 그리고 수사진을 의아하게 만드는 하나가 더 있었다. 반쯤 찢어진 종이에 적힌 유서였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현미

부검 결과, 위에서는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었다. 다만 치사량은 아니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수면제를 먹고 연탄에 불을 피운 다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 간 것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의 필적은 이현미 본인의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다.

10

준영은 남 형사와 방청객 속에 섞여 있었다. 자신이 맡은 사건의 선고 공판을 보러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이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곧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입장하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건번호 2011고합19 살인 사건 피고인 정영민.”

사건번호가 호명되고 피고인이 입장했다. 짧은 머리는 긴장한 표정이 아니었다. 체포될 때와 마찬가지로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정 그대로였다. 그의 평소 표정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물은 뒤 바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정영민은 스포츠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이준식의 처 이현미의 청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피고인의 범행은 그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기로 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며…… 이 모든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가 끝났다. 짧은 머리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히죽거렸다. 곧 교도관을 따라 피고인 대기실로 돌아갔다.

이어서 다른 피고인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축 처진 어깨를 한 남자는 누구를 찾는 듯이 방청석을 두리번거렸다. 눈에 초점은 찾기 어려웠다. 수갑을 찬 그의 팔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손에 들고 있던 판결문을 내려놓더니 새로운 피고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헛기침을 했다.

“이번 사건은 방금 선고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부부 사이였다는 점. 그 피해자가 모두 다른 사건의 교사자였다는 점. 그리고 모두 사망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각 피해자가 별개의 계획에 의해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살해된 사건이므로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별도로 판결 선고를 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내려놓은 판결문을 들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2011고합20 살인 사건 피고인 김원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김원식의 어깨는 여전히 축 처져 있었다.

“피고인 김원식은 이현미와 대학 동창 사이로 자신이 영업 사장으로서

근무하던 골프용품점에서 이현미와 우연히 재회한 것을 계기로 간통을 하였고, 이를 이 사건 피해자인 이현미의 남편 이준식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이준식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집에도 알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와 함께 간통에 대한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을 지급하면 간통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제의도 같이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골프용품 수입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이준식에게서 계속적으로 고소와 합의금 지급에 대해 압박을 받은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며,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감액해줄 것을 통사정하였다. 그러던 중 이준식으로부터 간통과 합의금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피해자 이현미를 살해해줄 것을 청탁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궁박한 금전 상황과 상대가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준식은 종속적인 결혼생활,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던 처가의 부도와 그로인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처가와 배우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간통사건을 기회로 이준식이 불러준 대로 피해자가 자필로 받아 적은 반성문 성격의 서약서를 이용하여 자살 사건으로 위장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에 다녀온다는 사실을 미리 이준식에게서 통보받은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수면제, 연탄, 유서를 준비해 두고 자신의 골프용품점 주변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알리바이를 위해 대학 동창을 불러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를 만나 수면제를 탄 드링크제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술자리를 끝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평소 눈여겨 봐두었던 공사장으로 이동한 후 연탄불을 피워…….”

준영과 남 형사는 법정에서 나와 법원 정문을 향해 걸었다. 남 형사는 한꺼번에 두 사건을 깨끗하게 처리했다는 생각에 몇 주 동안 계속 들떠 있는 상태였다.

“이현미 씨 사건은 하마터면 자살로 종결될 수도 있었는데, 선배님 때문에 숨겨질 뻔한 살인 사건을 하나 더 밝혀냈어요.”

준영은 말없이 계속 걸었다. 남 형사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다.

“선배님이 이현미의 위에서 채취된 수면제가 아니라, 같이 검출된 드링크제에 주목했죠. 그래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생수와 함께 먹은 게 아니라 누군가 수면제를 드링크제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걸 추리했죠. 결국 생수통과 수면제 포장은 범인의 속임수였죠. 그게 자살이 살인사건으로 바뀐 계기였죠.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찍힌 전화번호 중 사건 당일 찍힌 일반 전화번호가 공중전화였다는 사실과 그 공중전화가 김원식의 골프용품점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였다는 걸 알아냈을 때 거의 심증을 굳혔죠. 곧이어 차 안에서 발견된 수면제 포장이 우울증과 수면부족이라는 핑계로 김원식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거기서 처방받은 수면제와 일치한다는 사실로 물증까지 확보했죠. 하하. 그걸로 김원식을 추궁하니깐 버티지 못하고 자백을 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속임수였던 유서의 정체도 밝혀냈고요. 결국 찢어진 문서의 윗부분을 변호사 사무실 책장에 있는 법전 사이에서 찾아냈을 때는 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찢어진 윗부분에는 간통에 대한 내용뿐이었는데 절묘하게 밑에 네 줄하고 서명만 찢어서 마치 유서처럼 가장하다니, 이준식 그놈 정말 똑똑한 거 같아요. 하긴 변호사니깐.”

준영은 점퍼 속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탁한 담배 연기를 크게 들이마시더니 한숨을 내쉬듯이 쉼, 하고 뿔어냈다.

“아마 이준식은 유서가 돼버린 서약서를 받기 훨씬 전부터 자기 부인

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 이현미 이름으로 들어 둔 보험은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계약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건 계약 후 2년이 지나야 하거든. 그런데 이현미가 죽은 날은 그 계약일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때였지.”

준영의 담배는 손가락 사이에서 하얀 재와 연기를 만들면서 타들어가고 있었다. 준영은 담뱃불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을 잊은 듯했다.

“이현미는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는 걸 예감했던 것 같아. 여자의 육감 같은 거지.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 없는 무서운 예감 말이야. 그래서 급하게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하지만 둘 다 죽어버려서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준영이 씩 웃었다.

“그런가? 하긴 서로가 상대방을 저세상으로 보내줬으니…….”

준영은 맥없이 타버린 담배꽂초를 땅바닥에 버리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남 형사, 우리 오늘은 삼겹살에 소주 어때?”

“아주 좋죠. 우리 그 사람들 명복이나 빌어주면서 먹을까요?”

“그래, 그거 좋겠다.”



우선 저의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철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전철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1시간 30분이나 됩니다. 빼곡한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소설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철에서 추리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남짓 동안 읽은 추리소설이 장편 30여 편, 단편 100여 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추리소설을 집중적으로 읽다 보니 직접 써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머릿속의 장면들을 억지로 토해내느냐 거의 3주 동안 퇴근 후 몇 시간씩 자판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설 한 편을 겨우 만들어 냈습니다.

어렵게 소설을 완성한 후 느낀 쾌감은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쾌감이었습니다. 물론 문학적성보다는 재미를 추구한다는 추리소설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첫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 창작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공무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문예대전이 나날이 발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문예전이 되길 바랍니다.

동
시
부
문



금상

짝꿍냄새 _ 최만호

은상

얼마나 아팠을까 _ 이정연

손짓 _ 하상만

동상

어린이 도서관 _ 오윤정

우리 누나 _ 오정숙

마지막 수화 _ 이우식

두 나라를 사랑하는 엄마들 _ 하송



작꿈 냄새



청주교도소
최 만 호

슈퍼에서 만난
작꿈 엄마한테서
작꿈 냄새가 났다.

“뭘, 사러왔니?”
묻는 목소리에도
작꿈이 들어있었다.

우리 엄마에게도
친구들이 알 수 있는
내가 숨어 있을까





겨울에는 보통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집이 많은데요, 그렇게 창문을 닫고 생활하다보면, 집안에 음식냄새, 신발냄새, 향수냄새,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애완동물 냄새 등 여러 가지 냄새가 혼합되어 하나의 독특한 냄새를 풍기게 되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냄새는 집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외출할 때 옷이나 몸에 묻어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그 냄새는 다른 사람들에게겐 그 집안 가족 구성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공통분모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퍼에서 만난 꼬마 친구에게도 독특한 냄새가 났는데요,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으면, 거리에서 그 아이의 엄마나 아빠를 만났을 때, 그 아이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동심에 묶어보았던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도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 정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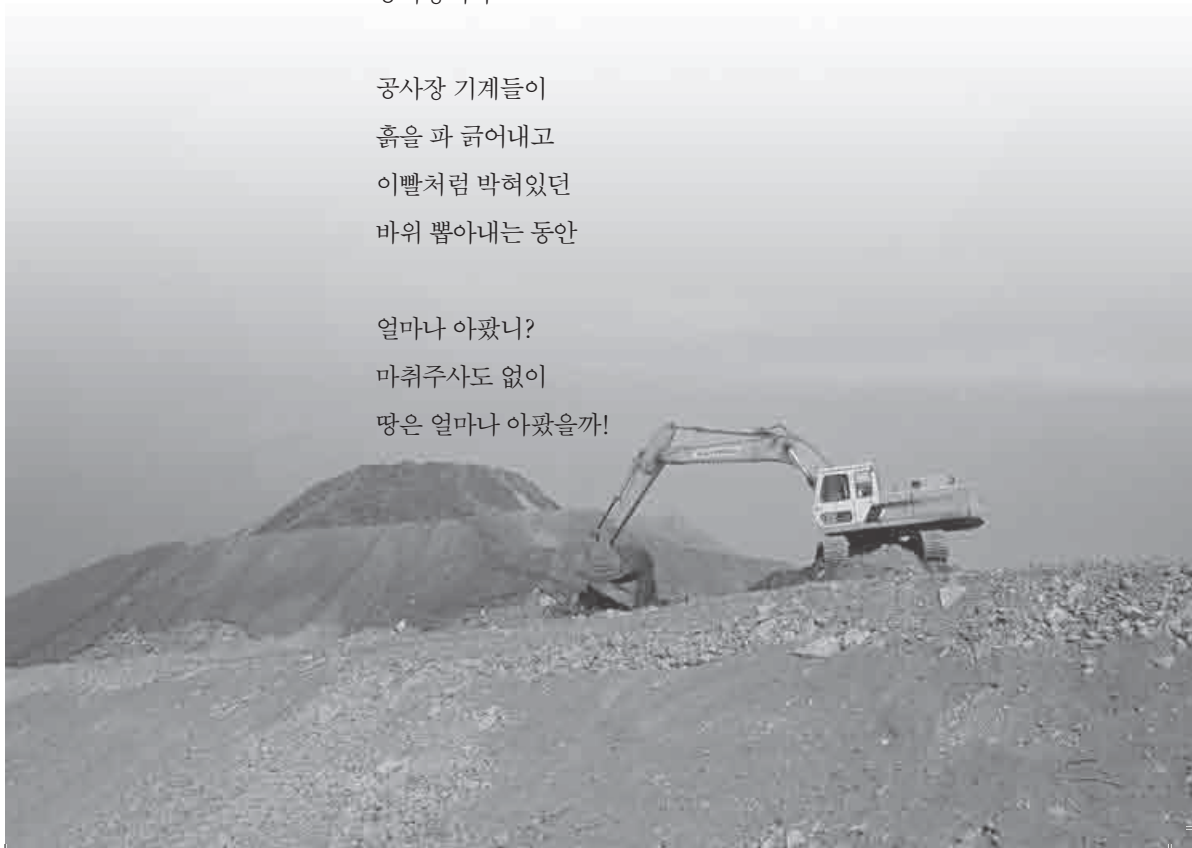
얼마나 아팠을까

썩은 이
치료하고
흔들리는 이
뽑는 동안

내 입속은
기계소리 가득한
공사장이야

공사장 기계들이
흙을 파 끌어내고
이빨처럼 박혀있던
마위 뽑아내는 동안

얼마나 아팠니?
마취주사도 없이
땅은 얼마나 아팠을까!





사람이 태어나 듣고, 말하고, 읽고, 쓰듯 우리나라 좋은 동시들을 알게 되면서 부터 듣고, 말하고, 읽다보니 어느새 동시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일이 몸에 베어 습관이 되는 것처럼 좋아하는 동시를 읽고, 쓰는 일이 저에게는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습관이 공무원 문예대전을 통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동시를 쓰고 전하는 일에 더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제 글을 눈여겨봐주신 김종상, 박성배 심사위원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 주는 가족들, 제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믿고 응원해주는 남편과 영원한 후원자 현규, 현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기쁨이 앞으로도 정직하고 올바른 교사로 살아가도록 지탱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이 보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 있는 들림이 있을 것이라 믿기에 좋은 동시를 많이 읽고,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제 색깔이 묻어나는 동시로 어린이들의 입에서 졸졸~ 시의 넷물이 흐르게 하고 싶습니다.



수원 청명고등학교
하 상 만

손짓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부른다
저 멀리서

입으로 부르지 않고
손으로 부른다

엄마는 손으로 말하고
나는 눈으로 듣는다

책가방도 신발주머니도
마구 흔들리며
달려간다.





내 머릿속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다.
가끔 사진들이 찾아와 스스로를 넘긴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을 완성한다.
한 남자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고
남은 것은 배구공 하나뿐이었다.
배구공에 손바닥으로 얼룩을 만든 남자는
그 배구공에게 말을 걸며
탈출을 준비한다.
마침내 배가 완성되었고 배구공과 함께
바다로 나가던 남자는 거센 파도에 그만
배구공을 놓쳐 버린다.
그때
배구공을 향해
안녕이라고 말하며 애잔한 눈빛을 보내는 남자의 얼굴
그게 내가 가진 사진의 마지막 장이다.
시물에게 말을 걸 수 있을 정도의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시를 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 따뜻함이 없다면
시를 쓰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혼자 길을 나서도
산책길에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사실은 모두 따뜻했다고 생각한다.



대전 동구 자양동주민센터

오 윤 정

어린이 도서관

백설공주를 고르니 인어공주가
픽-하고 토라지네
홍길동을 고르니 전우치가
픽-하고 토라지네
해님과 달님을 고르니 헨젤과 그레텔이
픽-하고 토라지네
개미와 베짚이를 고르니 토끼와 거북이가
픽-하고 토라지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일 또 와야겠다.





어려서부터 책 욕심이 많았던 저에게 수많은 책들에 둘러싸여 책과 함께 숨쉬고, 일할 수 있는 도서관은 단순히 일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첫 공직생활을 한밭도서관 아동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특유의 조용하고 어찌 보면 삭막한 분위기와는 달리 아동 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활기참과 순수함이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글로써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공직생활 2년차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많이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공무원 문예대전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고맙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전남 화순군보건소

오 정 숙

우리 누나

열 살, 우리 누나는
나한테만 대장이다

엄마 아빠 안계시면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꾼

나는 아홉 살
짜증이 나 ping ping 울면
TV 리모컨을 슬쩍
손에 쥐어 준다

나보다 키도 작은데
나보다 힘도 없는데
누나가 뭐라고
대장노릇을 한다





뜻밖의 수상소식에 놀랐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쓴 동시를 보냈는데, 다 부끄러울 뿐이다. 한 살 터울인 초등생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매일 서로 다투는 것을 본다. 그 발단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

한 살 위인 누나를 이기려고 안간힘 쓰는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한다. 나도 “대장을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을 듣고 펜을 들어 작품을 썼다.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

동시의 모델이 되어준 두 아이들과 옆에서 지켜봐 주는 남편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마지막 수화



전. 강원 평창군청
이 우 식

니나,
네가 나에게 하고픈 말
귀 꼭 막고도 다 들을 수 있었어

니나,
내가 너에게 하고픈 말
입 꼭 다물고도 다 할 수 있었어

우리 둘
작고 가냘픈
열 개의 손가락으로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었지
다 들을 수 있었지

엄지손가락
내가 치켜들면
그건 네가 최고인 거구

새끼손가락
내가 내어밀면
그건 둘만의 약속인 거구

불쑥
니나가
전학 가던 날

차창으로
자꾸만 흐르는 손에
두손 모아 감추던 내 눈물.





동시 부문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는데 동상에 당선되어 기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금상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自作 漢詩 한 수로 수상 소감을 대신합니다.

江村紀行(강촌기행)

今朝欲見牧丹花(금조옥견목단화)
滿發塙垣一古家(만발장원일고가)
子婦陽乾烹蕨菜(자부양건팽귀채)
舅姑摘掇刺桐芽(구고적철자동아)
飛來白鷺無踪去(비래백로무종거)
產卵烏鷄有自誇(산란오계유자과)
鳥路如何非可解(조로여하비가해)
探看酒肆與燒霞(탐간주사여소하)

강마을 기행

오늘 아침 모란꽃이 보고싶더니
어떤 옛집 담장에 활짝 피었네
며느리는 삶은 고사리 별에 말리고
시부모는 손으로 두릅을 뜬다
날아온 백로는 자취 없이 가버리고
알을 낳은 오골계는 꼬끼오 소리지르네
새들의 길 어떠한지 알지 못하매
술집 찾아 불타는 노을 함께하리라.
〈이우식 作詩〉

두 나라를 사랑하는 엄마들



완주 용봉초등학교

하 송

오늘 체련공원에서 다문화가정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응원석에는 생김새가 다른 엄마들이
자기나라 국기를 들고
만국기가 되어 가을하늘 아래 펄럭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시스터 바오 씨도
중국에서 온 쟁리슈엔 씨도
러시아에서 온 라지운 리자 씨도
일본에서 온 히메꼬 겐지 씨도
미국에서 온 브라운 하이 씨도

대한민국이 좋아서
산 넘고 물 건너 시집 온 엄마들입니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말씨가 좀 어눌하고 얼굴색이 달라도 목소리는 같습니다
의식 중에는 애국가를 따라 부르고
점심을 젓가락으로 먹는
엄마들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두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두 문화를 이해하고
두 나라를 사랑하는 엄마들
그 엄마들 모두 내 엄마와 똑같은 우리들의 엄마입니다.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신 공무원문예대전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시와도 역시 함께 지내왔습니다. 동시야말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마음의 깊이를 어루만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적지 않은 교직 기간을, 농촌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다문화 가족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과 함께 먼 타국으로 와서 어려운 가운데 곳곳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다문화 엄마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자라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훌륭한 엄마들에게, 미약하나마 힘을 실어주며 용기를 북돋우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만 외치는 인종차별 국가라는 편견을 깨고, 넓은 가슴으로 다문화를 포용하며 세계화에 발맞추며 깨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문화 가족들이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높이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따뜻한 미소와 함께 우렁찬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
화
부
문



금상

부리리의 여행 _ 김연화

은상

백제의 미소 _ 오병훈

동상

똑똑한 뽕뽕이의 반성 _ 강경련

백조가 사는 낚시터 _ 심진규

은하철도 999 _ 이수남

할머니의 비밀 _ 최만호







광주 문산초등학교

김 연 화

부리리의 여행

부리리의 몸이 처음으로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부리리가 처음으로 엄마와 형, 누나를 내려다봅니다.

부리리는 건너온 강의 반대편으로 꺾어봅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 부리리의 몸에 느껴지는 바람이 향기롭습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부리리는 하늘에 몸뚱아리로 그림을 그리며 날아봅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날고 있다구!”

-본문 중에서-



부리리의 여행

부리리가 잠에서 깨었을 때는 햇살이 나무 등지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부리리는 고개를 흔들어 엄마를 찾았답니다. 엄마는 형 휘바나, 누나 바이리와 함께 바깥을 향해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부리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돌려 부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부리리, 잘 잤니.”

엄마의 표정을 보고 부리리는 엄마가 형, 누나와 함께 아침 비행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기 두었던다.”

등지 바깥 쪽, 나뭇잎을 깔아놓은 창고에 부리리가 좋아하는 작은 벌레가 가득했습니다. 부리리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엄마는 휘바나, 바이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인데도 부리리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날 수 없는 걸까?’

부리리는 날개를 펴 보았습니다. 보라색의 윤기 나는 깃털 사이로 숨어있는 뼈대는 아직도 날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리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뼈대가 덜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리리의 뼈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부리리

를 두고 온 가족이 비행을 나갈 때마다 부리리는 우두커니 등지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등지 바깥으로 날지 못하는 부리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부리리는 작은 아기 새였기 때문에 엄마가 부리리를 물고 다니곤 했지만 이제 부리리는 엄마가 물어 나를 수 없을 만큼 커 버렸습니다. 게다가 움직이지 않고 먹기만 하다 보니 부리리는 덩치만 커졌습니다. 하지만 부리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리리는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부리리 가족이 사는 숲을 지키는 훌륭한 새였습니다. 아빠는 큰 새의 공격을 받고 죽고 말았지만 부리리는 용감한 아빠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리리는 아빠처럼 용감한 새가 되고 싶었지만 날지도 못하는 스스로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부리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부리리는 이 등지 밖으로는 이제 정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걸까요? 부리리는 슬플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무를 뚫고 지푸라기로 쌓은 등지 안으로 부리리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리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슬픔을 참아내곤 했습니다. 등지 안에는 부리리의 노래하는 목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행을 나갔다가 돌아온 엄마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는 강 건너 숲에 사는 푸랑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푸랑 아저씨가 다친 날개를 치료해주어 날게 된 새들이 많이 있다는 구나. 푸랑 아저씨께 가보면 무슨 방법이 생길지도 몰라.”

엄마는 들떠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리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는 날지 못하는데 어떻게 강 건너까지 갈 수 있겠어요?”

부리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휘바나와 바이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방법을 생각했다구!”

엄마와 휘바나, 바이리는 그 날부터 튼튼한 이파리를 모아 엮기 시작했습니다. 부리리를 태우고 날아갈 양탄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리리 가족이 부리리를 위해 나뭇잎 양탄자를 준비하는 동안 부리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통통해진 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떨어질까봐 등지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던 엄마가 등지 바깥 나뭇가지를 걸어 다니는 걸 허락해주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나뭇가지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부리리 가족에게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3일 간에 걸쳐 만든 나뭇잎 양탄자의 세 끝을 부리로 묶고 엄마와 휘바나, 바이리는 비행 연습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균형 있게 날기 위해서 방향을 의논하고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연습한 후에 처음으로 부리리를 태우고 주변 비행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푸랑 아저씨가 있는 강 건너까지는 적어도 네 시간을 날아가야 합니다. 강 위에서는 쉴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리리가 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강을 건너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휘바나가 세모 모양으로 된 나뭇잎 양탄자의 앞을 물었습니다. 부리리가 살며시 올라탔습니다. 양 쪽 끝을 엄마와 바이리가 물었습니다. 부리리 가족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도 좋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부리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힘들어 할 엄마와 형, 누나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건 너무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부리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가 지나자 가족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리리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숨소리는 더 잘 들

렸습니다. 부리리는 미안한 마음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세 시간을 더 가야 하는데 나뭇잎 양탄자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와 형, 누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부리리는 가족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 건너 푸랑 아저씨에게 도착할 때까지 노래를 멈추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리리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늘 등지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인지 부리리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부리리의 노랫소리에 지나가던 파랑새 4마리가 부리리의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부리리도, 부리로 나뭇잎 끝을 물고 있는 엄마와 휘바나, 바이리도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파랑새 무리는 곧 부리리 가족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부리리 가족 주변을 맴돌더니 날아와 엄마와 휘바나, 바이리를 도와 나뭇잎을 물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누어들던 무게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파랑새 한 마리는 주변을 맴돌며 힘들어하는 누군가와 자리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시간을 날자 엄마와 휘바나, 바이리 부리에 피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리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더욱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리리도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파랑새 무리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리리 가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어둑해져서야 드디어 강 건너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에 부리리를 태운 나뭇잎을 내려놓고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파랑새 무리를 껴안았습니다. 휘바나도 바이리도 파랑새 무리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랑새 무리가 부리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몹시 지쳐보였지만 부리리를 향해 환하게 웃어보였습니다.

“멋진 노래였단다.”

부리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파랑새들과 인사를 하고 부리리 가족은 서둘러 푸랑 아저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부리리는 조용히 푸랑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인상 좋아 보이는 새 한 마리가 부리리의 가족과 함께 부리리에게 날아왔습니다. 푸랑 아저씨는 한참동안 부리리의 날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리리도 엄마도, 휘바나와 바이리도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습니다. 푸랑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빠대가 자라지 않은 경우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푸랑 아저씨의 말에 엄마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부리리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던 엄마였는데 푸랑 아저씨 말 한 마디에 엄마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리리도 휘바나도 바이리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리리는 여기까지 오겠다고 결심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리리 가족의 눈물에 한동안 말이 없던 푸랑 아저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볍고 튼튼한 나뭇가지가 있는데 빠대 위에 그걸 덧대면 얼마간은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구요?”

푸랑 아저씨의 말에 엄마가 눈물을 멈추고 푸랑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남아있을 때까지만 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무는 더 이상 이곳에서 자라지 않거든요.”

부리리 가족에게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푸랑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가 나뭇가지를 다듬어 가져오는 동안 부리리 가족은 큰 나무 아래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바이리가 말했습니다. 피곤한 얼굴과 달리 바이리의 표정은 밝아보였습니다. 휘바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좀 구해올게.”

그리고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지 몰랐단다, 부리리.”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걸.”

바이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날 수 없는 부리리 때문에 가족들은 비행을 다녀오면 별 말 없이 다들 식사를 한 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를 나눴본 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너희들 아빠가 노래를 아주 잘 불렀지. 우리 부리리가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숲에서 가장 용감했던 아빠는 부리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숲을 공격하는 큰 새 떼를 몰아내기 위해 다른 새들과 함께 싸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밤 비행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어린 부리리를 앉혀놓고 아빠가 본 세상을 이야기 해주시곤 했습니다. 부리리는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그 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간 휘바나가 작은 벌레를 잔뜩 물고 돌아왔습니다. 부리리 가족은 맛있는 저녁을 먹고 큰 나무 아래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푸랑 아저씨는 오늘 저녁에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구멍 안으로 들어가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부리리 가족은 순식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부리리, 내가 왔단다!”

큰 소리에 부리리는 잠이 깰습니다. 어느새 엄마는 바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푸랑 아저씨가 가늘고 긴 나무막대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부리리에게 다가와 날개에 나무막대기를 고정시켰습니다. 부리리가 날개를 펴 보았습니다. 제법 튼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가 여기까지 닳아지면 더 날 수 없을 거야, 부리리.”

푸랑 아저씨가 날개 위에서 한 뼘 정도까지를 가리키며 안타깝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푸랑 아저씨게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푸랑 아저씨가 부리리를 안아주었습니다. 푸랑 아저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부리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부리리.”

엄마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부리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래요. 엄마.”

부리리의 말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니, 부리리. 돌아가지 않는다니?”

“엄마, 난 어차피 조금밖에 날 수 없어요.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면 난 평생 바깥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할 거예요. 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부리리는 밤새 결정한 것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자는 것 같았지만 부리리는 푸랑 아저씨의 말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후에 바깥 세상에 나와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등지에서 바라보던 하늘도, 햇살도,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늘도 햇살도 바람도 다 달랐습니다. 나무도 강물도 다 달랐습니다. 부리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금세 부리리의 결심이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널 기다리마.”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리리가 먼저 날아오르기로 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 만 번 꿈에 날아보았습니다. 부리리가 처

음으로 날갯짓을 합니다. 부리리의 몸이 처음으로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부리리가 처음으로 엄마와 형, 누나를 내려다봅니다. 부리리는 건너온 강의 반대편으로 꺾어봅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 부리리의 몸에 느껴지는 바람이 향기롭습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부리리는 하늘에 몸뚱아리로 그림을 그리며 날아봅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날고 있다구!”

부리리가 크게 소리칩니다. 부리리는 날고 또 날았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을 만큼 날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숲 속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이봐, 여기는 내 집 앞이라구!”

누군가 부리리를 흔드는 바람에 부리리는 잠에서 깹니다. 눈을 뜨니 부리리 앞에 노란색의 작고 날렵한 새 한 마리가 부리리를 못 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여기는 내 집 앞이라구! 네가 그렇게 집 앞을 막고 있으면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노란새가 양칼지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부리리의 말에 노란새가 금방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뭐, 괜찮아. 어차피 잠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니까.”

노란새는 나무 구멍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넌 왜 여기서 잠을 잔거야? 집은 없어?”

“난 여행하는 중이거든.”

“여행?”

여행이라는 말에 노란 새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디를 가는 건데?”

“그런 건 정하지 않았어.”

“잘됐다. 나도 여행을 떠나려던 참이었는데. 혼자 가면 심심하거든. 난 보노라고 해.”

노란 새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부리리도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안녕, 난 부리리야.”

“떠날 곳을 정하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을까? 나는 푸른 섬에 가 볼 생각인데.”

“푸른 섬?”

“푸른 섬에 대해 들어본 적 없어? 맛있는 과일과 작은 벌레가 가득하고 멋진 나무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지. 바다 한 가운데 있어서 새들 말고는 찾아갈 수가 없는 곳이라서 더 멋진 곳이지. 아주 멀긴 하지만.”

“어디에 있는데?”

“이 강을 따라 쪽 내려가다 보면 강 끝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 바다 위로 5일쯤 날아가면 있다고 들었어.”

부리리는 끝없이 펼쳐진 강과 자신의 날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 날개가 그 곳에 도착할 때까지 날 수 있을까?’

부리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부리리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로 이미 마음먹었으니 못해볼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리리와 보노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보노는 아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가장 맛있는 과일나무가 무엇인지 작은 벌레가 많은 곳은 어

디인지 날개가 지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을 부리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 때 부리리가 노래를 불러주면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늘 아래 펼쳐진 강과 숲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가끔 부리리는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부리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형, 누나를 생각했습니다.

‘잘 있는 거죠? 보고 싶어요.’

부리리는 마음속으로 가족들을 불러보았습니다. 보노와 여행을 시작한지 3일째 저녁, 빈 등지를 찾아 쉬던 부리리는 날개를 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나뭇가지가 닳아져있었기 때문입니다.

‘푸른 섬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며칠을 날다가는 금방 다시는 날 수 없게 되어 버릴 거야.’

부리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을 따라 펼쳐진 숲길은 날지 않고 걸어서도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강이 끝나 바다를 건널 때만 날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든 날 수 있는 보노와 계속 여행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리리는 잠깐 잠이 들어있는 보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노와 곧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리리는 뭔가를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보노는 부리리가 사귀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부리리는 저녁 식사거리를 찾아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완전히 비행에 익숙해진 부리리는 금방 맛있는 저녁거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딜 다녀온 거야?”

걱정을 한 모양인지 빈 등지로 돌아오는 부리리를 보자마자 보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녁 식사거리를 구해왔어.”

“이건 늘 같이 했던 거잖아. 잠에서 깨서 없으니 걱정했다구! 내일부

터는 잠들지 않을 테니 같이 해야 해!”

부리리는 저녁을 다 먹고 보노에게 이별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노, 내일부터는 너와 함께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뭐라구?”

보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리리는 이제까지 부리리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날지 못하고 둥지에 있었던 일, 가족들과 함께 힘들게 푸랑 아저씨를 찾아간 일, 푸랑 아저씨가 연결해준 나뭇가지로 간신히 날고 있는 일 등을 모두 이야기 했습니다.

“난 이 강이 끝날 때까지는 되도록 날지 않으려고 해. 내 날개를 아껴야 하거든. 네가 먼저 가 있으면 우리는 푸른 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도 너와 함께 할 테니.”

보노가 미소를 띄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와 함께 건넌다는 말이야.”

“왜? 넌 날아서 가면 훨씬 빨리 푸른 섬에 갈 수 있잖아.”

“빨리 도착하는 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너와 함께 가고 싶어졌거든.”

“하지만, 잘 날 수 있는 네가 나와 함께 걸어야 하는 건 분명 불편하고…… 또…….”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 부리리. 난 너와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다구!”

다음날 아침, 부리리와 보노는 조심스레 둥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숲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노, 정말 괜찮겠어? 우리 같은 새들이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건 위험하다구.”

“그런 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걸?”

보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숲을 지나는 건 생각보다 꽤 짧은 일이었습니다. 부리리는 발끝으로 느껴지는 흙과 나뭇잎의 느낌이 기분 좋았습니다. 하늘을 날면서 내려다보기만 했던 나무를 올려다 보는 일도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보노, 저것 좀 봐.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게 꼭 햇살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것 같아.”

부리리의 말에 보노가 크게 웃었습니다.

“부리리, 너의 노래를 듣고 싶어. 노래를 불러줘.”

부리리는 보노와 숲길을 걸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던 다람쥐가 부리리와 보노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보노, 저것 좀 봐. 저건 뭐지? 꽃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앞서가던 부리리가 소리를 지르자 보노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부리리, 저건 버섯이라고 하는 거야”

“버섯?”

“그래, 저렇게 색깔이 예쁜 것은 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절대 먹으면 안 돼.”

“보노, 넌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구나.”

부리리와 보노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먹이를 찾을 때면 그들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세상, 땅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도 달랐지만 두 세상 다 부리리와 보노에게는 신기한 세상이었습니다. 밤에는 위험을 피해 높은 나무의 빈 등지를 찾아 잠이 들었습니다.

“보노, 다리 아프지 않아?”

“응. 다리가 아파.”

대답하던 보노가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왜 웃는 거야?”

“다리 아픈 새래. 정말 재미있지 않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보노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재미있는 거야? 넌 날 수 있는데도 다리 아프게 걷고 있잖아. 그게 재미있어?”

“응, 재미있어. 어떤 새가 다리 아프게 걸어보겠니? 우린 다른 새들이 안 해보는 걸 하는 거잖아. 난 그게 재미있어. 신난다구!”

보노의 말에 부리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지 못할 때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차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숲길을 걷는 일도 분명 신나는 일입니다. 높이 날 때는 보지 못한 예쁜 꽃, 풀들을 마음껏 볼 수도 있고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기도 하지만 다른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뭇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보는 일도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는 일도 기어 다니는 작은 벌레들을 보는 일도 새로운 일입니다. 부리리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보노가 새삼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보노.”

“무슨 말이야, 부리리. 나도 네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어.”

“그래도 고마운 걸.”

“부리리, 노래 한 곡 해 줘. 네 노랫소리를 들어야 잠 들 수 있을 거 같아. 난 네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고마운 걸”

부리리가 작은 목소리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리리의 노랫소리에 보노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리리와 보노는 또 다시 강 끝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보니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어두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보노, 우리 날아서 갈까?”

“어제 저녁 식사거리를 찾아서 너무 많이 날지 않았어? 네 나무 닳아
져있던데 이 정도는 걸어서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부리리는 보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두운 숲길을 절반쯤 지났을 때
바스락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리리, 소리 들었지?”

“응.”

부리리가 두려운 마음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
무가 어찌나 울창한지 하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확”

소리와 함께 숲길에서 산고양이 한 마리가 부리리와 보노를 향해 달
려들었습니다. 부리리와 보노는 소리를 지르며 날갯짓을 시작했습니
다. 나무가 울창했고 나무 덩굴이 엉켜있어서 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산고양이는 사나운 소리를 내며 발톱을 세워 부리리와 보
노를 쫓아왔습니다. 부리리와 보노는 있는 힘껏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보노, 저기야!”

부리리가 우거진 나무 숲 사이에서 햇살이 들어오는 곳을 발견했습
니다. 부리리와 보노는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언제 어두운 숲
길을 지났냐는 듯이 끝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둘은 말없이 한
참을 날았습니다. 그러다가 높은 나무 위 빈 등지를 발견하고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만에 보노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리리, 넌 미안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알고 있지?”

“.....”

“난 지금이 아주 좋아. 걸을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지금이.”

보노의 말에 부리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보노, 나는, 아니 우리는 참 행운이야, 그렇지?”

부리리의 말에 보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야기 그만 하고 네 날개 좀 살펴보고 쉬어. 오늘은 내가 저녁 식사 거리를 구해볼게.”

보노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부리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아빠, 형 휘바나, 누나 바이리, 푸랑 아저씨, 보노, 지나가다 본 다람쥐, 오늘 낮에 만난 산고양이까지 어느 누구도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건 사랑이든 어려움이든 지금 이 순간의 부리리를 있게 해 주었습니다. 부리리는 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는 지금이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등지에서 내려 온 부리리와 보노는 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 강 끝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리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햇살이 부리리와 보노를 비춰주었습니다.



교사로서 올해 네 번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잔소리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러는 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라고 내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직업을 가지면 꿈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업과 꿈은 별개의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스스로 찾게 된 제 꿈은 글과 함께 하는 삶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저에게는 꿈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공무원 문예대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주말이면 제 손을 잡고 서점에 데리고 가주셨던 부모님과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의 오빠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삶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 저만의 ‘레드 오렌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고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제게 주어진 일들에 의미를 찾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충남 서산시청
오 병 훈

백제의 미소

할아버지는 꿈에서 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백제인의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이제 할아버지가 백제와 백제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백제의 미소를 영원히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제인의
미소를 암석에 조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백제의 미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합동으로 공격하여 백제를 궁지에 몰아넣을 즈음이었습니다. 백제에 한 석수장이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푸른아라였습니다. 푸른아라 할아버지는 아들만 셋이었는데 아들들이 젊은 나이에 모두 전쟁터에서 죽고 아내마저 병으로 죽어서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여 약해질 대로 약해진 백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면 백제가 다시 대제국이 될 수 있을까?하는 그 궁리로 가죽 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이겨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푸른아라 할아버지는 자신이 사는 산골에서 시장이 있는 성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성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색이 모두 어두운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장 밥집에서 앞자리에 앉은 두 소금장수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콧수염이 긴 사내가 눈썹이 진한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에서 열심히 살면 뭐해! 당나라에 끌려가 노예가 될 텐데.”

“그래 맞아. 당나라 군사들이 우릴 그냥 두겠어?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 우리 백제가 이렇게 망하게 되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렸어. 우리 술이나 마시자고, 취하자고.”

“그래 열심히 살면 뭐해. 마시자, 마셔.”

푸른아라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어이 두 사내 분,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 현재 우리 백제의 상황을 모르오. 내게 전쟁 상황을 좀 알려주겠소.”

할아버지의 말에 눈썹이 진한 사내가 술잔에 술을 가득 부으며 탄식을 하였습니다.

“망했소. 다 망했소. 찬란한 백제의 모든 것이 다 망했소.”

“망했다니, 우리가 사는 이 성은 아직 안전하지 않소?”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콧수염이 긴 사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의자왕이 사는 부여가 당나라군사에 함락되었단 말을 못 들었소?”

푸른아라 할아버지는 천둥소리에 놀라듯 기겁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참말이요? 우리가 있는 이 도시는 이렇듯 평온한데, 부여가 함락되었다는 그 말이 참말이요?”

“그렇단 말이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성주가 워낙 지략가요 인격자요 뛰어난 장군이어서 적이 함부로 침입을 못하는 거요. 백제의 영토는 거의 다 함락되었소. 몇몇 성을 빼고는 말이오.”

“하지만 우리 성도 그리 오래가진 못할 거요. 왕도 잃고 수도도 잃었으니.”

눈썹이 진한 사내가 다시 탄식을 하였습니다.

푸른아라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영영 울었습니다. 두 사내도 할아버지의 통곡소리에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만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가게 주인아주머니도 옷자락으로 눈시울을 닦아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집에서 한참을 운 뒤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서인지 할아버지는 새벽이 돼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노곤한 기운에 할아버지는 씻지도 않고 안방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가 어깨를 흔드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안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구름위에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는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부처님은 구름위에 등등 떠서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푸른아라 할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예, 부처님. 말씀 낮추십시오. 저에게 존댓말을 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의 누추한 집을 방문해 주시니 저에겐 영광입니다. 제가 얼른 상을 차려서 식사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나와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해 논 밥도 쌀도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할아버지의 주식인 찐 옥수수가 세 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고는 찐 옥수수 세 개를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상을 들고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과 할아버지는 상을 가운데에 두고 앉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 옥수수를 너무 먹고 싶습니다.”

“집에 식량이 부족해서 옥수수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같이 드시죠.”

할아버지와 부처님은 옥수수를 하나씩 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

아버지와 부처님이 옥수수 하나씩을 다 먹자 그릇에 옥수수가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은 옥수수를 부처님에게 권했습니다. 부처님은 한번 사양했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권하자 이내 옥수수를 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처님은 입을 닦고는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염치없이 제가 할아버지의 식량을 축냈네요.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마지막 옥수수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맛있게 먹는 모습에 제가 더 배부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할아버지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 받은 듯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도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십니까?”

부처님은 걱정스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처님. 지금은 마음이 평온합니다. 부처님의 환하고 온화한 미소에 저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마지막 옥수수를 드시고 나서의 부처님의 장난기 어린 미소덕분에 더욱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제 할 바를 다했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부처님 발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처님의 발밑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점점 거세지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생각난 듯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부처님, 저희 백제와 백제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빛을 잃어가는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푸른아라 할아버지.”

부처님은 할아버지를 인자하게 불렀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리고 백제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라가 망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담히 받아들여야지요.”

부처님의 말씀에 할아버지는 침울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백제인들이 환하고 인자하고 여유로운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안방의 천장이 밤하늘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듯 은하수가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꿈에서 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백제인의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이제 할아버지가 백제와 백제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백제의 미소를 영원히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제인의 미소를 암석에 조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미소를 백제의 미소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들은 이 도시의 성주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략가이면서 인격자이면서 뛰어난 장군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미소야 말로 백제의 미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성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안으로 들어오니 상인들과 군인들이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할아

버지는 두건을 쓴 한 행인에게 이 성의 성주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행인은 성주의 이름이 한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성문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떡하면 한피장군을 만날 수 있소?”

“무슨 이유로 한피장군님을 뵈려하는 게요?”

한 군인이 할아버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분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의 싱거운 대답에 몇몇 군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성문을 지키는 군인들의 우두머리는 푸른아라 할아버지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군인들을 시켜서 할아버지를 잡아 묶고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것 놓으시오. 난 한피장군을 만나 봐야 하요.”

할아버지는 거세게 몸부림쳤습니다. 상인들과 행인들은 무슨 소동인가 하고 할아버지와 군인들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땅바닥에 얼굴이 뭉개질 정도로 몸을 군인들에게 놀리면서도 놔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비명을 지르자 군인들은 더욱 거칠게 할아버지를 다뤘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측은하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어라! 멈추라는 한피장군님의 말씀이시다.”

말 탄 한 무리의 사람들이 행인들을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군인들은 그 말에 할아버지를 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말 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가 찾던 한피장군이었습니다.

“당신이 한피장군님이십니까?”

“그렇소, 내가 한피요.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게요?”

할아버지는 한피장군에게 자신이 꾸 꿈의 내용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한피장군은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 이야기와 후손에게 남길 백제의 미소 이야기가 끝나자, 한피장군은 군인들에게 할아버지를 풀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아버지가 새길 조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피장군을 찬찬히 보고는 그의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꿈에서 본 부처님의 미소와 많이 닮은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장군님의 웃는 모습을 조각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 혼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조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푸른아라 할아버지, 제가 곧 화공을 불러 저의 모습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할아버지에게 드리겠습니다.”

한피장군은 곧 자신의 막사로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피장군의 모습을 그릴 화가가 두 사람 앞으로 불러왔습니다. 한피장군은 백제의 전통의상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앞에서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가는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그 그림을 본 한피장군과 푸른아라 할아버지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피장군은 그림을 비단화폭에 넣어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사히 댁까지 가시도록 저희 부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한피장군에게 인사를 한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수행해서 집까지 같이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 집 근처 술 바위산으로 정과 망치를

들고 갔습니다. 산길을 올라 커다란 바위 앞에 다다르자 품속에서 한뢰장군의 초상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근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작업이 끝난 날 밤 불행이도 할아버지의 집에는 당나라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술 바위산에 비추자 은은한 기운이 산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 조각된 백제인이 온화하면서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자로 당선소식을 알고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저의 오랜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에 그동안의 동화를 공부하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저의 머리를 스쳐지나갔습니다.

동화를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정해왕 선생님, 1년 동안 열성적으로 가르쳐주신 백은영 선생님, 동창모 돈들별의 문학 동지인 동기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서산시청 도시과의 인자하신 과장님과 열정적이며 다정다감하신 계장님, 그리고 낭만도시과의 멋진 동료 직원 분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충남대 시목문학동인회의 후배여러분, 그리고 문우인 권혁일군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동화를 써서 행정안전부에서 주신 상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비록 힘든 세상살이에 지친 어린이들이 있어도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동화를 통해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신 행정안전부와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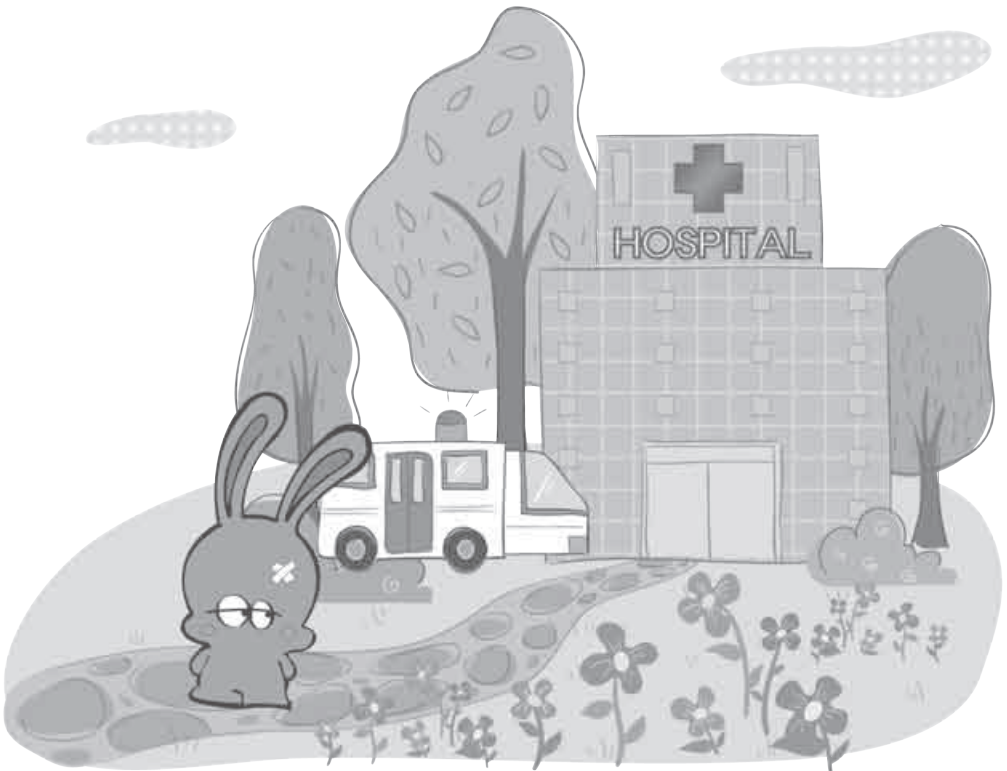
부산소방본부 동래소방서

강 경 런

똑똑한 폴폴이의 반성

폴폴이는 자신의 불편함을 생각하며 했던 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뻔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크게 후회하게 되었어요.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불편 해결’ 보다 ‘생명’ 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본문 중에서-



똑똑한 똥똥이의 반성

햇살이 따뜻하고, 숲이 푸르른 평화로운 마을에서 “갈갈갈”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우리는 그 집이 토끼가족 똥똥이네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직한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은 똥똥이 집이니까요. 오늘은 무슨 일로 저렇게 즐거운지 빨리 찾아가서 살펴봐야겠어요.

“엄마! 엄마! 오늘 칭찬 받을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렴.” 하고 말하며 똥똥이 엄마는 궁금해했죠.

“오늘 학교에서 ‘착한 어린이상’을 받았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선생님이 칭찬하시며 주었어요.”라며 밝게 웃는 얼굴로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어요.

“우리 똥똥이 참 착하구나 앞으로도 착한 어린이로 자라주면 좋겠구나. 호호호!”라며 엄마는 함박웃음을 지었어요.

똥똥이는 신이 나서 “네!” 하며 큰소리로 대답을 했죠.

“똥똥아. 상도 받았는데 엄마 심부름 하지 않을래?”

“하하. 전 착한 어린이니까 당연히 엄마 일을 도와드려야죠.”라며 씩씩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주먼병원’에 삼촌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서 음식을 가져다 줘야 할 것 같구나.”

“삼촌이 아프다니 걱정이네요. 빨리 음식을 챙겨주세요.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뽕뽕이는 ‘아주먼마을’에 가는 것이 멀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삼촌이 아프다는 말에 걱정이 되어서 빨리 가고 싶었죠.

“뽕뽕아 여기 음식이 있으니 조심해서 가져다 주거라.”

“네. 엄마 조심해서 다녀올게요.”라며 씩씩하게 ‘아주먼마을’로 출발하였어요.

버스를 타러 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시습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얼룩말 삼촌 안녕하세요.”라며 밝게 인사를 했어요.

“뽕뽕이 엄마 심부름 가나 보구나.”

“네. 심부름으로 ‘아주먼마을’로 가야해요.”

그렇게 씩씩하게 가던 중 ‘삐뽕 삐뽕’ 빠르게 달려가는 치타아저씨의 구급차를 보았어요.

“빨리 빨리 가야지. 아픈 사람은 나에게 맡겨라. 치타치타”

치타아저씨가 아주 급해보였어요. 응급한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해보였죠.

급하게 가는 치타아저씨를 보던 뽕뽕이는 갑자기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치타 아저씨의 구급차를 타면 아주 빨리 갈 수 있겠는 걸? ‘아주먼마을’은 너무 멀단 말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구급차를 탈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지 내가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면 치타 아저씨의 구급차를 탈수 있겠구나. 난 참 똑똑한 아이야.”

그리고는 바닥을 데굴데굴 굴렀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지나가던 사슴 아주머니가 보시고는 “똥똥아 어디가 그렇게 아프니” 하고 물었어요.

“배가……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사슴 아주머니는 급하게 치타구급대원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치타 아저씨 똥똥이가 배가 아프데요. 버스정류장에서 데굴데굴 구르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빠르게 달려갈게요. 치타치타”

너무 급한 마음에 신호도 지키지 못하고 똥똥이를 향해 달렸답니다.

숨을 ‘헉헉’거리며 치타구급대원 아저씨가 도착했어요.

“똥똥아 어디가 아프니.”

“배가 너무 아파요 ‘아주먼마을’ 병원으로 가주세요.”

치타아저씨는 걱정을 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먼마을’은 너무 멀어서 갈수가 없단다. 가까운 ‘정직한 병원’으로 가자꾸나.”

똥똥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어요.

“안돼요. 안돼. ‘아주먼마을’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그러니 그곳으로 가주세요.”

“이 마을에는 구급대원이 아저씨 혼자란다. 멀리 갔을 때 아픈 사람이 생기면 아주 위험하단다.”라며 걱정스럽게 이야기 했어요.

“안돼요. 안돼요. 꼭! ‘아주먼병원’ 가고 싶어요.”

치타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아주먼마을’로 똥똥이를 데려다 주었어요.

똥똥이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며 아주 좋아했죠. 치타 아저씨의 마음도 모르고 말이죠.

치타 아저씨는 ‘아주먼마을’로 가는 동안 계속 ‘정직한마을’이 걱정이 되었어요.

“‘아주먼마을’ 병원으로 가는 동안 아픈 사람이 생기면 안 될 텐데. 걱정이군.”

걱정스런 마음에 꼬불꼬불하고 좁은 길을 급하게 달려갔어요. 너무 급하게 가서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아주먼마을’ 병원에 도착한 치타 아저씨는 급하게 ‘정직한마을’로 돌아갔어요.

“급한 환자가 생길지도 모르니 빨리 마을로 가야겠구나. 급하다 급해.”

똥똥이는 치타 아저씨가 떠나자 언제 아팠냐는 듯이 콧노래를 부르며 삼촌에게 달려갔어요.

“랄랄라~랄랄라~ 난 참 똑똑한 아이야. 이렇게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니 말이야.”

똥똥이는 아프다는 삼촌만 걱정을 했죠.

“삼촌. 삼촌 똥똥이 왔어요.”

삼촌은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팔만 조금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똥똥아 삼촌한테 오느라 힘들진 않았니?”

“머리를 썼더니 편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히히”

“음…… 그게 무슨 방법이니?”

“아프다고 피병을 부려서 구급차를 타고 왔어요. 히히. 잘했죠?”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어요.

그러자 삼촌이 크게 화를 냈어요.

“똥똥아!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란다. 너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큰 위험이 될 수 있단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똥똥이는 삼촌에게 크게 혼이 났어요.

하지만 똥똥이는 자신이 왜 혼이 났는지 몰랐어요.

“삼촌은 왜 이렇게 편한 방법을 혼을 내는 거지? 똑똑한 나를 칭찬을 해주어도 될 텐데. 구급차는 누가 타든지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야?”

삼촌에게 혼이 났지만 똥똥이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마을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 이번엔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타조 구급대원 아저씨를 부르면 되겠지. 난 참 똑똑한 아이야. 히히.”

“아이고 머리아. 아이고.”

길을 가던 기린 아주머니가 걱정을 하며 달려왔어요.

“똥똥아. 어디가 그렇게 아프니?”

“아이고~ 기린 아주머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타조 구급대원 아저씨 좀 불러주세요.”

기린 아주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급하게 타조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타조 아저씨. 병원 앞에 똥똥이가 쓰러져 있어요. 빨리 오세요.”

“큰일이군요. 빨리 달려가겠습니다.”라며 타조 아저씨는 고개운전을 하며 급하게 달려갔어요.

타조 구급대원 아저씨가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똥똥아. 어디가 그렇게 아프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타조 구급대원 아저씨는 가까운 ‘아주먼병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똥똥이는 머리를 가로 저었어요.

“‘정직한마을’에 집이 있어요. ‘정직한병원’으로 가고 싶어요.”

타조 구급대원 아저씨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주먼마을’에는 구급대원이 아저씨 혼자란다. 응급환자가 생기면 큰일이란다. 그러니 가까운 ‘아주먼병원’으로 가야한단다.”라고 말했어요.

“안돼요. ‘정직한마을’에 집이 있으니 꼭 ‘정직한병원’으로 가주세요. 부탁이에요.”

타조 구급대원 아저씨는 ‘아주먼마을’이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정직한병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똥똥이는 계획이 또 성공했다며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타조 아저씨가 떠났을 때 ‘아주먼마을’에 환자가 생기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니 미소를 지었겠죠.

‘정직한마을’로 가면서도 타조아저씨는 ‘아주먼마을’이 걱정이 되었어요.

타조 아저씨는 급한 마음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을 했죠.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아주먼마을’이 걱정이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직한마을’에 도착한 똥똥이는 신나게 집을 향해 뛰어갔어요. “나보다 똑똑한 아이는 없겠지. 히히. 두 번이나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었으니 말이야. 어휴~ 구급차를 타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코끼리 소방관 아저씨가 급하게 가는걸 보았어요.

“모두 비켜주세요. 큰 불이 났어요. 모두 비켜주세요. 코깰코깰~!”

코끼리아저씨는 아주 급해 보였지만, 길은 막혀서 빨리 갈 수 없었어요.

“코끼리아저씨가 급하게 가는 것을 보니 어딘가에 큰불이라도 났나 보네. 나도 빨리 구경 가야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보니 그곳은 뽕뽕이네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죠.

집안에 사람이 있다며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뽕뽕이는 엄마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 아저씨 집안에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흑흑.” 뽕뽕이는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 아저씨에게 외쳤어요.

코끼리 아저씨가 힘차게 불을 끄고 있었지만 아직도 불길이 높았답니다. 하지만 용감한 호랑이 구조대원 아저씨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불속으로 뛰어 들었죠.

불속으로 들어갔던 호랑이 아저씨가 한참이 지나서야 한명을 구해서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뽕뽕이가 뛰어갔어요.

연기를 많이 마셔 의식이 없는 엄마를 본 뽕뽕이는 “엄마! 엄마! 눈을 떠요.”라며 아주 큰소리로 울먹이며 “호랑이 아저씨 우리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러자 호랑이 구조대원 아저씨는 “지금 치타 구급대원 아저씨가 ‘아주먼병원’에 가서 이 마을에 구급대원이 없단다. 조금만 기다려 보렴.”

뽕뽕이가 “엄마~ 엄마”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엄마를 보며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치타 아저씨가 도착을 했어요. 치타 아저씨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병원에 향해 달려갔어요.

“비켜주세요. 급한 환자가 있어요. 치타치타”

병원에 도착한 엄마는 조금씩 의식이 돌아왔어요.

“엄마. 엄마 눈 떠봐요.”

“아…….”

드디어 눈을 뜨며 뽕뽕이를 알아보았어요.

“내 엄마 구급대원 아저씨들이 도와주셔서 잘 갔다 왔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병원에서 뽀뽀이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뽀뽀이에게 혼을 냈고, 퇴원을 하면 치타 아저씨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약속을 받았죠.

“치타 아저씨 사과드리러 왔어요.”라며 ‘아주먼마을’로 갔을 때의 이야기를 치타 아저씨에게 하게 되었어요.

“뜰뜰아. 구급차는 불편한 사람을 위한 차가 아니란다. 생명이 위험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란다.”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불편 해결’ 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119구급대원으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경험하게 된다. 위급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 할 때는 보람도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약간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119를 부를 때는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119에 신고를 하면, 정작 위험한 사람이 발생하면 대응이 늦어 질수가 있는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의식을 변화 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하면서 동화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게 되었고, 이번과 같은 좋은 기회가 되어 참가하게 되었다. 글을 쓰는 솜씨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지만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재미있는 교육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



음성 맹동초등학교

심진규

백조가 사는 냇시터

“아! 그러네요. 하하하. 맞아요! 백조. 백조네요 우리 아들 녀석이. 어제는 글썽 이 녀석이 아침에 일하러 나오는 제게 춥다고 털장갑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자식 키우는 재미구나’ 싶었다니까요. 다른 애들보다 몸은 좀 불편하지만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이거든요.”

-본문중에서-



백조가 사는 냇시터

내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진성입니다. 진성이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좀 달랐어요. 손은 굵어 잘 펴지지 않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진성이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엄마 한 사람 뿐입니다.

진성이는 올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진성이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일어서 입학식을 할 때 진성이만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도, 애국가를 부를 때도 진성이만 앉아 있습니다. 엄마는 그런 진성이의 곁을 아무 말도 없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진성이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재미있나 봅니다. 분명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친구들과 뛰어 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성이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진성이는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기 때문에 그 웃음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성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지 열흘 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진성이를 데리고 들어온 엄마께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저희 진성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 녀

석이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얼마나 기분 좋아 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예요”

엄마는 전화기를 들고 허공에다가 계속 고개를 숙여대며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학교라니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진성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진성이 담임선생님의 목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그런 건 아니예요. 진성이의 경우는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진성이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구요”

엄마의 눈에 물방울이 맺혔다가 또르르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손등으로 볼을 훔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와 아빠 사이에 큰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게 학교 보내지 말자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아빠는 엄마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는 방바닥에 앉아 진성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으이구, 으이구!”

아빠는 연방 ‘으이구’ 소리만 합니다. ‘으이구’는 아빠가 화를 참을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진성이는 잘 퍼지지 않는 손으로 아빠를 향해 팔을 위 아래로 저으며 잘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엽니다.

“아……. 으……. 어……. 마…….”

“시끄러 이 자식아. 으이구!”

아빠는 더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학교에 가야 뭐라도 배우지요. 그래야 진성이라도 사람답게 살거 아녜요.”

울기만 하던 엄마가 아빠가 나간 방문에 대고 이야기 합니다.

“배우긴 뭘 배워? 배운다고 알아듣기나 해?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싶으면 집에서 밥이나 잘 먹이고 약이나 잘 먹여! 내일부터 학교 보낼 생각 일랑 하지도 말아!”

닫힌 문틈으로 아빠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는 진성이를 끌어안고 또 울니다.

그날 밤 아빠는 밤이 늦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 나갔더니 아빠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웠는데 지금은 아빠가 불쌍해 보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면 아빠는 낚시를 하러 가곤 합니다. 종종 나를 데리고 갑니다.

“민성아! 낚시 가자!”

“네 아빠”

나는 낚시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도 재미있지만 잡은 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먹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데 거실에 있던 진성이가 아빠에게 무언가 내뱉습니다. 까만색 털장갑입니다.

“아 브 추”

아빠는 진성이의 손에서 털장갑을 잡아채서는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야 인마! 누가 너더러 내 걱정 해 달래?”

진성이는 장갑을 다시 씌기 위해 몸을 움직여 보지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 그만 휠체어에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들은 엄마가 달려 나옵니다.

“당신은 왜 애한테 그래요? 진성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으이구! 내가 뭘 죄가 있어서 저런 병신을 낳았는지 몰라. 가자!”

진성이가 뭐라 말하려는 바람에 진성이 얼굴이 더 일그러져 보입니다. 마치 진성이가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낚시터에 가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아빠와 나는 낚시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낚시터의 주인아저씨는 코와 턱에 수염이 덩수룩해서 하품을 하거나 뭔가 먹을 때가 아니면 입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도 많이 나와서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이구 사장님 또 오셨네요! 우리 멧쟁이 총각도 왔네.”

멧쟁이 총각은 아저씨가 날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요즘 날씨 참 춥죠? 벌써 3월 중순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요. 그죠?”

주인아저씨는 아빠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별로 반가운 눈치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고개를 끄덕 하고는 나를 데리고 자리에 앉아 낚싯대를 꺼내고 바늘에 미끼를 끼웁니다.

“이따가 추우면 들어오세요. 라면 끓여드릴게요. 오늘 같은 날에는 뜨끈한 라면 국물이 최고니까요”

미끼를 끼우는 아빠와 나를 향해 주인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아저씨는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빠의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이럴 때면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낚싯줄이 담겨 있는 물만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한참을 앉아 있는데 주인아저씨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립니다.

“라면 좀 드시면서 하세요.”

아저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와 잘 익은 김치가 담겨 쟁반을 들고 우리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참”

“저희 단골이시라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쟁반을 내려놓은 아저씨는 우리가 라면을 먹을 동안 냅싯대를 지켜 주겠다고 하며 아빠가 앉았던 좌대에 앉았습니다.

“아드님이 참 귀엽고 뽀뽀하게 생겼네요. 아빠랑 아들이랑 이렇게 냅시하러 같이 다니는 것 보니 참 보기 좋아요.”

아저씨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 말씀요. 이 녀석이 공부를 얼마나 안하는지 아주 골칫거립니다.”

나는 아빠를 한번 찌러봤습니다. 아저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마음씨도 착하고 무엇보다 저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좋으시겠어요. 부럽네요!”

아빠는 아저씨를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냅시터를 해서 그런지 친척들은 다 그 녀석 보고 미운 오리새끼래요. 몸이 좀 아프거든요”

아저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저수지 너머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운오리새끼는 커서 백조가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빠의 그 말에 사장님은 고개를 우리 쪽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하하하. 맞아요! 백조. 백조네요 우리 아들 녀석이. 어제는 글썄 이 녀석이 아침에 일하러 나오는 제게 축다고 털장갑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자식 키우는 재미구나’ 싶었다니까요. 다른 애들보다 몸은 좀 불편하지만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이거든요”

아빠의 말에 힘을 얻었는지 아저씨는 신이 나서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진성이가 아빠에게 내밀던 까만 장갑이 생각났습니다. 아빠는 라면을 다 드셨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게 잘 먹었습니다.”

“네,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부르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인지 오늘은 고기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나는 짐을 챙겨 낚시터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주인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누군가와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간다고 인사도 할 겸 아저씨가 있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아저씨 앞에는 휠체어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는 한 남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진성이보다 더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이 잘 안 다물어 지는지 침을 계속 흘리고 있었고 아저씨는 손수건을 침을 닦아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장님! 저희 갑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아저씨는 뒤를 돌아 봤습니다.

“아! 예, 벌써 가시게요?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아저씨와 아빠는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저기 손님!”

차로 향하는 우리를 아저씨가 불러 세웠습니다.

“이 녀석이에요”

“…….”

“아까 말했던 미운 오리……. 아니 백조요. 이 녀석이 저희 낚시터 백조예요. 정말 예쁘게 생겼죠?”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아빠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서두릅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아빠의 차를 얻어 타고 가야하기 때문에 더 서둘러야 합니다.

아빠는 집을 나서며 신발장 옆에 있는 까만 장갑을 챙깁니다. 어제 진
성이가 아빠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장갑입니다.

“다녀오세요. 민성이라도 잘 다녀 오구”

문을 열고 나가려던 아빠가 뒤를 돌아보며 엄마에게 이야기 합니다.

“오늘 진성이 데리고 나가서 진성이 다닐 특수학교 좀 알아봐! 언제
까지 미운오리새끼로 키울 순 없으니까”

“네? 미운 오리요?”

“아! 아냐. 그런 게 있어. 다녀올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는 살며시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생활을 한지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일기장을 보면서 아이들의 엉뚱
한 생각에 미소를 머금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보면서 혼자서 슬퍼했
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
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우연한 기회에 문예대전을 알게 되어 출품을 했는데 막상 상을 받게 되니 어리둥절합니다.
이번 수상을 기회로 아이들의 삶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봐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네요.



대구 봉덕초등학교

이 수 남

은하철도 999

주먹이 창기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손깍지 낀 채 두 팔로 얼굴을
감싸고 등에 멘 책가방을 방패 삼아 웅크린 창기를 준석은 보았다.
그렇게도 멀리하고 신발을 감추면서까지 골탕 먹이고 싶어했던 ‘바보’가
지금은 놀림 당하고 위기에 처한 자신을 대신하여 발길질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본문 중에서-



은하철도 999

1

정수리를 내리쬐는 초여름 아침의 햇살은 그리잖아도 새까만 아이들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구워댔다. 남자 아이들의 짧은 머리는 마치 샴워한 듯 젖었고 이마에 맺힌 땀이 금방이라도 주르륵 흘러내릴 것처럼 보였다. 조희대 천막 그늘 밑 교장선생님 옆에 서 있는 준석이 이처럼 부러운 때가 없었다.

“음음, 그러니까 오준석 어린이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가슴에 새기고…….”

족히 5분은 넘겼음직한 교장선생님의 훈화는 찜통더위보다 더 짜증이 났다.

“여러분은 오준석 어린이보다 눈이 하나 없습니까? 다리가 하나 모자랍니까? 음음, 노력하면 된대야 이 말씀입니다, 음음.”

무엇인가 강조할 것이 있을 때면 가래 게워내는 소리를 내는 교장선생님의 습관이 오늘따라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여러분들이 놀 때 놀지 않고, 잘 때 자지 않으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공부한 결과 교육청 영재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음음, 다시 한 번 우리 학교를 빛낸 오준석 어린이에게 큰 박수를 쳐 주세요.”

교장선생님의 제안에 박수와 함께 우, 하는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

다. 선배들과 동기들의 빈정거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준석은 종종히 조희대 계단을 내려 왔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준석의 어깨를 여러 선생님들이 장하다는 듯 툭툭 쳐 주었다.

4학년 반 배정을 받던 날, 친구들은 준석과 같은 반이 되었다는 사실에 불쾌해했다. 외모도 깔끔할 뿐 아니라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석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성적이 우수하다고 잘난 체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티나게 편애하시는 3학년 담임선생님의 태도는 친구들에게 준석을 더욱 미운 털 박히게 만들었고, 교장선생님의 훈화를 계기로 준실모-준석이를 싫어하는 모임-를 만들자는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아, 정말 짜증나네.”

“그러게. 그렇게 잘 났으면 못난 우리랑 왜 같은 반에 다닌대? 대학교에 가든지. 점마 때문에 우리가 완전 찌질이가 된 기분이지.”

“놔 뒤. 저 잘 난 맛에 살라 그래.”

조희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아이들은 술렁거렸다. 운동회에서 청백 기마대향전을 할 때에도 이처럼 한 마음이진 못했다. 친구들의 기분에는 아랑곳없이 준석은 금박이 둘러진 상장을 보란 듯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렇게 구시렁거리지 말고 공부나 해. 부러우면 부럽다고 할 것이지, 수준 낮은 인간들이 웬 질투야? 부끄러운 줄이나 알라구, 흥.”

2

장미반에 갔던 창기가 돌아왔다. 무언가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뿐이니 장미반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놀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누차 이야기 했지만 애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장미반은 바보들이 모이는 반이라고…….

크고 서글서글한 눈매에 반듯한 이목구비와 건장한 체구인 창기는 외모로만 보아선 특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눌한 행동거지와 더듬거리는 말투, 그리고 질문의 내용에 관계없는 오직 하나의 대답 ‘은하철도 999’는 창기를 보통 또래들과 구별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이 탄 우주선 이름은 무엇일까요?”

“은하철도 999!”

당황한 선생님은 아하, 은하철도 999도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라며 얼버무리느라 진땀을 뺐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겠어요. 이 글에서 아버지는 왜 툇이를 내쫓았을까요?”

주저함이 없는 창기는 이번에도 예외 없이 손을 들었다. 그것도 자기를 꼭 시켜달라는 표정으로 팔을 흔들어가며 엉덩이를 들쭉거렸다. 선생님은 내심 걱정을 하면서도 실낱같은 기대로 창기를 지명했다.

“으, 은하철도 999인미다.”

교실이 뒤집어졌다. 책상을 두드리며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고, 그 아이들을 진정시키느라 선생님은 책상 위의 종을 세 번이나 쳐야 했다.

“나, 이거, 이거, 타고 시따.”

자리에 앉은 창기는 공책을 펴더니 두 페이지 가득 기차를 그려대기 시작했다. 이미 창기의 연습장과 공책, 교과서에는 크고 작은 비뚤비뚤한 기차가 수도 없이 그려져 있었다.

준석은 창기를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 힐끗 쳐다보고는 머리 옆에서 손가락 원을 두세 번 그렸다. 웃음거리인 창기가 하필이면 자기 짝꿍이

라는 사실이 짜증나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 선생님께 전화해서 제발 짝꿍 좀 바꿔달라고 해. 내 짝만 보면 완전 돌아버리겠다니까.”

“그런 소리 하면 못 써요. 낮가리는 창기가 유독 널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어 한다며 담임선생님이 특별히 부탁하시던 말씀, 잊어 버렸니?”

어머니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기특한 반면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아들이 염려되어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3

여름에 체험하는 스케이트장의 차가운 공기와 얼음은 아이들을 더욱 신나게 했고, 두 시간여 스케이트를 탄 아이들이 내뿜는 가쁜 숨과 함께 헬멧을 벗는 정수리 위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대천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장갑, 모자, 가방 등 자기 물건을 잘 챙겨서 십 분 후 매점 앞에 반별로 모이세요.”

“벌써 마칠 시간이야? 에이.”

하며 아쉬워하는 친구들과 달리 준석은 자기만 줄줄 따라다니는 창기를 피해 일찌감치 운동화로 갈아 신고 매점에서 산 핫도그를 한 입 베어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반납하고 분주히 자기 짐을 챙기고 있을 때였다.

“어, 어, 선생임, 내 신발가 없어요. 초록 거.”

얼음이 녹아 온통 축축해진 고무바닥에 양말 바람으로 창기가 동동거리며 서 있었다. 두 발을 모아 비비면서도 발이 시리다는 생각보다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창기에겐 몹시도 당황스러운 사고였다.

“신발이 없어 질 리가 있나? 어디 벗어 두었는지 다시 잘 생각해 봐.”

선생님이 여기저기 서둘러 살펴보았지만 아이들이 다 모여 줄을 설 때까지도 창기의 신발은 눈에 띄지 않았다.

“어, 어, 내 신발, 어, 어딴지?”

창기가 찾기를 포기한 듯 소리 내어 울 지경이 되었을 때, 화장실을 다녀오던 옆 반 명수가 신발 한 켤레를 들고 소리쳤다.

“선생님, 이거 화장실 휴지통에 있었어요.”

“어, 엉, 내 신발!”

선생님이 뭐라 할 새도 없이 창기가 좋아라 달려가서 신발을 받아 들었다. 누가 숨겼는지, 왜 그랬는지, 학교에서였다면 선생님은 밝혀내고야 말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오래 대기한 버스 때문에 서둘러야 했고 찾았으니 됐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4

준석은 아침에도 여전히 속이 좋지 않았다. 새벽에 두 번 화장실을 다녀왔지만 살살 배가 아파오면서 이내 설사가 났다. 잠을 설친 준석을 위해 어머니가 죽을 쑤어 주었으나 한 술도 뜨기 싫었다.

“우리 아들, 설사를 해서 힘이 없을 텐데, 오늘 하루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에이, 됐거든. 내가 쉬는 사이에 친구들이 공부해서 뒤쳐지긴 싫어. 약 먹었으니 괜찮겠지, 뭐.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말씀을 들을 걸 그랬나, 싫게 준석은 학교 교문이 저만치 보일 때 쯤 다시 용변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다급한 마음에 교문에서 제일 가까운 본관 건물 화장실로 뛰었다. 불편하게 켜 걸음으로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아차, 준석은 바짓가랑이가 뜨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화장실을 나오던 같은 반 친구 태호가 준석을 발견했다. 하필이면 그 날은 교무실 청소 당번날, 태호는 청소를 핑계로 누장을 부리며 1교시 수업에 늦을 참이었다.

하얗게 질린 준석의 얼굴이 아니더라도 흠흠, 풍겨오는 야릇한 냄새 때문에 태호는 단박에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태호는 친구의 실수를 덮어줄 만큼 아량이 넓은 아이가 아니었다.

소문은 화선지에 떨어진 먹물처럼 순식간에 아이들 사이에 번져갔다. 준석이 누구이던가? 천하의 영재이자 우리 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영웅이요, 선생님들의 든든한 총애를 등에 업고 있어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을 것 같던 존재가 아니었던가? 그런 준석이 글썽 ‘똥’을 쏘단다.

그것은 준석에게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해 억눌려 있던 친구들에게 통쾌한 뉴스였고, 학업에 그다지 취미가 없는 아이들에겐 더 없이 재미있는 놀이감이었다.

삼삼오오 복도나 화장실에서 모였다 하면 그 이야기였다. 수군거리고 킁킁거리는 친구들의 내막을 모를 리 없는 준석에게 그 날 이후의 하루하루는 생지옥이었다.

‘전학을 가 버릴까? 그래, 그 방법밖엔 없어. 하지만 길만 건너면 되는 가까운 학교를 두고 전학을 가겠다고 하면 엄마가 들어 주실까?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 땐 뭐라 하지?’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바지를 갈아입으러 집에 다시 돌아갔을 때도 엄마 몰래 바지를 빨아 숨겨 놓고 그냥, 준비물 잊어버린 게 있어서, 라며 아닌 체 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마주치는 친구들의 눈빛이 두려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험 성적 따윈 더 이상 준석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 때 태호만 만나지 않았어도…….’

준석은 그 때 그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태호에게 뿔어 앉아 빌어도 좋을 것 같았다.

5

“이 분이 누구시더라? 우리 학교 천재님이 아니신가?”

“으잉? 그러고 보니 조회 시간에 많이 보던 분이네.”

“야, 이거 영광인걸. 유명하신 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다니, 크크.”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어가던 준석을 상급생 세 명이 순식간에 에워쌌다. 친구들의 놀림을 피하고자 하룻길에 일부러 한적한 골목길을 택한 것이 화근이었다.

‘헉!’

공포가 밀려오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준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셋 중 하나가 주먹을 쥐락펴락하며 씹고 있던 껌을 투, 뱉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가르쳐주라. 우리는 여태 선생님의 칭찬이라고는 들어보질 못했거덩. 그래서 체질적으로 너 같은 애를 보면 두드러기가 일어난다니까.”

옆에 있던 또 한 명의 비아냥이 이어졌다.

“그런데 요즘은 기가 폭 죽었더라? 쿵쿵, 이 냄새가 바로 그 냄새? 푸 하하하!”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손사래를 쳐가며 참을 수 없다는 듯 한참을 웃

어제끼는 동안 준석의 얼굴은 치욕감으로 일그러졌다. 그 모습을 본 상급생이 금세 정색을 한 표정으로 손가락뼈를 눌러 우두둑, 소리를 냈다.

“왜? 기분 나쁘냐? 네가 남 무시하는 건 괜찮고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이거냐? 그게 다 선배를 잘 모시고 용돈을 상납할 줄 아는 예의 범절도 못 가르친 이 선배님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냐?”

강한 힘에 의하여 준석의 무릎이 강제로 꿰리고 발길질이 날아들 찰 나였다.

“하지 마!”

누군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고 상급생들이 멈칫 뒤를 돌아보았다. 준석을 저만치에서 뒤따라오던 창기가 골목으로 들어서며 본능적으로 소리친 것이었다.

“하, 하지 마라. 으, 은하철도 999 온다.”

갑에 질린 창기가 입술만 달짝거리며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고, 이젠 웬 방해꾼이냐, 주먹이 창기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손각지 낀 채 두 팔로 얼굴을 감싸고 등에 멘 책가방을 방패삼아 웅크린 창기를 준석은 보았다. 그렇게도 멸시하고 신발을 감추면서까지 골탕 먹이고 싶어 했던 ‘바보’가 지금은 놀림 당하고 위기에 처한 자신을 대신하여 발길질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창기야…….’

준석의 눈자위가 벌게지며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다.

“잠깐, 아까 임마가 119 온다 하지 않았냐? 경찰이 온다는 말인 거 같지 않냐?”

“그러게. 나도 그렇게들은 것 같은데……. 야! 튀어!”

상급생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고 난 골목길에 두 친구가 덩그러니 남았다. 못 본 체 그냥 지나가지 그랬니, 라는 말을 준석은 목구멍에

서 꿀꺽 삼켰다.

“안 아프다. 바지 더럽다.”

창기가 일어서며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었다. 그리고는 운동화 발자국이 뿌옇게 찍힌 가방을 앞으로 안고 뒤적이더니 알림장을 꺼냈다. 준석의 알림장이었다. 알림장을 빠뜨리고 먼저 교실을 나간 준석이 걱정되어 뒤따라 온 것이었다.

“이거, 네 거. 숙제 모른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창기를 바라보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며 준석은 어두웠던 골목길이 갑자기 환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6

대천초등학교에는 매년 7월 7일에 열리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맛있는 과자를 사 와서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만큼이나 고대하는 날이기도 했다. 〈칠칠데이〉라 불리는 이 날의 규칙은 반드시 자기가 모은 용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준석에겐 ‘강 건너 불’이었다.

하지만 며칠째 광대뼈 주변으로 퍼런 멍이 들어있는 창기를 보면서 도 고맙다는 말 한 마디 할 용기를 내지 못한 준석은 다가오는 〈칠칠데이〉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다.

군대 간 삼촌에게 선물 받은 후 이 년 간 한 번도 열어 본적이 없는 로켓저금통을 깨자 꼬깃꼬깃 접혀 있는 지폐와 누렁고 하얀 동전들이 좌르르 쏟아졌다. 준석은 종이돈을 정성스레 한 장 한 장 펴 놓고, 동전은 같은 크기대로 쌓아 세어 보았다. 세는 데만 삼십 분이 넘게 걸렸고, 준

석은 지퍼백에 그 돈을 고스란히 넣어 슈퍼마켓으로 뛰어갔다.

“친구들과 철철 넘치는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깨동무 내 동무〉를 배경 음악으로 울려 퍼지는 전교 방송 소리와 함께 파티가 시작되었다. 왁자지껄 아이들 웃음소리와 들뜬 표정들 사이에서 창기는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였다. 아무도 창기에게 사탕 하나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도 어, 어, 과자 먹고 시따.”

그 때였다. 몇 번을 망설이던 준석이 마침내 용기를 냈다.

“창기야, 나랑 같이 과자 먹자. 내가 너 주려고 갖고 왔어.”

순간 ‘잘난 준석’이 ‘바보 창기’를 위해 과자를 갖고 왔다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준석에게 쏠렸다.

“하, 하,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들. 너희들 것도 내가 다 준비했어. 정말이야. 볼래?”

준석이 커다란 점정 비닐을 거꾸로 들자, 리본으로 정성껏 포장된 초콜릿 세트와 과자 봉지가 책상 가득 쌓이고 넘쳐 바닥으로 떨어졌다.

“준석이가 웬일이야? 우리 걸 다 사 오고?”

“맞다, 맞다. 작년에는 친구들이 주는 과자도 무시하고 안 먹더니.”

“어, 이걸 내가 좋아하는 진드기 젤리닷!”

친구들은 그 동안 놀려뒀던 일이 무안하지도 않은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준석에게 모여 들었다.

“크, 난 무엇이 찢든찢든한지 알지!”

갑자기 준석에게 쏠린 관심과 분위기에 소외감을 느낀 태호가 준석의 자존심을 건드리려 비꼬는 말을 슬쩍 던졌지만 맛장구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기와 어깨동무를 한 채 과자를 나눠 먹고 있는 예전

같이 앉은 준석의 모습이 태호는 왠지 부럽고 속상했다.

‘쳇, 뭐야? 저 자식!’

7

창기와 준석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키다리와 장달이, 똥똥이와 훌쭉이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하면서도 너무나 호홉이 척척 맞는 콤비였다. 준석은 하나부터 열까지 창기를 챙겨 장미반에 데려다 주었고 준석이 당번 일로 늦는 날은 콧물을 훌쩍거리며 창기가 기다려 주었다. 어느새 준석과 창기에겐 ‘바늘과 실’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친구들은 재수 없게 잘난 체 하던 준석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선생님이 오후에 있을 학급회의 시간에 중대한 발표를 한다며 아침부터 뜬을 들였다. 오후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아우성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알았다며 웃었다.

“여러분, 얼마 전 있었던 인기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치러져 공정성이 보장되었다는 점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두두두,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선생님은 목청을 한껏 돋우었다.

“이번 인기투표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오준석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우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준석의 머리카락을 흘트리며 장난치는 친구,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축하했다.

“제가 오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준 창기에게 은하철도 999 승차권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준석의 장난기 섞인 소감 발표에 친구들과 선생님의 웃음보가 터지고, 창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교실 창문으로 새어나간 함성과 웃음소리는 운동장에서 수업하던 아이들을 한참이나 궁금하게 만든 후 하늘로 울려 퍼졌다.



똑똑똑

수업 중 휴대폰 문자 도착 신호음이 조용한 교실 공기를 갈랐다. 당선 소식이었다. 진동모드로 바꾸는 걸 깜박했네, 머쓱해하던 담임의 표정이 벅찬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을 함께 한 아이들, 자신들도 선생님의 손끝에서 언제든지 동화 속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다며 자세를 고쳐 잡는다. 덤으로 얻은 수확이다.

언젠가는 내가 쓰고 그린 동화책 한 권을 세상의 아이들에게 안겨 주리라 꿈꾸었는데 이제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니, 나의 처녀작이 이렇게 소중한 수가 없다.

엄마의 동화를 재미있게 읽어주어, 출작임에도 감히 출품할 엄두를 내게 해 준 쌍둥이 딸들과 “하이고, 주야 오마이, 축하한데이!”라며 당신 일처럼 기뻐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린다.



청주교도소
최 만 호

할머니의 비밀

“에게, 뭐야?”

보자기 속에는 내가 1학년 때 썼던
국어 교과서와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눌러 썼는지 끝이 뭉툭한 연필
한 자루도 들어 있었습니다.
8칸짜리 공책 속에는 한 자 한 자
공들여 쓴 글씨들이 애벌레처럼
칸칸마다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중에서-



할머니의 비밀

“엄마! 할머니 이상해. 내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니까 무얼 급히 숨기시는 거 있죠?”

내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말하자, 엄마는 재빨리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쉬잇!”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할머니는 내가 오카리나 연습하고 오는데 장롱 속에 무얼 재빨리 감추시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나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뭘 숨기셨는지 말해 주세요?”

나는 엄마를 졸랐습니다.

“다음에 말해줄게. 지금은 엄마도 할머니의 비밀을 지켜드리고 싶은 걸.”

내가 조르는데도 엄마는 끝내 할머니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신 거지? 할머니 경로당 가시면 한번 장롱을 열어 볼까?’

나는 나쁜 행동인 줄 알면서도 궁금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엔,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오카리나 연주회가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시간에 배운 것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오카리나

선생님은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용 문학제 둘째마당에 우리의 오카리나 발표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본 적이 없는 나는 벌써부터 가슴이 떨립니다.

나는 오카리나와 악보를 챙겨 들고 주영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주영이는 같은 반 짝꿍인데 우연히 오카리나 방과 후 학습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영이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도 선생님의 칭찬을 독차지 합니다. 공부는 물론 운동도 잘해 우리 반 인기 짱입니다. 나는 그런 주영이와 같이 오카리나를 연주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영이네로 가는 내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장롱 속 비밀 따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주영이는 벌써 자기 집 앞에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영이가 얼굴가득 웃음을 띠며 나를 반깁니다.

“오카리나 연습 많이 했니?”

“조금 밖에 못 했어. 주영이 너는?”

“나도, 빨리 가자. 다른 애들이 기다리겠다.”

나는 발걸음을 옮겨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다른 아이들은 벌써 와서 오카리나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만, 다 모였지?”

오카리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함께하는 연주는 남들보다 앞서가서도, 자기만 뒤떨어져서도 안 된다.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알았지?”

“네.”

“자! 그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먼저 연습해 보자.”

선생님은 오른 손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렸습니다. 우리들은 일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민희! 너무 빨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민희! 너만 너무 빠르잖니? 정신을 어디다 두는 거야.”

선생님은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배에 힘을 불어넣어서…….”

오카리나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아오른 얼굴은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주영이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바보같이 그것도 못해.’ 하는 소리가 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희! 잠깐 연주를 멈추고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걸 잘 들어 봐.”

오카리나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애들하고 맞춰가며 연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틈도 주지 않고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나를 아이들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연습실을 뛰쳐나와 집으로 달렸습니다. 오카리나도 발표회도 주영이도 모두 모두 싫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니? 발표회 연습한다며…….”

엄마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오카리나 그만 할래요.”

거실 청소를 하고 있는 엄마의 등 뒤에 대고 그 말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뭐가 빠르다는 거야.”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청소를 하다 말고 걱정이 되었는지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희, 오카리나 연습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구나. 엄마한테 말해보렴.”

엄마는 내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없어요. 그냥 다니기 싫어요. 내일부터 안 갈래요.”

나는 책상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니?”

엄마가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 없어요.”

“네가 연주회한다고 얼마나 좋아한 줄 아니? 할머니한테 매일 자랑했잖니?”

정말 그랬습니다.

오카리나 선생님이 문학제 둘째마당에 우리가 연주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누구보다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제가 오카리나 연주회를 하게 되었어요.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문학제를 하는데 둘째마당이에요. 아빠도 오실 거죠?”

나는 무대에 오른 사람처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카리나 학원에서 이번에 연주회를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꼭 오세요?”

“암, 가고 말고. 우리 민희가 최고로 잘할 거여.”

할머니는 자기 일처럼 좋아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려니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연주회 날을 기다렸는데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연주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속상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미진이, 은영이, 선아, 그리고 주영이, 조금만 참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화난 오카리나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방과 후, 나는 오카리나 연습실로 가지 않고 곧장 학원으로 갔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하시다가 급히 등 뒤로 감추셨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등 뒤에 감추시는 게 뭐예요?”

나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녀.”

할머니는 보자기로 찢은 것을 장롱 속에 집어넣고는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오늘은 꼭 할머니가 장롱 속에 무얼 감추셨는지 알아내야지.’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손 씻고 올게요.”

“그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지만 할머니가 집에 계신 동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수학 숙제를 하며 할머니가 경로당에 가시기만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나갔다 올테니께 엄마 올때꺼정 문단속 잘혀.”

“네, 다녀오세요.”

할머니가 경로당에 가시는 걸 확인한 나는 할머니와 엄마가 오시기 전에 할머니의 장롱 속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몰래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은 할머니가 시집을 때 해 오신 것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오래되어 낡긴 했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애지중지 했는지 어디 하나 흠집이 없습니다. 아빠가 농담으로 골동품상에 주겠다고 했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는 장롱입니다.

할머니의 장롱엔 언제나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옛날 거라서 젓가락 하나면 금방 열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할머니는 꼭 잠그고 다닙니다.

나는 주방에서 젓가락 하나를 가지고 와 자물통에 넣고 일렁일렁 해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물통은 쉽게 열렸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비밀을 향해 손을 장롱 속으로 들이 밀었습니다. 삼베옷을 걸어내자 할머니의 비밀 보자기가 손에 잡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비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에게, 뭐야?”

보자기 속에는 내가 1학년 때 썼던 국어 교과서와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려 썼는지 끝이 뭉툭한 연필 한 자루도 들어 있었습니다. 8칸짜리 공책 속에는 한 자 한 자 공들여 쓴 글씨들이 애벌레처럼 칸칸마다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자기를 다시 싸서 장롱 속에 넣고는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꼭꼭 숨기시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숙제를 끝내고나니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민희, 정말 오카리나 연습실 안 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렴?”

시장에 다녀오시는지 채소를 담은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오카리나 선생님이 나만 너무 빠르대요. 연습하는 내내 혼났어요.”

나는 울먹였습니다.

“혼자 할 때는 잘하는데 같이 할 때는 아니래요. 난 잘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생각엔 네가 무대에 서는 게 처음이라서 긴장을 해서 그런가 보다 연습하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해 보렴. 넌 잘할 수 있어. 엄마는 민희를 믿어.”

엄마가 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비밀 알아냈어요. 장롱 속에 할머니가 무얼 급히 숨기셨는지 말이에요.”

내가 말하자, 엄마는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릴 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여자애들은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집이 많았어. 넌 쉽게 이해 못하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는 글씨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신단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실 땐 글을 몰라도 크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오시면서 경로당 다른 노인들이 컴퓨터로 메일도 보내고 인터넷도 하고 하는 걸 보고는 글을 배우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씀 하셨지. 아주 어렵게 말이야. 너 학교 간 동안 엄마가 열심히 도와드렸더니 이제 읽을 줄은 아신다. 근데 쓰는 게 어려우신지 어느 날 네 책들을 정리하면서 버리려고 모아둔 것을 당신의 장롱 속에 넣어두고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란다. 할머니에겐 책이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건이야. 민희 네가 할머니 장롱을 열어본 건 비밀이야. 그리고 아무리 궁금해도 몰래 장롱을 열어본 건 나쁜 행동이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야. 알았지?”

“네. 엄마!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저도 할머니 공부하는데 도와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하렴.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는 건 정말로 좋은 일이야.”

“네. 엄마!”

나는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오카리나와 악보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엄마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나도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가볍게 날아옵니다.

※ 오카리나 : 찰흙 등으로 만든 서양식 피리.



글을 쓰면서,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는 것이 아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만 보내지는 선생님의 관심어린 눈빛,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 그리고 친구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아이들의 삶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어릴 때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한 할머니의 배움의 열정을 보면서 자신의 의지를 확인해가는 아이를 통해, 아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아이들의 삶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곡부분



금상

울챙이 _ 우혜선

은상

마법의 시계 _ 정수현

동상

레일 위에서 _ 이종수







부산 부전초등학교
우 혜 선

올챙이

최동현: (놀라며) 서 선생님 저기 보세요. 수염 난 올챙이가.

정화영: 다른 수염 난 올챙이를.

박경수: 잡아먹고 있잖아!

김지혜: 그럼 이 안에 있던 올챙이들을.

모 두 : 모두 이 수염 난 올챙이가 잡아먹었던 말이야?

-본문 중에서-



올챙이

나오는 사람들

김지혜(초등학교 새내기 여교사, 20대)

장학사(50대 중반)

황교장(50대 말)

나혁준(남교사, 40 초)

박경수(남, 초4)

정화영(여, 초4)

최동현(남, 초4)

경수모(여, 40대 말)

화영모(여, 40대 초)

제1장 교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막이 열린다. 김지혜 노래를 부르며 청소를 하고 있다.)

김지혜: 경수 안녕!

박경수: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김지혜: 이제 이 동네 지리 좀 익혔니?

박경수: 네.

김지혜: 4학년 올라오면서 시골에서 전학 왔다고 해 혹시나 학교 오는 길 모를까 걱정 했는데 다행이다. 이제 길도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친구를 사귀렴. 그럼 훨씬 더 학교생활이 재미있어 질거야.

박경수: 네.

(이때 화영이 어항 들고 등장한다.)

정화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지혜: (반갑게 맞으며) 화영이 왔구나.

정화영: (어항을 내밀며) 이거요. 일요일 날 식구끼리 계곡에 놀러 갔다 잡은 개구리 알이에요. 우리 교실에서 키우면 올챙이가 되는 것도 관찰 하고 개구리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엄마가 학교 가져가랬어요.

김지혜: 그래 잘 되었네. 선생님도 아직 개구리를 키워 본 적이 없어 좋은 공부가 되겠네. 어머님께 고맙다고 말씀 드려라. (창가에 갖다 놓으며) 개구리 알아, 우리가 잘 돌 볼 테니 빨리 올챙이가 되어 나오렴.

(어느새 교실에 온 동현이랑 경수, 어항에 붙어서 개구리 알을 관찰한다.)

김지혜: 자, 아침 독서 시작하자!

제2장 교장실

(장학사 방문하여 황교장에게 학교 안내를 받고 있다.)

황교장: 본교는 소규모 학교로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공기가 아주 좋고 학생들은 매우 순진한 편입니다. 본교 특색 사업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키우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장학사: (말을 끊으며) 교장 선생님, 소식이 늦으시군요. 올해에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공문을 통해 우리 청에서 몇 번이나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황교장: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키워드인 창의 인성 교육 아닙니까?

장학사: (단호히) 학업입니다.

황교장: 학업이라뇨?

장학사: 성적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짜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활동 결과는 학생들 성적과 비례시켜야 합니다. 이 학교는 작년에 비해 수업 시간을 얼마나 늘렸나요?

황교장: 수업시간은 늘이지 않았고 대신 저희는.

장학사: 이번에 주변 학교들은 거의 수학과 영어 과목을 기준 시수보다 30시간은 기본적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황교장: 아, 예, 그런데 저희 학교는 학부모의 80%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 성적 보다는 아이들의 인성지도가 잘 안되어.

장학사: (말을 자르며) 모든 환경은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교장의 확고

한 의지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야지 왜 환경에 지배를 당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때 날리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학교에서 끝내시렵니까? 제대 말년에는 최소한 문화회관에서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들어가며 퇴임식을 하셔야지요.

황교장: 아이고 제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야 무슨 말씀 인지 알겠습니다.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장학사: (눈치를 보며) 이 학교는 잘 돌아갑니까?

황교장: 잘 돌아 가다니요?

장학사: 학교에 왜 교무부장이 없지요?

황교장: 아, 그건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부장이 4명밖에 없어서.

장학사: 이거 왜 이러십니까. 눈치 9단끼리.

황교장: 무슨 말씀이신지?

장학사: (꺾속말로) 지금 줄다리기 하고 계시죠?

황교장: 예?

장학사: 근평 받을 사람이 많아 조금 힘드시겠네요.

황교장: 그건 …….

장학사: (일어서 창문 밖을 쳐다보며) 화단에 왜 저렇게 풀이 많은지 원. 녹색성장은 잡초를 무성하게 키우라고 한건 아닌 거 같은데.

황교장: 저건 풀이 아니고 여름에 노랗게 피는 루드베키아라고.

장학사: …….

황교장: (표정을 살피며) 아이고 뽑아야죠. 당장 뽑겠습니다. 먼 거리 오신다고 수고 하셨는데 저기 삼거리 쪽으로 가면 …….

(두 사람 나간다.)

제3장 교실

(아이들 건강식품을 수시로 먹어가며 공부한다.)

김지혜: 쉬었다 하자.

(화영이와 동현이는 계속 꼼짝 안하고 문제 푼다. 경수는 눈치를 보며 어항 쪽으로 간다.)

박경수: (큰소리로) 선생님! 올챙이가 나왔어요!

최동현: 어디? 진짜네.

정화영: (일어나 다가간다.)

김지혜: 그래? 우와, 어느새 조그만 올챙이로 변했네. 바쁘게 살다보니 하루가 언제 갔는지도 몰라 널 챙겨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올챙아.

박경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스물세 마리예요.

최동현: (어항 속 올챙이를 가리키며) 어? 그런데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세 마리는 다른 올챙이랑은 좀 달라요.

정화영: 맞아, 수염이 났어.

김지혜: 그래? 어디보자. 어! 그렇구나. 머리도 작고. 같은 올챙이라도 애들 세 마리는 좀 다르네. 우리 얼굴이 다르고 몸도 다르듯이 올챙이들도 다르게 태어나나 봐.

박경수: (한 올챙이를 가리키며) 그런데 다른 올챙이들은 쭉쭉거리며 잘 돌아 다니는데 애는 가만히 있어요.

정화영: 경수처럼 시골에서 전학 왔나 보지 뭐.

박경수: 뭐?

최동현: 화영이는 괜히 경수만 못 살게 굴어.

정화영: 내가 언제.

최동현: 너 솔직히 경수가 시골에서 전학 왔다고 은근히 무시하지? 경수가 마음이 착해서 그냥 넘어 가는 거지…….

정화영: 무시하긴 누가 무시해?

김지혜: 둘 다 그만하고 올챙이 잘 살펴봐. 조그만 게 쫄랑쫄랑 거리면서 다니니까 신기하다 그지?

최동현: 예, 그런데 수염 난 올챙이는 잘 안 움직여요.

김지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

박경수: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무래도 올챙이가 아닌 것 같아.

최동현: 올챙이가 내 눈앞에서 꿈지락 거리니 신기하다 신기해.

정화영: 뭐가 그렇게 신기하니. 난 컴퓨터로 그 전에 다 봤는데.

최동현: 컴퓨터로 보는 거랑 같아?

정화영: 그럼 다룰 거는 또 뭐 있니?

최동현: 그래도 난 이렇게 직접 보는 게 좋다 뭐.

정화영: (자리로 돌아가며) 그럼 넌 어항에 구멍 날 때 까지 실컷 보렴.

최동현: 저게.

(이 때 밖에서 갑자기 후드득후드득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박경수: 선생님 비와요.

정화영: 너는 비 오는 거 한 두 번 보니?

최동현: (화영이에게 눈을 흘기며) 화영이 너.

정화영: (뒤편 몸으로 대꾸한다)

최동현: 비오니 귀신 이야기 해주세요.

정화영: 야! 최동현, 내일 모레 시험이다.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귀신 이야기를 듣니.

최동현: 공부가 너무 힘들어. 매일 학교에서도 공부. 집에서도 공부 공부. 아유, 지겨워.

박경수: 시골에 살 때는 이렇게 공부 많이 안했는데.

정화영: 넌 공부나 제대로 해보고 그러니?

박경수: 뭐야?

김지혜: 그만해 다들. (한숨을 쉬며) 맞아. 선생님도 너희들에게 매일 공부만 하게 하려고 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시험지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모래밭에서 모래성도 쌓고 신발로 로켓도 만들어 보고 푸른 들에 나가 아카시아 꽃이랑 토끼풀로 왕관도 만들어 쓰고. 그렇게 자연이랑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박경수: (비오는 밤을 쳐다보며)이런 날 운동장에 가면 지렁이 많은데.

정화영: 아유, 징그러워.

최동현: 징그럽기는. 우리 며칠 전 배운 과학 책에도 나왔잖아. 선생님 우리 우산 쓰고 밖에 나가요. 경수가 말한 것처럼 화단에서 지렁이도 보고 운동장에서 물장난 하며 놀아요.

박경수: 그래요. 제가 지렁이 많이 있는 곳 알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김지혜: 으~음. 그럴까?

박경수, 최동현 : (큰소리로) 네~.

정화영: 선생님, 아직 문제 풀게 많이 남아 있어요.

최동현: 나중에 해. 넌 똑똑하니까 금방 하잖아.

정화영: (머뭇머뭇) 그래도 …….

김지혜: 그래 화영아. 우리 갔다 와서 하자. 운동장에 가서 지렁이도 관찰하고 맨발로 흙도 밟아 보고. 그것도 아주 좋은 공부란다.

정화영: 네에.

김지혜: 자. 그럼 지금부터 우산 쓰고 밖으로 나간다. 옷 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관찰한 것은 나중에 갔다 와 정리 하자.

아이들: 와!!(아이들 신이나 이리저리 무대를 휘젓고 다닌다.)

제4장 교장실

(황교장 앞에 김지혜 얼어붙은 듯이 서 있다.)

황교장: 김 선생,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이 비오는 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을 돌리다니요? 그것도 맨발로. 여기가 군대입니까?

김지혜: 돌린 게 아니고 걸어보게 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을 가까이 해야 커서 흙의 소중함도 알고 자연을 사랑할 줄.

황교장: (말을 막으며) 교육적인 효과를 누가 몰라서 이릅니까?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죠. 보세요. 맨발로 걷다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찬바람 쐬어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내일 학교라도 못 오게 된다면 김 선생이 책임 질 거예요? 안 그래도 허약해서 총명탕이나 홍삼이다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에게 이걸 공부하지 말란 소리나 똑 같잖아요.

김지혜: 아이들이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

황교장: (다시 말을 막으며) 아무리 새내기 교사지만 왜 그렇게 철이 없

어요. 위신을 생각해야죠. 학교는 혼자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내가 좋다고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학부모가 항의를 하면 어떻게 대답 할래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조금 있으면 학교평가랑 관리직 다채널평가도 있고 교원평가도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성적하나 바라보고 우리학교에 보낸 학부모들한테 불만을 사면 뭐가 잘 나오겠냐구요.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평가로 개인 성과급을 지급한다는데 최소한 우리 돈은 우리가 챙기고 살아야죠. 김 선생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책임 질 거예요?

김지혜: (고개를 숙이며) …….

황교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교사라고 들었는데, 이거야 원 참.

김지혜: 죄송합니다.

황교장: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김지혜: (고개를 더 숙이며) 알겠습니다.

제5장 교실

(김지혜 교사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다.)

정화영: (밖에서 황급히 들어오며) 선생님 동현이가 다쳤어요.

김지혜: (그냥 대답으로) 그래.

정화영: 경수가 복도에서 뛰어 오다가 동현이랑 부딪혀 코피 나요.

김지혜: (놀라며) 뭐? 어디 있는데?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동현이가 들어온다. 이미 코피를 휴지로 막고 있다. 그 뒤로 박경수 고개 숙이고 따라 들어온다.)

김지혜: 동현아 괜찮니?

최동현: 예.

김지혜: 어찌다가 그랬어?

최동현: 경수가 멀리서 뛰어오더니 저랑 부딪혔어요.

김지혜: (경수에게) 일부러 부딪혔니?

박경수: 아뇨.

김지혜: 그럼, 뛰어 오다가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지.

박경수: 저도 멈추려고 했는데 맨발로 뛰다보니 안 멈춰졌어요.

김지혜: 맨발로 뛰어?

정화영: 애는 학교만 오면 양말을 벗어요.

김지혜: 왜?

박경수: 갑갑해서요. 시골에 살 땐 계속 맨발로 다녔어요.

김지혜: 그래도 학교에 오면 양말도 신고 실내화도 신어야지. 맨발로 다니면 보기도 싫고 이렇게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

박경수: 시골에 있을 때 맨발로 다녀도 안 다쳤어요.

김지혜: 그건 시골 학교 아이들이 몇 명 안 되어서 그런 거고 여긴 아이들이 많이 다니잖아. 그리고 맨발로 다니다가 발에 가시라도 박히면 어찌려고 그래. 발바닥도 금방 더러워지고. 나중에 발 씻기도 힘들잖아.

박경수: …….

김지혜: 내일부터는 꼭 양말 신고 다녀. 알았지? 그리고 동현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박경수: 동헌아. 미안해.

최동현: 괜찮아.

김지혜: 자, 수업하자.

(이때 전화가 온다.)

김지혜: 예. 교사 김지혜입니다. 예, 예, 아, 그거 제가 너무 바빠 깜빡 했는데. 언제까지요? 지금 조사해서 보내야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리저리 뒤져 서류를 챙기며) 수학책 36쪽하고 익힘책 34쪽 풀어보고 다하면 짝이랑 매기고 있어요. 선생님이 급한 공문이 있어 잠시 교무실에 갔다 올게요.

(김지혜 급히 나간다. 정화영 슬며시 박경수 책을 쳐다본다.)

정화영: (짜증을 내며) 야, 좀 빨리 해.

박경수: (그냥 고개 숙이고 문제 풀고 있다.)

정화영: 제일 쉬운 문제도 아직 못 풀고 있으면 다른 건 언제 풀고 언제 매겨?

최동현: 나, 다 풀었어. 나랑 매기자.

박경수: 그래. 나는 어려워서 못 풀겠다. 동헌이랑 매겨라.

정화영: 선생님이 짝이랑 매기라 그랬거든. 이게 뭐가 어려워? 1학년짜리 내동생도 풀겠다.

박경수: 그래도 나는 어렵다.

정화영: 너 같은 애가 우리 반에 있으니 평균을 다 까먹지. 너 때문에 우

리 반 성적 꼴찌라는 거 몰라. 제발 공부 좀 해라. 이 돌대가리아.

박경수: 뭐? 돌대가리?

정화영: 그래,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는 걸 돌대가리라고 하지 그럼 뭐라 부르니?

박경수: 너 다시 한 번 돌대가리라고 말해 봐.

정화영: 왜 내가 못할 줄 알아? 돌대가리아.

(박경수 정화영을 때린다. 정화영도 박경수를 때리고 둘이 엎치락뒤치락 거린다. 이때 선생님 들어온다.)

김지혜: 왜 싸워?

박경수: 재가 나보고 돌대가리라 했어요.

김지혜: 너 정말 경수보고 돌대가리라고 그랬니?

정화영: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경수 재 공부 못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를 못한다고 그러지 잘 한다 그래요? 숙제도 잘 안 해 오고 수학 문제도 못 풀고 모둠 활동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선생님, 저 애랑 짝지 하기 싫어요. 자리 바꿔 주세요.

김지혜: 그래도 친구보고 돌대가리가 뭐니?

정화영: 누가 친구예요? 전 이 아이하고 친구 아녜요.

김지혜: (화가 나서) 어떻게 한반에서 공부하는 아이 보고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니? 그런 년 어떤 아이가 네 친구야?

정화영: 저랑 비슷한 아이요.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서로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하고만 친구해요. 그래야 제가 클 수 있다고 엄

마가 그랬어요.

최동현: 나는 경수가 좋던데.

정화영: 둘이 서로 수준이 비슷하니 친구하면 되겠네.

김지혜: 화영아, 세상에는 내가 싫던 좋던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한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정화영: 누가 한반 아니래요? 저는 재량 짝지 하기 싫다고 말했죠. 짝지 바뀌 주세요.

김지혜: 알았다. 짝지 바뀌 줄 테니 대신 경수한테 돌대가리라고 놀린 거 사과하렴.

정화영: …….

김지혜: 어서!

정화영: (뻘로통한 표정으로) 알았어요. 누가 뭐래요.

(이때 최동현 큰소리로 선생님께 말한다)

최동현: 선생님, 제 가방에 있던 닌텐도가 없어졌어요.

김지혜: 뭐라구? 언제?

최동현: 아까 체육 하러 운동장 나가기 전까지는 있었어요.

김지혜: 잘 찾아 봐. 너 오늘 학교에 닌텐도 들고 오기는 했니?

박경수: 그럼요. 제가 봤어요. 2교시 때 동현이가 저한테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3교시 때 체육 한다고 가방에 넣고 저랑 같이 나왔어요.

김지혜: 그런 거는 집에서나 하고 학교에 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동현이는 학교에 왜 들고 왔니?

최동현: 매일 공부만 하니 머리가 아파서요.

김지혜: 그래도 규칙을 지켰어야지. 혹시 동현이가 자기 가방인줄 알고
넣는다는 게 다른 가방에다 넣을 수 있으니 자기 가방 가지고
와 찾아보세요.

(아이들 가방을 들고 와 찾는다.)

박경수: 없어요.

최동현: 없어요.

정화영: 없어요.

김지혜: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누가 장난친다고 동현이 닌텐도 숨길
수도 있겠네. 누가 숨겼니?

박경수: 전 아니에요.

정화영: 저도요.

김지혜: (좀 더 생각하더니) 다들 눈감아 보세요. 혹시 누가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욕심을 내었다가 지금은 후회하고 있는 사람
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선생님, 실수했어요 하는 마음
으로 살며시 자리에서 손을 들어 봅니다.

(아무도 없다. 김지혜 잠시 생각하더니)

김지혜: 그럼 다들 가방 앞으로 가져오세요. 선생님이 직접 한번 찾아보
겠습니다. 이런 일로 개인의 가방을 열어 본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이 가방 안을 잘못 보고 못 찾을 수도 있
고 우리 반 친구들 끼리 서로 믿으며 생활하기 위해 담임선생
님으로서 가방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 가방 앞으로 가지고 와 놓고 들어간다.)

김지혜: 눈을 감아주세요. (가방을 차례로 열어본다. 정화영 가방에서
조그만 보조가방에 둘러싸인 닌텐도를 찾아낸다.) 이제 눈 뜨
고 가방 찾아 가세요. 동현이 이거 네 거 맞니?

최동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예, 제거예요. 이 뒤쪽에 누나가 잊어버
린다고 조그맣게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김지혜: 찾아서 다행입니다. 닌텐도가 어느 가방에서 나왔는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말하지 않겠어요. 대신 동현이 닌텐도를
가져 간 사람은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을 만나고 가세요. 선생
님은 그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점심 먹읍시다.

(조명이 희미하게 dim 되면 아이들 가방 싸서 교실을 나간다. 김지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기다린다. 시간이 좀 흐른다. 고민 끝에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전화를 건다.)

김지혜: 안녕하세요. 화영이 어머니이시죠.

화영모: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화
영이가 집에만 오면 선생님이 좋다고 어찌나 이야기를 많이 하
던지 제 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있다가 선생
님을 찾아뵙까 생각했었는데 전화를 먼저 주시네요. 그런데 어
쩐 일로?

김지혜: 오늘 학교에서…….

(동작 빠르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마임과 소리를 낸다)

화영모: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은 표정으로)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화영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겠어요?

김지혜: 저도 처음에는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자신이 필요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걸 보면 괜히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영모: (말을 막으며) 아, 글썄, 우리 화영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이상하시네. 화영이처럼 손 댈 곳이 없는 아이를 왜 자꾸 도둑으로 몰아가는 건가요?

김지혜: 화영이가 도둑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어른들이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가면 성장하면서 형성되는 정체감과 가치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보다는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화영이가 덜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

화영모: (말을 막으며) 선생님, 한 번 더 말씀 드리지만 우리 화영이는 절대 아닙니다.

김지혜: 화영이 어머니.

화영모: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집을 뭐로 보고 그러는 거야. 나이도 어린 게. (전화를 끊는다.)

김지혜: (멍하니 한숨을 쉬며 그대로 있다) 아. 너무 힘들어.

제6장 교장실

(나혁준 교장선생님께 브리핑 하고 있다)

나혁준: 지난번 〈명품학교 학력향상 속성프로젝트 5〉에 이어 〈명품학교 학력향상 속성프로젝트 10〉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다섯 항목은 똑같고 여섯 번째, 기초학력 건강반을 편성하여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시킨다. 일곱 번째, 전교생에게 특별국어보충교실, 특별수학보충교실, 특별영어교실을 실시한다. 여덟 번째, 방학 때 실력 탄탄 교실을 운영한다. 아홉 번째, 저녁 자율학습은 9시까지 한다. 열 번째, 앞으로 모든 일요일과 공휴일은 물론 여름, 겨울 방학을 없애고 365일 매일 학교에 나와 공부한다.

황교장: (박수를 치며) 하하하! 훌륭해. 아주 훌륭해요. 나부장 덕분에 우리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향상되었고 지금 다른 학교에서 난리들이예요. 어떻게 지도 했길래 그런 성과를 내느냐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전화에 불이 납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청에서 손님이 올 건데 그때 어떻게 공부 했는지 학생들을 인터뷰 하려고 하니 나부장이 알아서 준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다해내고 말이야. 나부장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나혁준: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다 교장선생님 덕분이죠. 저야 뭐.

황교장: 허긴. 솔직히 요즈음 세상에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나?

나혁준: 당연히 안 되죠.

황교장: 나부장이 더 잘 하시네. 예, 맞습니다. 다들 공동 작업이죠. 혼자
자는 힘들어요. 아무나 관리직 못합니다. 능력이라는 게 혼자
만 잘났다고 진정한 능력일까요?

나혁준: 당연히 아니죠.

황교장: (어깨를 치며) 나부장은 요즈음 사람 같지 않아. 꼭 젊은 시절의
나를 보는 거 같애. 어떻게나 눈치가 빠르지. 혼자 잘나서 교
장, 교감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교장 교감 안 될 사람 누가 있나.
진짜 실력이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
고 인정해주는 그 무언가가 진짜 실력이지. 나부장은 경력이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다
음번 학교 이동 할 때에 초빙 받아 가야죠.

나혁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께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황교장: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나부장 같이 능력
있는 친구를 원하고 있더라구요. 나부장은 복도 많지.

나혁준: 역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황교장: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에 골프채 하나 볼 겸 잠시 바람이나 쐬
고 공이나 치고 오자며 다음 연휴에 필리핀 가자네. 골프라는
게 말이야 늦게 배우긴 했지만 여간 재미있는 게 아냐.

나혁준: 맞습니다. 골프를 아시는 분이 인생의 참 맛을 진정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 정도의 연배가 되셨으면 해외도
자주 나가고 그러셔야죠. 나가시기 전 교장 선생님이란 그 분
이란 셋이 식사나 같이 할까요.

황교장: (호탕한 미소를 띠며) 역시 나부장은 내 기대를 저 버리지 않는
믿음직한 후배구먼.

나혁준: 별 말씀을요. 그리고 이번에 연구학교 지정받도록 교장선생님

께서 윗분에게 힘 좀 써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쪽이 좀 약해서리. 필요한 총알은 제가 다 준비 해 놓겠습니다.

황교장: 아, 그거야 어렵지 않지.

나혁준: 감사합니다.

(나혁준 나간다. 전화가 온다.)

황교장: 예, 명품학교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 여러 학부모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이죠. 예. 말씀 하십시오. 예? 뭐라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학부모님한테 요구르트를 공짜로 받아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리가요?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청렴하기로 소문났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곧 처리 하겠습니다. (흥분하여) 이 시점에서 누가 이런 일을 …….

제7장 교실

(열공하고 있다가 종소리 나면 쉬는 시간, 아이들 장난친다. 박경수 너무 심하게 장난치다 최동현을 치고 최동현이 박경수를 치고 싸움이 된다. 선생님 말린다. 둘 다 씩씩 거린다. 아이들 폭력으로 변해간다.)

김지혜: 둘 다 그만.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된다 했지.

박경수 왜 그랬는지 말해 봐!

박경수: 동현이가 공부시간에 자꾸만 나를 연필로 쿡쿡 찌셨어요.

최동현: 아니에요. 경수가 먼저 책상을 내 쪽으로 밀며 발로 내 의자를 c
찾어요.

박경수: 내가 언제?

최동현: 너 매일 그랬잖아. 뒤 돌아 보고 심심하면 필통 빼앗아 가고. 이
야기 걸고.

박경수: 니가 매일 연필로 나를 찌시길래 그랬지.

김지혜: 그만하라 했지. 나중에 수업 마치고 너희 둘이 남아 선생님하고
상담 하고 가.

박경수, 최동현 : (고개 숙이고) 예.

정화영: (어항을 쳐다보며)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 있는 올챙이들이 처
음에 모두 스물세 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열 마리 밖에 없어요.

최동현: 진짜?

박경수: 진짜예요. 저도 어제 보니 열다섯 마리밖에 없어 이상하다 생각
했는데 다섯 마리가 또 없어졌어요.

김지혜: 왜 그렇지? 누가 손 댄 거 아냐?

박경수: 저 안 만졌어요.

최동현: 저도요.

정화영: 전 징그러워 돈 받고도 못 만져요.

최동현: 탄 반 아이들이 몰래 와서 잡아간 거 아냐? 작년에 우리 반 했던
태훈이는 심심하면 콩벌레 잡아서 죽였는데.

김지혜: 친구를 의심하면 못 써요. 선생님이 하루 종일 교실에 있는데
누가 들어와 올챙이를 가지고 가겠니? 그리고 그 애들이 왜?

정화영: 자기반에 없는 게 있으니 샘이 나서 그랬겠죠.

김지혜: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지켜봅시다. 왜 올챙이가 없어지는지.

아이들: 예.

제8장 교장실

(황교장, 화영모와 이야기 나누고 있다.)

화영모: 그럼 부탁드립니다.

황교장: 당연하죠. 학부모 회장직을 4년씩이나 맡아 오시면서 우리학교를 위해 발전 기금도 많이 내어 놓으시고 필요할 땐 항상 아낌없이 물품들도 기부해 주셔서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화영이 없으면 우리학교가 어디 가서 이름을 빛내겠습니까? 이번에도 전국 수학경시대회에 나가 대상도 받고 시교육청 주최 토론대회에 대표로 나가 우수상도 받고, 화영이는 우리학교의 자랑스러운 보배입니다. 보배요.

화영모: 다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화영일 잘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황교장: 아닙니다. 따님을 잘 키우신 덕을 우리 학교가 톡톡히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요.

(이 때 김지혜 들어온다. 화영모 고개를 돌린다.)

화영모: (일어나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황교장: 예, 제가 잘 알아서 처리 할 테니 걱정 마시고 가십시오.

(김지혜 화영모에게 인사를 하나 무시한다.)

황교장: 잠시 앉으세요. 김 선생을 부른 것은 교사를 관리해야 하는 학

교장으로서 할 말이 있어서입니다. 김 선생 반에 화영이라는 학생이 있죠?

김지혜: 예.

황교장: 얼마 전에 얼굴에 멍이 든 적이 있죠?

김지혜: 아이들끼리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황교장: 그런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학생이 맞아 멍이 들었는데 보건실에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부모님한테는 이래저래 해서 다쳤으니 죄송하다며 먼저 전화를 걸어 걱정을 덜어 주는 게 담임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인 줄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학부모 회장 딸로 우리학교의 귀한 보물입니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아이예요.

김지혜: 그 때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황교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비 왔을 때 운동장 나간 일에 대해 그 후 모학부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이가 비오는 날 선생님이 운동장에 맨발로 나가라고 해 나갔는데 발을 다쳤다구요.

김지혜: (깜짝 놀라며) 발을 다쳐요? 누가요?

황교장: 아, 그건 김 선생이 알 필요가 없고.

김지혜: 아이들이 맨발로 운동장을 밟기 전에 제가 먼저 위험하지 않게 유리랑 큰 돌들은 주웠어요.

황교장: 비가 오면 운동장이 패이고 물구덩이 속에 뽕족한 돌이 올라오는 건 생각 안합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무리 교육적인 의도가 좋지만 이걸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처사잖아요.

김지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황교장: 그리고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요구르트를 공짜로 받아먹는 겁니까?

김지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황교장: 김 선생 지금 받아먹는 요구르트를 학부모가 대어 준다는걸 몰랐다는 거예요?

김지혜: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위가 안 좋아 인터넷에서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 제가 신청해서 먹은 겁니다. 공짜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황교장: 그럼 요구르트 아줌마에게 돈을 준적은 있나요?

김지혜: 아줌마가 너무 일찍 다녀가니까 만나지를 못해 주지 못했지 공짜로 받아먹은 건 아닙니다. 언젠가 만나면 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황교장: 그럼 두 달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지 못했나요?

김지혜: 전화해보야지 하면서 바빠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황교장: 정말 그 요구르트 배달 아줌마가 학부모인 줄 모르고 있었던 말이에요?

김지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학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알 수 있나요?

황교장: 어떻게 알 수 있다니요?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의 가정형편을 모르면 누가 압니까?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거나 하는 거예요? 자기반 학생의 가정환경을 모르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직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지혜: …….

황교장: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반 성적수준 알고

있죠?

김지혜: 예. 하지만 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교장: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결과가 중요할 뿐이죠. 이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모든 성패는 결과가 결정합니다.

김지혜: 죄송합니다.

황교장: 김 선생 반에서 우리학교 성적 다 까먹고 있어요. 수재들만이 간다는 대학을 졸업해 놓고 왜 반 학생들 성적은 관리를 안 한 겁니까? 임용 공부는 미인계를 써서 공짜로 했나요? 언제까지 새내기 교사라는 명목으로 모든 일을 덤으로 넘어갈 생각입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김지혜: …….

황교장: 이번 시험에도 그 반 성적이 낮으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만 나가 보세요.

김지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떨어뜨리며 나간다)

제9장 교실

(박경수 혼자 교실에서 어항을 바라보고 있다. 김지혜 넋을 잃은 듯이 어깨가 축 처져 들어온다.)

박경수: 선생님…….

김지혜: 아직 집에 안 갔니?

박경수: 어항에 있는 올챙이가 계속 없어져서 어떻게 된 일인지 관찰하

려고요.

김지혜: 그러니.

박경수: 선생님, 웬지 저 수업 난 올챙이가 이상해요. 자꾸만 다른 올챙이를 쫓아 다니며 물어요. 혹시 저기 수업 난 올챙이가 괴롭혀서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잡아먹었나?

김지혜: 경수야. 어떻게 같은 올챙이 끼리 잡아먹을 수 있겠니?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경수 너한테 선생님이 할 말이 있는데.

박경수: 예.

김지혜: 내일 국가고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박경수: (고개를 숙인다) 예.

김지혜: 저기, 미안한데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는 시골에 일이 있어 왔다고 할 테니 내일 학교에 오지 말래.

박경수: (고개를 들어 김지혜를 본다)

김지혜: 선생님이 진짜진짜 미안한데 우리 반 성적이 더 내려가면 안 되서 그래.

박경수: (김지혜를 뺨히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인다.)

제10장 교실

(김지혜 시험지 매기고 있다. 가끔 창밖을 쳐다보며 한숨을 쉰다. 이 때 허름한 옷을 입은 경수母가 찾아온다.)

경수母: 안녕하세요?

김지혜: 예.

경수母: 이 반에 박경수라는 학생이 있지요.

김지혜: 예, 그런데요?

경수母: 잘 찾았네. 선생님, 제가 경수 엄마입니다.

김지혜: (당황하며)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경수母: 언제 한 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는 게 늦었네요. 사는 게 뭔지.

김지혜: (의자를 내어 드리며) 아닙니다. 여기 좀 앉으세요.

경수母: 일찍 한번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야 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네요. 경수가 전학 와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었는데 반 아이들하고도 잘 놀고 선생님도 친절 하시다길래 마음을 놓았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먹고 살라고 도시로 나왔는데 배운 것이 없다보니 하루 벌어 입에 풀칠하기 바쁘네요. 미안합니다. 경수 공부하는 데에 신경도 못 쓰고.

김지혜: 아닙니다. 경수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수母: 매일 아침 여길 지나치긴 하는데 못 찾아 왔네요. 오늘은 급식비가 밀려 행정실에서 직접 내려며 연락이 왔길래 온 김에 큰 마음 먹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하러 들렀습니다.

김지혜: 예, 잘 오셨어요.

경수母: 우리 경수가 시험 잘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험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더니 글썽, 어제는 평생 안 나던 코피까지 흘렸어요.

김지혜: (얼굴이 백짓장 같이 된다) 저기 경수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경수母: (일어나며) 내 정신 좀 봐. 바쁘신데 붙잡고 내 이야기만 했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참 이걸, 아이들 가르친다고 하루 종일 목도 아프실텐데 사올 것은 없고 제가 파는 요구르트 몇 개 넣어왔습니다. 다른 선생님들하고 나눠 드세요.

(경수母 교실 문을 빠져 나간다.)

김지혜: (요구르트 봉지를 얼떨결에 받아 들다가 놀라며) 그럼…… 그 학부모가. (황급히 교실을 나가며) 잠깐만요! 경수 어머니!

제11장 교실

(아이들 왁자지껄 떠든다.)

정화영: 올챙이가 두 마리 밖에 안 남았고 다 사라졌네. 어디로 갔지?

최동현: (주변을 이리저리 찾아보며) 우리가 집에 가고 없는 사이 개구리가 되어 다 튀어 나가 버린 거 아냐?

정화영: 벌써?

(박경수 들어온다.)

정화영: (다그치듯이) 너 어제 학교에 왜 안 왔어? 시험 때문에 일부러 안 왔지. 그지?

박경수: 아냐. 일이 있어서.

최동현: 무슨 일이 있었니?

박경수: 동생이 아파 병원에 간다고 못 왔다.

정화영: 동생이 아프면 엄마가 병원 가야지 왜 네가 가?

박경수: 엄마가 일찍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내가 동생 돌봐야 한다. 우리 집은 그렇다.

최동현: 그럼 병원 갔다가 학교 오지. 기다렸잖아.

박경수: 동생이 너무 아파 꼼짝도 못하는데 어떻게 오냐.

최동현: 그럴 정도로 아팠어?

박경수: 그래.

정화영: 너 솔직히 말해. 동생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고 시험 친다고 일부러 학교 안 온 거지? 그지? 맞지?

박경수: 아니라니까. 진짜 동생이 아팠다니까.

(김지혜 들어온다. 아이들 제자리에 앉는다.)

정화영: 선생님 올챙이가 다 어디가고 두 마리만 남았어요.

(김지혜 어항 쪽으로 간다.)

박경수: 수염 난 올챙이가 다른 올챙이를 잡아먹었어.

정화영: 네가 어떻게 알아?

박경수: 봤으니까.

최동현: 진짜?

박경수: 그래.

정화영: 거짓말!

최동현: 아냐. 경수는 거짓말 안 해!

정화영: 뭘 거짓말 안 해. 봐. 어제 동생 아파 병원 간다고 결석했다 것도 거짓말. 수염 난 올챙이가 다른 올챙이들을 잡아먹었다는 것도 거짓말. 넌 거짓말쟁이야.

최동현: (놀라며) 서 선생님 저기 보세요. 수염 난 올챙이가.

정화영: 다른 수염 난 올챙이를.

박경수: 잡아먹고 있잖아!

김지혜: 그럼 이 안에 있던 올챙이들을.

모 두 : 모두 이 수염 난 올챙이가 잡아먹었던 말이야?

(모두 충격에 휩싸인다. 이때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아이들 전담 시간이라 공부할 책을 들고 교실을 나간다. 김지혜 얼어붙은 듯 가만히 앉아 있다. 조금 후 주변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짐을 챙긴다.)

김지혜: 미안하다 애들아, 너희들이 가진 모습처럼 다양한 삶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현재 이곳은 공부 못하는 자들은 낙오되고 실력 있고 힘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수염 난 올챙이들만의 사회를 만들게 하고 있구나. 나조차 아무런 갈등도 없이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 생각도 안 해 보고 너희들을 마구 다그치며 힘들게 하고 있고. 특히 경수야,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서 네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월급날만 기다리며 영혼이 비어버린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어쩌면 나도 수염 난 올챙이로 변해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무섭고 두렵구나. 너희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

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부끄럽다. 지금 용기를 내지 않으면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것 같아 잠시 너희들 곁을 떠나니 애들아 조금만 기다려 줄래. 선생님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너희들 앞에 서는 날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만나자. 그때까지 동현아, 화영아, 경수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사랑한다.

(김지혜 창가로 가 어항을 들어 박살을 내고 교실을 나간다.)



학교가 참 바쁘다. 아침에 출근해 수업하고 회의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가 언제 흘러갔는지 어느덧 해는 지고 밝은 어두컴컴해져 온다.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 퇴근을 하긴 하지만 고3 학생처럼 '집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다.

주변은 커녕 나 자신도 돌아볼 틈도 여유도 없는 지친 일상들이다. 이런 시간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로 난 꿈을 꾀다. 연극작품 하나 멋들어지게 만들어 무대에 올려놓고 그 작품의 감동에 못 이겨 기립박수 치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후훗 꿈이지. 꿈이야. 꿈이니까 꾸는 거지 뭐.

이 작품 '올챙이'는 작년에 몸담고 있는 극단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뮤지컬 형식으로 쓴 작품이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공연을 못하게 되다 보니 사장을 시키기에는 작품의 의미가 너무 아까워 공무원 문예대전을 통해 세상에 내어 놓는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형상화 되어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울산소방본부

정수현

마법의 시계

주혜정: (주혜정 살며시 차도남 옆으로가 앉으며) 그래서 애긴데 여보
오늘 당신이 나에게 준 『마법의 시계』는 내 마음의 초침을 다
시 0시로 돌려놓은 선물이었어!

차도남: 마음의 초침을 다시 0으로 돌려놓은 선물이라니?

주혜정: 응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떨
림을 기억 속에서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되찾았은 것 같아.

본문 중에서-



마법의 시계

때 현대

곳 중소도시의 고층아파트 단지

등장인물

주혜정(여) 44세 : 겉보기에는 시크한 매력이 있는 중년 여성이나 심한 건망증으로 인하여 종종 사고를 치는 스타일 메트로@106동 102호 거주.

차도남(남) 46세 : 주혜정의 남편 서울태생이나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차주미(여) 18세 : 고등학교 3년생으로 의대생을 꿈꾸는 차도남, 주혜정의 장녀.

차종남(남) 13세 : 초등학교 6학년 생으로 차도남, 주혜정의 장남.

은정엄마(44세) : 주혜정의 앞집에 사는 이웃사촌으로 메트로@106동 101호 거주.

종식엄마(46세) : 주혜정의 절친 으로 같은 통로 302호에 거주. 같은 학교 고3 학부모.

이혜옥(여) 46세 : 차도남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차도남과 같은 반의 부반장을 역임함.

여자소방관 1, 남자소방관 1

관리소 사람들(여직원1, 남직원1)

무대

아파트 1층 로비 출입문이 활짝 열려진 상태며, 이웃주민 은정, 종식엄마 등이 조금 이른 오전시간, 무언가의 냄새를 맡는 시늉으로 쿵쿵거리며 현관문 앞에 몰려있다.

은정엄마 : 아유 종식엄마 또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왔는데
그런 것 같이 않아요?

종식엄마 : 맞아요! 또, 무언가 타는 냄새가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혹시 중남이 엄마가 또 음식물을 올려놓고 목욕을 간 것 아
닐까요?

은정엄마 : (종남이네 집 앞 쪽으로 가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냄새가 이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냄새가 난다는 확신을 갖자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다.)
(흥분하면서) 정말 살수가 없어 또 119를 불러야하나?

종식엄마 : 잠깐만 119에 신고하기 전에 휴대폰을 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버튼을 터치하면서) 경쾌한 켈러링 소리에 이어 종남엄마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린다.

주혜정: (여유티게) 종식아, 왜?

종식엄마 : 자기 혹시 곰국 올려놓고 밥에 나갔어?

주혜정: 몰라 몰라 어떻게 나 지금 목욕탕인데 자기 내가 우리 집 전자 키 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가서 가스 불 좀 꺼줘.

종식엄마 : 그래 번호 몇 번이야?

주혜정: 0000 0000하고 #

종식엄마 : 알았어!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은정엄마 화가 나 폭발 직전으로)

은정엄마 : 종남엄마 때문에 도저히 명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도대체
벌써 몇 번째야.

종식엄마 : (버튼을 열고 들어가면서) 몇 번째이기는 아마 이번이 여섯
번째일걸 아래 소방차가 출동한 것 까지 모두 합쳐서.

은정엄마 : (문이 열린 종남이네 현관에 쿵쿵거리며 들어서더니 종식엄
마 쪽으로 고함을 지르며) 나 혈압이 올라 뒷목이 뻗뻗해 더
이상은 이집 앞집에서 못 살겠어 이사 갈 거야.

종식엄마 : (가스밸브를 잠그며 큰소리로) 그래 이웃사촌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고들 하는데 은정아 우리는 안 되겠다 산 사람
은 살아야지 될 것 같다 이사 가라 이사…….

무대/암전

초겨울 오전 10시경의 아파트 관리소 풍경은 을씨년스러운 날씨와 같이
착가라 앉은 상황이었고 그 속에서 유난히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은정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은정엄마 : (관리비를 계산하면서) 아휴, 나는 이제 이사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어 너무 좋아 정말 옛말에 말이 좋아 이웃사촌
이지 내가 정말 그 동안 앞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을 생
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니까. (가슴을 탁탁 치며)

관리소여직원 : 웃으면서 정말 속 시원하시겠어요, 저는 저번에 소방차

가 갑자기 출동해서 소방관아저씨들이 가스 주 밸브가 어디냐고 물으실 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것만 해도 떨리는데 사모님은 대단하세요!

은정엄마 : 그래 내가 젊은 사람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나 지병인 고혈압이 있는데 앞집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혹 협심증이 안 걸렸나 CT 촬영을 해 보곤 했다니까.

관리소여직원 : 아 그럼 우리 아파트도 앞으로 안전하게 지내려면 아무래도 소방서에 신청해서 주민전체가 소방교육을 받아야만 할 것 같네요.

관리소남직원 : 맞아요. 102호 사모님은 필히 받으셔야 하고요 말이 난 김에 관리소장님께 이야기하여 아파트 소방교육을 신청하지요?(동의를 구하는 눈빛으로 여직원을 쳐다보며)

은정엄마 : (빈정대면서) 102호가 꼬~옥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아줌마한테 하루전날 참석한다는 대답을 미리 들어놔도 전망증이 심하니 소용없고, 아마 당일 관리소 직원들이 모시러 가야 할 걸.

관리소남직원 : (전화를 돌리면서) 소장님 건의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번에 소방차도 출동했고 106동 101호 사모님도 102호 때문에 오늘 이사를 간 다고 관리비를 결산하러 오셨는데 우리 관리소도 이번에 소방교육을 한번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만, (관리소장의 대답을 기다리며 수화기를 들고 있다.) 네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아파트 전 주민이 받도록 소방서에 신청하겠습니다.

은정엄마 : (춤을 추듯 날아가는 듯한 걸음걸이로 나가며 관리소에 들어오는 아는 얼굴을 향해) 정말 이웃사촌을 잘 만나야지 하마

터면 원수가 될 뻔했어(작은 소리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지) 헌데 아무튼 저희는 오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요, 이 아
파트는 우리 은정이 낄 때부터 주~욱 살아온 아파트라 다른
분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사
실 시원섭섭하네요!

암전/ 무대가 바뀌며 주혜정의 거실이 보인다.

주혜정: 어머, 당신이 웬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차도남: 내가 아침에 앞집 이사 가는 것을 보니 남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일찍 나왔는데 정말 당신 나하고 같이 정
신과에 가서 치매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냐?

주혜정: 이잉 내가 그만큼 심한가?

차도남: 그럼 당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저 번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는 가스대 위에 곰국을 올려놓았지만 다행히 두꺼운 곰국냄비
라 불로 번지기 전이기 망정이지.

주혜정: 그렇다고 나더러 지금 병원에 가자는 거야.

차도남: 내가 안 그렇게 생겼어? 그동안 전화를 받다가 태워먹은 수많
은 냄비들은 어찌고,

주혜정: 그래서?

차도남: 당신 또 저번 날에는 핸드폰으로 전화 받은 다음에 그 핸드폰
냉장고 속에 넣어두고 막~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냉동실
에서 다시멀치 찾다가 쾅쾅 열린 휴대폰을 꺼낸 거 내가 다 알
고 있거든. (얼을 내며)

주혜정: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이리. 사람을 몰아붙여?

(큰 소리로)

차도남: 내가 정말 남이 창피스러워서 이젠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는 살 수가 없어.

주혜정: 그래 그럼 당신 혼자 좋은 데로 가서 살아

차도남: 뭐야. (고함을 치며)

차주미: 아빠, 엄마 제발 그만 싸우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의대 선배에게 엄마 증상을 이야기를 해 보니, 정상적인 노화 중 하나가 건망증인데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뇌세포가 노화한데요!

주혜정: 그래 네가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는 편이지

차주미: 네 제 생각은 엄마가 제 진학 뒷바라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아빠가 일중독이라 그 부분 엄마가 서운하고 외로움 마음에 올 수 있는 중년의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차도남: (놀라듯이) 일시적인 현상.

차주미: 하지만 제 선배가 웃으면서 더 심한 경우 이야기 해 주었는데 “주부로 보이는 중년여성이 이비인후과에 찾아왔는데 양쪽 귀가 빨갛게 퉁퉁 부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사가 귀를 아주 심하게 다치셨네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죠? 하니.

차도남, 주혜정 : 하니까?

차주미: 집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얼떨결에 그만 다리미로 전화를 받았지 뭐예요 그러면 다른 쪽 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그 중년의 부인이 그런데 전화가 또 오더군요. 하더랍니다. 물론 이건 농담이지만 우리 엄마는 아직 그런 경우는 아니니 아빠 우리 한번 엄마를 도울 방법을 찾아 봐요.

무대가 어두워지며, 차도남이 있는 방안에만 조명이 비친다.

차도남: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다. 차도남 전화의 주인공 초등학교 동창에게 안부를 묻는다.)

여자동창생: 네 이해옥 헤어쏘입니다.

차도남: 친구야 나야 잘 있었어?

여자동창생: 왜 무슨 일이야?

차도남: 아니 무슨 일은 아니고 그냥 장사 잘하고 있나 싶어서.

여자동창생: 아닌데 무슨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손님 뜸하니 어디 한번 얘기해봐.

차도남: 사실은 내가 회사일이 바빠서 아내에게 신경을 좀 못써서 그런지 아내가 요새 자꾸 건망증이 심해 내가 볼 적에는 아주 중증인 것 같은데 넌 사람을 많이 대하니까 혹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여자동창생: 너 혹시 바람난 것은 아니고 여자의 감각은 아주 예리한 거든.

차도남: 야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네가 잘 알 잘아 난 그런데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

여자동창생: 바쁘다는 것은 핑계 아니야 하긴 그러고 보니까 동창회 할 때 말고는 가장 친한 친구치고는 밥한 번 얻어먹어 본 적이 없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회사 연구원이 미장원 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겠니?

차도남: 나는 지금 절박해.

여자동창생: 그래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왕년에 학급 회의를 주도했던 번쩍이는 부반장의 머리로 생각하니 아이디어

가 생각나는 것이 있네!

차도남: 어 그래 뭔데?

여자동창생: 스톱워치인데 이걸 내가 미장원에서 파마를 맡고 시간을 맞
추려고 쓰는 것인데 파마시간이 끝나면 알람기능이 있어 파
마시간이 얼마나 됐을까하고 외우고 있지 않아도 되고.

차도남: 어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근데 그게 얼마야?

여자동창생: 얼마 안 해 사억 오천만원.

차도남: 야 장난치지 말고 사십 오만원이니?

여자동창생: 정말로 애가 허구헛날 회사제품 연구만 할 줄 알았지 너 세
상물정 정말 모르는구나!

차도남: 음 사실 난 회사 다니는 건 말고 애들 교육이랑 모든 것을 아내
가 알아서 다 해줘서 사실 회사는 편하게 다니고 있는데 나 취
미생활도 잘 안 해.

여자동창생: 그래 스톱워치 가격을 모르는 걸보니 등산도 안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친구야 너 그렇게 살면 그럼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니?

차도남: 응 스트레스를 따로 푸는 방법도 없고 그러고 보니 집에 와서
내가 너무 아내에게 까칠하게 한 것 같네.

무대가 어두워지면서 장녀 주미의 방이 밝아진다.

차주미: 선배! 선배가 말 한테로 아빠를 설득시키니 아빠도 엄마에 대
하여 관심을 갖는 것 같았어 그런데 정말 건망증이 일시적으로
올 수 있을까?

선 배: 그럼 건망증은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 불안 속에서 벗어

나려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 또한 무엇인가를 찾아 해결하면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차주미: 정말이요, 선배 그럼 저희 엄마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선 배: 응, 건망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메모를 해서 연상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한 청각, 시각 한 가지 감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기억하도록 하면 좋지.

차주미: 선배 오감을 동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 배: 예로서 간단한 멜로디를 흥얼거리거나 소리 내어 말해 기억력을 높이도록 만들고 지나치게 건망증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도 시도해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어때 할 수 있겠어?

차주미: 선배 고마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공부하느라고 엄마에게 너무 무심했고 스트레스만 주었던 것 같아 정말 나는 나쁜 딸 이었던 것 같네.

선 배: 지금이라도 느껴서 다행이야 우리 후배는 공부도 잘하지만 마음도 착하네!

조명이 꺼지고 다시 거실이 밝아진다.

주혜정: 주미야! (호들갑을 떨면서) 요새 우리 집에서 타는 냄새 같은 거 이젠 없는 것 같지?

차주미: 음, 엄마 내가 낮에 집에 없지만 요즘 우리 집 타는 매캐한 냄새는 없어진 것 같아 웬일이야?

주혜정: 응 사실은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이라며 스톱워치를 사다줬는데 아빠한테 선물은 처음 받아봐서 곰국 끓일 때 얼른 시간 맞

취 놓고 사용해보니 그 거 쓸 만하더라! 시간되면 뽀뽀처럼 뽀~ 뽀 울어대는 것이 시끄러워서라도 얼른 끄게 되네.

차주미: 어머 엄마, 정말이야 그래서 요즘 집안 공기가 맑아졌구나, 엄마 다행이다. 아빠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네 봐, 아빠가 엄마에게 관심 없는 거 아니잖아.

주혜정: 뭐 너희 아빠가 관심 없는 것 보다 있어주면 고맙고 (머리를 긁적이며) 그런데 주미야 사실은 엄마가 이젠 또 다른 사고치는 버릇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차주미: 그게 뭔데 엄마?

주혜정: 사실 대형 사고는 아닌데 어제 할머니 댁에 가서 집안 좀 치워드리고 오다가 피곤해서 버스 안에서 잠깐 졸다가 집 앞에서 내렸는데 버스에 지갑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잖니 그래서 얼른 버스회사에 전화를 해 보니 누구 주워 갔나봐.

차주미: 정말이야 그럼 카드하고 돈은?

주혜정: 응 현금체크카드는 없었고 엄마는 신용카드만 가지고 있어서 신용카드를 집에 오자마자 정지신청을 해서 다행이고 돈도 이만 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액땀했다고 생각한다.

차주미: 엄마 액땀은 무슨 액땀, 또 엄마 부주의지.

주혜정: 근데 주미야, 엄마 건망증이 또 다른 데로 도진 것 같아, 하지만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아빠는 그나마 증세가 조금 나아졌는지 알고 좋아하던데.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차도남이 등장한다.

차도남: 여보, 나왔어!

주혜정: 당신 수고했어요! 마침 주미도 간식 먹고 다시 학교에 가야하니
당신 손만 씻고 이리오세요.

차도남: 어 그래.

차도남: (웃으면서) 아! 요즘 우리 집이 다시 깨끗해진 것 같네 봐 당신
이 정신 줄을 안 놓으니 이렇게 집안의 공기가 맑아졌잖아. (눈
을 살짝 치켜뜨면서) 어때? 당신 요번 스톱워치 네 아이디어 백
만 불짜리지?

주혜정: 맞아요! 당신이 챙겨주니까 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보 내일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소방교육을 한 다네요!

차도남: 어 그건 당신이 받아야 하는 교육인데 당신 내일도 교육시간을
스톱워치에 맞추어 놓았다가 꼭 받아요! 교육은 다 쓸데가 있
는 법이니까.

주혜정: 알았어요! 서방님말씀을 거역하면 되겠어요? 내일은 내가 좀
바쁘지만 무슨 교육을 하는지 한번 가서 들어봐야겠어요? 근데
여보 혹시 저번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오는 건 아니겠지요? 그
사람들이면 나 안 갈래.

차도남: 그럼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외국처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여자소방관들이 따로 있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고 저번에 TV
에 한번 나오더구먼.

주혜정: 알았어요! 아~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가서 그럼 질문도 많이
해야지.

거실의 조명은 꺼졌다가 다시 밝아지고 휴대폰 벨소리가 아침을 알린다.
부스스한 주혜정의 모습이 보이고 주혜정여사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에 아
침을 차린다.

식탁 위의 잘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주혜정의 남편 식사를 하면서 주혜정을 지그시 바라본다.

차도남: 당신은 정말 건망증만 빼면 일등 아내야. (된장찌개를 뜨면서)
이것 봐 된장찌개 이렇게 맛있는 거 그래서 난 다른데 가서 음식 못 사먹겠더라.

주혜정: 이 사람이 아침부터 웬일로 아부성 멘트를 날리지? 당신 나한테 뭐 잘못된 거 있어?

차도남: 아니야 난 요새 당신에게 내가 회사 일에만 열중 할 수 있도록 집안의 모든 일을 당신이 다 맡아서 해주는 것에 대하여 늦게나마 감사하고 있어.

주혜정: 진작에 나한테 좀 따뜻하게 좀 대해주지 당신 내가 얼마나 외로움을 잘 타는 줄 알아? 지금은 내가 건망증 병이 들었다고 이제야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나 분데 그래도 그 소리들이 싫지는 않네!

주혜정: 그런데 출근 시간이 다됐네. 여보, 식사 다했어요?

차도남: (다정하게) 응 맛있게 잘 먹었어~요.

주혜정: 그럼 오늘 아침 특급 서비스로 당신 좋아하는 커피까지 한잔하고 가세요.

차도남: 그럴까. (차도남 커피를 마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선다.)

남편을 현관문까지 따라 나서며 배웅을 마친다. 그리고 TV를 켜 아침 뉴스를 시작으로 아침드라마를 넷을 놓고 보고 있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을 가르치며 이 때 요란한 전화 벨소리로 주혜정은 깜짝 놀란다.

주혜정: 아유 깜작이야 여보세요?

관리소여직원 : 여기 관리실인데요. 106동 102호 사모님 맞으시죠?

주혜정 : (그런데 주혜정 전혀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이) 그런데 무슨 일
이세요?

관리소여직원 : 아 사모님 어제 오늘 소방교육이 있다고 하니 사모님께
서 꼭 참석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셔서 전화 드렸는데요.
잊으셨어요?

주혜정 : 내가 그랬어요? 나는 302호와 지금 헬스 가려던 중이었는데 일
단 알았어요. 참석 할게요.

관리소여직원 : 아 네 참석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안전

무대는 관리사무소 안의 회의실로서 테이블에는 소화기와 물 컵이 올려져
있고 교육을 받으러 온 아파트 주민들이 의자에 앉자있고(대부분 주부들이
고 한 켠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앉아있다.) 이어 남, 녀 소방관이 회의
실 안으로 들어온다. 들어온 여자소방관은 교육을 하기 위해 정중앙에 서
자 남자소방관은 유인물 같은 것을 주부들 사이로 나눠주며 교육이 시작
됐다.

여자소방관 : 안녕하십니까? 00소방본부 안전 체험팀에 근무하는 정수
경 반장입니다. (거수경례)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주부님들이신데 집
에서 요리를 하시다가 집까지 요리하지 않는 화재예방
행동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소방관 : 오늘 이 자리에 주부님들이 많으신데 우선 주부님들이 집에서 지켜야 할 화재예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기름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가스를 처음 켜
을 때부터 파란 불꽃이 나오지 않지요 그러므로 불완전요
소인 빨간 불꽃이 나올 때는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것이 나오
는데 이 암모니아라는 것은 사람의 뇌세포를 하나씩 죽이
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건강증이 심한 겁니다.

다음은요? “신발장이요”

다음은요? “웃장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당
신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 해 주셨네요!

모두 공감하시죠?

교육생모두 : 와~ 하고 웃음으로 대답한다.

여자소방관 : 그래서 저도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가스를 켜는지 안 켜는지 기억이 잘 안나 가스 밸브 앞에서 출근하기 전 “잠궜음”을 항상 외치고 나옵니다. 마치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복창을 하듯이 현대 이것도 한참을 하다 보니 요즘에는 통 기억이 잘 안나 다시 생각한 것이 오감을

활용하여 잠궂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노래로 부르니 까먹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주부님들께 노래를 통한 소방안전 교육을 시켜 드릴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교육을 받는 주부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린다.)

그럼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힘을 입어 노래를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는 윤정이라는 가수의 곡에 가사만 바꾸어 불렀는데 공익을 위해서 기존 가수의 곡을 부르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잠궂음 잠궂음 불이나면 안돼요.

외출 시에는 가스밸브 잠궂어요.

확인함 확인함 불이나면 안돼요.

자리비울시 화기 취급 안돼요.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아요.

바람을 등지고 불난곳을

향하여 소화하면 되겠지만

손잡이를 힘껏 잡고

소방수처럼 멋지게 당겨봐요.

괜찮아요 할 수 있죠.

소화기 비치하면 괜찮아요.

(노래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린다)

여자소방관 : 제가 쓰는 이 예방법으로 저는 이십년 강산이 지나고도 지금도 소방서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오감활용법』은 제가 보증하는 방법이니 여러분도 한 번 사용하시어 화재를 예방하셨으면 합니다.

남자소방관 : 여러분께 시작 할 때 나눠드린 유인물은 소화기 사용법 및 각종 전기, 가스, 기타 화재예방과 지금 배우신 노래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자소방관 : 그럼 교육은 이것으로 가늠하고 여러분 항상 안전생활 하십시오!

주혜정, 종식엄마 유인물을 들고 관리소 사무실을 빠져나오며, 방금 전 배운 노래를 흥얼거린다.

종식엄마 : 주미야 근데 오감을 통한 기억 활용법이 뭐야?

주혜정 : 나도 잘 모르겠어! 이따 인터넷 한번 찾아봐야지.

종식엄마 : 아까 그 여자소방관 멋있지 않더냐? 교육도 참 공감이 가고 잘하고.

주혜정 : 응 예쁘지는 않지만 멋있었어! 그리고 그 『오감활용법』은 완전 대박이야 그런데 그 여자소방관 왜 그리 노래도 잘 불러? 못하는 것이 없네.

종식엄마 : 그래 집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 부럽더라!

주혜정: 집에 있는 누구는 건망증으로 매일 사고치고 누구는 계도하러 다니고 아! 부러우면 따라잡기라도 한 번 해 볼까 나 결심했어! 인터넷으로 『오감활용법』을 찾아보고 내가 한 번 체험해 봐야지.

장면은 바뀌고 주혜정 거실에 앉아 인터넷을 켜고 그 안으로 마치 빠져 들어갈 것처럼 뚫어지게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주혜정: 와! 여기 있네. 오감을 통한 기억력 활용법. (주혜정 인터넷을 쳐다보면 큰 소리로 읽는다.)

주혜정: 몸 전체를 사용해서 공부하는 기억력 학습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책을 소리 내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연필로 표시해 나가면서 눈이나 귀, 입, 손 따위의 여러 감각 기관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기억하는 것은 근육을 움직일 때 생기는 감각의 신호가 대뇌를 자극시켜서 머리의 움직임을 활발히 해준다는 말이지

(주혜정 여사 얼른 휴대폰으로 종식엄마를 검색한다.)

주혜정: 이 정도면 종식엄마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

(얼른 메모한 종이를 컴퓨터 책상에 놓고)

주혜정: 종식아, 내가 『오감활용법』 찾아냈어. 『오감활용법』이란? 기억할 중요 부분이 있으면 오감(눈, 귀, 코, 입, 손)을 통하여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종식엄마 : 어머 어떻게?

주혜정: 예를 들어 내가 가스밸브를 잠글 때 눈으로 보고 동시에 입으로
아까 배웠던 노래를 부르면 입 주위 근육들이 움직여 감각신호
가 대뇌를 자극시켜서 머리 움직임을 활발히 해준다 이거지 그
래서 가스밸브 잠근 것을 확인시켜주고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생각이 나는 거야.

종식엄마 : 와! 자기 정말 대단하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런데 주미야 내일 ‘입시설명회’ 참석하라는 우편물
받았지?

주혜정: 아참 내일 ‘입시설명회’ 참석해야 하는 날이지.

종식엄마 : 그래 내가 내일 차를 가져가니 아침에 자기 데리러 갈게.

다음 날 아침 주혜정은 남편과 장녀를 보내놓고 분주히 ‘입시설명회’ 갈
준비를 하면서 분주히 식탁위에 반찬들을 정리한다.

주혜정: 종남아 이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스 불에 미역국 데어먹고
가스 꼭 꺼.

차종남: 엄마나 가스 불 주의하세요! 저는 엄마가 더 걱정돼요.

주혜정: 그래도 어른이 이야기 하면 네 하지 엄마는 워낙 하는 일이 많
으니까 그러지.

차종남: 알았어요. 학교 갔다 와서 국 데워 먹고 가스 꼭 끌게요 잘 다녀
오세요!

이때 종식엄마가 들어오고 종남이는 학교를 간다고 현관문을 나선다.

종식엄마 : 주미야 다 됐어 벌써 9시 30분이야 늦겠다 얼른 나서야겠는 걸.

주혜정 : 그래 그런데 자기 오늘 옷을 정말 참하게 잘 입었네!

종식엄마 : 응 남학생 엄마야 단정하게 입으면 되지만 여학생 엄마인 자기는 좀 예쁘게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긴 자기는 스타일은 좋으니까 아무거나 걸쳐도 예쁘네!

주혜정 : 뭐 선보려 가는 것도 아니라 대충 입었어.

(주혜정, 종식엄마 차를 타면서)

종식엄마 : 주미야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내가 불일이 있어서 못 데려다 주니 버스를 타고 와야 될 거야.

주혜정 : 그러지 뭐 불일이 있으면 보고와 나는 버스 타고 오면 되니까

암전

학교 운동장이 보이며 주혜정과 종식엄마 학교 안내에 따라 입시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강당에 들어서니 미리 설명을 들으러 온 엄마들이 접수를 위하여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그 중 주혜정과 얼굴이 마주치자 한 엄마 반갑게 웃으면서 다가온다.

학부형 : 주미엄마, 오랜 만이에요. 잘 계셨어요?

주혜정 : 네. 왜 이리 오랜만이에요. 전화도 안 주시고.

학부형 : 주미는 공부를 워낙 잘 해서 걱정거리가 없겠지만 우리 애는 공부를 못 해서 전화하기가 좀 그러네요.

주혜정: 아유 별 말씀을 그러지 마시고 한 번씩 연락주세요.

(둘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접수를 마친 종식 엄마가 다가와 안으로 들어가지며 눈짓을 한다.)

주혜정: (얼른 접수를 마친 후) 그럼 나중에 뵈게요!

주최 측은 이 번 진학상담이 수험생데이터를 가지고 상담하기 때문에 학원들의 배치표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하며 30개 부스에 마련된 현지에는 진학 상담 전문교사들의 1대1 맞춤 상담 코너를 운영하여 진학 상담을 받으려는 학부모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주혜정: 아!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종식엄마: 간신히 받고 나왔네. 그런데 이번 마련된 ‘입시설명회’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나봐 이렇게 사람이 많을 걸 보니.

주혜정: 응 그래서 우리 주미가 이번 설명회 책자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갖고 오라고 신신당부 하던데.

종식엄마: 응 나도 우리 종식이가 그런 말을 하긴 하던데 오늘 잘 온 것 같아 상담 선생님들도 쉽게 설명해 주시고.

주혜정: 오늘은 운이 좋은 것 같아.

종식엄마: 자기야 나 이쪽으로 간다. 나중에 봐.

주혜정: 그래 잘 다녀와.

(주혜정 종식엄마와 헤어진 후 혼자 버스를 탄다.)

주혜정여사 이번에는 버스 안에서 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 눈에 힘을 주고 창밖을 보고 있다. 그러다 휴대폰 벨소리를 듣고 휴대폰을 열린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집 근처에 버스가 다왔다는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고 놓친다.

차도남: 오늘 “입시설명회” 잘 갔다 왔어?

주혜정: 응 여보 지금 나 버스 안이야.

차도남: 아직도 집에 안 왔어.

주혜정: 사람이 많아서 이제 오는데 나 오늘 “입시설명회” 참 잘 왔어요. 오늘은 전문 상담 선생님들도 많았고 또 학부모들에게 쉽게 가르쳐 주어서 아마 못 온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 할 것 같아.

차도남: 그렇게 “입시설명회”가 괜찮았으면 학교에서도 신경을 좀 썼네! 그런데 주미는 어느 대학정도 무슨 과를 가면 된다고 해?

주혜정: (재는 듯이) 당연히 00대학교 의과지.

차도남: 다른 과도 상담 받아보지 그랬어?

주혜정: 그렇지 않아도 받아봤는데 내가 다른 과는 마음에 안 드네! 일단 주미에게 선택하도록 하면 되지 주미가 책자 잘 챙겨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차안에서 즐지 않고 있어요. 어머, 그런데(깜짝놀라며) 당신 빨리 휴대폰 끊어봐 버스에서 벌써 내릴 때가 지난 것 같아.

주혜정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휴대폰만 가지고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바로 버스에서 내린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 아파트 쪽으로 걸어오면서 그 때서야 가방을 안 가지고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혜정: 이그 내 핸드백? 아이고 또 버스 안에 두고 내렸네! 주미 입시설
 명회 책자는 또 어떡하나? 왜 하필이면 그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이 모양이지 아! 나 또 어떻게?

암전

거실이 비치자 차주미 공부에 지쳐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현관문을 지나
 거실로 들어온다.

차주미: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시설명회 잘 다녀오셨어요?

주혜정: 응 그런 것 같은데 주미야 이번 수시 넣을 때 그 “입시설명회”
 책자가 꼭 필요한 거니?

차주미: 왜? 엄마 또 잃어버리고 왔어?

주혜정: 응 마침 버스를 타고 집에 다와 가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휴대폰
 이 와서 받고 계속 통화하다가 그만 우리 아파트 정류소를 지
 나치자 당황해서 다음 정류소에서 내리다가 가방이랑 입시책
 자 또 다 놓고 내렸어 어떡하지?

차주미: 엄마 어떡해? 나 종식이 싫어해서 개하고는 같은 학원 같은 단
 과반이라도 말도 잘 안하는데 빌릴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해. (신
 경질적으로)

주혜정: 주미야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종식 아줌마와는 절친 이니까 그
 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 책자 내일 대학교 앞에 가서 통째로
 복사 해다 줄게.

차주미: 으으 엄마 못 믿겠어! 내일 종식아줌마와 꼭 같이 다녀와.

주혜정: 그래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도 아빠에게 얘기하지 마! 엄마 노

력하고 있으니까 알았지?

차종남: 엄마 나도 들었는데 네 입은 안막아?

다시 조명 들어오면 차도남의 사무실 모두 다 퇴근하고 혼자 남아서 통화를 하고 있다.

차도남: 혜옥아?

여자동창생 : 도남이네 왜?

차도남: 응 저번 나한테 준 스톱워치 아이디어 덕분에 아내의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 관심이 그 쪽으로 가다보니 인터넷상에서 모 화장품 회사의 용기 제안 광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 순간 딱 떠오르는 것도 있고 해서

여자동창생 :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던데?

차도남: 아내가 사용하는 화장품 중 스킨, 로션 용기가 금색으로 되어 있더군. 나는 그 것을 보는 순간 스톱워치가 떠오르면서 그 용기에 알람 기능이 있는 금색의 시계를 부착해 보아야 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여자동창생 : 그렇게 해서.

차도남: 그러면 화장을 하기 전 약속이 있는 사람은 알람기능으로 시간을 맞춰놓았다가 약속을 까먹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기 제안인데 이 건 여러모로 쓸모 있게 사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자동창생 : 그래 어떤 용도에 또 사용할 수 있는데?

차도남: 응 그 용기뚜껑이 꼭 왕관을 닮아 왕비처럼 공주처럼 외모에 관심이 있는 구세대나 젊은 세대도 공략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했거나 공부를 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 하는 여성들에게도 어필하면 될 것 같은데.

여자동창생 :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긴 한데.

차도남 : 그래서 디자인은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려고 배운 시각 디자인으로 지금 한번 생각나는 대로 디자인해서 화장품 회사에 공모해 보려고 꼭 당선이 중요한 것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한 번 해보고 싶어.

여자동창생 :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너 당선되면 한턱 쏘라

차도남 : 알았어! 당선된다면 한 톨 밖에 없지만 내 한 톨 쏘지.

여자동창생 : 알았어. 그럼 기대할 게.

차도남 : (컴퓨터에서 각종 디자인을 찾으며 중얼거린다.) 음 용기 분위기는 마법의 램프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하고 용기 윗부분은 여왕마마의 왕관이 연상되는 모양과 밑 용기 부분은 시계를 매치해서 이름을 일명 “마법의 시계”라고 제목을 부치는 거야 아~ 생각만 해도 근사한데 어서 디자인해서 당선이 되면 아내에게 꼭 선물로 주고 싶네!

(차도남의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지어지면서 열심히 컴퓨터 디자인작업에 몰두한다.)

무대 바뀌며 주혜정의 집 전화 벨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울리고 있다.

외출하다 들어온 주혜정 여사 황급히 전화를 받는다.

주혜정 :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화장품업체 담당자 : 안녕하세요? 여기는 00화학 피오레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런데 혹시 차도남씨라고 계십니까?

주혜정: 네 저희 남편이 차도남인데요 왜 그러세요?

화장품업체 담당자: 저는 피오레 화장품 기획실장입니다. 이번에 남편 분께서는 저희 회사 신제품에 출시된 화장품 케이스 용기 공모에 응모하시어 대상에 당선되셨는데 연락을 드리니 계속하여 회의 중이라는 휴대폰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어서 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모님 되십니까?

주혜정: (걱정스런 말투로) 네 그런데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무슨 일인지 저희 남편에게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면 안 될까요?

화장품업체 담당자: (웃으면서) 나쁜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남편 분께서 사모님께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은데 일단 남선생님에게 통화되면 저희가 시상식 일정을 잡아야 하니 꼭 좀 전화 주십시오.

주혜정: (중얼거리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수가 없네?

주혜정 사실을 확인 하려는 듯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고 있다.

주혜정: 여보 이제 통화되네. 당신 피오레 화장품 회사에서 찾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차도남: 응 무슨 좋은 소식 있었어?

주혜정: 응 당신이 무슨 화장품 케이스 용기 공모에 대상을 받았다며 찾던데 전화 꼭 해달라고 이야기 하던데.

차도남: 정말이야 야 네 아이디어가 대상이 되다니 꿈만 같은데.

주혜정: 그런데 어떤 디자인 인데?

차도남: 당신하고 연관된 아이디어가 떠올라 내가 공모했지.

주혜정: 나하고 관련된 디자인 그게 뭘까?

차도남: 맞춰봐 우리 여왕마마를 생각하고 제안한 것이 좋은 성과를 냈네!

주혜정: 여보 나 지금 몹시 궁금하니 당신 끝나면 빨리 집에 들어와요.

차도남: 알았어! 지금 회의 마무리 하고 바로 갈게.

암전

주혜정의 집은 벌써 축제분위기로 주혜정 여사 남편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풍선으로 거실을 꾸미고 준비해 온 케이크는 거실 탁자위에 차려놓았다.

차도남: 여보!

차종남: (큰소리로) 아빠! 아빠가 왔다.

주혜정: 당신이예요 여보 아무튼 축하해요.

차종남: 아빠 축하해! (폭죽을 터뜨린다.)

차도남: (주혜정을 바라보며) 아니 아직 상을 안 받았는데 너무 일찍 폭죽을 터뜨린 것 아닌가?

주혜정: 여보 당신의 어떤 아이디어로 당선됐는 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대단하다고 생각되어 애들과 조출한 파티를 마련했어요!

차주미: 와! 아빠 어떤 아이디어인지 궁금해?

차도남: (겸연쩍은 듯) 사실은 너희 엄마에게 스텝위치를 사다주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너의 엄마가 요사이 음식물을 태우는 일이 거의 없어 신기했는데.

차주미, 차종남 : 그런데요 아빠?

차도남: 그 것을 좀 더 엄마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무심코 화장품 용기 제안 공모를 보고 용기 위에 시계를 디자인 하여 부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차주미: 그리고요 아빠.

차도남: 그것이 실용가치가 있든 없든 엄마를 위해 한 번 도전해 보고 싶어 용기를 냈지 그런데 피오레 기획실팀은 확실히 달랐어.

주혜정: 어떻게요?

차도남: 그냥 치나 칠 수 있는 간단한 아이টে를 자기 회사의 화장품 광고 이미지와 승격시켜 피오레 화장품 “마법의 시계”를 바르면 피부가 마치 마법처럼 되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의 광고와 용기는 공주나 왕비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마케팅전략으로 돌입하여 이번에 출시하자마자 완전 대박이 났나봐.

차주미: 그럼 아빠 시상식 날자와 상금은 얼마예요?

차도남: 음 이번 달 시상식은 12월 24일이고 상금은 현금 백만 원을 준다네.

차주미: 얼마 안 남았네.

차주미: 아빠 상금타면 그럼 저 대학 입학 선물 미리 하나 해 주세요?

차도남: 응 우리 딸딸 뭐가 받고 싶은데?

차주미: 친구들이 그러는데 대학에 가면 명품가방(일명 : 메이커 가방)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준메이커 가방정도 하나만 사 주세요

차종남: 아빠 저는 자전거 사 주세요.

차주미: (갑자기 끼어들면서) 조용히 해! 이 건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한 거니까 엄마와 모종의 약속을 지킨 사람만 아빠와 의논해서 선

물을 주도록 할게.

그리고 차도남, 주혜정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간다.

주혜정: 여보! 당신 시상식 날은 검남색정장을 입고 가면 깨끗할 것 같아!

차도남: 응 당신도 같이 가야 해 부부동반이야.

주혜정: 그래요 아이 신나라.

차도남: 음 우리 그날 시상식이 끝나면 우리 좋은데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합시다.

주혜정: 여보 나 오늘 따라 당신이 왜 이리 침직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차도남: 괜히 쑥스럽게.

주혜정: 그런데 자기야 나 자기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요!

차도남: 뭔데 (웃으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혜정: 사실은 내 건망증 문제데.

차도남: 당신 건망증 왜?

주혜정: 사실 요사이 내가 음식물을 올려놓고 태워먹는 버릇은 없어졌지만 당신한테 얘기 안 한 또 다른 건망증 버릇이 생겼었어.

차도남: (차분히) 어떤 일이 있었는데?

주혜정: 아래 엄마네 갔다 오다가 졸다가 그만 우리 집 앞 정류장에 다 다르자 내가 버스에서 벌떡 일어나 빈손으로 내렸어 그래도 그때는 현금 이만 원과 신용카드밖에 없어 카드는 정지 신청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차도남: 그런데?

주혜정: 며칠 뒤 주미 ‘입시설명회’ 있던 날은 관리비에 은행 공과금을 내려고 가지고 갔던 현금 백만 원을 몽땅 잃어버리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저번 소방교육 받을 때 여자소방관이 가르쳐 준 “오감활용법”을 매사에 적용시켜 일상생활에 긴장을 풀어넣었더니.

차도남: 그랬더니?

주혜정: 건망증이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고백하는 거야.

차도남: 그런데 ‘오감활용법’은 또 뭐야?

주혜정: ‘오감활용법’이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을 통하여 기억하면 잘 안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지.

차도남: 다섯 가지 감각으로 기억한다고?

주혜정: 응 다섯 가지 감각이란? 시각은 눈을 통하고 청각은 귀로 듣고 후각은 코로 냄새를 미각은 혀로 말하고 촉각은 만지는 다섯 감각을 통하여 기억하는 건데.

차도남: 감각을 통하여 기억한다는 말이지.

주혜정: 예를 들어 내가 가스밸브를 잠글 때 내 눈으로 보고 동시에 입으로 말하면(특히 노래하면 더욱 좋고) 눈, 입, 손 따위의 여러 감각 기관이 한꺼번에 사용되어 근육을 움직일 때 생기는 감각의 신호가 대뇌를 자극시켜 머리의 움직임을 활발히 해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지.

차도남: 방법은 과학적인데 좀 효과가 있었어?

주혜정: 처음에 입으로 읊조릴 때는(중얼거릴 때는) 효과를 모르겠더니 그 여자소방관이 가르쳐 준 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확인을 하니 신기하게 기억이 나서 실수를 안 하려고 이젠 모든 일을 끝마칠 때는 항상 “확인함” “확인함”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아! 정

말 개인적으로 그 여자분께 찾아가서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야.

차도남: 음 훌륭하고 좋은 기억법이군!

주혜정: (주혜정 살며시 차도남 옆으로가 앉으며) 그래서 애긴데 여보 오늘 당신이 나에게 준 『마법의 시계』는 내 마음의 초침을 다시 0시로 돌려놓은 선물이었어!

차도남: 마음의 초침을 다시 0으로 돌려놓은 선물이라니?

주혜정: 응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떨림을 기억 속에서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되찾은 것 같아.

차도남: 그래 남자가 한 번 약속한 건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

주혜정: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여보! 우리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선 저에게 항상 에너지원이 되는 동료 선,후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발표 당일은 제 결혼기념일이라 기쁨이 두 배가 되어 운종일 행복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법의 시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건망증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사십대 주부의 건망증을 여자소방관의 오감활용법과 남편의 사랑으로 차차 호전된다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글의 건망증 메시지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자동차 키를 못 찾아서 찢찢했던 기억들, 안경을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 그냥 출근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두 제품에도 알람 신호음을 부착해 보면 어떨까 하는 평소 생각의 전환이었던 것이죠.

끝으로, 소소한 일상생활의 아이디어에 웃을 입혔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신데 대하여 심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소년원
이 종 수

레일 위에서

역장 : (놀리는 사령실장을 의식하며) 행적이 묘연? 대기실은 수색해 봤어? 2호와 3호에게도 알아보고 탐지기든 뭐든 써서 빨리 찾아 내!

역원 : 지하철 탐지시스템은 순수한 인간의 냄새만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1호를 비롯해서 우리 지하철 기관사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발한 장비들입니다.

-본문 중에서-



레일 위에서

때 가상의 지하역의 어느 날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곳 가상의 어느 지하역

나오는 사람들

지하철 1, 2, 3 호선 기관사
사령실장, 운전사령, 역장, 역원, 노파
승객 1, 2, 3, 4
전사들, 인부들

무대

무대 중앙에 기관사 대기실이 있다. 대기실 안에는 침대가 마치 지하철 승객용 좌석처럼 마주하여 놓여 있고 위로는 지하철 손잡이들이 매달려 있다. 대기실 벽 한 쪽에는 거울과 간단한 세면도구가 놓여 있고 그 앞에는 물주전자와 컵이 놓여 있는 작은 의자가 탁자처럼 놓여 있다. 대기실은 동시에 지하철 내부이기도 하다. 대기실 전면에는 레일이 가로로 달리고 있다. 대기실 왼쪽은 기관사들이 출입하는 문이 달려 있고 오른 쪽 벽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이어지

고 있다. 승강장 뒤편에는 승객용 작은 계단이 나 있으며 그 위쪽 끝에는 ‘지하철 폐차장’ 화살표와 ‘개조소’ 화살표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 있다. 무대 오른 쪽 천장 가까이에는 중앙사령실이 있다. 레일 한쪽에는 ‘오아시스역행 레일 공사 중’이라는 하트 모양의 팻말이 세워져 있다. 기관사들의 얼굴색을 포함한 피부색깔은 레일 색깔을 닮아 있다.

(막이 오르면 어둠 속에서 소리만으로 지하역 풍경이 그려진다. ‘지금 마지막 지하철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객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익숙한 안내방송에 섞여 승객들 서로 밀치며 타고 내리는 소리, 문이 닫히고 육중한 굉음을 울리며 출발하는 지하철 소리 아득히 멀어진다. 잠시 후 굉음 소리 찾아들면 흐릿한 어둠 속에서 레일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와 십장이 보인다. 잠시 후 힘겨운 작업을 마친 후 공구 정리를 끝낸 인부들이 ‘오아시스역행 레일 공사 중’ 팻말을 만지작거리다 말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며 서로 이야기하다 퇴장하면 무대 서서히 밝아온다. 기관사 대기실에서 2호는 흥얼거리며 세면을 하고 있고 1호는 아직 침대에 누운 채 잠꼬대를 하며 뒤척이고 있다. 기관사들은 서로를 1호, 2호 등 지하철 노선번호로 호칭한다.)

2 호 : (여전히 거울을 보며) 이봐! 1호! 다시 달릴 시간이야. 그만 자고 일어나. (거울에 상반신을 비추며) 오늘도 이 육중한 몸으로 승객들을 태우고 힘껏 달려야지. 이 초콜릿 복근과 강철 같은 팔뚝을 봐. 역시 이 지하역의 몸짱은 누가 뭐래도 나란 말이야.

이때 뒤척이며 잠자던 1호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일으킨다. 이마

엔 식은땀이 흥건하다.

2 호 : (별로 놀라지 않은 듯 거울 속으로 1호를 쳐다보며) 1호! 또 그
개꿈이야? 저렇게 허약해가지고서야 원!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최강 중의 최강이니까 말이야. (얼굴과 머리를 다
듬으며 1호를 돌아본다) 근데 이상하단 말이야. 나나 3호는 꿈과
이별한지 벌써 한참인데 1호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거든?

1 호 : (머리를 감싼 채 혼잣말로) 대체 이놈의 꿈은 왜 안 없어지는 거
지? 레일에 짓눌리는가 하면 파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다 다시
허공에서 레일에 묶여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친단 말이야. 천근
만근 죄스러움과 함께.

2 호 : 죄스러움? 그렇다면 죄의식? 죄의식이라면 과거 지상에서 잘 나
갔던 종교의 시장에서 인간들의 무지와 불안을 미끼로 판매순
위 1위를 기록했다던 바로 그 대박 상품 아냐? 그런 꿈을 꾸다는
건 아직 1호가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요즘 뭔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냐?

1 호 : 딴 생각? 내가? 무슨 말이야? (머리를 감싸 쥐며) 아! 머리가 깨
질 듯이 아파오네!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탁자로 간다) 내게 생
각이라면 오직 지하철 운전뿐이지. 누가 뭐래도 난 무사고 운전
에 충실하고 있단 말이야.

2 호 : 그래? 정말 무사고 운전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해?

1 호 :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휴! 이제 좀 괜찮네. 2호! 걱정 마. 난 잘
달리고 있어. 1일 평균 운행횟수와 소화물량만 봐도 내가 2호보
단 월등히 낫다고! 작년 성과평가도 이미 끝났잖아? 최고 등급은
바로 나왔다고!

- 2 호 : 성과평가? 최고? 췌! 그리곤 입 싹 닦은 것이 누군데? 뭐 평소 내가 땀보여서 그랬겠지. 하여튼 문제는 말이야.
- 1 호 : 문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애길 끌고 갈래? 아침 첫 운행을 앞두고 좋지 않은 얘기 따윈 그만 뒀으면 좋겠어. 난 문제 없어. 어제 운행을 마치고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점검해 봤거든.
- 2 호 :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다 닦고 나서) 점검만? 점검 결과가 아니라? 하! 하!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거든.
- 1 호 : (화난 목소리로) 무슨 소리야? 굳이 내가 불완전했던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완벽해서 단 한 명의 승객도 놓친 적이 없다는 것뿐이야!
- 2 호 : 미안! 미안! 진정해, 진정!
- 1 호 : 진정? 미안? 말이면 다야? 2호! 시운전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해 달려온 나라고! 개조소가 배출한 최초의 지하철 기관사 1호, 그게 바로 나란 사실을 잊었어? 잊었냐고?
- 2 호 : 알고 있지. 최초의 지하철 1호선 기관사! 1호의 그 노력과 열성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슬쩍 떠보는 투로) 어제처럼 그따위 희망도 없고 절망조차 품지 못한 하찮은 인부들의 한탄에 그렇게 동요해서야 되겠어?
- 1 호 : (멈칫하며) 인부들? 무슨 말이야? 인부들이라니?
- 2 호 : 저기 (목을 빼어 레일을 가리키며) 레일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인부들 말이야. 자는 척 하면서 몰래 듣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아이러니야. 그들은 레일 위의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정작 1호는 이렇게 레일 밖의 인간적인 것에 묶인 채 꿈꿨대고 있다니 말이야.

1 호 : 하! 하! 우리가 레일위의 기호로 완전히 변환될 날도 멀지 않았잖아. 그렇게 되면 그 인부 말마따나 파란 하늘이고 뭐고 볼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꿈에서라도 좀 보고 싶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라도 있어?

2 호 : (비아냥거리는 투로) 꿈? 꿈이라고? 그따위 꿈은 우리 모두를 심각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마약에 불과해! 현실의식을 감퇴시키고 레일을 이탈케 하는 죽음의 마약! 또한 (1호를 노려보며) 그건 배신이야, 배신! 레일의 논리와 충성 서약에 대한 배신!

벨이 울리며 중앙사령실에서 1호선과 2호선의 출발준비명령이 하달된다.

1 호 : 그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모자를 쓰며) 운행명령이야! 또 닭달을 당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허기가 느껴지는 걸. 주린 배나 실컷 채워 볼까나!

1호, 서둘러 복장을 갖추고 준비물을 챙겨 퇴장한다.

2 호 : (1호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무슨 말을 못 하겠단 말이야. 하는 수 없지. 나도 슬슬 배가 고파 오는걸. 바보 같은 승객들은 우리가 자기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거라 믿고 있겠지. 하! 하! (복장을 갖추며) 파란 하늘? 꿈? 그건 중력에 불과해. 과거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 그 중력을 이겨내기 전에는 항상 저런 꿈을 꾸게 되지. 저 녀석은 그걸 합리화하면서 안주하고 싶은 거야. 저 녀석 저러다 정말 인간으로 회귀하는 거 아냐? 잘 지켜봐야겠어. 자칫하는 날엔! (주위를 경계하듯 둘러본 뒤 퇴장한다)

1호와 2호가 대기실 왼쪽 문으로 퇴장하면서 대기실은 어두워지고 지하철 굉음 소리 점점 커지며 무대를 채운다. 지하철 굉음에 섞여 승객들이 무대 오른쪽 계단을 이용해 승강장으로 들어와 여기 저기 의자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 속에는 노숙자들도 섞여 있어 여기 저기 아무렇게나 드러눕거나 구걸을 한다. 잠시 후 전사들과 역원이 등장, 전사들은 계단에 누워 있는 노숙자들을 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일으켜 끌고 가고, 역원은 승객들의 승차권을 점검한다.

승객 1: 그놈의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어도 전사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군. 언제든지 칼을 휘둘러 수 있는 저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승객 2: 그러게 말이야. 전사들이 잡아가는 걸 보니 저들은 어김없이 개조소행이겠군. 가만! 근데 왜 오늘 따라 이렇게 출발이 늦는 거지? 1호선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승객 2: 늦으면 늦는다는 안내방송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승객 2: 결국 타야 하는 게 우리 승객들의 숙명인 걸 아는 거겠지. 지하철에서 내려선 단 하루도 연명하기 힘든 게 우리네 운명이잖아.

승객 3: 자칫하면 우리도 저들처럼 개조소 신세가 되는 거지. 안 그래?

승객 1: 그만 해. 근데, 요즘 들어 지하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면서?

승객 3: 맞아. 아까 승차하고 나서 밖을 보는데 저쪽 승강장 부근에 승객들이 모여 있더라고. 누군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승객 2: 나도 봤지만 참 딱하더군. 그 나이에 말이야.

승객 1: 누구 말이야?

승객 2: 아까 그 노파 말이야. 뭐, 무임승차를 했거나 뭐래나? 지난달에

노약자석을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다 없애버렸잖아? (문득 한 쪽을 바라보다) 가만! 아까 그 노파가 저 노파 아니었나?

승객 3: 어디? (잠시 주의 깊게 바라보다) 아닌데. 아니야.

승객 1: 잊어 버려! 괜한데 신경 쓰지 마! 자칫하다간 우리가 그 꼴이 된다고!

승객 2: 늙어서 이젠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지하철 폐차 시키듯 폐기처분하겠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잊어 버려!

승객 3: 그래, 잊어 버려! 여기서 뭐든지 기억하지 않는 게 최고야. 스쳐지나가는 것은 스쳐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이 지하철 승객에겐 최고의 지혜거든.

이때 멀리서 지하철 달려오는 소리 희미하게 들린다. 레일 주위를 오가며 다급하게 승차권을 검사하던 역원이 레일 앞에 선 한 노파에게 다가가 승차권을 요구하지만 노파가 주저하자 노파를 끌어내 사정없이 내동댕이친다. 노파는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역원에게 빌며 사정을 하지만 역원은 다시 노파를 거칠게 내팽개친다. 이 장면을 본 승객들이 노파 주위로 몰려들지만 역원이 소리치자 곧 흩어져 승차한다. 동시에 지하철 소리 더욱 가까워지면 역원이 노파를 개 끌듯 끌고 퇴장하고 이어 안내방송이 울린다.

안내방송 3호선, 3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호선 열차에 승차하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선로에서 멀찌감치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1: 어? 근데 왜 1호선은 출발을 안 하는 거지?

승객 2: 이러다간 3호선이 1호선을 들이 받겠어! 이 지하철 열차 시스템이 오늘 따라 왜 이 모양이야?

승객 3: 가만있다가 몽땅 다 깔려 죽고 말겠는 걸!

이어 귀를 찢는 비상벨과 함께 대피 방송이 시작되고 이어 다시 들려오는 지하철의 굉음 더욱 커지며 미친 듯 울려대는 비상벨 소리와 함께 지하역은 명멸하는 빛으로 어지럽다. 승객들의 혼란스러운 몸짓들과 혼란스러운 빛을 뚫고 중앙사령실에 사령실장과 운전사령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등장한다. 전사 한 명이 사령실장을 뒤따르고 있다.

실장: 운전사령! 1호를 즉시 출발시키고 3호를 감속시켜! 어서! 저대로 가다간 영락없는 충돌이야 충돌!

사령: (정신없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실장: 빨리 빨리! (무대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거 안 보여? 안 보이냐고!

사령: (혼잣말로) 누군 눈이 없나! 30년 경력에 이런 경우가 처음인 걸 어찌란 말이야! (아래를 내려다보며) 됐습니다. 1호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실장: (발을 동동 구르며) 되긴 뭐가 돼! 저렇게 굼뜨게 움직이다간 3호가 들이 받겠어. 내 말은 1호를 출발시킴과 동시에 3호를 감속시키란 말이야! 왜 오늘 따라 이렇게 말소릴 못 알아듣는 거야? 응?

사령: 현재 선로가 지하역에선 가장 굽은 곡선 코스라 3호를 정지시키기보다 최후의 수단으로 1호의 운전권을 박탈하고 원격조종으로 운행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좋아! 그렇게 해! 할 수 없지!

사령: (제어기를 조작하며 허둥대는 사령실장을 보고 혼잣말로) 웃기

고 있네. 저 허둥대는 꼴이란! 사령실장이란 완장만 차고선!

1호선의 굉음과 3호선의 날카로운 금속음이 무대를 채운다.

실장 : (아래를 보며) 이제 됐어! 1호는 개조소로 끌고 가서 철저하게 조사해. 단순 기기고장인지 무사고 원칙 위반인지 알아내란 말 이야!

사령 : 넷! 알겠습니다!

실장 : 명심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음은 바로 네놈 차례란 걸 말이야! (지시봉으로 운전사령의 머리를 내리치며) 알겠어? 이 거야 원 누구 하나 믿을 만 한 놈이 없으니! (투덜거리며 퇴장한다)

사령 : (실장의 뒷모습을 향해 경례한다) 넷! 알겠습니다! (실장이 들어가자 혼잣말로) 이 지하역이 돌아가는 게 다 누구 덕인 줄 알고 저렇게 날뛰는 거야? 하는 거라곤 허구한 날 직원들에게 지시나 해대고 옛날 경력만 내세우는 것 밖에 더 있나? 남의 업적을 자기 업적으로 둔갑시켜 지금까지 커온 건 이미 알만한 승객은 다 알고 있을 걸! 승객들의 승차 후 변화된 실적이 낮으니까 노파를 동원해서 억지로 골라내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나무껍질처럼 말라터진 인간의 감정을 남은 한 방울까지 짜내겠다 이거 아닌가 말이야?

주먹을 불끈 쥐고 난간을 걷어차며 운전사령 퇴장한다. 곧 이어 대기실로 뛰어드는 1호와 2호. 1호는 대기실을 서성이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는다. 2호, 1호에게 다가가 무섭게 노려본다.

- 2 호 : 1호! 아까 그 출발지연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 1 호 : (움짤하며 고개를 들어 2호를 본다) 출, 출발 지연?
- 2 호 : 하마터면 뒤에서 달려오던 3호와 부딪힐 뻔 했잖은가 말이야.
레일에 땡세코 이 지하역 역사에 길이 남을 대참사가 될 뻔 했다고!
- 1 호 : (당황한 표정을 숨기며) 그건 전기 신호가 자꾸만 끊어지고 자동 운행시스템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정비 불량이라고!
- 2 호 : 아니! 그건 모두 정상이었어. 1호는 뭔가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게 틀림없어!
- 1 호 : (도리질을 하며) 아니야, 아니야! 나, 난 그때 마침 어떤 노파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 노팔 태우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 2 호 : 그런 일이라면 뒤에 오는 3호에게 맡기면 되잖아. 그리고 그 노판 1호에게 달려가지 않았어. 역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고. 1호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야. 게다가 자동운행시스템이 정상이었다면 1호의 그 머뭇거림은 뭘 말하는 거겠어? 응?
- 1 호 : (2호에게 실망한 듯 바라보며) 2호도 그 사건을 목격했다라면 일말의 동정쯤은 느꼈을 거야. 난 그 할머니가 애걸복걸하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꼭 지난 전쟁 때 돌아가신 할....! (말을 마치지 못하고 2호의 눈치를 본다)
- 2 호 : 할? 또 그 할머니 얘기군. 그 옛날 어머니 없이 태어난 1호를 돌봐주었다던 그 할머니. 어느 날 추운 겨울 밤 장터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열차를 타지 못해 어느 기차길 옆에서 객사했다는. 역시 동정과 그리움이 1호를 전염시킨 게 틀림없어. 지하철 무임승차에 장사까지 한 그 노파의 행위는 불법행위

였어. 아니, 범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지.

1 호 : 그런 것까지 범법행위라고?

2 호 : 우리 지하철의 법을 어겼으니까!

1 호 : (어이가 없다는 듯) 그래? 그래서 그 대가로 마치 개 끌리듯 끌려 승강장 밖으로 내쫓은 건가? 도대체 노약자에게 그럴 수가 없었다고!

2 호 : 그들의 행위는 정당했어. 동정을 미끼로 한 그 노파의 행위야말로 정말 역겨웠지. 그 역원은 레일의 논리에 대한 진정한 충성을 보여줬어.

1 호 : 하지만 호기심에서 분노로 변해버린 승객들의 그 신성한 윤리감정은?

2 호 : 신성한 윤리감정? 그들의 분노와 욕설은 무력해진 자신의 진면목에 맞닥뜨린 자기혐오의 표현이었을 뿐이야. 결국 그들의 외침은 헛된 메아리가 되어 빈 터널을 울렸고 결국 우리 지하철의 우렁찬 숨소리에 파묻혀 버리고 만 거지.

1 호 : 난 그래도 그 할머니의 눈빛을 잊지 못하겠어.

2 호 : 불가사의한 일이야. 어쩌다 1호 같은 인물이 레일 위를 달리게 되었는지. 이 지하철에서도 인간들의 다른 특성은 다 제어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어도 그 감정만큼은 완전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역시 사실인 것 같아.

1 호 : 2호는 모를 거야. 할머니가 기차길 옆에서 동사하시고 며칠 밤을 울부짖던 나를! 그 기차와 그 검은 레일을 부숴버리고 싶은 욕망에 괴로워했던 내 심정을!

2 호 : 그 마음 이해해. 암, 이해하고 말구.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1호! 그토록 세상을 파괴하고 싶었으면 테러리스트가

되든가 할 것이지 이곳에 와서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건 또 뭐야?

1 호 : (머리를 가로 저으며) 참엔 그러고 싶었어. 그런데 (일어서서 마치 회상하듯)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강하고 튼튼한 레일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날 압도하는 거야. 힘차게 기적을 울리며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를 보자 그 기차가 되어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힘차게 달리는 기차가 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존재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거였어! 내 안에 숨어 있던 또 다른 내가 껍질을 뚫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

2 호 : (비꼬듯) 그래서 개조소에 자진 입소했고 이렇게 나와 함께 레일 위를 달리게 된 것이다? 하필이면 나와 함께? (격려하듯) 어쨌든 1호!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어! 인간이란 바로 그런 결단을 통해 인간임을 넘어서는 법이지. 그건 그렇고 1호! 우리의 3대 구호와 운행 원칙 잊지 않고 있지? (2호의 선창에 1호가 차례 자세로 하나씩 복창한다)

첫째, 운행의 효율화와 능률화!

둘째, 운송의 대량화와 물량화!

셋째, 동작의 신속화와 자동화!

셋째, 생활의 기계화와 규칙화!

하! 하! 역시 기본이 됐어! 좋아! 그리고 그 모든 원칙에 앞서는 대원리는?

- 1 호 : (힘찬 목소리로) 운행 중 절대 무사고! 절대 무감정!
- 2 호 :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만의 구호를 하나 들자면?
- 1 호 : (여전히 차려 자세를 취한 채 더욱 힘차게) 내가 쉴 때 나는 녹슨다!
- 2 호 : (박수를 치며) 하! 하! 좋아! 좋아! 1호! 아주 훌륭해! 그렇게 앞으로 몇 년 만 지나면 1호에게 뿌리박힌 인간성은 깨끗이 제거되고 대신 얼음같이 차고 수정같이 맑은 레일의 논리가 1호를 새로운 존재로 결정시켜 낼 거야!
- 1 호 : (갑자기 자세를 풀며 혼잣말로) 하지만, 변화는 정말 가능한 것일까? 아무리 닦고 기름칠을 해도 (몸의 이곳저곳을 문지르며) 이놈의 인간의 냄새와 색깔은 없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 2 호 : (답답한 듯 하소연하며) 이것 봐, 1호! 제발 첫째도 냉정, 둘째도 냉정! 알지? 인간적인 느낌과 사고와 행위란 놈들은 우리를 녹슨게 하고 우리를 레일 위에서 이탈하게 하는 사기꾼들일 뿐,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건 폐차장 무료입장권뿐이라고!
- 1 호 : (도리질을 치며) 하지만 그 감정만은 결코 부인할 수 없어. 감정의 소멸은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해! 그것은 나의 생명! 내 존재의 근거란 말이야!
- 2 호 : 웃기는 소리 그만 해! 감정이 소멸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거야. 승객들도 우릴 그냥 1호, 2호로만 부를 뿐 우리에게서 어떠한 감정적 흔적도 발견할 수 없을 때 또한 승객들도 우리에게는 그저 승객들일 뿐이게 되는 거지. 간혹 급출발하는 우리의 문에 누군가의 옷자락이 걸려 몇 십 미터고 끌려가다가 몸이 찢기고 머리가 다 깨지며 울부짖어도 우리는 그저 달리면 되는 거고 또 때가 되어 멈추게 되면 그저 문을 열

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우릴 비난하지 않게 되는 거야.

1호 그래! 2호! (두 팔을 펼쳐 날아오르듯) 감정과 연민의 먹구름이 가시고 투명한 기호적 존재로 날아오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여기서 달리고 있는 목적이지!

2호 : (1호의 흉내를 내며) 1호! 이제야 제정신이 드는 모양이네! 1호가 꾸는 그 꿈, 어둠속에서 레일에 짓눌리는 그 악몽은 빛 가득한 지상으로 날아올랐을 때 비로소 사라질 거야. 그건 1호의 진정한 욕망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그때까진 절대로 레일 바깥 세젤 넘파선 안 돼! 거긴 우리에게 죽음의 폐차장일 뿐이라고! (우렁찬 지하철 굉음이 들려온다) 3호가 달려오고 있어. 자, 우리도 달려야지. 배를 한껏 부풀리고 더 많은 승객들을 더 빨리 실어 나르는 거야. 지상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오직 그 날만을 생각하며!

1호 : 그래, 그날만을 생각하며!

2호, 1호와 함께 두 팔을 펼치고 환호를 지르며 퇴장하다 1호를 먼저 보내고는 다시 돌아온다. 잠시 후 3호가 등장한다.

3호 : (두리번거리며) 1호는 출발한 모양이지? (1호를 부른다) 1호! 1호!

1호, 무언가 잊은 듯 돌아오다 대기실 밖에서 3호가 부르는 말을 듣고 멈춰선다.

- 2 호 : 3호! 근데 1호는 왜? 들어오면서 못 봤어? 방금 출발했는데? 3호의 우렁찬 바퀴소리를 듣고 기운이 나서 힘차게 달려갔지.
- 3 호 : 2호! 오늘 오후 이후로 1호에게서 무슨 낌새 같은 거 못 느꼈어? 건강이 나빠졌다든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한다든가 말이야?
- 2 호 :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지. 동정을 동반한 과거회상병이 1호의 육체와 정신을 좀먹기 시작했어. 무슨 조울증 같기도 하고.
- 3 호 : 뭐야? (큰 소리로) 1호가? 하필이면 1호가 그런 치명적인 병에 걸리다니!

머뭇거리던 1호, 3호의 목소리를 듣고 발소리를 죽이며 대기실 문 뒤로 다가선다.

- 2 호 : 췌! 조용! (문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밖을 확인한다) 하지만 걱정 마! (으쓱하며) 내가 완전히 원상 복귀시켜 났으니까. 1호도 이젠 무사고 운전에 충실할 거야.
- 3 호 :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깐 정말 오싹했어. 계속 달렸더라면 결국 나의 30년 무사고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을 거야. 하여간 정말 간발의 차이였어. 그런데 어쩌다 그런 몸쓸 병에 걸린 거야? 응?
- 2 호 : (3호에게 다가서며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때문이야.
- 3 호 : (딩달아서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문에 귀를 기울이던 1호, 3호의 할머니라는 말에 귀를 문에 바짝 댄다. 2호와 3호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1호,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리며 퇴장한

다.

3호 : (2호의 말을 다 듣고 나자 본래의 목소리로) 그랬었군. 아무튼 지하역이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어!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 같은 말이야!

2호 : 그렇지만은 아닌 모양이야. 다른 지하역에는 우리 레일의 논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선하는 기관사도…!

3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어디선가 폭탄이 터지듯 쿵! 쿵! 하는 소리가 나며 비상벨이 울리고 지하역이 흔들리며 번개가 치듯 빛이 명멸하고 이어 지하철 탈선하는 소리와 승객들의 경악하는 비명이 들린다. 2호와 3호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탁자를 잡고 몸을 가누려다가 결국 바닥에 나뒹군다. 잠시 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하역은 암흑으로 변한다. 대기실의 조명이 흔들거리다 꺼지고 종합사령실이 밝아지며 사령실장과 운전사령이 등장한다. 사령실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실장 : (쓰러지지 않으려고 난간을 붙잡으며) 무슨 일이야! 응?

사령 : 4, 4호 순환선이! (말을 잇지 못한다)

실장 : 4호 순환선이 뭘 어쨌다는 거야?

사령 : 탈선 전복되었습니다!

실장 : 뭐야! 탈선 전복? 빌어먹을! 하필이면 이런 때에! 그래, 원인이 뭐래?

사령 : 모르겠습니다.

실장 : 몰라? 무슨 대답이 그래? 열차가 탈선 전복되었는데 원인을 모른다니?

사령 : 체결구도 파손된 게 없고, 승객들의 하중을 못 이긴 것도 아니

고, 테러분자들의 소행 때문도 아니고 말입니다.

실장 : 멍청한 놈! 그래, 피해는 어느 정도야?

사령 : 네? 아, 네. 현재 승객들의 정확한 피해는…!

실장 : 승객이 아니라 4호의 상태가 어느 정도난 말이야! 승객들은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지만 4호는 그렇지 않잖아!

사령 : (더듬거리며) 아, 네. 지금 4, 4호의 상태는…!

사령이 주저하는 사이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며 무대 뒤편이 눈부시게 밝아졌다 어두워진다. 사령이 허겁지겁 몸을 납작 엎드리자 실장 역시 재빠르게 사령의 뒤에 엎드린다.

실장 : (잠시 후 사위가 조용해지자 고개를 들며) 이건 또 뭐야? 이번엔 또 뭐가 폭발한 거야? 응? (엎드려 있는 사령을 다그치며) 어서 알아보지 않고 뭐해!

사령 : (옷을 툭툭 털며 일어서며 서두르지 않고)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4호가 자폭을 한 거지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말입니다.

실장 : 뭐야? 자폭? 도대체 이 지하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잘 돌아가던 이 지하역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뼈격거리기 시작한 거냐고?

사령 : (머뭇거리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좀 오래전부터 안 그래도 가끔 발작을 하긴 했었습니다.

실장 : 오래전부터 발작을? 누가?

사령 : 4호 말입니다. 가끔 운행 중에 경련을 일으키기에 그저 대량의 승객들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위경련 정도겠지 생각했습니다.

실장 : 뭐야? (운전사령의 먹살을 쥐며) 애초에 사실대로 보고했으면 이런 큰일은 없었을 거 아냐? (잡았던 먹살을 거칠게 밀친다)

사령 : (쓰러질듯 하다가 자세를 바로 잡으며) 죄, 죄송합니다. 사실 전문적인 처치를 위해서 개조소 상담실장에게도 특별 상담을 신청했었습니다.

실장 : 머리에 약물만 든 놈이 뭘 안다고. 그래 그놈의 상담실장은 뭐래?

사령 : 하류 인간의 정신을 개조한 만큼 그 정도는 당연한 현상이라더군요. 완전무결하게 개조해서 내보냈고 최종 검사도 통과했으니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장 : 완전무결? 완전무결한 것이 저 모양이야? 믿을 놈 하나 없군. 좋아. 알았으니까 그만 하고 먼저 사고 수습부터 해! 그리고 모든 기관사들의 감정지수와 자기기억수준을 철저히 점검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도록 해!

사령 : 네! 알겠습니다!

실장 : 지금 하고 있는 오아시스역행 레일 작업은 잘 되고 있겠지?

사령 : 네,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잘 교육을 받은 기술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실장 : 자만은 금물이야. 그들은 상대적으로 승차하는 횟수나 시간이 적어. 아무래도 전원 재입소를 시키던지 전부 물갈이를 하던지 뭔가 방도를 찾아봐야겠어.

사령실장과 운전사령 퇴장한다. 잠시 후 다시 밝아진 대기실로 2호와 3호 등장한다. 2호는 다리를 절며 팔목엔 깁스를 하고 있다.

3 호 : 2호! 괜찮아?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2 호 : 팔목이 부러진 모양이야. 원 재수가 없으려니 이런 일이 다 생기네!

3 호 : 그나저나 4호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2 호 : (의자에 앉으며) 오아시스역행 레일을 깔 자금과 인력을 마련하려고 순환선인 4호를 아주 폐철이 될 때까지 뒹달을 하면서 돌려버린 거지. 극한까지 내몰린 4호는 결국 미쳐버리고 만 걸 거야. 우리는 그나마 순환선이 아닌 것이 다행인 거야. 아무튼 요즘 모든 게 고장 난 계기판처럼 혼란스러워지고 있어! 4호처럼 미쳐버리지 않을까 걱정이야.

3 호 :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심하자고. 난 거의 100%에 가까운데 2호는 어때?

2 호 : 95% 쯤. 하지만 무엇보다 난 1호의 그 지독한 전염병에 감염될까봐 걱정이야. 제기랄! 하필이면 1호와 파트너가 되어 같은 구역을 달려야 하다니!

3 호 : 조심해! 고삐를 늦추면 안 돼! 변신의 순간은 벼락처럼 다가오고. (가볍게 의자위로 날듯 뛰어 오르며) 무겁기만 하던 몸체가 나비처럼 가벼워지고 연약한 인간의 피부는 (칼로 자신의 살을 베듯) 칼로 베어도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검고 튼튼한 철의 살결로 바뀌게 되는 거야.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추위 또한 느낄 필요 없으니 오히려 잘 된 거지.

다시 사령실로부터 2호와 3호의 출발을 알리는 방송이 들려온다.

3 호 : 자, 그럼 또 달려야지. 오늘로선 마지막 운행이야. 자네의 고충은 내가 기억하고 있겠어! 좋은 날이 올 거야! 힘내 2호!

2 호 : 고마워 3호! 나도 3호의 행운을 빌겠어!

2호와 3호, 함께 퇴장한다. 곧이어 지하철 안내방송과 함께 계단을 따라 승객들이 서로 밀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 내려온다.

승객 1: (귀엣말로 승객 2에게) 오아시스행 티켓이 곧 동이 날 거란 말이 있어.

승객 2: 오아시스행이 아니라 오아시스역행이야.

승객 1: 오아시스행이나 오아시스역행이나 다 오아시스행 아니야?

승객 2: 오아시스행은 말 그대로 오아시스행이고 오아시스역행은 오아시스역행이…!

서로 먼저 타려 욕신각신하는 승객들의 소란 속으로 목소리는 묻혀버린다. 이수라장이 되어가는 무대.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린다. 혼란이 가중된다.

목소리 승객이 떨어졌어요, 승객이! 떨어진 승객을 구하진 못할망정 꼭 이래야 하는 겁니까?

승객 1: 누가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선 타고 봐야지!

승객 2: 이 작자들은 누구야? 왜 우릴 막는 거야? 응?

승객 1: 우리 보고 뭘 어찌라고? 이미 저렇게 다 죽어 가는데 말이야.

승객 2: 그러게. 참, 답답하네. 그럼, 우리보고 저기 뛰어들어 저 승객들을 구하라고?

승객 1: 미친 소리지. 왜 우리가 저들을 구해야 하지?

승객 2: 그러게. 왜 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고?
응?

승객 1: 우리보고 영웅이라도 되란 말인가? 영웅은 죽고 바보만 살아
남는다면 그게 뭐야? 모든 것은 산 자의 몫일뿐 죽은 자에겐 역
사도 기억도 없잖아!

서로 먹살을 잡고 드잡이를 하거나 탈까 말까 주저하는 승객들과 그 틈을
이용해 승차하는 승객들. 다시 출발 안내방송에 이어 출입문 닫히는 소리
와 함께 지하철 출발하는 굉음이 지하역을 가득 채운다. 굉음 멀어지며 지
하역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하듯 서서히 어두워진다. 굉음소리 아득
해지면 대기실로 1호가 혼비백산하여 달려 들어오고 2호 뒤이어 달려온
다.

1 호 :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검은 피를 훔치며) 피야! 피!

2 호 : (1호에게 달려가며) 1호! 무슨 일이야? (1호의 몸에 묻은 피를 보
고) 아니, 이건?

1 호 : (떨리는 자신의 두 손을 보며) 피야, 피! 승객의 피!

2 호 : (다가서며) 누가 또 달리는 1호 앞으로 투신이라도 한 거야?

1 호 : (2호의 말이 들리지 않는지 여전히 중얼거리며) 뜨거운 피!

2 호 : 뜨겁든 차갑든 호들갑 좀 그만 떨고 어서 닦거나 해. (손가락으
로 1호의 몸에 묻은 피를 맛보며) 뭐 별로 뜨겁지도 안구만. 그
나저나 냄새 한번 되게 역겹네. 땀! 땀!

1 호 : (여전히 떨며 뭔가에 홀린 듯) 또 봤어. 그 할머니 말이야.

2 호 : 이 친구 뭐에 완전히 홀렸군. 근데 그 할머니가 왜?

1 호 : 어제 오후의 그 할머니가 다시 지하역에 나타났어! 그 참혹한 꼴

이란!

2 호 : 그래서 또 운행을 정지하고 감상에 사로잡혔단 말이지? 1호!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린 지금 생사의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야!

이때 지하철의 굉음과 함께 3호가 싱글벙글하며 등장한다.

3 호 : 친구들! 오랜만이야! 다들 잘 지내지?

2 호 : 무슨 좋은 일이 있어?

3 호 : 있지. 오늘밤만 지나면 이 몸이 땅 위로 날아오른다 이 말씀이야! (두 팔을 벌려 날갯짓을 하다가 1호를 보고) 아니, 1호! 왜 그래? 감기 몸살이라도 걸린 거야? 그렇게 사시나무 떨 듯 떨고 있다니? (가까이 다가서다) 아니, 이건! (뒤로 물러서며) 피잖아? 쳇! 또 어느 미친 승객이 달리는 열차 앞으로 뛰어든 모양이군.

2 호 : (3호에게 눈치를 주며) 승객의 투신이 문제가 아니야. (아직도 떨고 있는 1호를 결눈질로 보며) 1호가 노파 애길 하네.

1 호 : (3호를 노려보다 갑자기 먹살을 잡으며) 말해! 그 노파에 대해서 아는 걸 전부 말하란 말이야! 어서! 아까 대기실에서 하는 말 다 들었다고!

3 호 : (1호를 뿌리치며) 왜 이래? 미쳤어? (몸에 묻은 핏자국을 먼지 털 듯 털어내며) 피 묻은 손으로 뭐하는 거야? 재수 없게!

1 호 : (3호와 2호를 번갈아 노려보다 제정신이 아닌 양 달려 나가며) 찾아야 해! 늦기 전에!

3 호 :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이없다는 듯 1호를 바라보며) 대체 뭘 찾는 다는 거야?

2 호 : 아까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은 모양이야. 그 노파가 30년 전 지상의 어느 기찻길 옆에서 객사한 어느 노파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요즘 지하역 노파 사건이 다 연극이라는 것 말이야. 그리고 전쟁 통에 어머니란 어머니는 모두 죽어버린 후에 지상에서 남아 있던 가장 따뜻한 가슴을 지녔던 여성이 바로 그 노파였고 그 노파가 어떤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었다는 것도. 그나저나 1호 저러다 정말 미쳐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3 호 : 그게 1호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지? 가만! 그럼 그 노파가 1호의 할머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2 호 : 설명할 순 없지만 아직 인간적인 잔재가 남은 1호에게 어떤 직감이 온 것 같아.

3 호 : 어쩐지 노는 꼴이 순환선 4호를 빼닮았어. 그의 죽음을 모방한 승객들의 자살도 많이 늘었다더군. 아직도 죽음, 아니 자살이 낭만적으로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 역시 인간들의 변화는 불가능한 걸까?

2 호 : 모르지. 난 완벽한 변화를 바라고 또 굳게 믿고 있는데 말이야.

이때 1호의 운행을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2 호 : 뭐야? 또 1호야? 어떻게 하지?

3 호 : 봐 뒤. 일 생기면 대타로 날 부를 테니.

2 호 : 우리 서서 이러지 말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며 대책을 생각해 보자고.

2호와 3호, 모자를 벗어 걸고 차를 준비해 탁자에 둘러앉는다. 흐릿한 불빛 속에 2호와 3호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사령실 쪽에서

는 다급한 발자국 소리 들리면서 역장과 역원, 사령실장, 운전사령이 등장한다.

실장 :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우린 모두 모가지야. 내일이라도 당장 오아시스역행 열차 개통식을 해야 하는데 말이야. (역장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며) 근데, 역장! 4호는 어찌 된 거요? 지금까지 그런 4호를 방치해두었다니 말이오! 게다가 요즘 1호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보고도 있던데요?

역장 : 4호를 그렇게 닦달하고 돌린 건 결국 다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역원에게) 1호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개조소에 특별 상담을 요청해!

역원 : 저, 그게 말입니다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1호의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실장 : (동시에) 뭐라고?

역장 : (놀라는 사령실장을 의식하며) 행적이 묘연? 대기실은 수색해 봤어? 2호와 3호에게도 알아보고 탐지기든 뭐든 써서 빨리 찾아내!

역원 : 지하역 탐지시스템은 순수한 인간의 냄새만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1호를 비롯해서 우리 지하철 기관사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발한 장비들입니다.

실장 : 그렇다면? (골똘히 뭔가를 생각한다) 아! 아까 1호 앞으로 투신한 승객들 있었지? 그 자리엔 그 놈들의 피가 남았했었어.

역장 : (역원에게) 피라고 하잖아! 어서 움직이지 않고 뭘 해?

실장 : 잠깐! 먼저 전사들을 풀어 수색하게 하고 지하역 전역에 몽타주를 배포하게! 역장님! 1호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 같은 건

없나요?

역원 : 실은 1호가 최근 노파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역장 : 노파라면? 우리의 그 노파 말이야?

역원 : 냇! 그렇습니다!

역장 : 네엿 그렇습니다. (역원의 정강이를 차며) 이런 지경이 되도록 대체 그동안 뭘 한 거야? 응? 내가 지하철들에 대해서는 일거수 일투족을 동태파악하고 보고하라고 했잖아! 승객들 동태도 철저히 감시하고! 아무튼 1호가 제때 체포되지 못하면 그땐 각오해! 천하에 무능한 것 같으니라고! (다시 역원의 정강이를 걷어 찬다)

이때 다시 계단 너머에서 소란이 일어난다. 동시에 비상벨 소리가 귀를 찢는다.

실장 :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건 또 뭐야? (운전사령을 보고) 뭐해? 빨리 알아 봐!

나가려던 운전사령, 다급히 등장하는 전령과 부딪힌다. 전령, 사령을 밀치고 역장에게 몇 마디 급하게 하고 다시 퇴장한다.

실장 : 무슨 일입니까?

역장 : (심각한 표정으로) 일이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역행 레일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실장 : 뭐라고? 그렇게 고르고 골라 선발한 레일 노동자들까지? 아니

정말 이 지하역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역장 : 오아시스역 설게도를 훑치려다 발각된 모양입니다. 거기다 승객으로 변장해서 오아시스역행 열차 개통식 때 몰래 무임승차까지 시도하려 했답니다.

실장 : 지상으로 집단탈출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어처구니가 없군. 다른 수상한 것은 발견한 것이 없답니까?

역장 : 네! 다행히도.

실장 : 다행이군요. 하지만 개통식을 눈앞에 두고 이런 일이 터지다니!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새 날이 온다니까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서들 난리야 난리는! 아무튼 일망타진했다니 다행이군. 역장! 어서 가서 2호와 3호의 출발을 준비합시다!

역장 : 네. (역원에게) 노파도 함께 준비해! 마지막 연극을 해야겠어!

역원 : (뒤따라가며 혼잣말로) 이 판에 연극은 무슨 연극! 내가 역장을 했어야 이 지하역이 제대로 빙빙 잘 돌아가는 데 말이야. 저렇게 잘난 척하다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 찍히지. 기다려. 내가 곧 널 끝장 내 줄 테니까!

모두들 사령실을 나간다. 잠시 후 지하철 출발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뒤쪽 계단으로 승객들이 몰려든다. 그 안에 전사들과 1호가 섞여 있다. 전사들은 레일 주위를 오가며 무임승차한 승객들을 색출하다가 노파를 발견, 강제로 끌고 나와 팽개친다. 곧이어 지하철 출발 소리 들리고 노파는 달려달라고, 집에 갓난아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애원하지만 전사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승차한 승객들은 무표정하게 땀 곳을 보고 있고 승차하지

많은 승객들 가운데 몇몇은 앞으로 몰려와 이를 비난한다. 승객들을 비집고 역장과 역원 다시 등장한다. 전사들은 노파를 역장과 역무원 앞에 내동댕이치고 비난하는 승객들을 체포하여 퇴장하고 나머지는 탐지기를 들고 승객들 틈을 뒤횈다.

전사 : (무리 속에 숨은 1호를 발견하고) 저기 1호가 있습니다!

역장 : 어서 체포해! 놓치면 안 돼!

달려드는 전사들과 대결하는 1호. 몇 차례의 공방 끝에 한 전사를 제압하고 그의 칼을 빼앗아 나머지 전사들을 힘겹게 처치한 후 역장과 역원, 그리고 쓰러져 있는 노파에게 다가가는 1호.

역장 : (뒷걸음치며) 1호! 넌 지금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이건 지하철에 대한 반란이자 레일의 논리에 대한 반역이야!

1 호 : 그 따위 설교는 시간 낭비일 뿐! (공격한다) 자, 내 칼을 받아!

역장 : 이키! 안 되겠는 걸! (재빨리 옆에 있던 역원을 잡아 인질로 삼는다)

역원 : 아이고! 역장님! 왜 이러세요! 저예요! 저! (역장의 손길을 뿌리치고 옆으로 빠진다)

역원이 빠져나가자 다급해진 역장, 대신 노파를 잡는다. 역원, 역장 뒤로 숨는다.

1 호 : 뭐야! 비겁하게! 할머니를 인질로 삼다니! 비열한 놈! (다시 공격한다)

역장 : 지금 그거 따지게 됐어? 네놈 목숨에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걸!

역원 : (역장 뒤에서 1호에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장을 보며) 너는 네 목숨에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걸! 이제 넌 독 안에 든 쥐란 말이다! 칼을 버리고 항복하는 게 좋을 거다! (다시 뒤로 숨는다)

역장이 노파를 앞세워 방어하자 1호, 공격을 하지 못한 채 기회를 노린다.

역장 : 포기해! 레일을 떠난 넌 이젠 무용지물이야. 불쌍한 것!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그동안 실적이 좋아 오아시스역행 열차 기관사 자리 하나 마련해주려고 했건만 그것도 모르고!

1 호 : 오아시스역행 열차 기관사? 쓸데없는 애긴 그만 뒤! (달려들며 역장의 가슴을 겨누지만, 역장이 다시 노파를 방패삼아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후퇴한다) 어째서 그 노파를 인질로 삼고 있는 건지만 말해! 노인들에게 무임승차권까지 다 박탈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인을 인질로 삼아?

역장 : 무임승차권? 노인들? 지금은 그걸 노닥거릴 때가 아닐 텐데?

1 호 :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노파는 실제 인간이 아니라 가면과 가발에 가짜라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역장 : 그렇다면 왜 이 노파를 보고 모두가 동정심과 분노를 느꼈을까? 레일위의 기호적 존재의 자리까지 다 올랐다가 결국 자폭한 4호 까지도 말이야!

1 호 : 무슨 소리야? 날 헛갈리게 만들려는 수작이군! (다시 공격한다)

역장 : (여전히 노파를 방패로 삼으면서) 근데 네가 찾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지?

역장의 말에 대답대신 재빠르게 공격하는 1호의 칼을 피하며 노파를 앞세워 칼을 막는 역장. 그 뒤에서 역장을 잡고 요리 조리 피하는 역원.

역장 :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그것이지! (역원이 앞세운 노파의 가슴을 1호의 칼이 깊이 파고든다)

1 호 : (노파의 가슴에 칼을 꽂은 채 망연한 표정으로) 이런!

노파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노파의 얼굴엔 고통의 표정이 없다. 노파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가 노파의 흰 옷을 빨갛게 물들인다.

1 호 : (노파를 놀랜 눈으로 바라보며) 이럴 수가! 가짜라더니! 혹시 진짜 피? 대체 이 노파의 실체가 뭐야? (칼을 빼며 뒤로 물러나며) 그런데 왜 내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지?

1호가 기운을 잃고 휘청거리며 쓰러지자 노파의 뒤에 숨어 있던 역장 역시 피가 흐르는 가슴을 움켜쥐고 노파와 함께 쓰러진다.

역장 : (쓰러지며) 이렇게 강할 수가! 노파를 뚫고 나가지! (고통에 신음한다)

1 호 : (쓰러진 채 자신의 칼에 심장을 찔렸으면서도 표정의 변화가 없는 노파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어찌된 일이지?

역원 : (쓰러진 1호에게 다가가 역장의 말투를 흉내 내며) 다시 묻겠다! 네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1 호 :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의 할머니! 그럼 저 노파는? 저 피는?

역원 : 아직도 모르겠나? 응? 하! 하! 하! 이제 연극은 끝났어! 이 어리석

은 1호와 똑똑하신 역장님 덕분에 말이야. (1호의 턱을 받쳐 들며) 노파를 찾고 있다고?

1 호 : (쓰러진 채 역장과 노파를 번갈아 바라보며) 저 노파의 진실이 뭐지? 30년 전 누구의 기억 속에서 저 노파를 꺼낸 거냐고? 그 심장은 누구 거고?

역원 : (1호를 내려다보며) 30년 전? 흠! 어디서 뭔가 주워들고 온 모양이군. 하지만 그걸 알면 1호는 건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돼. 나도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

1 호 :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그랬었군. 결국 그랬어. 내 젊음을, 내 삶 모두를 몽땅 저 레일에 바쳤는데도 날 이렇게…!

역원 : 1호! 다 잊고 나와 함께 일해 보는 건 어때? 너에게 오아시스역 행 초고속열차의 운전을 맡길 수도 있어. 이 역의 새로운 역장은 내가 될 테니까 말이야. 어때? 구미가 당기지 않아?

1 호 : 초고속열차 기관사가 뭐 어찌고 어찌? 그따위 감투를 가지고 날 우롱하다니!

역장 : (숨을 몰아쉬며 역원에게) 이 놈! 정신이 나갔군! 역장은 나야, 나라고!

역원 : (역장에게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 비웃듯) 역장님께옵서는 이제 끝이십니다요. 이제 이 지하역의 역장은 바로 나란 말입니다! 나라구요! (전사들을 향해) 뭐 하고 있어? 어서 1호를 폐차장으로 끌고 가! 그동안 이놈 땀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속이 안 풀릴 거다!

저항을 하던 1호는 결국 전사들에 체포되어 계단 위로 끌려간다. 끌려가면서 ‘삼십년 전 어디서? 할머니! 왜? 할머니! 왜? 왜?’를 외치는 1호의 목소

리가 지하역에 메아리친다.

역원 : (더러운 손을 씻듯 비벼 털며) 끝났어. 연극도 꿈도 다 말이야!
(지하역을 휘 둘러보며 야심찬 표정과 목소리로) 이제야 이 지하
역이 내 손에 들어왔어! 내 이 깨끗한 두 손 안에 말이야! 하! 하!
하! 참,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서 가서 개통식을 준비해야
지.

전사들과 함께 퇴장하려는 역원을 향해 역장이 힘겹게 소리친다.

역장 : 그렇게 가버리면 난 어찌라고! 이 나쁜 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분하다는 듯 역원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보던 역장, 곧 숨
을 거둔다)

역원 : (역장을 바라보며) 불쌍하게 됐어. 날 개처럼 부러먹더니 그 권
력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나보지! 개통식은 내가 몰래 다 준비해
뒀지. (우쭐대며) 난 내가 이 지하역의 역장이 되는 나의 위대한
운명을 이미 점치고 있었거든.

역원 퇴장한다.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며 무대 어두워진
다. 잠시 후 어둠을 뚫고 아득한 지하철 굉음이 점점 크게 들려온다. 예전
처럼 묵직한 소리가 아닌 매우 가볍고 경쾌한 소리다. 지하역이 여명처럼
밝아온다. 하지만 그 밝음은 지상의 아침의 밝음이 아니라 차갑고 건조한
밝음이다. ‘오아시스역행 레일 공사 중’이라는 팻말 대신에 빨간 하트 모
양의 ‘오아시스역행 초고속열차 개통식’이라는 팻말이 네온처럼 환하게
빛을 내며 사령실에 매달려 있다. 2호와 3호, 경쾌하게 등장하며 인사를

나눈다.

3 호 : 2호! 팔목은 좀 어때?

2 호 : (팔목 깁스를 보며) 더 치료를 해야 한다네. 그건 그렇고, 3호!
늦었지만 축하해!

3 호 : 축하? 무슨 축하?

2 호 : 에이! 그렇게 시침 떼지 마. 지하역과 지상의 오아시스역간 초고
속 열차 기관사로 승격되었잖아!

3 호 : 하! 하! 알고 있었군! 고마워. 드디어 지상으로 간다! 생각만 해
도 온 몸이 찌릿하게 전율이 흐른단 말이야. 근데, 2호만 이 지하
에 남겨 두고 먼저 간다는 게 왠지 미안한데.

2 호 : 미안하긴. 굳이 미안하다면 나중에 나도 좀 끌어올려주면 안될
까?

3 호 : 좋아! 꼭 그렇게 하지!

2 호 : 역시 3호밖에 없다니까!

3 호 : 뭘 그걸 가지고. (네온을 올려다보며 감회에 젖은 듯) 아! 이 지
하역 레일 위를 달린지도 어언 30년이 흘러버렸군. 난 변화를 위
해 모든 걸 바쳤어. 승객들이 레일 위로 뛰어들며 자살을 해도 1
호가 폐차되고 4호가 자폭을 해도 난 오직 앞만 보고 레일 위를
달렸고 결국 무사고 운전 30년을 기록한 거지.

2 호 : (맞장구를 치며) 무사고 운전 삼십년. 그리고 마침내 오늘!

3 호 :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저 오아시스역행 초고속 열차 기관사로 선
발되었다 이 말이야! 하! 하! 하! (이 때 안내 방송이 들려온다)

안내방송 승객 여러분!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모든 열차의 운

행을 중단하고 오아시스역행 열차 개통식과 시험운행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안겨 줄 ‘오아시스역행 열차 개통식’에 참석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일단의 밴드가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며 폭죽을 터뜨리는 승객들과 함께 계단위로 등장하고 이어 축포를 든 전사들이 뒤를 따른다. 사령실에는 사령실장과 새로운 역장이 등장한다. 운전사령은 이미 사령실에서 제어를 점검하고 있다. 곧 이어 3호가 합세한다.

역장 : 어서 오세요! 3호! 자! 오늘은 지하역 최고의 날! 모두들 모여서
오아시스역행 초고속 열차 개통식을 축하합시다!

실장 : (역장 옆으로 다가오며) 참,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아주 경사가
겹쳤네요.

역장 : 하! 하! 뭘요. 다 실장님 덕분이지요. 여기 3호도 축하해 주세요.
30년 무사고(無思考) 운전 달성에 오아시스역행 기관사로 승격
되었거든요.

실장 : 축하합니다. 3호! 그 어려운 무사고 운전을 이루어내시다니! 우
리 오아시스역행 초고속 열차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3 호 : 감사합니다. 오아시스역행 초고속 열차는 저에게 맡겨 주십시
오. 절대 안전 운행과 정확한 목적지 도착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역장 : 자, 다들 이리 오셔서 함께 테이프를 잘라 주세요! 하나, 둘, 셋!
사령실장, 역장, 그리고 3호와 2호가 테이프를 끊음과 동시에 축포가 터진
다. 승객들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함께 축하한다.

역원 : 승객 여러분! 어서 승차하세요! 오아시스역행 초고속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사령 : (혼잣말로) 근데 저 역행, 역행 하는 말이 좀 거슬리네. 역행(驛行) 같기도 하고 역행(逆行)같기도 하고... (신호기를 움직인다)
3호! 어서 운전 준비해!

3호가 사령실을 나가자 승객들 서로 밀치며 몇 개 안 되는 손잡이를 잡고 서로 매달리고 서로 의자에 올라타기 시작한다. 기존의 둔중한 열차 소리와는 다른 경쾌하고 세련된 소리가 들려온다. 다시 한 번 축포가 터지면서 역장과 사령실장 환호하며 외친다.

역장 : 출발! 우리의 지상낙원을 향하여!

실장 : (함께) 지상낙원을 향하여!

역장 : 자, 우리도 어서 승차합시다!

운전사령이 기기를 조작하자 천장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모두들 역장을 따라 ‘낙원을 향해!’를 소리치며 사령실을 나가는 순간, 갑자기 굉음이 나며 지하역이 흔들리고 사령실이 기우뚱거린다. 역장과 수사대장, 사령실장은 채 나가지도 못하고 사령실의 난간을 잡고 몸을 버틴다. 사령실의 전등이 깜빡거리고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역장 : 이번엔 또 뭐야?

실장 : 무슨 일이야? 열차가 왜 이래?

사령 : 승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차가 하중을 못 이겨 후진하고 있습니다!

역장 : 후진? 그렇다면...! 추락...?

사령 : 게다가 레일이...! 레일이...!

실장 : 레일이 뭐? 레일이 어떻다고!

다시 커다란 굉음 소리가 진동하자 사령실이 크게 흔들린다. 역장과 사령실장, 그리고 운전사령까지 사령실 난간에 가까스로 매달려 있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사령실과 함께 무대 위로 떨어져버린다. 대기실도 부서지고 지하철 손잡이들과 의자들이 다 부서진다. 비명을 지르며 여기 저기 나뿔고 있는 승객들. 잠시 후 소란이 가라앉고 고요가 찾아오면 지상에서 내리비치는 따스한 빛 속에서 ‘오아시스역행 열차 개통식’ 이 적힌 빨간 하트 모양의 네온만이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며 정말로 심장처럼 고동치고 싶다는 듯 붉게 빛나고 있다.

막.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키 워드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와 기술일 것이다. 지상의 기후변화로 생물의 종과 개체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하에서는 날이 늘어만 가는 것이 있으니 바로 현대인의 편리한 교통수단의 대명사인 지하철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하철과 더불어 역세권의 땅값은 치솟고 땅도 사람도 금전적 가치로 환원되고 있으며 일상의 대화는 부동산, 집값 등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사랑, 자비, 헌신, 용기, 덕, 함께 사는 아름다움 등은 액세서리처럼 우리네 삶 주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의 기술이 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기술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기술은 인간의 손을 떠나 스스로 발전하고 인간과 자연을 다했으며 모든 자원을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고갈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민하면서 문득 점점 늘어만 가는 지하철과 승객들이 어찌면 현재 우리인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들이 달리고 있는 ‘레일’의 이쪽에는 남성성, 이성, 논리, 권력 등이 지배하는 세계가 있고 저쪽에는 여성성과 감정과 가슴과 사람간의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세계가 있다. ‘레일 위에서’는 레일의 세계 이쪽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레일의 논리라는 것을 가정해서 그 논리에 점점 물들어가 결국 가슴을 잃어버리고 삶 자체를 잃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지상으로 오르고자 했던 최후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지하역이 붕괴되는 마지막 장면의 지상에서 스며드는 따스한 빛에 반짝이는 하트 모양의 네운을 보며 우리의 삶이 다시 붉은 심장으로 고동치기를 기원해 본다.

글의 부족한 형식보다 담긴 뜻을 읽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한다. 덕분에 너무 늦은 나이에 자신을 이 세상에 내보낸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아빠를 이해하고 용서해달라고 제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명분이 생긴 듯하다. 인생의 1/3을 하나의 작품에 매달려 결국 미완이나마 완성을 본 나이 많은 아빠가 자신을 낳았음을 먼 훗날 아기가 알아준다면 이 위험하고 방향조차 가능하기 힘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삶과 세계의 의미를 찾아 멀고도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지하역 및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생활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자 분들에 대해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밝혀둔다.



심사위원

시 부문

진동규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김용오 한국문인협회 분과회장

시조 부문

박시교 한국문인협회 이사
홍성란 한국문인협회 정책개발위원

수필 부문

임현영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지연희 한국문인협회 수필 분과회장

단편소설 부문

김선주 한국문인협회 소설 분과회장
김현진 한국문인협회 이사

동시 부문

김종상 한국문인협회 고문
박성배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동화 부문

안재식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사 편찬위원
김영훈 한국문인협회 이사

희곡 부문

곽노홍 한국문인협회 희곡 분과회장
오태영 한국문인협회 편집위원

심사평





시 부문

총 응모작품 1,260편(교사 306, 비 교사 954)이라는 많은 숫자에 비해 시의 작품수준을 그리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를 무슨 자기 개인감정의 배설 창구쯤으로 생각하는 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시는 무엇(What)을 쓰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How)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 시 말해 현대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물을 빌려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응모작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특징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응모 편수를 5편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현대 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쓴 시인들은 그 5편 모두가 뛰어났으며 그중 무엇을 뽑아도 등수에 들만큼 작품 수준이 고르게 뛰어났다는 점과 그렇지 못한 시인들과의 작품 수준이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심사가 용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 만 그 고만고만하게 쓸 만한 작품 5편에서 한 편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았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품의 수준차가 너무 심하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응모작품들이 쇠도했다는 것은 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하여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선에 들지 않았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고 좀 더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들 건투를 빈다.

아울러, 심사 시 주안점(심사기준)은 첫 번째로 “신인다운 신선함” 두 번째로 “시적 형상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유의 깊이”라는 점에 선의 무게를 두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한된 숫자에 묶여 아쉽게도 선하지 못한 작품이 있었다는 점과 신인을 넘어서는 즉 기성시인의 냄새가 나는 작품도 있었다는 점도 밝힌다.

진동규, 김용오

｜ 구제역 풍경접종 _ 김현근 ｜

지난 겨울 살처분하여 매장한 소가 35만 마리였다. 키우던 소를 땅에 묻고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국민적인 자성의 여론도 팽배했다. 그러니까 <구제역 풍경>을 선하는 데는 주제도 주제지만 시적 완성도가 뛰어났다는 점이다.

｜ 귀가_ 구민숙 ｜

시상을 전개시켜 나가는 숨씨가 일단은 선자들을 안심시키는 매력이 있었다. 넉넉한 호흡이 그것이다. 문단에서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나의 얼굴이 필요 없다는

너의 얼굴도 필요 없다는”

｜ 이발_ 김동선 ｜

〈이발〉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발소의 풍경을 그려나가는 데는 산문시의 형태가 적절하리라.

섬세한 부분까지 묘사하는데 시적 긴장감을 잘 유지하고 끝나가는 재주가 있다.

｜ 지문_ 김준호 ｜

나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현대사회의 계산법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다. 전쟁도 그렇게 지문감식기면 그만이다.

｜ 못 빼기_ 이성배 ｜

“간신히 빠지는 못/ 붉은 피 철철 흐르는 온 몸에 피어있는/ 하얀 시멘트 꽃송이/ 벽은 아픔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젖을 물리고 있었나 보다(중략) 따뜻한 젖 한 번 물리지 못하고/ 살이 되지 못한 상처만 안고 살았다” 무엇보다 시상을 전개시켜 나가는 숨씨가 돋보인다.

｜ 검은 비닐을 위한 기도_ 강기석 ｜

〈검은 비닐을 위한 기도〉는 농촌의 현장이다. 현장 비판의 시선이 예리하다. “너는 바람에 몸을 파는 검은 왕벌” 그렇다. “묻어도 썩을 줄 모르는 비닐 조각들이 산천에 가득한 풍경을 어쩔 것인가”라고 꼬집고 있다.

｜ 우산이 있는 풍경_ 김용아 ｜

〈우산이 있는 풍경〉은 제목이 말하듯이 한 폭의 풍경화다. 아니 정물화다. 시적 이미지를 잘 이끌어 낸 아담한 시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 선운사에서, 동백_ 이동암 ｜

“고집 센 겨울나무들이 어째서 이렇게 온순한 등불들을 숨기고 있는지” 하면서 동백에 대한 애정을 토로하고 있는 시다. 시 쓰는 일의 첫걸음은 애정이 아니던가. 꽃봉오리 속에서 어린 아기의 숨기지도 못하는 부끄러움을 읽어내는

｜ 그녀들의 점심식사_ 이정숙 ｜

〈그녀들의 점심식사〉는 늦은 오후에나 찾아먹는 “כות물을 소주처럼 운명처럼” 들이키는 그녀들이다. 시장 버스 구석에 좌판을 펴고 “언제라도 웃으며 답하는 그녀들”이다. “한 때는 선이 어여쁘던”

｜ 손을 번역하다_ 전갑성 ｜

〈손을 번역하다〉라는 제목이 말하듯이 시는 삶을 뒤집어 보는 것이리라. 따져 보고 또 드러다 보고 그러는 것이리라.

“취었다 놓치는 것을 되풀이 하면서도/ 계속 웅크려 쥐기만 하고 살았다./ 뒤집으면 바닥/ 담는 그릇인 것을”

｜ 진흙과자_ 조재형 ｜

지구촌 한 쪽 어느 구석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한 쪽 구석으로 치부하지 않고 아파하는 따뜻한 눈물이 있는 시다. 진흙에 물과 소금 마가린을 섞어 만드는 진흙 과자” “소화가 안 돼 항상 배가 부르다는”

｜ 다랑이 논_ 진서운 ｜

〈다랑이 논〉은 지금도 거의 사라진 풍경이다. 경지정리라는 이름으로 쓸려가 버렸다. 지금도 어딘가 그런 풍경이 남아 있을까? 오빠가 상고에 갈 정도면 그래서 아버지는 “위워~” 힘센 시간을 따라가는 애절하고 정겨운 시다.

시조 부문 |

시조는 정형시로서 일정한 정형 양식을 준수해야 하는 서정시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와 비교사의 응모 작품 가운데 시조 형식에 미달하는 작품이 많다는 점은 시조 교육의 부재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조는 우리 민족이 장구히 지키고 가꾸어온 서정양식이다. 이를 우리시대에 와서 교육의 부재로 망실되게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시조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공무원문예대전의 응모자들만큼은 시조 형식을 준수하지 못해 심사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기를 희망한다.

시조형식을 준수한 작품들의 경우에도 시적 형상화에 이르지 못한 응모작이 많아서 아쉬움을 남겼다. 시조는 시조형식을 준수한 서정시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만으로서도 불충분하기에 창작상의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금상을 비롯한 수상작들을 선정할 수 있음을 큰 기쁨이다.

금상을 수상하게 된 <매물일지>의 경우 시조의 리듬을 유연하게 타는 가운데 구제역으로 인한 상처와 슬픔을 승화하고 축생과 사람의 희생을 이 땅의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회향하는 시적 진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올해 공무원문예대전의 큰 수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수상자 모두 정진하여 시조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량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수상자 모두에게 따뜻한 축하와 힘찬 박수를 보내드린다.

박시교, 홍성란

| 매몰일지_ 이창규 |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현장의 비극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수작이다. 다비식의 이미지를 저녁놀빛에서 유추하고 소지를 올림으로써 순장된 축생이나 매몰인부들의 희생을 살아남은 생명들에게 회향하는 시적 진경을 보여주고 있다.

| 한 점 水墨畫 같은_ 이우식 |

포장마차에 희망을 건 도시인의 삶을 서정적이고도 신선한 상상력으로 따뜻하게 형상하고 있는 수작이다.

| 개화_ 김영두 |

살구꽃 만개한 봄 이미지를 단아하게 묘사한 가작이다.

| 발품_ 안주봉 |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근면하고 성실한 김 씨의 일상을 생생한 직접화법으로 형상하고 있다. 이런 소재의 작품이 범하기 쉬운 감상성에 치우치지 않는 점도 이 작품의 미덕이다.

| 천개의 강_ 이상윤 |

부적절한 시어 운용이 거슬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시조의 리듬감을 잘 타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 연애편지_ 정은숙 |

‘그늘’, ‘망설임’, ‘그리움’이라는 시어를 통하여 연애편지를 쓰는 시적 화자의 정감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심사평

수필 부문 |

제14회 공무원 문예대전 수필부문 심사를 마쳤다. 525편의 수필을 감상하며 먼저 심사기준으로 세워놓은 ‘순수문학작품’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많은 작품들이 독자에게 무엇을 지시하려 하거나 사례를 들어 훈시하려 한다는 점이었다. 까닭에 문장의 향기나 미적흐름을 저해하는 글들을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다. 수필문학의 힘은 쓰고자 하는 대상을 향한 옹고 그림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가슴으로 일으킨 정서의 표현이다. 가슴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상된 작품 외의 여러 편이 우수한 작품이었음에도 선에 올리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큰 향상이 있기를 기대한다.

임현영, 지연희

| 생채기_ 최원훈 |

소년원 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소년원 아이들의 가슴속 생채기의 아픈 숨소리를 듣게 하는 수필이다. 결손가정의 비행소년이 되어 소년원에 온 한 소년에게 주목하게 하는 이 수필은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아파하던 화자의 어린 날과 클로즈업된다. 소년의 아픔과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상처를 다독이는 따사로운 정이 흐른다.

| 흔적_ 임경희 |

메시지는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꼭짓점을 잘 맞춘 도형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글의 주제를 풀어낸다. 꼭 들어맞는 도형처럼 살아 가다 문득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서리가 부딪쳐 깨어지거나 다칠 때가 있는데 그때 화자는 경주라는 특정한 공간을 찾아간다. 그곳의 천년 고찰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의 풍화와 누수의 흔적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수필이다.

| 새로운 길, 당신과 나의 의자_ 최경호 |

누구나 삶의 길에서 맞닥뜨리게 되어 외면할 수 없는 고뇌를 딛고 일어서는 의지를 말한다. 그 다양한 삶의 조각들로 당면하게 되는 삶의 편린들을 ‘문’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하여 보여주기도 하는 이 수필은 통과하여 체득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방향점을 짚고 있다. 당신과 내가 딛고 일어서야 할 관문임을 깨우치게 한다.

｜ 교사라서 행복하다_ 박금용 ｜

아혼아홉 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서는 참교육자상을 실천하는 교육자로의 행복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을 도와 그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선생님은 소낙비를 건디며 마침내 더욱 푸르게 변하는 풀잎처럼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극복하여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를 기도하는 훌륭한 스승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 라일락_ 손달호 ｜

사선을 넘나드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간을 떼어낸 아름다운 사랑의 아내이야기이다. 멀쩡한 살에 칼자국을 내어 배를 가르고 남편의 체내에 간을 이식한 여인의 향기로운 결단은 죽음 앞에 선 남편을 파릇한 생명으로 일어서게 했다. 이 수필은 라일락 꽃 향기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도 감명이 깊지만 의미를 끌고가는 문장의 힘이 튼튼하다.

｜ 장자의 나비_ 손병순 ｜

산골마을 시댁으로 피서를 가는 과정으로부터 수필의 이야기는 전개된다. 승용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구불한 길을 따라 사람이 살았을 법한 산골마을에 들어선 화자는 때문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워한다. ‘무릉도원이 여기인가’라고 생각하며 돛자리를 깔고 누워있는데 감은 눈 위로 주위를 어른거리는 호랑나비를 본다. 그리고 장자의 호접몽을 생각한다. 순연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하는 이 수필은 독자를 맑고 깨끗한 자연 속으로 유인한다.

｜ 운조루의 덕목_ 이은재 ｜

공직자가 지녀야할 최상의 덕목을 말하고 있다. 구름 속에 사는 새처럼 숨어서 사는 집을 운조루라고 하는데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조선시대 선비의 품격을 상징하는 품자형의 99칸 양반가옥의 사랑채를 말한다. 지금은 가옥전체를 운조루라 부르지만 가난한 백성을 살피주는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선비정신에 있음을 이 수필은 전하고 있다.

｜ 새끼발가락_ 정서현 ｜

다섯 개의 발가락 중 유난히 짧은 볼품없는 새끼발가락은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듯 숨소리 한번 크게 지르지 못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그처럼 무리에서 소외된 사람같은 새끼발가락을 다쳐 사흘 동안 절룩거리며 고생하게 된 화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새끼발가락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수필 속에 담아냈다.

｜ 오래된 것의 소중함_ 홍성호 ｜

다 낡고 볼품없는 검은색 가죽장갑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다. 대학 2학년 군에 입대하며 첫사랑에게 받은 이 장갑은 사람과의 관계처럼 애증을 넘나들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 장갑이 아니라 신체일부처럼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추억을 함께한 오래된 친구로 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이 수필은 낡은 것 오래된 것의 소중한 가치를 짚어내고 있다.

단편소설 부문 |

심사위원이 넘겨받은 작품은 교사 작품 16편과 일반 공무원 작품 56편으로 모두 67편이었다. 작품과 함께 전달된 주최 측 심사기준은 소설부분 입상 편수를 금상 1편, 은상 2편, 동상 4편, 총 7편으로 하되, 반드시 교사 작품에서 2편, 일반 공무원 작품에서 5편을 뽑아달라는 것이었다. 이 기준에 더해 작품 선정은 문학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심사에 들어갔다.

먼저 1차로 심사위원 각자 교사 작품 2편, 일반 공무원 작품 5편을 선정한 뒤 선정된 작품 14편을 놓고 2차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름간의 1차 심사결과 교사 작품에서 『검은 문』 『연희야, 다시 봄이다』가 공통으로 선정되었고, 일반 공무원 작품에서는 『해뜨는 집』과 『노랑진』이 공통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4편은 그대로 입선작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1차 심사에서 선정된 『끈』 『수몰된 고향이야기』 『위낭소리』 『예감』 『학생 삼대』 세 개의 눈을 놓고 3편을 더 고르는 심사에 들어갔다. 각자가 읽고 평가한 점을 서로 토론하며 논의한 결과 『수몰된 고향 이야기』 『끈』 『예감』이 최종 선정되어 총 7편이 결정되었다. 그런 다음 다시 7편을 놓고 금상 은상 동상을 정하는 3차 심사에 들어갔다. 커피를 리필까지 해가며 3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 금상(대상)에 『검은 문』 은상에 『노랑진』 『수몰된 고향 이야기』 그리고 동상에 『해뜨는 집』 『연희야, 다시 봄이다』 『끈』 『예감』이 최종 결정되었다.

직능상 교사의 작품이 대체로 우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일반 공무원의 작품 수준도 매우 높았다. 입선작 수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상을 주고 싶은 작품이 여럿 있었다. 입선에 들지 못한 모든 분들, 기회는 앞으로로도 많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

김선주, 김현진

| 검은 문_ 이재곤 |

딸과 어머니를 동시에 잃은 주인공의 의식세계를 치밀한 구성과 세련된 문장으로 형상화 하였다. 아내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슬픔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절망적인 고통이 가슴 아프다. 깊은 사고에서 우러나오는 절제된 표현이 작품의 품격을 높인다. 필연을 담보하는 복선 미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소설 공부를 많이 하고 부단히 노력한 작가의 역량이 엿보이는 수작이다.

| 노량진_ 김성민 |

공무원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메카 서울 노량진 학원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두더지처럼 웅크린 채 비상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우정과 사랑, 희망과 좌절, 울분과 눈물, 그 격해지기 쉬운 감정들을 꺾꺾 눌러가며 잘 다듬어 낸 작품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오늘날의 젊은 초상이 서글프다.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홀로 노래방에서 땀과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채 노래를 불러채기는 주인공 모습에서 소름끼치는 외로움을 본다.

｜ 수몰된 고향이야기_ 이상영 ｜

여덟 살 소년과 정년퇴직한 노인의 시선을 통해 삶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여주는 2차원적 구성이 성과를 거둔 작품이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늙음의 회한과 세월의 무상함을 수중 공간을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한 마지막 단락은 제목이 주는 유치함과 세련되지 못한 몇 줄 문장의 흠을 충분히 상쇄한다.

｜ 해뜨는 집_ 김금남 ｜

남편의 배신에 으름장으로 빼든 아내의 이혼 카드. 거기에 남편이 앙갚음으로 되받아친 반소로 인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가정파탄.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들 하나에 의지해 무너져 내리는 상실감을 다잡으며 희망을 찾아가는 이혼여의 아픈 심정을 잘 그려낸 작품이다. 하지만 사건전개가 너무 서술적이고 구성이 느슨하다는 것이 흠으로 지적되었다.

｜ 끈_ 노학진 ｜

노름에 빠진 아버지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사형수의 고뇌를 절제된 언어로 잘 표현했다.

수의를 찢어 끈을 만들고, 그 끈으로 목을 매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작품 내용에 비추어볼 때 제목이 주는 의미 또한 대단하다. 하지만 너무 절제한 나머지 문장의 생동감이 떨어지고, 그로인해 감동이 반감되는 아쉬움이 있다.

| 연희야, 다시 봄이다_윤정아 |

지독한 가난과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공통점을 연결 고리로 맺어진 교사와 제자의 관계를 밀도있게 그렸다. 간결한 문장으로 절망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희망과 생의 환희가 가슴 따뜻하다.

도입부의 불필요한 서술이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떨어뜨리고 사건 전개에 긴장감이 없어 흡입력이 부족하다.

| 예감_홍성호 |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수사기록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유는 범인을 잡는 순간이 너무 평이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작품 구성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선작에 넣은 것은 추리소설영역에 소질이 있어 보여서다. 사건을 박진감 있게 엮어내는 구성력만 높인다면 좋은 작품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동시 부문 |

이 상을 받음으로써 면허증이나 자격증과도 같은 문인이라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독창성과 참신성을 물론, 앞으로 동시를 잘 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많은 응모작 가운데서, 기성 작품을 답습한 듯해 새로움이 없는 작품이나, 관념적이거나 상투적인 이야기를 쓴 작품을 먼저 배제했습니다. 또 참신한 글을 쓰겠다는 욕심이 앞서 엉뚱한 발상이나 기교에 치중한 것도 골라냈습니다. 이런 예선 과정을 거쳐 남은 작품 중에서 두 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였고, 이 중 중복 선정된 작품만을 따로 뽑아, 동시의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동의 이해도, 문장의 간결성, 내용의 개연성, 표현의 단순화, 독자의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입상작품을 선정하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시를 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동시들을 정독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시는 어디까지나 시입니다. 따라서 동시 속에 시심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은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으며 그것을 어떻게 노래했느냐가 동시 속에 담겨있는 시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게 됩니다. 아울러 시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직유나 은유의 활용 능력, 리듬감, 주제 표현 능력 등도 시심을 가늠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지은이의 남다른 감각이 얼마만큼 뛰

어나스나가 동시의 우열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남다르게 보는 눈이라든가, 남다르게 듣는 귀, 남다르게 느끼는 마음이 느껴져야 차별화된 동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창의적인 동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동시의 특성에 맞게 얼마나 다듬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동시는 단순하고 깔끔하면서도 변죽을 울리듯이 지은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심을 깨워 환희에 차게 하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더 없이 좋은 동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동시란 결국은 지은이의 경험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은이의 경험에서 얻어진 소재나 주제여야 생명력 있는 동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머리에서 나온 동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좋은 동시를 써서 입상한 분들을 축하하며, 이번에 입상하지 못한 분들도 동시 쓰는 즐거움을 갖고 계속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김종상, 박성배

| 짝꿍 냄새_ 최만호 |

무엇을 보고 그와 관련된 다른 대상을 떠올리는 것을 연상이라고 하지요. 짝꿍 엄마를 보고 짝꿍을 연상했기 때문에 슈퍼에서 만난 짝꿍 엄마한테서 짝꿍 냄새가 나고, 목소리에도 짝꿍이 들어있습니다. 짝꿍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혈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우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울림이 있는 깔끔한 표현으로, 짧은 글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을 담아낸 글입니다.

| 얼마나 아팠을까_ 이정연 |

의료기계들이 입안에서 흔들리는 이를 치료하는 것을 중장비들이 흙을 파내고 땅을 뚫기도 하는 공사장과 비교했습니다. 이 치료하는데 마취를 해도 겁나고 아픈데 마취주사도 없이 흙을 파고 바위를 뽑아내는 공사판 땅은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자연의 현상을 나와 같은 입장에 두고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은 세상 모두를 아름답게 해줍니다. 썩은 이 치료에서 자연스럽게 공사장 기계들이 흙을 파 굽어내는 장면으로 전환하는, 확대 내지는 전이되는 생각의 흐름이 재미있습니다.

| 손짓_ 하상만 |

교사는 손으로 말하고 나는 눈으로 듣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하지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가 깊으면 표정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손짓에 내가 달려가는게 아니라 책가방도 신발주머니도 달려잡니다. 마구 흔들리며 달려간다는데서 비길 데 없이 큰 엄마의 사랑과 아이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 전편에 지은이가 하고 싶은 말이 거칠게 드러나지 않고, 잘 녹아있습니다.

| 어린이 도서관_ 오윤정 |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을 모두 읽고 싶습니다. 백설 공주를 읽으니 인어공주 생각이 나고, 홍길동을 고르고 보니 전우치도 읽고 싶습니다. 한 책을 읽으니 다른 책도 읽고 싶은 마음을 이 책을 고르니 저 책이 토라지네라고 책을 인격화해서 표현한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마무리가 군더더기 없이 산뜻합니다.

| 우리 누나_오정숙 |

누나는 나에게 대장노릇을 하는 잔소리꾼입니다. 하지만 TV리모컨을 쥐어주는 데서 부모가 안계시면 부모처럼 자상하게 돌보는 누나의 정을 알 수 있습니다. 남매간의 우애와 누나의 자상한 모습에서 참으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글입니다. 누나가 대장노릇을 하지만 은연중에 누나가 동생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과, 누나보다 키도 크고 힘이 세서 반항을 할 수 있지만 고분고분히 누나가 하지는 대로 따르는 동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동시입니다.

| 마지막 수화_이우식 |

수화로만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전학을 가던 날, 서로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정을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내용 속에 담긴, 사람들의 참다운 의사소통이란 꼭 소리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지은이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는 동시입니다.

| 두 나라를 사랑하는 엄마들_하송 |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주민자 수가 15만 명이 넘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도 13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입니다. 나라와 뿌리가 각각인 엄마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두 나라를 사랑하는 엄마들이라는 주제의식 속에 내 엄마와 똑같은 엄마임을 깨달아가는 동시의 흐름이 좋습니다.

동화 부문 |

제14회 공무원 문예 대전에 응모한 동화 작품은 총 70편으로서 그 중 교사(원)의 작품이 35편, 비 교사(원) 작품이 35편이었다. 이 응모 작품을 심사규정에 따라 양분하여 예비 심사에서 교사 작품과 비 교사 작품 중에서 각각 5편씩 모두 10편을 본선에 올리기로 했다. 본선에 오른 작품을 윤독한 후에 최종 6편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4편은 후보작으로 남기기로 하였다. 그 중 상위 6편을 다시 읽어 마지막으로 금상, 은상, 동상의 순위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두 심사위원의 예선을 거친 후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이름 없이 자란다.’, ‘나무 똥’, ‘할머니의 비밀’, ‘똑똑한 똥똥이의 반성’, ‘백조가 시는 뉘시터’, ‘순덕이’, ‘정미의 자리’, ‘부리리의 여행’, ‘은하철도 999’, ‘백제의 미소’ 등 총 10편이었다.

이 작품들을 내용의 예술성 및 교육성, 소재 선택의 신선도, 작품의 조직력, 문장 표현력, 마지막으로 문학 작품으로서 감동의 정도를 갖대로 정하여 심사했다. 이 10편중에서 다시 뽑힌 작품은 교사 작품 중 ‘백조가 시는 뉘시터’, ‘부리리의 여행’, ‘은하철도 999’ 등 3편이었고 비교사 작품은 ‘이름 없이 자란다’, ‘할머니의 비밀’, ‘백제의 미소’ 등 3편이었다.

이 여섯 편중에서는 교사 작품과 비 교사 작품을 구분하지 않고, 작품성을 중심으로 하여 마지막 순위인 금상 1편, 은상 1편, 동상 4편을 아

래와 같이 선정하였는데 최종 심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금상으로 결정된 작품은 ‘부리리의 여행’이다. 이 작품은 환상동화로서 부리리가 선천적으로 날개의 뼈가 작아 날지 못하는 데 엄마 새와 형제들이 나뭇잎 양탄자를 만들어 진료에 용하다고 소문난 푸랑 아저씨를 찾아서 나무막대를 만들어 치료를 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영구적이지 못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부리리는 독립하면서 노란 새와 여행을 떠나나 오래 날기 위해 먼 길을 걸기로 한다. 노란 새가 적극 협력하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내용의 주제로 담겨 있어 독자에게 감동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어려운 자식이나 이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삶을 주제 정신으로 하는 점이 뚜렷하여 시사점이 강하게 담겨진 이야기이다.

은상으로 뽑힌 작품은 ‘백제의 미소’는 소재를 우리 것에서 택해 바람직하며, 내용도 새롭게 생성하려 하고 있다.

백제가 멸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백제인의 미소를 그리려고 하는 이야기로서 구성력이 확실하고 주제 설정도 돋보이나 의미가 밖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다음 동상으로 결정된 작품들은 각각 ‘백조가 사는 낚시터’, ‘은하철도 999’, ‘할머니의 비밀’, ‘똑똑한 똥똥이의 반성’ 네 동화 작품이다. 이 작품들 또한 각각 감동적인 면이 엿보이는 가작들이었다.

그밖에 선에 들지 못한 작품들도 우수한 면이 엿보였으나 규정에 의해 선에 올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뽑힌 작품이나 그렇지 못한 작품을 쓰기 위해 애쓴 응모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안재식, 김영훈

| 부리리의 여행_ 김연화 |

환상동화로서 부리리가 선천적으로 날개의 뼈가 작아 날지 못하는 데 엄마새와 형제들이 나뭇잎 양탄자를 만들어 진료에 용하다고 소문난 푸랑 아저씨를 찾아서 나무막대를 만들어 치료를 가하나 영구적이지 못함.

이에 굴하지 않고 남아서 노란 새와 여행을 떠나나 부리리는 오래 날기 위해 먼 길을 걷기로 하는 데 노란 새가 적극 협력하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내용의 주제로 담겨 있어 독자에게 감동적으로 생성되고 있음.

어려운 자식이나 이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삶을 주제 정신으로 하는 점이 뚜렷하여 시사점이 강하게 담겨진 이야기임.

| 백제의 미소_ 오병훈 |

소재를 우리 것에서 택해 바람직하며, 내용도 새롭게 생성하려 하고 있음.

백제가 멸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백제인의 미소를 그리려고 하는 이야기로서 구성력이 확실하고 주제 설정도 돋보이나 의미가 밖으로 드러남. 대화체 중심임의 문장 표현이 좀 약해 감동이 덜하고 단락구성도 안 되었음.

| 똑똑한 똥똥이의 반성_ 강경련 |

환상동화로서 주인공 똥똥이의 심부름 과정을 다룬 유아 동화로서 아이의 생각을 익살스럽게 다루면서 재미를 주는 면에서는 일단 내용이 신선함.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심부름을 한 두 에피소드를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주제 의식이 있음.

문장의 호흡이 짧아 문체의 간결성 면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문장 쓰기가 돋보임.

| 백조가 사는 낚시터_심진규 |

장애인을 동생으로 둔 주인공 ‘나’를 관찰자 시점으로 하여 펼쳐지는 내용의 동화로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족관계에서 낚시터 아저씨의 아들의 장애이야기로까지 번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주제로 선명하게 해주는 구성을 한 작품임.

‘장애인’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자는 주제를 담는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점이 강하며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임.

문장 표현이 돋보이며 간결하고도 감동적이며 인물의 성격 창조가 확실함.

함께 응모한 두 작품 ‘엄마의 사진’, ‘우리 아빠예요.’도 아동설로서의 내용이나 조직, 표현 면에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작가적 역량이 보임.

| 은하철도 999_이수남 |

잘 난채 하는 준석과 장애우 창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각 장마다 에피소드로 삽입되면서 독자를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음.

작품의 내용 생성이 자연스러워 흥미를 주면서도 특히 구성력이 뛰어나 이야기의 흐름에 무리가 없고, 우정을 주제로 다룬 메시지 전달 면에서 의미가 있음.

문장이 간결하며 명료하고 호흡이 짧아 주 독자인 어린이에게 적절함.

| 할머니의 비밀_최만호 |

문맹의 할머니가 며느리의 도움으로 한글을 해득하는 과정이 소년

딸의 궁금증과 잘 연결된 작품으로 흥미도가 매우 높음.

할머니의 한글해득 과정을 보면서 주인공이 오카리나 연주를 위한 연습을 강화하는 내용이 독자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고 감동을 줌.

동화 내용에 담긴 주제 의식이 강해 독자에게 의미 전달도 분명함.

희곡 부문

희곡은 극문학으로서 공연을 전제로 해서 창작되는 문학의 장르이다. 그래서 희곡을 창작하기에 앞서 작품이 공연될 무대의 조건을 충분히 섭렵하고, 기술적으로 한 장면 한 장면을 써 나가야 한다.

대체적으로 제출된 작품이 공연과 문학의 두 양식을 소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기에 절제된 대화체 언어로 꾸려 나가야 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주제에 대한 에피소드의 나열은 플롯이란 구성의 방법에 따라 결말을 유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작가들은 무수한 장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희곡 창작의 난제라고 본다.

‘울챙이’는 도시주변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초임교사가 겪는 교직의 부조리와 병폐를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에피소드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가는 듯하지만 교육적 메시지는 일선 교육계를 향하고 있다. 어른들의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을 아이들이 기르던 울챙이의 이유 없는 죽음의 원인을 찾아가는 비유는 특별한 대비의 결과이다. 그러나 암전을 자주하는 것은 극의 흐름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법의 시계’는 희곡으로서 읽기와 공연으로서의 무대 감각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작품이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주부 건망증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무리 없이 구성하였고 스토리 전개가 무난하며, 메시지 전달도 성공적이다. 단, TV 드라마처럼 장면을 많이 바꾸는 혼란스러움은 아마추어가 빠지기 쉬운 허점이다.

‘레일 위에서’는 다루려는 주제가 어렵고 형이상학적이라 아마추어 작가가 소화하기에는 힘이 부친 내용이지만 무난한 상징과 표현기법으로 작가의 상상력으로 힘든 결말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희곡을 잘 알고 창작했다는 것에 가점을 준 작품이다.

선외의 작품 중 ‘도깨비가 된 사내’는 과수택을 놓고 벌이는 두 남자의 도깨비 해프닝이 너무 흥미 본위로 흐른 아쉬움이 있다. ‘206호 남자’는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며 주인공의 심리세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출품한 작품들은 희곡의 기본을 지키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선외의 작품 중에도 창작훈련을 통하여 같고 다듬어져 옥석이 될 만한,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는 작품이 발견되는 것은 향후 희곡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곽노홍, 오태영

| 올챙이_우혜선 |

교육현장의 쓴 소리를 주제를 삼고 있는 이 작품은 메시지의 전달과 구성이 희곡의 특성을 잘 간파하고 있으며 아동극으로서의 범주를 벗어나 교장과 장학사, 부장교사 등 교육계 부정적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는 현실감과 올챙이와의 대비에 생명력이 있다.

그러나 김 교사가 올챙이 어항을 과감히 깨쳐버리고 교단을 떠날 때, 그 전까지 웅집되어 있어야 할 점진적 갈등의 구도가 일순에 깨지는 것이 너무 작위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 마법의 시계_정수현 |

소재의 평범성에 비하여 기발한 착상으로 주부 건망증을 극복해 가는 과정과 방법이 매우 참신하다. 구성 및 스토리 전개도 무난하며, 메시지 전달도 성공적이다. 튀지 않는 대사와 템포, 등장인물과 장면의 자연스런 연결과 종결부의 마법의 시계, 은유는 독특하다. 그러나 TV드라마처럼 장면을 많이 바꾸는 혼란스러움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다. 대사의 활자도 읽기 쉬운 글자체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레일 위에서_이종수 |

지하역을 무대로 부정적 세상과 긍정적 세상이 레일을 사이로 대립해 있는 설정과 상징과 표현기법이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에 다루려는 주제가 부담스럽고 형이상학적이다. 작가의 상상력이 풍부한 만큼 희곡의 형식과 구성이 무리 없이 갖춰졌다. 긍정적 세상을 열어가는 상징으로서의 네온하트가 반짝이는 종결부는 인상적이다. 문제는 주도적으로 전달하려는 오아시스가 쉽게 와 닿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묵묵히 현실을 견뎌나가는 당신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당신의 처진 눈매도, 하품을 할 때 아래위로 길게
늘어뜨리는 입모양도, 언제나 입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어 웃는 느낌이 드는 당신의 얼굴도,
그 모든 게 나에겐 고통이었어.

